

2018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수업적용 사례집



| 중국 장보고전기관
| 중앙에 있는 장보고 동상

張保皋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수업 적용 사례집〉

발간사



9세기 한반도를 동아시아의 무역과 경제의 중심지로 만든 해상왕 장보고는 지금의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위업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한국해양재단은 해상왕 장보고가 역사와 기록 속에 갇힌 과거의 인물이 아닌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향한 해양국가의 사표가 되는 인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보고 재조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의 초·중·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는 선생님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장보고 정신을 알리고 이를 국민문화로 확산시키는데 있습니다.

이 책은 올해 답사에 참여했던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을 실제 학교 수업에 적용한 사례를 공모한 것으로 그 중 우수작 12편을 엄선하여 책자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수업 적용 사례집인 만큼 해상왕 장보고와 해양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많은 선생님들에게도 관련 수업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해상왕 장보고의 현대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미래 해양의 가치를 되새김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답사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과 폭염 속에서 열의에 찬 강의를 해주신 인솔교수님, 그리고 답사를 함께 해주신 해양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재)한국해양재단
이사장 이재완

Contents

목차

I 최우수	‘해상왕 장보고’창의융합 수업사례안 성남동초등학교 임정연 선생님	005
II 우수	장보고 답사 공개수업 교수·학습 과정안 광주 제일고등학교 김현수 선생님	021
	고전 읽기를 통한독서과 교수·학습 과정안 울산 세인고등학교 이종무 선생님	033
	장보고 관련 수업 지도안 적용 사례 충북 단양고등학교 한봉석 선생님	051
III 장려	장보고 답사 수업 적용 지도안 - 왜 장보고를 바다의 왕자라고 부를까? 세종 온빛초등학교 김규정 선생님	091
	장보고 수업적용사례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박지혜 선생님	113
	해신 「BCG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꿈 공감력 함양 용인 이동초등학교 오영숙 선생님	127
	국어과 교수·학습 계획 부산 재송중학교 유영미 선생님	139
	한국사과 본시 교수 - 학습 과정 안 전남 화순고등학교 이대석 선생님	161
	장보고 답사 전 수업 활용 계획 지도안 전주 양현고등학교 이영기 선생님	213
장보고 유적지 답사 수업 적용 계획 대구 제일중학교 전미옥 선생님	233	
장보고 답사 수업 적용 지도안 -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요 옥천 죽향초등학교 최옥영 선생님	245	

I 최우수

'해상왕 장보고'창의융합 수업사례안
성남동초등학교 임정연 선생님

005

‘해상왕 장보고’창의융합 수업사례안

성남동초등학교 임정연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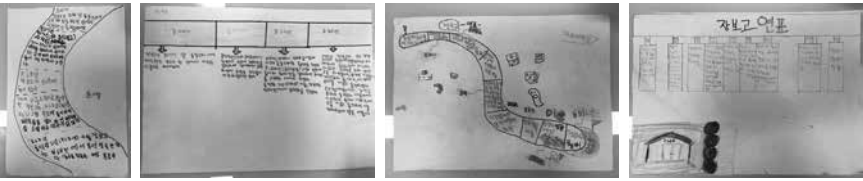
초등학교 5학년 2학기때부터 아이들은 역사를 공부하게 된다. 2학기 시작 무렵 아이들에게 ‘역사를 왜 공부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다. 아이들의 대답은 대부분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대학을 가야 하니까’, ‘자격증을 따려고’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역사를 가르치는 이유를 ‘역사를 통하여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해주었다.


2018년 장보고 유적 답사를 통하여 나는 장보고라는 인물을 주제로 시대적 배경과 인물의 업적뿐만 아니라 해양문화의 가치, 문화를 전파하고 창출하는 교역의 중요성, 미래에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까지 배울 수 있었다. 답사를 통한 배움을 바탕으로 나는 아이들과 함께 장보고라는 인물을 재평가해보고, 그의 삶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역사적 가치를 찾고, 우리의 삶에 녹여낼 수 있도록 수업을 재구성해보았다.

수업의 세부목표는 크게 ‘장보고를 알자’, ‘장보고를 느끼자’, ‘장보고가 되자’로 나뉜다. 다양한 교과와 연계한 창의융합수업으로 장보고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알아보고, 체험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목표에 따른 학습주제는 아래와 같다.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목록

세부목표	차시	활동 주제	연계과목	자료 및 비고
장보고를 알자	1	(사진자료분석) 장보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픽토그램을 활용한 연표만들기	사회	
	2	(전문가협력, 하브루타) 장보고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 이해하기.	사회	활동지 첨부
	3~4	(역사토론) 신라는 왜 장보고를 암살하였는가.	국어	교과연계를 위하여 10월 수업예정
장보고를 느끼자	5	(노래가사바꾸기) 장보고가(歌) 만들기	음악	
	6~7	(여가계획) 장보고의 발자취를 느낄 역사 여행계획 세우기.	체육	교과연계를 위하여 10월 수업예정
장보고가 되자.	8~9	통일신라시대에 판매할 물건 만들고, 상인이 되어 판매해보기.	미술, 사회	
	10~11	(진로교육) 해양과 관련된 직업 알아보기.	창체 (진로)	


연계 교과	사회(역사영역)	성취 기준	역6015. 유물과 유적을 통해 삼국, 통일 신라와	대상	5학년
			발해 시기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차시	1/11
활동 주제	(사진자료분석) 장보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픽토그램을 활용한 연표만들기				
학습 목표	1. 사진자료를 보고, 장보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유추해볼 수 있다. 2. 인터넷으로 조사후, 픽토그램을 활용한 장보고 연표 만들기를 할 수 있다. 3. 연표만들기 후에, 보여준 사진자료 중 어느 시대와 관련있는지 연결해본다.				
수업 모형	사료학습모형	학습 조직	개별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선생님의 여름방학 답사 기행기 · 장보고 중국 유적 답사 사진을 보여주며, 무엇인지 유추하게 한다. S: 불상이요/장군동상이요/절이요/바다요. · 사진과 장보고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유추해봅시다. S: 동상이 장보고를 보고 만든 동상 같습니다./장보고가 세운 절 같습니다. T: 오늘은 장보고에 대하여 알아보고, 연표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 답사때 찍은 사진 ※ 사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준다.	
장보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표만들기					
개별 경험 인식 하기 · 경험의 확산 · 직접 탐구	■ 장보고에 대하여 알아보기. · 장보고의 유년시절, 청년시절, 중년시절, 노년시절로 나누어 알아보기. ■ 연표 만들기 ·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넷검색을 통하여 자료를 조사 후, 연표만들기.			▶ 설명 PPT ▶ 형식없는 연표학습지	
<활동 사진> 					
정리	■ 연표 만들고 난 후 느낀 점 발표하기. · 연표에 대한 내용 발표하고, 느낀 점 발표하기. S: 장보고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S: 해적소탕뿐만 아니라 불교문화전파에 앞장섰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 차시 예고 · 다음시간에는 장보고가 살았던 시대인 통일신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통일신라에 대하여 조사해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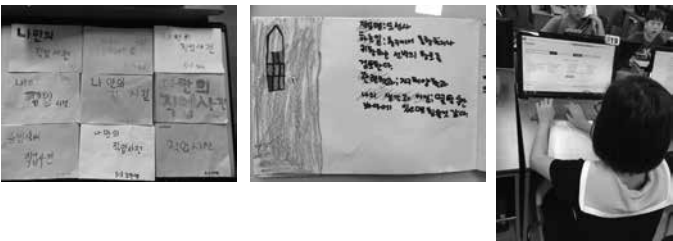
연계 교과	사회(역사영역)	성취 기준	역6015. 유물과 유적을 통해 삼국, 통일 신라와	대상	5학년
			발해 시기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차시	2/11
활동 주제	장보고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신라시대의 유물로 이해하기.				
학습 목표	1. 장보고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각 모둠원이 나누어 전문가집단을 만들어 나눠준 유물자료로 공부한다. 2. 자기 모둠으로 돌아가서 각자 맡은 부분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을 한다. 3. 비주얼씽킹학습지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발표할 수 있다.				
수업 모형	전문가협력학습모형	학습 조직	개별→모둠→개별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신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발표하기. · 통일 신라와 관련된 사진을 보여주며, 어떤 것인지 발표해본다. S: 에밀레종입니다./불상입니다./절입니다. · 경주에 가본 경험 이야기해보기. S: 불국사를 가 보았습니다./국립경주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T: 유물과 유적을 바탕으로 통일신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알아봅시다.			▶ 사진PPT	
통일신라의 유물을 통하여 시대적 배경이해하기					
전문가 활동 · 모집단 소집 · 자율 학습	■ 전문가협력집단 학습하기. · 모둠원이 각자 통일 신라의 어떤 유물을 공부할지 정하기. · 전문가협력집단을 만들어 맡은 부분을 공부하기. ■ 모집단 하브루타 수업 · 모집단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공부했던 내용을 모둠원에게 설명하기. · 나머지 모둠원은 3개씩 질문만들어서 질문하고 답변 듣기. ■ 배운 내용을 비주얼 씽킹 학습지에 정리하기. · 비주얼 씽킹 학습지에 새롭게 알게 된 점을 그림과 글로 정리한다.			▶ 모둠별 설명자료 ▶ 비주얼 씽킹 학습지 (첨부1)	
<활동 사진> 					
정리	■ 정리하기 · 오늘 배운 후 느낀 점 발표하기. S: 삼국시대 중 유일하게 불교인정을 위한 순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S: 왕이라고 불리기전에 다른 이름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 차시 예고 · 다음시간에는 역사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계 교과	국어 (듣기, 말하기)	성취 기준	국1615-3. 토론의 논제에 대하여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토론할 수 있다.	대상	5학년
				차시	5/11
활동 주제	(역사토론) 신라는 왜 장보고를 암살하였는가?				
학습 목표	1. 장보고라는 인물이 한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볼 수 있다. 2. 토론주제에 알맞은 의견을 내고, 남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 3. 토론결과를 학습지에 잘 기록할 수 있다.				
수업 모형	토의토론학습모형	학습 조직	개별→모둠→개별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한국사를 빛낸 100명의 위인 노래 부르기. · 노래에 나오는 가사에 어떤 위인이 나오는지 이야기해본다. S: 세종대왕/이순신/김구 · 장보고를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이야기하기. S: 바다의 왕자라고 설명합니다. T: 바다의 왕자의 끝은 어떠하였나요? 장보고는 왜 암살을 당할 수 밖에 없었는지 토론하여 봅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신라는 왜 장보고를 암살하였는가?</div>		▶ 노래파일 ※ 장보고의 암살은 장보고 자신에게 이유가 있는지, 외부에 이유가 있는지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주제 확인 · 토론 준비 · 토론 하기 및 평가	■ 토론 주제를 이해하고 자신의 논점 정리하기. · 학습지에 토론 주제를 이해하고, 자신의 논점과 근거를 잘 정리하기. ■ 역사토론 · 장보고를 암살해야 했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나누어 토론하기. · 사회자와 찬, 반의 역할을 나누어 주어진 시간에 맞게 토론하기 · 토론이 끝난 후, 평가의 시간을 갖는다.		▶ 토론준비학습지 (첨부2) ▶ 토론평가학습지 (첨부3)		
정리	■ 정리하기 · 토론을 통하여 느낀 점이나 자신의 생각 발표하기. S: 왕권강화를 위해서 암살이 이루어졌음을 알았습니다. S: 장보고는 왕권강화를 위한 희생양인 것 같습니다. ■ 차시 예고 · 다음시간에는 장보고가(歌)를 만들어봅시다. · 어떤 노래로 바꿀지 생각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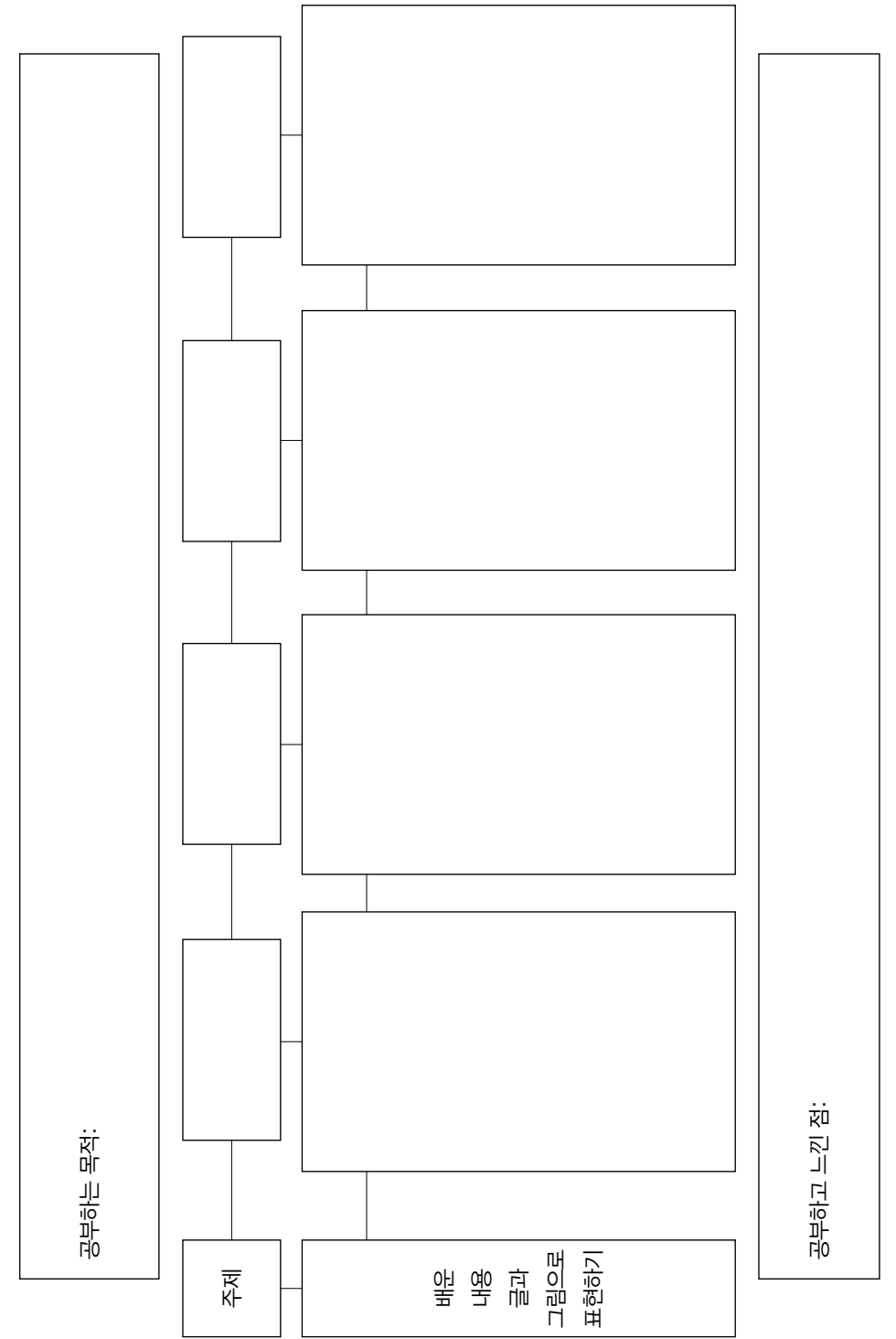
연계 교과	음악 (창작)	성취 기준	음6131. 상황이나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다.	대상	5학년
				차시	3-4/11
활동 주제	(노래가사바꾸기) 장보고가(歌) 만들기				
학습 목표	1. 장보고라는 인물이 잘 드러나게 노래가사를 바꿔쓰고 부를 수 있다. 2. 가사에 알맞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수업 모형	창작중심모형	학습 조직	개별→모둠→개별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음악적 분위기 조성	■ 동기유발: 장보고와 관련된 마인드맵 그리기 ·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장보고를 나타내는 키워드를 마인드맵으로 그려낸다. S: 통일신라/당나라/장군/해상왕/무역/해적소탕/완도/청해진 등 ·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만든 노래를 소개한다. T: 무한도전 역사음악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윤동주, 이순신 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장보고가(詞) 만들기</div>		▶ 역사인물관련 노래동영상		
가사 바꾸기 · 그림 그리기 · 평가	■ 모둠별로 장보고 가 만들기 · 키워드를 중심으로 노래가사바꾸기 활동을 한다. ■ 바꾼 노래와 어울리는 그림 그리기. · 시화전과 같이 노래가사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고 발표한다. ■ 모둠별로 바꾼 노래를 감상하고 평가해본다.(모둠별 평가)		▶ 모둠별 학습지 ▶ 색연필, 싸인펜		
정리	■ 정리하기 · 장보고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 S: 유튜브에 장보고가를 부른 것을 녹화하여 올려봅니다. S: 장보고 기념관에 찾아가서 더 많은 것을 알아봅니다. ■ 다음 차시 예고 · 다음시간에는 장보고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여행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연계 교과	체육 (여가)	성취 기준	체6512. 생활 주변이나 야외에서 실시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창의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대상	5학년
				차시	6-7/11
활동 주제	(여가계획) 장보고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역사여행계획 세우기.				
학습 목표	1.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나와 있는 해양지도를 잘 그릴 수 있다. 2. 장보고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여행계획을 잘 세울 수 있다.				
수업 모형	탐구학습모형	학습 조직	개별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여행 다녀온 경험 나누어보기. · 여행지에 본 것과 들은 것, 배운 것 발표하기. S: 무령왕릉에 가서 백제의 문화재를 보고 왔습니다. S: 경주에 가서 신라시대의 유물을 보고 왔습니다. · 여행계획 세우는 방법 알기. S: 갈 장소를 정하고, 거리에 따라 갈 순서를 정합니다. T: 오늘은 장보고의 발자취를 알아볼 수 있는 역사여행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보고 유적답사 계획표 ※여름에 다녀온 유적답사계획서를 참고로 보여주면서 어떻게 여행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설명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장보고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역사여행계획 세우기.</div>					
전개	■ 해양지도 그리기. · 사회과부도를 보면서 OHP필름지에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잘 드러나게 지도를 그린다. ■ 여행갈 장소를 정하고 계획표 만들기. · 그린 지도에 갈 장소를 표시한다. · 장소에서 볼 것, 활동할 것을 계획표로 만든다. ■ 여행계획 평가하기.(동료평가) · 친구들의 여행계획을 들어보고, 함께 하고 싶은 여행에 스티커를 붙인다.			▶OHP필름, 네임펜, 사회과 부도 ▶여행계획표 학습지 ▶스티커	
정리	■ 정리하기 · 여행계획표를 만들어보고 느낀 점 발표하기. S: 나중에 가족들과 이 여행계획대로 여행을 가보고 싶습니다. ■ 차시 예고 · 다음시간에는 상인이 되어 판매할 물건 만들고, 판매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통일신라시대에 판매할 물건 생각해오기.				

연계 교과	미술, 사회	[통합] 성취 기준	미6312. 우리나라 미술의 시대별 특징과 변천 과정을 안다. 사6024-1 우리나라가 국제 거래를 통해 다른 나라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대상	5학년
				차시	8-9/11
활동 주제	통일신라시대에 판매할 물건 만들고, 상인이 되어 판매해보기.				
학습 목표	1. 통일신라시대에 수출을 많이 하였던 물건을 알아보고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만들 수 있다. 2. 상인이 되어 만든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판매활동을 해본다.				
수업 모형	창의적 문제해결모형	학습 조직	개별→모둠→개별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1학기 때 배운 시장과 경쟁 떠올리기. · 1학기 때 했던 무역게임에 대하여 발표해보기. S: 각 나라에 없는 자원이 있어서 서로 무역을 해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 통일신라 때 많이 수출하였던 물건이 무엇이었나요? S: 도자기입니다/인삼입니다./신라칼입니다./금관입니다. T: 오늘은 모듬별로 신라상인이 되어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는 활동을 해봅시다.			▶사진자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통일신라시대에 판매한 물건 만들고, 상인이 되어 판매해보기.</div>					
아이디어 탐색 · 정교화 · 적용 및 검토, 평가	■ 물건 만들기 · 판매할 물건을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만든다. ■ 판매하기. · 모듬별로 홍보 포스터를 만들고 판매를 한다. · 개별적으로 금화 10개씩을 준다.(사탕으로 대신함) ■ 정산하기. · 가장 많이 판매한 모듬의 전략을 알아본다.			▶재료 (색종이, 고무찰흙, 가위, 풀, 수수깡 등) ▶사탕	
<활동사진> 					
정리	■ 정리하기 · 활동을 한 후 느낀 점 발표하기. S: 통일신라 때의 수출품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 차시 예고 · 해양관련 직업에 대하여 알아보기.				

연계 교과	창체 (진로활동)	성취 기준	ES11 자신의 관심있는 직업을 10가지 이상 고르고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직업사전(하는 일, 되는 방법)을 만들 수 있다.	대상	5학년																																																																		
				차시	10-11/11																																																																		
활동 주제	(진로교육) 해양과 관련된 직업 알아보기.																																																																						
학습 목표	1. 해양교육포털을 이용하여 해양과 관련된 직업을 알아볼 수 있다. 2. 나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볼 수 있다.																																																																						
수업 모형	조사학습모형	학습 조직	개별→모둠→개별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직업만족도 2위의 직업이 무엇일까? · 직업만족도 조사표를 보며, 생소한 직업에 대하여 알아보니다. T: 도선사라는 직업이 직업만족도 2위네요. 혹시 도선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발표해봅시다. · 해양 관련 직업에 대하여 발표해봅시다. S: 해양경찰/어부/도선사/해양연구원 T: 오늘은 해양교육포털사이트를 활용하여 해양관련 직업사전을 만들어봅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해양과 관련된 직업 알아보기.</div>			▶ 직업만족도 순위표 만족도가 높은 직업 20개 (40점 만점) <table border="1"> <thead> <tr> <th>순위</th> <th>직업</th> <th>점수</th> <th>순위</th> <th>직업</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1</td> <td>회사</td> <td>33.56</td> <td>11</td> <td>연료전지개발 및 연구자</td> <td>31.97</td> </tr> <tr> <td>2</td> <td>도선사</td> <td>33.07</td> <td>12</td> <td>외환승리</td> <td>31.88</td> </tr> <tr> <td>3</td> <td>회사</td> <td>33.03</td> <td>13</td> <td>방사선연구원</td> <td>31.79</td> </tr> <tr> <td>4</td> <td>대학교정장(역사)</td> <td>32.94</td> <td>14</td> <td>항공기조종사</td> <td>31.61</td> </tr> <tr> <td>5</td> <td>전기(전자)기술사</td> <td>32.93</td> <td>15</td> <td>번역사</td> <td>31.47</td> </tr> <tr> <td>6</td> <td>조형학교정장(교과)</td> <td>32.73</td> <td>16</td> <td>지침학연구원</td> <td>31.43</td> </tr> <tr> <td>7</td> <td>번역사</td> <td>32.63</td> <td>17</td> <td>조형학교사</td> <td>31.42</td> </tr> <tr> <td>8</td> <td>교수</td> <td>32.49</td> <td>18</td> <td>관제항공사무원</td> <td>31.40</td> </tr> <tr> <td>9</td> <td>원자력공학기술자</td> <td>32.43</td> <td>19</td> <td>항공무기공학연구원</td> <td>31.33</td> </tr> <tr> <td>10</td> <td>사무사</td> <td>32.38</td> <td>20</td> <td>발전설비기술자</td> <td>31.33</td> </tr> </tbody> </table>		순위	직업	점수	순위	직업	점수	1	회사	33.56	11	연료전지개발 및 연구자	31.97	2	도선사	33.07	12	외환승리	31.88	3	회사	33.03	13	방사선연구원	31.79	4	대학교정장(역사)	32.94	14	항공기조종사	31.61	5	전기(전자)기술사	32.93	15	번역사	31.47	6	조형학교정장(교과)	32.73	16	지침학연구원	31.43	7	번역사	32.63	17	조형학교사	31.42	8	교수	32.49	18	관제항공사무원	31.40	9	원자력공학기술자	32.43	19	항공무기공학연구원	31.33	10	사무사	32.38	20	발전설비기술자	31.33
순위	직업	점수	순위	직업	점수																																																																		
1	회사	33.56	11	연료전지개발 및 연구자	31.97																																																																		
2	도선사	33.07	12	외환승리	31.88																																																																		
3	회사	33.03	13	방사선연구원	31.79																																																																		
4	대학교정장(역사)	32.94	14	항공기조종사	31.61																																																																		
5	전기(전자)기술사	32.93	15	번역사	31.47																																																																		
6	조형학교정장(교과)	32.73	16	지침학연구원	31.43																																																																		
7	번역사	32.63	17	조형학교사	31.42																																																																		
8	교수	32.49	18	관제항공사무원	31.40																																																																		
9	원자력공학기술자	32.43	19	항공무기공학연구원	31.33																																																																		
10	사무사	32.38	20	발전설비기술자	31.33																																																																		
주제 인식 · 개별 탐구 · 심화	■ 해양교육포털을 활용하여 해양과학·연구, 해운·항만·조선, 해양교육, 해양레저·관광분야별 직업을 조사하기. · 해양교육포털 직업소개란에 나와 있는 직업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관심있는 직업을 조사하고 사전을 만든다. ■ 해양역사인물(선택활동) · 사전을 다 만든 사람은 해양역사인물란에 들어가서 해양관련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 알아본다.			▶ 직업조사 학습지 ※ 해양교육포털에 접속해서 다양한 자료를 찾아서 조사해본다.																																																																			
	<활동사진> 																																																																						
정리	■ 정리하기 · 직업사전을 만들고 느낀 점 발표하기. S: 해양 관련한 다양한 직업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남동초등학교	5학년 3반 ()번
	이름 : ()
주제: 연표를 통하여 인물의 역사를 알기.	
성남동초등학교	과목 : 사회



6단 논법으로 자신의 생각 정리하기

성남동초등학교 5학년 3반 ____ 번 이름 : _____

주 제	
나의 입장	
이 유	
설 명 (근거자료 이용하기: 속담, 설문, 통계 전문가의견 등)	
	근거 자료의 출처:
상대방의 주장 예상	
나의 반론	
주장 다지기	<p>▶ 반박의 내용을 첨가하여 마지막 주장을 적습니다. 1) 판정인이 마지막 결정하기 전 최종적으로 주장을 펼칩니다. 2)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판정인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3) 반론 및 주장 펼치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적습니다.</p> <p>주장과 근거를 한꺼번에 이어쓰기: 저는</p>

진행 순서	평가 항목	찬성편	반대편
◆시작하기	• 토론자들은 모두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주장 펼치기	• 목소리 크기나 빠르기는 적당한가?		
	•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적절한가?		
	• 근거 자료는 충분히 조사하고 준비하였는가?		
	• 장난스럽지 않고,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는가?		
◆1차 협의	• 모둠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의 참여하는가?		
◆반론/답변	• 의미 있는 반론을 하는가?		
	• 반론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는가?		
	• 모둠원 모두가 골고루 발언을 하는가?		
	•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투를 사용하는가?		
◆2차 협의	• 모둠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의 참여하는가?		
◆최종변론	• 주장과 근거가 적절한가?		
	• 목소리의 크기나 빠르기는 적당한가?		
	• 주어진 시간을 잘 지키는가?		

* 점수는 10점, 9점, 8점, 7점, 6점을 줄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평가 항목	찬성편	반대편
◆시작하기	• 토론자들은 모두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주장 펼치기	• 목소리 크기나 빠르기는 적당한가?		
	•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적절한가?		
	• 근거 자료는 충분히 조사하고 준비하였는가?		
	• 장난스럽지 않고,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는가?		
◆1차 협의	• 모둠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의 참여하는가?		
◆반론/답변	• 의미 있는 반론을 하는가?		
	• 반론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는가?		
	• 모둠원 모두가 골고루 발언을 하는가?		
	•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투를 사용하는가?		
◆2차 협의	• 모둠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의 참여하는가?		
◆최종변론	• 주장과 근거가 적절한가?		
	• 목소리의 크기나 빠르기는 적당한가?		
	• 주어진 시간을 잘 지키는가?		

* 점수는 10점, 9점, 8점, 7점, 6점을 줄 수 있습니다.



II 우수

장보고 답사 공개수업 교수 · 학습 과정안 광주 제일고등학교 김현수 선생님	021
고전 읽기를 통한 독서과 교수 · 학습 과정안 울산 세인고등학교 이종무 선생님	033
장보고 관련 수업 지도안 적용 사례 충북 단양고등학교 한봉석 선생님	051

장보고 답사 공개수업 교수 · 학습 과정안
광주 제일고등학교 김현수 선생님

〈장보고 답사 공개수업 교수·학습 과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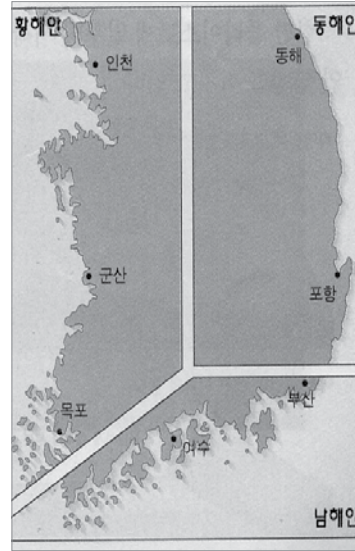
일시	2018년 9월 20일 목요일 2교시		대상	3-3	장소	3-3교실	교사	김현수
단원	II 세계의 다양한 자연환경 1. 동아시아의 해양환경과 해상왕 장보고의 활약		차시	1/1	수업 모형	문제 해결 학습 모형	수업 형태	개별 학습 및 모둠 학습
교육 과정 재구성	<p>1. 핵심 성취 기준에 따른 교과별 교육과정 재구성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지 1226 해안지형을 설명하고 해안지형의 이용과 문제점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 해양환경의 중요성과 개발을 고대 장보고 활약시기에 맞추어 고찰하고 현재와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 해상왕 장보고의 중국유적지를 살펴보고 답사지의 특징을 이야기 할 수 있다. <p>2. 학습 주제와 관련되는 여러 교과 내용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비상교육 53쪽): 동아시아의 해상 왕 장보고, 바다를 지배하다. 장보고의 성장과정을 신라 말의 상황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장보고가 청해진을 통해 해상권을 장악한 사실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 • 한국지리: 해안지형중 남해안의 다도해의 해양조건을 통한 완도의 지정학적 위치 특징을 알아본다. • 세계지리: 해안지형의 특징을 설명하고 해양 환경의 중요성과 1200여년 전 동아시아 바다를 무대로 해상무역항로를 개척하고 제해권을 장악했던 장보고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그가 가졌던 웅대한 개척정신과 해양민족의 기상을 배우고자 한다. • 진로: 바다와 관련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해군사관학교와 해양대학의 진로를 찾아보고 도움을 준다. 							
학습 목표	<p>1. 해안지형의 특징을 살펴보고 해양의 중요성과 개발의 영향을 확인하고 발표 할 수 있다.</p> <p>2. 해상왕 장보고의 성장과정과 그가 꿈꾸었던 해상왕국의 바다를 지배한 과정과 범위를 알 수 있다.</p>							
매체	교사				학생			
	한국사, 세계지리 교과서, 지리부도, 답사책자, 활동지, 평가지							
지도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 사			학 생			
도입	전시학습 확인	하천지형의 영향을 파악하고 하천 지형 개발의 주요 사례지역을 확인하고 설명한다.			하천지형의 개발지역을 찾아보고 타 지역과의 차이를 비교하고 설명 할 수 있다.			학습목표 인지 및 개별 탐구학습
	학습목표 제시	1. 해안지형의 특징을 살펴보고 해양의 중요성과 개발의 영향을 확인하고 발표 할 수 있다. 2. 해상왕 장보고의 성장과정과 그가 꿈꾸었던 해상왕국의 바다를 지배한 과정과 범위를 알 수 있다						
	학습동기 유발	지구의 70%를 분포하는 해양을 지리부도로 찾아보고 동아시아지역의 해양 특징을 자유롭게 이야기 해 본다.			교과서와 지리부도를 찾아보고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의 위치를 확인한다.			

전개	<p>목표학습 1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지형의 특징을 살펴보고 해양의 중요성과 개발의 영향을 확인한다. · 다양한 해안 지형중 남해안의 다도해를 만든 원인을 질문한다. · 해양 환경의 중요성과 개발의 영향을 이야기 한다. · 남해안의 완도의 중요성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 지식채널e '해안지형의 특징'과 유튜브를 통해 해안지형의 특징을 파악한다. · 한국지리에서 배운 해안지형의 형성원인을 설명하고 리아스식해안의 특징을 나열한다. * 오늘날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고대 동아시아 바다의 해상무역로를 지도를 통해 파악한다. * 통일신라시대의 해상무역로의 중심지인 완도를 확인하고 현재 완도가 추진중인 사업을 학습한다. 	<p>세지 교과서의 91쪽</p> <p>지리부도 활용</p>
	<p>강의 및 사례학습</p> <p>목표학습 2 확인</p>  <p>장도 정해진 본영의 상상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왕 장보고의 성장과정을 통해 당나라와의 관계를 설명한다. · 해상왕국의 바다를 지배한 과정과 범위를 설명한다. · 3면이 바다인 반도국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일들을 토론한다.  <p>장보고의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교과서에 나온 장보고의 성장과정과 신라말의 국제정세를 확인한다. * 장보고의 중국활동과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상권을 장악한 내용을 학습한다. - 비단길과 연결된 해상 실크로드인 바닷길의 범위와 루트를 확인 * 바다를 지배했던 나라들을 파악하고 해양강국으로 나갈 우리의 자세를 확인한다. - 진로수업 및 학과시간중에 해양학과에 대한 소개를 듣고 진로를 정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p>한국사 (비상교육 53쪽)</p> <p>학습지 참조</p> <p>진로활동</p>

전개	<p>목표학습 2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해상왕 장보 중국유적지 답사 후기를 설명하고 해양에 대한 도전과 중요성을 설명한다.  <p>중국 산둥성의 주요지역</p>  <p>성산두(산둥성의 극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둥반도의 장보고 유적지를 확인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한다. 	<p>유적지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사 사진을 중심으로 - 곳 (성산두)의 형성원인
	<p>학습내용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진로와의 연결성도 고려한다. · 장보고 사업의 취지를 통해 한중일의 관계개선과 학술적인 재평가를 받도록 노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리를 통한 해양의 중요성과 장보고의 진취적 기상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한다. 	<p>장보고 유적지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확인한다.</p>
	<p>형성평가</p> <p>형성평가 문제를 제시하고 풀어 본다.</p>	<p>형성평가 내용을 확인한다.</p>	
	<p>과제 및 차시 예고</p> <p>지형 중 해양의 중요성과 지역 변화의 모습을 학습한다.</p>	<p>교과서 내용을 확인하고 지리부도에서 찾아본다.</p>	<p>교과서 참조</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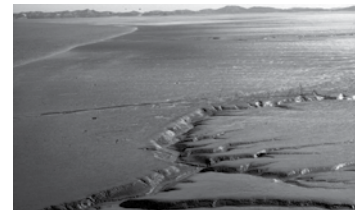
1. 우리나라 해안선의 특징

	동해안	황남·해안
해안선	단조롭다	복잡하다
원인	·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융기한 산맥이 해안선과 <u>평행</u>	· 산맥이 해안선과 직교 · 후빙기 해수면 상승시 산맥 사이로 해수 유입→ 골짜기가 침수되어 '리아스식해안' 형성, 산맥의 산봉우리만 남아 '다도해' 형성, 산줄기 중 일부는 '반도' 형성
지형형성	· 해안선이 단조로움→ 파랑의 작용 활발	· 조차가 큼 → 조류의 작용 활발
대표해안지형	· 암석해안, 모래해안	· 갯벌해안



2. 갯벌해안(간척지)

정의	· 밀물 때는 잠기고 썰물 때는 드러나는 해안(간척지) · 하천에서 공급되는 토사가 조류에 의해 재퇴적되어 형성된 지형
형성 과정	· 하천에서 공급된 토사가 썰물에 의해 바다로 쓸려 나감 → 쓸려 나간 토사가 밀물 때 해안으로 되돌아 와서 수면이 잔잔한 곳에 쌓임
형성 조건	· 하천의 퇴적공급량이 _____ (대하천 존재) · 조차가 _____ ·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아야 함 (파도에 의한 교란이 적어야 함) ⇒ 이러한 조건을 두루 갖춘 황·남해안에 발달
기능	· 환경 _____ 기능 :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 물질 정화 · 경제적 기능 : 염전, 양식장, 어패류 채취 → 어민들의 주요한 소득 · 생태적 보존 기능 : 육상 생물과 해양 생물이 공존하는 생태계 보고 · 자연재해 완충 기능(태풍, 해일 피해 완화) · 관광자원 및 생태체험학습 자원으로서의 기능
간척 사업	· 방조제를 쌓아 바닷물의 출입을 막고 매립하여 여러 용도로 사용 → 농업용지, 산업용지, 주택용지, 공항 등 건설



〈갯벌과 간척지 분포〉



완도의 지정학적 위치 및 특징, 해상왕 장보고

▶ 현재의 완도에 청해진 설치 : 당, 일본과의 무역 독점

- 청해진과 관련된 정확한 표현 정리

- ① 장도: '청해진'이라는 군사기지가 최초로 세워진 완도 옆의 작은 섬 (선 전체가 요새로 건설됨)
- ② 완도: 청해진의 의미가 넓어진 지역 (장도를 앞세워 섬 전체가 해상기지로 발전)
- ③ 장좌리: 장도와 가장 가까운 완도의 마을 이름 (장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곳으로 추정)
- ④ 대야리·죽청리: 청해진의 의미가 더 넓어진 지역 (청해진을 지원한 마을로 추정)

- 장보고 선박의 제조 근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조선 기술을 체계화시키고 복원하여 신라선으로 이용

- 장보고의 해군과 선박량은?

- ① 군병력과 무역업의 역할을 병행하는 군사 1만명
- ② 장보고 개인적인 선박과 중국·일본 교포들이 소유한 선박

- 청해진을 왜 설치했나?

신라인들을 노예로 매매하던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해 설치

- 청해진 설치 전후를 기준으로 본 신라 무역

청해진 설치 전 - 국가 관리로 이루어진 공무역 형태의 무역
청해진 설치 후 - 개인 관리로 이루어진 사무역 형태의 무역

- 청해진 설치의 의의

청해진 폐쇄 이후 장보고의 유산이 고려에 계승되어 고려가 해양강국으로 발전하는 배경이 되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자연을 이용한 해상기지, 청해진

장보고는 청해진을 중심으로 한 바람·해류·조석 등의 자연현상을 적확하게 이해하면서 이를 활용함

▶ 거대한 해상세력으로 성장: 왕위 쟁탈전에 참여

▶ 장보고 - 출생에 관하여

▶ 왕위 쟁탈과 장보고

- 균정과 제룡간의 왕권을 위한 정쟁 도중 제룡이 즉위
- 균정의 아들인 김우징은 청해진으로 망명
- 장보고는 군사를 이끌고 조정으로 진격, 김우징을 왕위에 오르게 하고
- 신라 해군 총독, 장보고
- 신라 조정의 미움을 산 장보고의 죽음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해상 실크로드



▲ 장보고의 해상 무역로



▲ 해양 주권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 장보고의 업적, 한민족 네트워크

중국·일본의 해안선 전체에 퍼져있던 신라인들을 장악하고 청해진을 중심으로 이들을 거미줄 처럼 연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역망을 형성. 이를 통해 무역은 물론 외교·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둠

▶ 청해진은 동·서 만남의 장

장보고는 중국으로 유입되는 아라비아·동남아시아지역 등의 무역품과 당의 무역품을 신라로 가져오고, 신라의 무역품을 이들 지역에 수출함. 또한 양국의 무역상들이 중국 현지에서 서로 왕래함으로써 한국 역사상 최초로 동·서양 교류가 이루어짐.

▶ 도자기 문물의 발달

중국과의 수출·입 물품 중 도자기를 남해안의 강진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생산하고 수출하는 경로를 만들어줌으로서 고려시대의 청자가 꽃을 피움.

주제 탐구

동아시아의 해상 왕 장보고, 바다를 지배하다

장보고는 엄격한 골품제를 적용하였던 신라에서 벗어나 당으로 건너가 능력을 인정받았다. 동아시아 해상 무역로를 장악하였던 장보고는 어떤 활동을 하였을까?

이끌어주기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장보고의 성장 과정을 신라 말의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장보고가 청해진을 통해 해상권을 장악한 사실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보게 해 주세요.

자료 1 청해진을 설치하다

신라인들은 중국의 산둥반도에 신라방이라는 집단 거주지를 만들어 해상 무역을 통해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해상 교역은 해적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당으로 건너가 뛰어난 무예를 바탕으로 무령군 소장으로 활동하던 장보고는 828년 신라에 귀국하여 흥덕 왕에게 해적 소탕을 위한 청해진 설치를 요청하였다. 흥덕 왕은 장보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사(大使)의 직함과 함께 군사 1만 명을 주어 마침내 청해진이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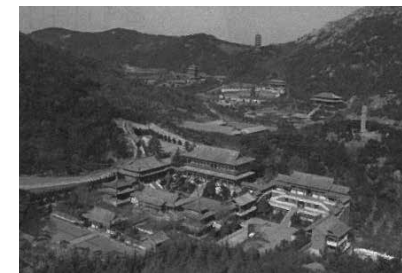
자료 2 해상권을 장악하다

장보고는 해적을 소탕한 이후 동중국해 일대의 해상권을 장악하였다. 그는 당에 견당매물사(遣唐買物使)와 함께 교역선을 보냈으며, 일본에는 회역사(廻易使)와 함께 상선을 보내 중계 무역을 하였다. 또한, 이슬람 상인들이 당에 가져온 서역의 물품들을 신라와 일본에 전하고, 당시 인기있었던 ‘월주요’의 청자 찻잔 제작 기법을 배워 청해진에서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기도 하였다. 입당과 귀국 여정을 도와줄 것을 탄원했던 일본인 승려 엔닌의 서신을 통해 일본과 당을 잇는 해상 교통로에서 장보고의 위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

늠할 수 있다. 장보고는 강력한 군사력과 무역을 통해 축적한 부를 토대로 신라 최고의 지방 세력으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해상 연결망을 지배하는 해상 왕이 되었다.

자료 3 장보고와 해상 왕국이 몰락하다

836년 신라 왕위 계승에서 패배한 김우징이 장보고에 의지하면서 장보고는 진골 귀족들의 정치 분쟁에 관여하였다. 그는 막강한 해상력을 기반으로 민애왕을 살해하고 김우징을 신무왕으로 즉위시켰다. 이후 자신의 딸을 문성왕과 혼인시키고자 하였으나 중앙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이와 같은 장보고의 세력 확대에 위협을 느낀 중앙 귀족들은 마침내 염장을 보내 장보고를 암살하였다.



적산법화원(중국 산둥성) 일본인 승려 엔닌이 머물렀던 적산법화원은 장보고가 신라 사람들을 위해 세운 절이다.

1 장보고가 당에서 출세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당시 신라 상황을 토대로 말해 보자.

답 신라는 골품제 등으로 인해 개인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혈연 집단이 속한 골품에 따라 정치적·사회적 활동의 범위가 결정되는 사회였다. 이에 장보고는 당으로 건너가 뛰어난 무예를 바탕으로 활약하여 무령군 소장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2 자료를 통해 장보고가 해상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말해 보자.

답 장보고는 흥덕왕에게 해적을 소탕할 것을 요청하였고, 흥덕왕은 군사 1만 명을 내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군사적 요충지와 무역의 중심지와 삼아 동아시아 해상권을 장악하였다.

3 신라 말 지방 세력이었던 장보고의 활약상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써 보자.

답 신라 말 중앙에서 귀족 간의 왕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보고는 막강한 해상력을 기반으로 중앙의 왕위 쟁탈전에 가담할 정도로 강력한 지방 세력을 형성하였다. 한편, 장보고는 청해진을 근거지로 해적을 소탕하여 해상의 질서를 회복하고 신라와 당, 일본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해상권을 장악하여 신라는

고전 읽기를 통한 독서과 교수·학습 과정안
울산 세인고등학교 이종무 선생님

고전 읽기를 통한
독서과 교수·학습 과정안



〈봉래 고선박 박물관에 있는 학생 공동과제 작품〉

일 시	2018.9.13
장 소	세인고등학교
대 상	2학년
지도교사	이종무

세 인 고 등 학 교

1. 교수 · 학습 단원 개관 및 지도상의 유의점

가. 본시 교수 · 학습 단원명

① 고전을 통한 역사 이해하기

- 고전에 나타난 장보고 찾아 읽기

나. 본시 학습 단원 개관

《삼국사기》권 제 44 열전 제 4에는 장보고(張保臯) [신라본기에는 궁복(弓福)으로 썼다]와 정년(鄭年)[연(年)은 연(連)으로도 쓰기도 하였다] 모두 신라 사람인데, 그들의 고향과 아버지 할아버지를 알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싸움을 잘하였는데, 정년은 특히 바다 속에서 50리를 헤엄쳐도 숨이 막히지 않았다. 그 용맹과 씩씩함을 비교하면, 장보고가 정년에게 조금 뒤졌으나 정년이 장보고를 형으로 불렀다. 장보고는 연령으로, 정년은 기예로 항상 서로 맞서 서로 아래에 들지 않으려 하였다. 두 사람이 당나라에 가서 무령군 소장(武寧軍小將)이 되어 말을 타고 창을 쓰는데, 대적 할 자가 없었다. 후에 장보고가 귀국하여 대왕을 뵈고 아뢰었다. “중국을 두루 돌아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을 노비로 삼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청해(淸海)에 진영을 설치하여 도적들이 사람을 붙잡아 서쪽으로 데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청해는 신라 해로의 요충지로서 지금 완도라 부르는 곳이라 대왕이 장보고에게 군사 만 명을 주었다. 그 후 해상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파는 자가 없었다. 장보고가 이미 귀하게 되었을 때에 정년은 당나라에서 관직에서 떨어져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살다가 그곳을 떠나 장보고를 찾았다. 장보고가 군사를 나누어 5천 명을 정년에게 주며, 환난을 평정하게 하였다. 정년이 왕경에 들어가 반역자를 죽이고 왕을 세웠다. 왕이 장보고를 불러 재상으로 삼고 정년으로 대신 청해를 지키게 하였다.

《삼국유사(三國遺事)》권 제2 기이(紀異) 제2에는 ‘궁파(弓巴)’라고 기록되어 있다. 장(張)이라는 성과 보고(保臯)라는 이름은 당나라로 건너간 뒤부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엔닌(圓仁)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등 일본의 문헌에는 이름의 한자 표기가 ‘長寶高’ 혹은 ‘張寶高’

로 되어 있다. 친구인 정년(鄭年)과 함께 일찍이 당나라 서주(徐州)로 건너가 무령군(武寧軍) 소장(小將)을 지냈으며, 장보고와 정년은 용맹하고 씩씩해 말을 타고 창을 쓰는 데 이들을 당할 자가 없었다고 한다.

신무왕이 자신을 도와주면 딸을 왕비로 삼겠다고 장보고에게 약속했고, 이를 어기자 장보고가 왕을 원망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일본 교토의 적산서원은 일본 천태종의 시조를 모신 곳이다. 이곳에 활을 든 장보고(張保臯, ?~846)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중국 산둥반도 영성시의 적산법화원에서도 장보고의 영정을 찾을 수 있다. 9세기 서남해안의 해적을 평정하고 당나라와 일본을 상대로 국제무역을 주도했던 장보고는 우리 역사서보다 중국과 일본 역사서에 더 상세히 소개된 국제적인 인물이다.

다. 지도상의 유의점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타난 장보고에 대한 기록을 찾아 읽어보고 교수 · 학습활동과정에서 1. 장보고의 활약상 2. 당시 국제질서 3.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술의 차이점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조별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라. 학습목표

- 1)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도서관에서 찾아 열람하고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 2)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장보고 조를 찾아 읽고 친구들과 토론할 수 있다.

마. 교수 · 학습 주요 내용 - [독서교과서 206쪽]

「 1. 독서와 문법」

① 사실적 독해

[고전읽기 -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타난 장보고는 어떤 인물이었나?]

II.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

1. 단원명

대단원명	II. 글의 구조와 독서의 방법
중단원명	2. 독서의 방법
소단원명	(1)사실적 독해 - 고전읽기: 고전에 나타난 장보고는 어떤 인물이었나?

2. 학습주제


- 가. 글의 구성단위와 그 관계를 이해한다.
- 나.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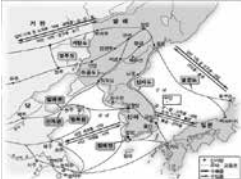
3. 학습목표



- 가.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도서관에서 찾아 열람하고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 나.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장보고 조를 찾아 읽고 친구들과 토론할 수 있다.

4.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

지도 일시	2018.9.13. (목) 4교시	지도교사	이 중 무	장 소	교실
단 원	II. 글의 구조와 독서의 방법			대 상	2학년
본 시 주 제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타난 장보고를 찾아 읽고 토론하기			차 시	2/12
학 습 목 표	1.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도서관에서 찾아 열람하고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2.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장보고 조를 찾아 읽고 친구들과 토론할 수 있다.				
수 업 형 태	삼국사기, 삼국유사, 위인전집, 조별학습(소규모(5인))				
학 습 자 료	사료학습을 위한 학습지, 형성평가지, 핸드폰(자료 찾기)				
학 습 단 계	학 습 활 동	교수-학습 활동			자료및 유의점
		교 사	학 생		
도입 7분	• 출석확인		• 학생들과 인사 • 출석을 확인	• 교과서와 <삼국사기>, <삼국유사> 책 및 인쇄물 준비	
	• 전시학습 확인	• 파워포인트를 통해 전시 학습내용 간단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 제시 • 학습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내용 확인 후 학습 목표를 제시 1. 본시학습목표를 설명하고, 2. 학습목표를 칠판에 판서 • 학습에 대한 인지도와 지리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지도를 전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답변 • 학습목표를 복창 • 조별로 지도그리기 실시 • 지도 그리기 통하여 학생들의 이해력을 증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학습 확인 학습목표 쓰기 지도그리기 PPT자료
	전개1 18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 1의 제시 • 도서관 활용 수업에 맞게 자료찾기, 열람,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1을 다시 제시 •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대해 고전으로서의 가치를 설명한다. • 활동이 지루하지 않도록 활동모습을 학생들이 가진 핸드폰과 카메라를 활용하여 조별 담당이 검색 및 활동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도와준다. • 사료학습지 작성을 확인한 후 발표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1을 다시 인식한다. • 미리 정리해온 조는 조별 정리 •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PPT를 이용한 장보고 관련 사진을 보여준다. • <삼국사기>, <삼국유사> 사료를 통하여 파악한다.
전개2 17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1-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타난 장보고의 기록의 차이점을 정리하여 발표할 수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지 작성이 끝나면 발표한다. • 작성한 것을 토대로 답변한다. 	

전개2 17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 2의 제시 • 장보고의 인물됨과 활약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2 제시 • 관련사진 자료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2 확인 •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보고 관련 사진 자료를 보여준다. <p><지금의 웨리></p>  <p><9C 화물선></p>  <p><9C 산동반도></p>  <p><등주 중심의 해상 교역도></p>	조별 요약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장보고 부분을 읽은 부분에 대해 발표를 시킨다. • 당시 사회상을 설명하는 자료 제시  <p><9C 해양교역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보고 인물에 대한 특징을 정리하고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2-“당시 장보고 주변 사회상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p><등주 신라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편적으로 나타난 장보고에 대해 정리하고 발표한다. - 장보고 연표 정리 	 <p><장보고 동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드폰으로 단어 찾기 • 연표정리 인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원 연구 '염장 지르다' 	

정리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내용 정리 형성평가 제시 차시 예고 및 과제 제시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전의 중요성과 아울러 당시 사회상에 대하여 정리한다. PPT를 통해 형성평가문항 제시 차시예고를 한다. '이순신에 관한 세편의 글' 과제 제시 학생들과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명을 듣는다 제시된 형성평가를 다 같이 본다. 차시 학습내용과 과제를 정확히 인지한다. 전시학습 복습하고 과제 제시한다. -일기 쓰기 및 메일 전송. 교사에게 인사. 	형성평가 PPT 자료
----------	---	---	---	-------------------

5. 판서계획: 단원명, 학습목표, 동아시아 지도

가. 단원명

II. 글의 구조와 독서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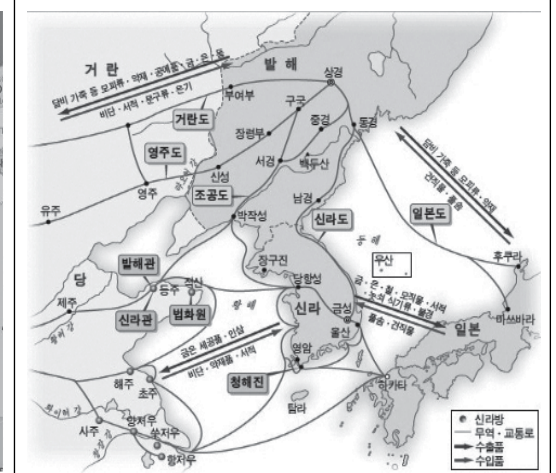
-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타난 장보고를 찾아 읽고 토론하기

나. 학습목표

-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도서관에서 찾아 열람하고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장보고 조를 찾아 읽고 친구들과 토론할 수 있다.

학습목표는 별도로 제작하여 칠판에 부착하고, 교수·학습 활동 과정 중에 학생들에게 수시로 확인시킨다.

6. 교수·학습 활동 PPT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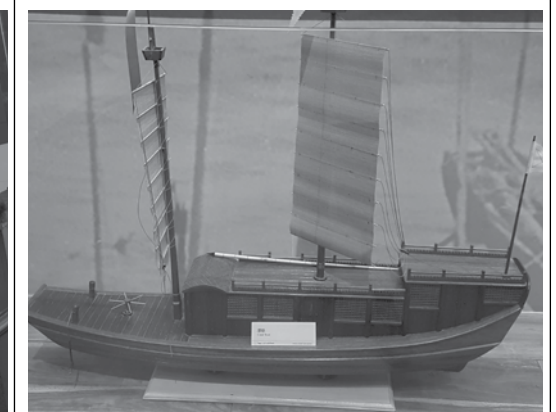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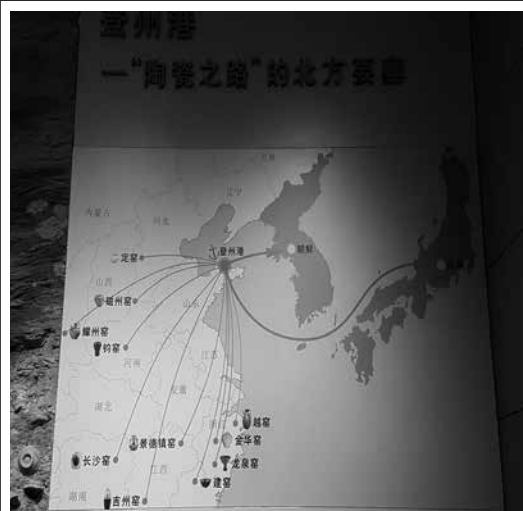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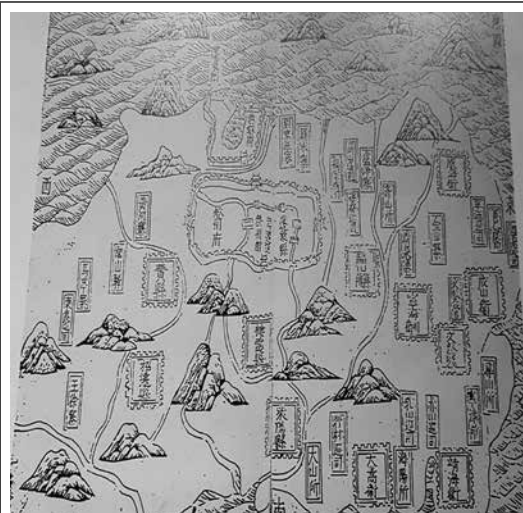
장보고 (7-846(문성왕8)와 청해진 유적지



- 8세기 후반 이후 신라인의 해상활동의 한 정점이 되었다.
- 신라 말기 각지에서 등장하는 호족세력의 선구적 존재이기도 하였다.

-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타난 장보고의 기록의 차이점을 정리하여 발표할 수 있는가?
- 당시 장보고 주변의 사회상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7. 형성평가

1.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타난 장보고 기록의 차이점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2. 9C 당시 장보고 주변의 사회상 정도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장보고 기술의 차이점
 <삼국사기> - 공복(장씨) <삼국유사> - 공파
 <삼국사기> - 다양한 내용 <삼국유사> - 염장이 공파를 제거하는 부분 강조

2. 9세기 당시 장보고 주변의 사회
 - 1) 해적의 창궐: 당의 해적들이 신라 사람을 잡아 노예로 팔았다.
 - 2) 신라인의 무역 활동: 산동성에 법화원을 짓고 무역의 거점으로 삼았다.
 - 3) 청해진 설치: 928년 왕은 장보고에게 군사 1만을 주어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을 소탕하게 하였다.
 - 4) 해상무역: 남해와 황해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당-신라-왜를 연결하는 국제무역을 주도하였다.

8. 학생 인쇄물 <삼국사기>, 발췌본

권 제 10 신라본기

흥덕왕(興德王) 3년(828) 4월에 청해대사(淸海大使) 공복(弓福)은 장씨(張氏)인데 [일명 보고(保阜)라고도 하였다.] 당나라 서주(徐州)에 들어가 군중소장(軍中小將)이 되었다가 후에 본국으로 돌아와 왕을 찾아뵙고 군사 1만 명으로 청해(淸海)를 지켰다. [청해는 지금(고려)의 완도(莞島)이다.]

희강왕(僖康王) 2년(837) 5월에 우징(祐徵)이 화가 미칠까 두려워 그의 처·자식과 함께 황산진(黃山津)4) 어구로 달아나, 배를 타고 청해진(淸海鎭) 대사(大使) 공복(弓福)에게 가서 의탁하였다.

희강왕 2년(837) 6월에 균정의 매부 아찬 예징(禮徵)이 아찬 양순(良順)과 함께 도망하여 우징(祐徵)에게 의지하였다.

민애왕(閔哀王) 원년(838) 2월에 김양(金陽)이 군사를 모아서 청해진에 들어가 우징(祐徵)을 찾아뵈었다. 아찬 우징은 청해진에 있으면서 김명이 왕위를 빼앗았다는 소문을 듣고 청해진 대사 공복에게 말하였다. “김명(金明)은 임금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고, 이홍(利弘)은 임금과 아버지를 억울하게 죽였으니 같은 하늘아래 함께 살 수 없는 자들이다. 바라건대 장군의 군사를 빌어서 임금과 아버지의 원수를 갚게 해주시오.” 공복이 말하였다. “옛사람의 말에 의로움을 보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 하였으니, 내 비록 용렬하지만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드디어 군사 5천 명을 나누어 그의 친구 정년(鄭年)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그대가 아니고서는 이 화란(禍亂)을 평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12월 김양이 평동장군(平東將軍)이 되어 염장(閔...長) 장변(張弁), 정년(鄭年), 낙금(酪金), 장건영(張建英), 이순행(李順行)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무주(武州) 철야현(鐵冶縣)에 도착하였다.

왕은 대감(大監) 김민주(金敏周)로 하여금 군사를 내어 맞서 싸우게 하였는데, [김양이]낙금과 이순행을 보내 기병 3천 명으로 돌격하여 거의 다 죽이거나 상하게 하였다.

신무왕(神武王)이 왕위에 올랐다.(839) 이름은 우징(祐徵)으로, 원성대왕의 손자 상대등 균정(均貞)의 아들이고 회강왕의 사촌 아우이다. 예징 등이 궁중을 깨끗이 하고 예를 갖추어 그를 맞아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할아버지 이찬 예영[또는 효진(孝眞)이라고도 하였다]을 혜강대왕(惠康大王)으로, 죽은 아버지를 성덕대왕(成德大王)으로 추존하였으며, 어머니 박씨 진교부인(眞嬌夫人)을 현목태후(憲穆太后)로 삼고, 아들 경응(慶膺)을 태자로 삼았다. 청해진 대사 궁복을 감의군사(感義軍使)로 봉하고 식읍 2천 호를 봉해주었다.

권 제11 신라본기 제 11

문성왕(文聖王) 원년(839) 8월에 교(敎)를 내려 말하였다. “청해진대사(淸海鎭大使) 궁복은 일찍이 군사로서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를 도와 앞 조정의 큰 적(賊)을 없앴으니 그 공적을 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궁복을]진해장군(鎭海將軍)으로 삼고, 아울러 장복(章服)을 내려 주었다.

문성왕 7년(845) 3월에 청해진대사 궁복(弓福)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둘째 왕비로 삼으려 했으나, 조정의 신하들이 간(諫)하여 말하였다. “부부의 도리는 사람의 큰 윤리입니다. 그러므로 하(夏)나라는 도산씨(塗山氏)로 인하여 흥하였고, 은(殷)나라는 신씨(嬖氏)로 인하여 번창하였으며 주(周)나라는 포사(褒姒) 때문에 망하였고, 진(晉)나라는 여희(驪姬) 때문에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러한 즉 나라의 존망은 여기에 있는 것이니 신중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궁복(弓福)은 섬사람인데, 그의 딸이 어찌 왕실의 배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왕이 그 말을 따랐다.

문성왕 8년(846) 봄에 청해진 궁복이, 왕이 자기의 딸을 맞아들이지 않은 것을 원망하여 청해진을 근거지로 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조정에서는 장차 그를 토벌하자니 뜻하지 않을 우환이 있을까 두렵고 그냥 방치해 두자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었으므로, 근심하고 염려하여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무주(武州) 사람 염장(閔...長)은 용감하고 굳세기로 당시에 소문이 나 있었는데, [그가]와서 아뢰었다. “조정에서 다행히 저의 말을 들어 준다면, 저는 한 명의 병졸도 수고롭게 하지 않고 맨주먹을 가지고서 궁복의 목을 베어 바치겠습니다.” 왕이 그에 따랐다. 염장은 거짓으로 나라를 배반한 것처럼 꾸며 청해진에 투항했는데, 궁복은 장사(壯士)를 아꼈으므로 의심하지 않고 불러들여 높은 손님으로 삼고 그와 더불어 술을 마시면서 매우 즐거워 하였다. 궁복이 술에 취하자 [염장이] 궁복의 칼을 빼앗아 목을 벤 후, 그 무리들을 불러 달래니 엎드려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다.

문성왕 13(851) 2월에 청해진(淸海鎭)을 폐지하고 그 사람들을 벽골군(碧骨郡)으로 옮겼다.

권 제 44 열전 제 4

장보고(張保臯) [신라본기에는 궁복(弓福)으로 썼다]와 정년(鄭年)[연(年)은 연(連)으로도 기도 하였다] 모두 신라 사람인데, 그들의 고향과 아버지 할아버지를 알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싸움을 잘하였는데, [정]년은 특히 바다 속에서 50리를 헤엄쳐도 숨이 막히지 않았다. 그 용맹과 씩씩함을 비교하면, [장]보고가 [정]년에게 조금 뒤졌으나 [정]년이 [장]보고를 형으로 불렀다. [장]보고는 연령으로, [정]년은 기예로 항상 서로 맞서 서로 아래에 들지 않으려 하였다. 두 사람이 당나라에 가서 무령군 소장(武寧軍小將)이 되어 말을 타고 창을 쓰는데, 대적할 자가 없었다. 후에 [장]보고가 귀국하여 대왕을 뵈고 아뢰었다. “중국을 두루 돌아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을 노비로 삼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청해(淸海)에 진영을 설치하여 도적들이 사람을 붙잡아 서쪽으로 데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청해는 신라 해로의 요충지로서 지금 [고려]완도(莞島)라 부르는 곳이라 대왕이 [장]보고에게 [군사]만 명을 주었다. 그 후 해상(海上)에서 우리나라 사람[鄉人]을 파는 자가 없었다. [장]보고가 이미 귀하게 되었을 때에 [정]년은 [당나라에서]관직에서 떨어져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사수(泗水)의 연수현(漣水縣)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수비하는 장수 빙원규(馮元規)에게

“내가 동으로 돌아가서 장보고에게 결식하려 한다.”고 말하니, 원규가 말하였다. “그대와 [장]보고의 사이가 어떠한가? 어찌하여 가서 그 손에 죽으려 하는가?” [정]년은 말하였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는 것은 전쟁에서 깨끗하게 죽느니만 못하다. 하물며 고향에 가서 죽는 것에 비하랴?” 마침내 그곳을 떠나 장보고를 찾아보니 술을 대접하며 극히 환대하였다. 술자리가 끝나기 전에 왕이 시해되어 나라가 어지럽고 임금의 자리가 비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장]보고가 군사를 나누어 5천 명을 [정]년(年)에게 주며, [정]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대가 아니면 환난을 평정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정]년이 왕경에 들어가 반역 자를 죽이고 왕을 세웠다. 왕이 [장]보고를 불러 재상으로 삼고 [정]년으로 대신 청해를 지키게 하였다. [이것은 신라의 전기(傳記)52]와는 대단히 다르나 두목(杜牧)이 전(傳)을 지었으므로 둘다 남겨 둔다]

사론(史論) : 두목(杜牧)이 다음과 같이 썼다. 천보(天寶)연간 안록산(安祿山)56의 난에 삭방절도사(朔方節度使) 안사순(安思順)이 녹산(祿山)의 종제(從弟)인 까닭으로 해서 사사(賜死)되고, 조서를 내려 곽분양(郭汾陽)으로 대신케 하였는데, 열흘 만에 다시 이임회(李臨淮)에게 조서를 내려 부절(符節)을 가지고 삭방(朔方)의 병력을 반으로 나누어 동쪽으로 조(趙)·위(魏) 지방에 나가게 하였다. 안사순이 [절도사로 있었던] 때에는 [곽]분양과 임회가 모두 아문도장(牙門都將)

으로 있었는데, 두 사람이 서로 사이가 나빠서, 함께 한 상에서 음식을 먹더라도 항상 서로 흘려 보면서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곽]분양이 사순을 대신하게 되자, 임희는 도망하려 하였으나 결행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희에게 조서(詔書)를 내리어 [곽]분양으로부터 병력을 절반 나누어 받아 동쪽으로 나가 토벌하게 하니, 임희가 [곽]분양에게 가서 ‘내 한 죽음은 달게 받겠으니 처자나 살려 주시오.’라고 청하였다. [곽]분양이 달려 내려가 [임희의] 손을 잡고 마루 위로 올라와 마주앉아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임금이 파천하였는데, 그대가 아니면 동쪽을 칠 수 없소, 어찌 사사로운 분한(忿恨)을 품을 때이겠소.’라고 말하였다. 작별하게 되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 충의(忠義)로써 격려하였으니, 큰 도둑을 평정한 것은 실로 두 사람의 힘이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을 알고, 또 그 재능이 일을 맡길 만한 것을 안 후 예야 의심하지 않고 군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다. 평생에 분한을 쌓아 왔으니 그 마음 알기가 어렵고, 분노하면 반드시[상대방의]단점만 보이는 것이니 그 재능을 인정하기가 더욱 어려운 일이라. 이 점에서 [장]보고와 [곽]분양의 어둠이 같다고 할 수 있다. [정]년이 [장]보고에게로 투탁할 때 ‘저는 귀하고 나는 천하니, 내가 자신을 낮추면 예전의 원한을 가지고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이 틀림없다. [장]보고가 과연 죽이지 않았으니 이것은 사람의 상정(常情)이다. 임희가 [곽]분양에게 죽임을 청한 것도 또한 사람의 상정이었다. 또 [장]보고가 [정]년에게 임무를 맡긴 것은 자신이 결정한 것이며, [정]년은 또 추위와 굶주림 속에 있었으므로 감동되기 쉬운 일이었고 [곽]분양과 임희는 평생을 대립하였지만, 임희에 대한 명은 천자로부터 나온 것이었으니, 장보고에 비하면, [곽]분양이 [결단하기가]더 용이하였다. 이런 상황도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일을 이루거나 그르치는 분기점이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착하고 의로운(仁義) 마음이 잡정(雜情)과 함께 섞이어, 잡정이 많아 이기면 인의가 없어지고, 인의가 많아 이기면 잡정이 사그라진다. 저 두 사람은 인의가 마음을 이미 주도하였고, 여기에 다시 자질이 밝았기 때문에 마침내 공을 이룬 것이다. 세간에서는 주공(周公)·소공(召公)을 백대(百代)의 스승으로 일컫고 있지만, 주공이 어린아이를 보좌할 때에는 소공도 의심하였다. 주공의 거룩함과 소공의 어둠으로, 젊어서 문왕(文王)을 섬기고 늙어서는 무왕(武王)을 도와 능히 천하를 평정하였지만, 주공의 마음을 소공도 알지 못하였다. 진실로 인의의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밝은 자질이 아니면 비록 소공도 오히려 그러하거든 하물며 그만 못한 사람에 있어서랴? 속담(語)에 ‘나라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당하여 어진 사람이 쓰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진실로 [어진 사람]을 쓴다면 한 사람으로도 족할 것이다. 송기(宋祈)가 썼다. “아아! 원한으로써 서로 질투하지 않고 나라의 우환을 앞세운 경우에는 진(晉)나라에 기해(祈奚)가 있었고, 당(唐)나라에 [곽]분양과 [장] 보고가 있었다. 누가 동이(東夷)에 사람이 없다고 할 것인가?”

9. 학생 인쇄물 <삼국유사>, 발췌본

권 제2 기이(紀異) 제2

신무대왕(神武大王)과 염장(閔長) · 궁파(弓巴) 제45대 신무대왕(神武大王)이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에 협객(俠客) 궁파(弓巴)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 하늘 아래 함께 살지 못할 원수가 있으니 네가 나를 위하여 [그 원수를] 없애준다면 내가 왕(王)이 되어 너의 딸을 왕비(王妃)로 삼겠다고 하였다. 궁파(弓巴)가 그 청(請)을 들어주고 마음을 한가지로 힘을 같이 하여 군사를 일으켜 서울에 쳐들어가 능히 그 일을 이루어냈다. 이미 [우징이] 왕위(王位)를 빼앗고 궁파(弓巴)의 딸로 왕비(王妃)를 삼으려 하니, 여러 신하(臣下)가 끝까지 간(諫)하여 말하기를 궁파(弓巴)는 매우 미천하니 그의 딸로 왕비(王妃)를 삼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자 왕(王)이 그 말에 따랐다. 그때 궁파(弓巴)는 청해진(淸海鎭)을 든든히 지키고 있었는데 왕(王)의 약속 어김을 원망(怨望)하고 난을 꾀하자, 장군(將軍) 염장(閔...長)이 (상황을) 듣고 아뢰기를 궁파(弓巴)가 장차 불충(不忠)한 일을 하려고 하니 소신(小臣)이 멸하여 없애 버리겠다고 하였다. 왕(王)이 기뻐하여 [그리 하도록] 허락하였다. 염장(閔長)이 왕(王)의 뜻을 받들고 청해진(淸海鎭)에 돌아가 안내자를 통해 말하기를 내가 임금에게 적은 원망(怨望)이 있어 공(公)에게 투탁하여 몸과 목숨을 보전(保全)하고자 한다 하였다. 궁파(弓巴)가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너의 무리가 왕(王)에게 간(諫)하여 나의 딸을 [왕비로 들이는데] 폐하고 나를 보려고 하느냐고 하였다. 염장(閔...長)이 다시 [안내자를] 통해 말하기를 그것은 백관(百官)이 간한 것이요 나는 그 꾀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공(公)은 [나를] 혐의치 말라 하였다. 궁파(弓巴)가 [이 말을] 듣고 청사에 불러들여 말하기를 그대가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느냐? 염장(閔長)이 대답하기를 왕(王)의 뜻을 거슬린 바가 있어 [그대의] 휘하에 와서 해(害)를 면하려고 한다 하였다. 궁파(弓巴)가 말하기를 다행한 일이라 하고 술을 나누며 매우 기뻐하였다. [그때에] 염장(閔長)이 궁파(弓巴)의 긴 칼을 빼어 [궁파를 베어] 죽이니 휘하의 군사가 놀라서 모두 땅에 엎드리는지라, 염장(閔長)이 이끌고 서울에 이르러 복명(復命)하여 말하기를 이미 궁파(弓巴)를 베었나이다. 하니 왕이 기뻐하여 상(賞)을 주고 아간(阿干)을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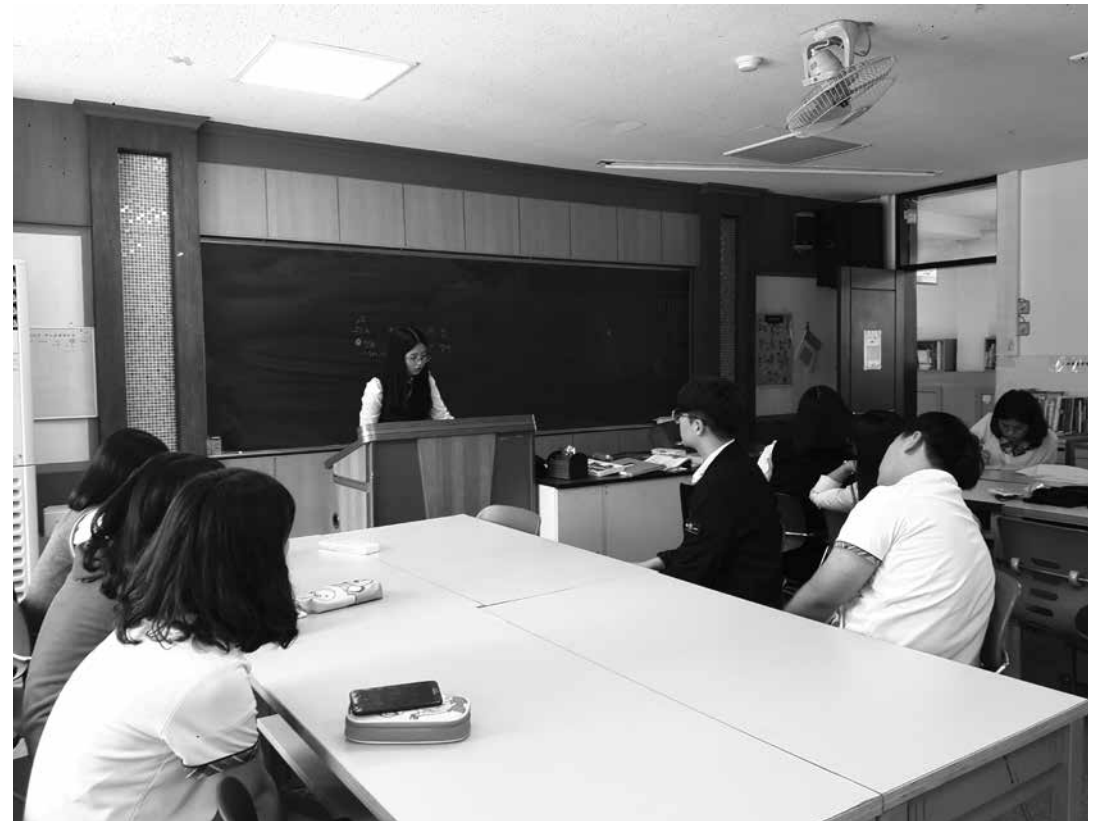
10. 장보고 연표

연대(나이)	장보고의 생애	장소	사건 및 근거
790?	섬(도서)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측	전남 도서지방	완도로 미루어 짐작
809?(20세)	당나라로 건너감	당나라 등주	신라·발해 당나라에 사신 보냄(809)
819?(30세)	당나라 무령군 군중소장	당나라 서주	805년 무령군 군단명칭이 처음 칭해짐 819년 이사도 평로군 진압으로 무공
824?(35세)	당나라 무령군 소장직 사직	서주	산동에 법화원을 세우고 신라방 등 신라인들의 거점으로 활용하며 도자기 무역으로 크게 번성
828	완도 청해진 설치	청해진	흥덕왕을 만나 허락을 얻어냄
836	김명 일파 김군정을 살해하고 김우징과 김양을 격파하고 희강왕 옹립	신라	836년 흥덕왕이 후사 없이 죽음 김우징 장보고를 찾아 피신(837.8)
838. 1	김명 희강왕을 협박하여 자살하게 만들고 민애왕으로 등극	신라	일본 승려 엔닌 구법위해 입당
838. 2	김양 군사를 모아 청해진으로 김우징 찾아옴	청해진	김양 숨어 지내다가 희강왕 자살 소식 듣고 청해진 합류
838. 12	공복 정년에게 군사 5천을 주어 평정을 명령	무주 철야현	기병 3천으로 신라군 김민주 군대 섬멸
839. 1	달벌 전투에서 승리 민애왕의 10만 대군과 싸워 승리	달벌(達伐) 오늘 날 대구	대훈, 윤린, 의훈 등 김양의 5천군대가 신라정부군과 승리
839. 6	교관선 2척 최훈 적산포 방문	당나라	일본 승려 엔닌과 최훈 대면(엔닌 6.28일기 기록)
841. 11	장보고 피살	청해진	842년, 일부 장보고 부하 왜로 탈출
842	염장의 부하 이소정(李小貞)등 장보고 피살 소식 전함	왜 북구주지방	이충과 양원의 화물 돌려줄 것 요청
851	청해진 폐쇄	신라	백성들을 벽골군으로 이주 (삼국사기)

장보고 관련 수업 지도안 적용 사례 충북 단양고등학교 한봉석 선생님

장보고 관련 수업 지도안 적용 사례

- 직 위: 교사
- 성 명: 한 봉 석
- 연 수 주 제: 9세기 해상왕, 장보고
- 기 간: 2018. 9. 3.(월) ~ 9. 7.(목) 6일간
- 대 상: 고등학교 1, 2학년 10명



단양고등학교

9세기 해상왕, 장보고

주 제 명	9세기 해상왕, 장보고
수업 목표	1. 장보고가 해상왕이 된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있다. 2. 장보고 선단 대양 항해가 가능한 이유를 말할 수 있다.
적용 학년	고등학교 1~2학년
총 수업시수	3차시
적용 모형	프로젝트 수업

차 시	소주제	주요 내용		관련 교과
1	장보고는 왜 해상왕이 되었을까?	도입	장보고는 왜 해상왕이 되었을까?	역사
		전개	TEP1. 장보고 시대 역사 - 9세기 신라와 당의 상황 - 장보고의 고민과 노력 STEP2. 엔닌과 신라의 인연 - 재당 신라인과 엔닌의 인연 - 장보고와 엔닌의 인연 STEP3. 장보고가 해상왕이 된 이유 작성하기 - 발표문 공유하기	
		정리	모둠별 결과 공유하기	
2	장보고 선단 대양 항해 어떻게 가능했나?	도입	장보고 선단 대양 항해 어떻게 가능했나?	과학
		전개	STEP1. 장보고 시대의 항해항로 - 장보고 시대의 항해항로와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STEP2. 항해술과 조선술의 발달 - 선박의 모양 및 종류, 항해도구 - 신라인의 배 STEP3. 장보고 선단 대양해양 가능했던 이유 발표하기 - 발표문 공유하기	
		정리	모둠별 결과 공유하기	
3	21세기 장보고는 무슨 일을 했을까?	도입	21세기 나의 진로 찾기	진로
		전개	STEP1. 자신이 알고 있는 직업 브레인스토밍 하기 - 모둠별 토의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하기 STEP2. 해양관련 진로 찾기 - 해양교육포털 사이트 참조 STEP3. 나의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 - 자신에게 맞는 진로 찾기	
		정리	진로 로드맵 그리기	

① 주제 개요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인재상을 요구하고 있다.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 창의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할 수 있는 능력, 인간과 기계의 공생으로 다양한 가치를 조합하는 대안 도출 능력, 기계와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2018년 장보고 문화유적 답사를 하면서 장보고가 새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의 모델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그 시대, 신라와 당나라와의 관계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발견하고 우리나라의 해양지리학적 위치와 신라소의 인적자원, 신라인의 역량을 집결하여 국제무역을 주도함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악화와 백성들의 생활고를 해결함으로 통일신라의 기틀을 만드는 초석을 이루었다.

신라인이었으나 810년 중국으로 건너간 장보고는 현재에 순응하기보다 문제해결을 위해 도전하는 자이었을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활을 잘 쏘았다고 하니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무령군에 들어가서 인정을 받게 된다. 당은 지방통제력이 약화되어 경제적으로 조공무역에서 사무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해상 장악력을 상실하여 동북아 일대의 해상에서 해적이 활개치는 상황을 보고서 우리민족의 미래가 바다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한 선각자이다. 또한 신라백성이 해적에 의해 납치되어 노예로 매매되는 참상을 보고는 울분을 느껴 828년 흥덕왕에게 해적소탕의 의지를 전하여 청해진을 설치하고 1만 명의 군사를 받고 청해진 대사로 임명되는 등 애민 정신을 실천에 옮기는 자이다.

장보고는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고 인적자원(재당 신라인)과 물적자원(바다라는 자연조건과 선박)를 이용하여 한, 중, 일 3국을 잇는 동북아 해상 무역을 주도하는 해상경영의 선구자 였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사회적 문제 상황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해결방법을 알 수 있다.
- 장보고가 해상왕이 되기까지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선박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표층 해류가 주는 영향을 알 수 있다.
- 해양관련 직업의 종류와 자격을 알 수 있다.

○ 과정 목표

- 역사적인 인물의 장보고의 생애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정할 수 있다.
-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세울 수 있다.
- 모둠별 활동을 통해 협동성과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

6 차시별 계획표

○ 1차시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사자료
도입	<p>ⓐ 동영상 본 후 장보고에 대한 관심 갖기</p> <p>tip ▶ 유튜브 장보고 일대기 바다에서 길을 찾다, 해상왕 장보고(6:56) 장보고는 왜 해상왕이 되었을까요? 장보고의 일대기를 작성해 봅시다.</p>	동영상	
전개	<p>STEP1. 장보고와 엔닌에 대한 NIE 자료를 제시하고 모둠별 토의 활동지로 모둠별 토의 한다.</p> <p>STEP2. 토의 내용을 활동지에 작성하고 발표한다.</p> <p>STEP3. 토의 내용을 공유한 후 장보고가 해상왕이 된 이유를 순차적으로 작성한다. (중국 무령군 소장 → 신라인의 생활고 등, 문제 상황 →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 청해진 대사 → 국제무역주도의 과정으로 작성한다.)</p>	NIE자료 활동지	중앙일보 및 법보신문 보도자료
정리	<p>- 모둠별로 활동 결과를 공유한다.</p> <p>- 모둠 자석 판을 칠판에 게시하여 전체 모둠별 활동 결과물을 공유한다.</p> <p>- 본시학습내용을 활동지에 정리한다.</p>	자석 판, 활동지	

○ 2차시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사자료
도입	<p>유튜브 <일본 법화사 네트워크, 그리고 엔닌스님과 장보고의 인연> 동영상 시청 8:24 장보고 선단 대양 해양 어떻게 가능할까?</p>		
전개	<p>STEP1. 장보고 시대의 항해항로는 3가지가 있다.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모식도를 보고 장보고 항해항로와 관련되는 해류의 이름과 특징을 알아보자.</p> <p>STEP2. 선단이 항해를 할 때 왕복을 한다. 항해항로의 방향이 해류의 방향과 반대 일 경우 이것을 보완하는 항해술과 조선술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아보자.</p> <p>STEP3. 장보고 선단 대양 항해 어떻게 가능했는지 토의해보자</p>		중앙일보 및 문화콘텐츠닷컴 보도자료
정리	<p>- 모둠별로 활동 결과를 공유한다.</p> <p>- 모둠 자석 판을 칠판에 게시하여 전체 모둠별 활동 결과물을 공유한다.</p> <p>- 본시학습내용을 활동지에 정리한다.</p>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사자료
도입	해양직업의 세계(https://www.ilovesea.or.kr/seaJob/list.do) 사이트를 이용하여 해양 관련 직업을 조사해 보자 나의 진로는 어떻게 찾아갈까?		
전개	STEP1. 자신이 알고 있는 해양 관련 직업 말하기 STEP2. 해양관련 직업의 종류와 하는 일 조사하기 STEP3. 나의 적성에 맞는 진로는 무엇인가? 결정을 못했다면 나의 진로는 어떻게 찾아갈까? STEP4. 친구들의 진로에 대해 듣고 자신의 진로 로드맵을 작성해보자	활동지	
정리	- 모둠별로 활동 결과를 공유한다. - 모둠 자석 판을 칠판에 게시하여 전체 모둠별 활동 결과물을 공유한다. - 자신의 진로 로드맵을 활동지에 정리한다.		

7 차시별 활동지

1차시 장보고는 왜 해상왕이 되었을까?

활동1 장보고는 왜 해상왕이 되었을까?

- 1) 장보고와 엔닌의 일기에 대한 NIE 자료를 활용하여 3가지 주제에 대해 토의한 후 장보고가 중국에 간 이유와 그 후의 장보고 일대기를 작성한다.
- 2) 모둠별 발표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 활동지1

장보고는 왜 해상왕이 되었을까?

학년 () 반 () 모둠 모둠원 ()

1. 장보고는 공복이라는 이름에서 활을 잘 쓰는 자였다고 한다. 그리고 신분사회 신라에서 태어났다. 장보고는 여러분과 같은 10대 때 어떤 고민을 하였을까?

2. 엔닌의 일기에서 신라방에 사는 신라인들의 생활상과 장보고가 역량을 예측해보자. 당의 해적들이 신라인들을 노예로 매매하는 상황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3. 장보고가 죽임을 당한 이유는 정치적 반역 때문일까요? 경쟁자들의 야심에 의한 암살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4. 장보고는 왜 해상왕이 되었을까요

(예시 : 중국 무령군 소장 → 신라인의 생활고 등, 문제 상황 →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 청해진 대사 → 국제무역주도)

5. 모둠활동 및 다른 모듬의 발표를 듣고, 배운 점을 적어보자.

2차시 장보고 선단 대양 항해 어떻게 가능했나?

활동1 장보고 선단 대양 항해 어떻게 가능했나?

1) 우리나라 주변 해류 관련자료와 장보고 시대의 항해술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3가지 주제에 대해 토의한 후 장보고 선단 대양 항해 어떻게 가능했는지 토의내용을 작성한다.

2) 모듬별 발표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 활동지1

장보고 선단 대양 항해 어떻게 가능했나?

학년()반()모듬 모듬원()

1. 장보고 시대의 항해항로는 3가지가 있다.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모식도를 보고 장보고 항해항로와 관련되는 해류의 이름과 특징을 알아보자.

2. 선단이 항해를 할 때 왕복을 한다. 항해항로의 방향이 해류의 방향과 반대 일 경우 이것을 보완하는 항해술과 조선술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아보자.

3. 장보고 선단 대양 항해 어떻게 가능했는지 토의해보자

4. 모둠활동 및 다른 모둠의 발표를 듣고, 배운 점을 적어보자.

3차시 21세기 장보고는 무엇을 했을까?

활동1 21세기 나의 진로 찾기

1) 장보고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무슨 일을 계획하며 어떻게 살아갔을까? 이 시대에 장보고가 살았다면 해상왕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졌을 지도 모른다. 다만 우리가 배운 것은 장보고의 개척정신, 도전정신 등을 본받자는 의미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나의 일을 찾아보자

2) 모둠별 발표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 활동지1

21세기 나의 진로 찾기

학년 ()반 ()모둠 모듬원 ()

1. 자신이 알고 있는 해양 관련 직업 말하기

2. 해양 직업세계(<https://www.ilovesea.or.kr/seaJob/list.do>)에서 해양관련 직업의 종류와 하는 일 조사하기

3. 나의 적성에 맞는 진로는 무엇인가? 결정을 못했다면 나의 진로는 어떻게 찾아갈까?

4. 친구들의 진로에 대해 듣고 자신의 진로 로드맵을 작성해보자

주제	9세기 해상왕, 장보고	출처	중앙일보
1차시	장보고는 왜 해상왕이 되었을까?	내용	장보고

1) 장보고(?~846)

전남 완도에서 태어났다. 출생 연도와 신분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본명은 궁복(弓福), 또는 궁파(弓巴)로 전해진다. ‘활(弓)을 잘 쏜다.’는 뜻으로 어린 시절 무예에 뛰어났음을 짐작케 해준다. 청년기에 당나라로 건너가 쉬저우(徐州·중국 장쑤 성 서북부 도시)의 무령군(武寧軍)이라는 군대에서 장교를 지냈다. 828년 신라로 돌아와 완도에 군사기지이자 무역항인 청해진을 설치했다. 휘하의 병사가 1만여 명이나 됐다. 청해진을 기반으로 당나라 해적을 소탕하고 남해와 황해 해상권을 장악해 중국-신라-일본을 연결하는 중계무역을 성장시켰다. 하지만 왕위쟁탈전에 개입했다가 반대 세력이 보낸 자객에 죽었다.

2) 정치적 라이벌, 신라 중앙 진골 귀족

장보고 활동기는 신라 기득권 세력인 진골 귀족 간 왕위쟁탈전이 치열하던 때다. 태종무열왕 직계 자손인 혜공왕이 780년 죽은 뒤 신라는 이후 150년 간 무려 19명이 왕위에 올라 평균 재임 기간이 7.5년에 불과했다.



상당한 세력이 있던 장보고 역시 왕위 쟁탈전에 개입했다. 비상교육은 ‘신라 왕위 계승에서 패배한 김우징이 장보고에 의지하면서 장보고는 진골 귀족들의 정치 분쟁에 관여했다. 그는 막강한 해상력을 기반으로 민애왕을 살해하고 김우징을 신무왕으로 즉위시켰다. 이후 자신의 딸을 문성왕과 혼인시키고자 하였으나 중앙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이와 같은 장보고의 세력 확대에 위협을 느낀 중앙 귀족들은 마침내 장보고를 암살하였다’고 적었다. 천재교육은 ‘장보고도 중앙의 권력 다툼에 연루되어 반란을 일으켰다가 살해당했다’고 썼다.

하지만 역사학계에선 1980년대 이후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가 실제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다는 중앙의 진골 귀족 간의 갈등에서 제거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는 장보고가 모반을 일으켰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한다. 조선시대 사서인 『동국통감』은 누명을 씌운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학계에선 지방 출신 장보고가 중앙정부



사진1
외부 침입에 대비해
청해진에 설치된
목책의 흔적

의 실세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 귀족들의 조직적인 음모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중앙일보 2009년 10월 14일자 8면, ‘왜? 장보고는 반역자로 몰렸을까’). 이러한 시각은 문성왕이 장보고가 위협을 무릅쓰고 즉위시켰던 신무왕의 아들이었고, 여전히 문성왕의 최대 후원자가 장보고였다는 데서 나온다. 장보고가 모반을 통해 얻을 실익이 없었을 것이란 얘기다.

3) 신분의 한계를 딛고 해상제국을 세우다

장보고는 국제적 인물로, 중국 역사서인 『신당서』, 일본 『속일본후기』, 『입당구법순례행기』에도 언급돼 있다. 안정적인 국제 질서 속에서 당시 국제 교류가 활발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삼국통일(676년) 후 신라는 농업생산력이 높아졌고, 인구 증가로 상품 수요가 늘었다.

8세기 들어 당(唐)과의 관계가 개선돼 외교 사절을 통한 공무역뿐 아니라 사무역도 번성했다. 두산동아는 ‘당은 비단길과 바닷길을 통해 서역 및 중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했다. 신라는 당과 교류하며 세계적 교역과 문화 교류에 동참했다’고 썼다.

장보고가 청년기에 중국으로 건너간 데는 이런 분위기가 작용했다. 비상교육은 ‘장보고는 엄격한 골품제를 적용했던 신라에서 벗어나 당으로 건너가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적었다. 당시엔 당나라에 건너가 정착한 신라인이 많았다. 당나라 과거시험에 합격하는 이도 있었다. 신라인은 산둥 반도, 양쯔 강 하류 등에 정착해 집단 거주지를 형성했는데, 이를 ‘신라방’, ‘신라촌’ 등으로 불렀다. 신라 정착민이 많아 이들을 위한 감독관청(신라소)과 절(신라원)이 세워질 정도였다.

9세기 들어 왕위쟁탈전 등으로 신라가 혼란스러워지자 당나라와 신라 간의 공무역은 중단됐다. 대신 민간 해상 무역이 늘었다. 하지만 당나라 해적이 황해에 들끓었고, 당나라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라인이 생겼다.



사진2
장보고가 무역 거점이던 당나라
산둥 반도에 세운 사찰인 적산법화원.



사진3
장보고가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완도 법화사 절터에서 발굴된 유물들.

당나라 군대 장교로 활동하던 장보고는 이런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828년 신라로 돌아와 흥덕왕으로부터 자기 고향인 청해(완도)에 해적 소탕을 위한 군사 기지 설치를 허락 받았다. 이게 청해진의 전신이다.

비상교육은 ‘장보고는 귀국하여 흥덕왕에게 해적 소탕을 위한 청해진 설치를 요구하였다. 흥덕왕은 장보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사(大使)의 직함과 함께 군사 1만 명을 주어 마침내 청해진이 설치되었다’고 썼다. 하지만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약한 때였던 만큼 청해진 설치는 장보고의 주도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크다. 천재교육은 『삼국사기』를 인용해 ‘궁복(장보고)은 귀국하여 왕을 알현하고 졸병 1만 명을 이끌고 청해에 진을 세웠다’라고 했다. 두산동아도 ‘장보고가 1만 명 넘는 군사를 모아 청해진을 설치했다’고 소개했다.

장보고는 청해진을 기반으로 해상권을 장악했다. 두산동아는 ‘청해진은 당과 신라·일본을 연결하는 국제 무역 항로의 중간 지점이었고, 장보고는 이를 중심으로 해적들을 소탕하고 당·신라·일본을 연결하는 국제 무역을 주도했다’고 표현했다. 장보고가 이룩한 해상왕국 덕분에 통일신라는 서역과도 교류했다. 지학사는 ‘신라의 대외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아라비아·페르시아 등의 서역 상인들도 중국을 거쳐 울산항에 왕래하였다. 이들은 서역·인도·동남아시아 등지의 진귀한 물건을 가져왔다. 신라는 이를 신발·가구 등에 장식하여 귀족 사회의 사치품 수요를 충족하고 외국에 재수출하기도 하였다. 서역 상인들은 신라의 수공업 제품과 약재 등을 구입하였는데, 이는 이슬람 세계에까지 흘러들어 갔다’고 했다.

장보고는 직접 무역을 주도했다. 당과 일본의 허락을 받아 양국에 독자적인 교역 사절단을 파견했다. 장보고의 상품은 당과 일본에서 인기가 높았다. 지학사에 ‘일본에선 그의 배가 신고 오는 물건들의 인기가 높아 이를 구매하려고 예약 대금을 미리 납부할 정도였다’는 『속일본후기』의 내용이 실려 있다. 그러나 장보고가 죽은 뒤 청해진은 해체됐고, 3국 간 중계무역 역시 쇠퇴했다. 천재교육은 『속일본후기』를 인용해 ‘장보고가 살아 있을 때 당나라 물건을 사기 위해 비단을 주고 그 대가로 물건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수가 적지 않았다. 이제 장보고가 죽어 물건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지금 장보고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 언론에선 그가 신분제 한계를 뛰어 넘은 점을 높이 산다. “기근과 사회 불안으로 한반도에서 고달프게 살아야 했던 신라인들에게는 ‘당(唐) 드림(dream)’이 있었다. 장보고는 어촌에서 태어나 당 드

림을 실현한 최초의 한국 기업인으로 남아 있다.(중앙일보 2009년 10월 8일 8면)
 또 장보고가 힘을 바탕으로 동북아 해상에서 평화를 유지했던 점을 높게 평가한다. “그의 강력한 수
 군 아래 서해는 평화를 찾고, 해상 무역은 꽃을 피울 수 있었다.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동아
 시아 해역을 3국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선 장보고에 비견될 우리의 새로운 노력이 요구된다.” (중
 앙일보 2012년 8월 22일 32면 ‘21세기의 장보고를 기다리며’)

장보고가 해상 제국을 연 것은 지금부터 1100여 년 전이다. 그의 죽음과 함께 청해진은 몰락하고
 해상 제국의 꿈도 이어지지 못했다.

주제	9세기 해상왕, 장보고	출처	법보신문
1차시	장보고는 왜 해상왕이 되었을까?	내용	엔닌과 신라의 인연

“청해진대사의 어진 덕을 삼가 우러러 볼 따름입니다”

“아직껏 귀하를 직접 뵈옵지는 못했으나 높으신 이름을 오래 전부터 듣고 있었기에 우러러
 존경하는 마음이 더해갑니다. 봄이 한창이어서 이미 파사롭습니다. 바라옵건대 대사의 존체에
 만복이 깃들이기를 기원합니다. 저 엔닌은 대사의 어진 덕을 입었기에 삼가 우러러 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품어온 뜻을 이루기 위해 당나라에 왔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은 다행히
 대사께서 발원하신 적산원(赤山院)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와 기쁨 이외에는
 달리 표현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엔닌의 일기-

840년 2월, 엔닌(圓仁, 794~864)이 처한 상황은 절박했다. 당나라 땅을 밟은 지 두
 해가 돼가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여행허가서가 없으면 불법을 배우기는커녕 순례도
 못하고 돌아가야 했다. 황제가 이미 일본 유학승을 불허한 상황에서 이를 돌이키기란
 쉽지 않았다. 이제 그가 의지할 곳은 장보고(張保臯, ?~841)와 그를 따르는 재당(在唐)
 신라인들뿐이었다. 하지만 엔닌은 확신했다. 그동안 자신이 보아온 신라인들이라면 어떻게든
 당 관청에서 여행허가서를 받아 내리라는 것을. 엔닌은 자신의 원이 이뤄진다면 일본에
 돌아가서도 장보고와 신라인에 대한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현장의
 ‘대당서역기’,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과 더불어 동양의 3대 여행기 중 하나로 꼽히는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의 저자 엔닌. 뛰어난 여행가였던 엔닌은 794년
 시모스케국(下野國) 쓰가군(都賀郡)에서 태어났다. 백제계 이주민의 후손이었던 엔닌은
 9살 때 집안과 인연이 깊었던 다이지지(大慈寺)에 맡겨졌다. 그곳에서 불경을 공부하던
 엔닌은 ‘법화경’의 ‘관세음보살보문품’에 깊이 매료됐다. 어린 엔닌을 유심히 지켜보던 승려
 고우치(廣智)는 그가 여느 아이들과 확연히 다름을 알았다. 엔닌이 15살 되던 해인 808년,
 고우치는 그를 데리고 천태종 총본산인 히에이산(比叡山) 엔라쿠지(延曆寺)에 올랐다. 천태종을
 개창한 초대 좌주(座主) 사이초(最澄, 767~822)는 흔쾌히 엔닌을 제자로 받아들였다.
 엔닌은 사이초의 해박함과 진리에 대한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사이초는 제자들에게
 “불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나라의 보배다. 속세에서도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한다”고
 당부하고는 했다. 엔닌은 스승의 말처럼 나라와 백성들에게 두루 쓸모 있기 위해서는 먼저
 널리 배워야한다고 생각했다. 엔닌은 엄격한 스승 밑에서 천태사상을 비롯해 선, 계율, 밀교를
 차근차근 익혀나갔다.

817년 도다이지(東大寺)에서 구족계를 받을 무렵 엔닌은 천태종이 처한 불운한 상황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밀교가 일본불교의 흐름을 주도할수록 천태종은 비주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계하고자 스승 사이초는 7살 아래인 진언종 개조 구카이(空海, 774~835)에게 제자의 예를 갖추가며 도움을 요청했다. 심지어 26명의 직제자들이 구카이 밑에서 밀교를 수학할 수 있도록 청하는 일도 있었다. 구카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그의 결별선언은 사이초와 제자들로 하여금 깊은 좌절과 열등감에 시달리도록 했다. 엔닌이 29살 되던 해인 822년, 스승 사이초의 쓸쓸한 입적을 지켜보아야 했던 그는 천태종의 중흥을 이루리라 다짐했다. 엔닌은 엔랴쿠지에 머물며 법을 설하고 수행을 지속했다. 때로 호류지(法隆寺)나 시텐노지(四天王寺) 등 큰 사찰의 초청으로 ‘법화경’을 강설하기도 했다. 몸을 돌보지 않고 수행에 전념하던 엔닌은 40살 되던 해 큰 병이 들었다. 점차 심해지더니 오래지 않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병세가 깊어졌다. 모두들 엔닌이 세상을 떠날 거라며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생사의 문턱에서 그는 불보살의 가피를 입었고, 병석에서 훌훌 털고 일어설 수 있었다. 그 사건은 엔닌의 신심을 더욱 도탑게 했다. 불법에 대한 그의 열정도 점점 커져갔다. 835년, 42살의 엔닌은 당에 들어가 법을 배울 수 있는 구법승에 선출됐다. 술한 생사의 기로에 서야만 하는 고난의 시작이었다. 다음해 견당선의 돛이 펼쳐졌다. 엔닌과 그의 제자들은 배에 올랐다. 허나 태풍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거센 폭풍우로 연거푸 두 번 실패했고, 배 4척 중 3척이 심하게 파손됐다. 배 수리가 끝난 838년 6월, 견당선 3척이 다시 하카타항(博多港)을 출발했다. 바람은 잔잔했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보였다. 당나라가 멀지 않았을 때였다. 거센 폭풍우가 밀어닥쳤다. 일행은 간신히 양주(揚州)에 도착했지만 배는 부서지고 짐들은 유실됐다. 엔닌도 물건 대부분을 잃었다. 그 중에는 지쿠젠국(筑田國) 태수 오노노 수에츠그(小野末嗣)가 청해진대사(淸海鎮大使) 장보고에게 편의를 당부하는 추천서도 포함돼 있었다. 엔닌은 크게 낙담했다. 견당사 일행은 당의 수도인 장안으로 향했다. 그러나 엔닌은 양주 개원사(開元寺)에 머무르며 교류를 넓혀나갔다. 대부분 승려들이었지만 상인들도 적지 않았다. 그중에는 신라 무역상인도 여러 명 있었다. 그는 성지를 순례할 수 있는 여행허가서를 얻으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엔닌과 견당사 일행은 839년 2월 운하를 따라 장안으로 갔다. 엔닌은 그곳에 도착해 있던 일행들과 합류해 귀국하려는 배에 올랐다. “내가 바다를 건너 먼 이국에 온 것은 불법을 배우고, 성지를 순례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원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되다니.” 엔닌은 이대로 돌아갈 수 없었다. 고민을 거듭하던 엔닌은 제자 등 일행 3명과 산동에서 몰래 내렸다. 일단 당에 남아 순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엔닌은 그때 초주(楚州)로 목탄을 수송하던 신라인들을 만났다. 그들을 따라 마을에 갔지만 당의 관리에게 발각돼 다시 견당선으로 이송됐다. 42살의 엔닌 구법승으로

선발, 세 번 출항한 끝에 당에 도착, 여행허가증 못 받은 상황에서 장보고 등 신라인 도움 얻어 신라인 없었다면 순례 불가능

840년 2월17일 보낸 편지에서 장보고 대사에 깊은 감사 표명 엔닌은 모든 걸 체념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그러나 운명이었을까. 때마침 부는 역풍으로 배가 산동 반도로 되돌아왔다. 그 다음날인 6월8일부터 엔닌은 적산법화원에서 신라인들의 보호 속에 머물렀다. 장보고가 세운 법화원은 산중 사찰이었지만 규모가 상당히 컸다. 토지를 갖고 있었고 거기서 매년 500섬의 쌀을 소출한다고 했다. 모든 예불의식은 신라 풍속을 따랐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신라어로 진행됐다. 적산법화원은 당나라 땅의 작은 신라였다. 엔닌은 적산법화원 주지 법청(法淸)에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법청은 그가 무사히 당에서 구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신라인 장영(張詠), 왕훈(王訓), 최훈(崔暲) 등도 적극 거들고 나섰다. 허나 조정에서 이미 일본 유학승 불허가 확정된 탓에 이에 대한 번복이 결코 쉽지 않았다. 마지막 결정을 가름할 그 무엇이 필요했다. 엔닌은 장보고를 떠올렸다. 엔닌에게 장보고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그가 일본을 떠나기 전부터 장보고는 당, 신라, 일본의 해상을 장악한 국제적인 인물로 잘 알려졌다. 지쿠젠국의 태수가 장보고에게 추천서를 올리라고 했던 것도 그가 허락한다면 안전은 보장된다는 믿음에서 비롯됐다. 엔닌은 법화원에 머무르며 장보고에 대한 세세한 얘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다. 그는 신라인의 영웅이었고, 바다 위의 제왕이었다. 당시 신라는 중앙집권체제가 무너져가면서 왕위계승쟁탈전이 치열했다. 백성들은 갈수록 피폐해졌고 스스로 살길을 모색해야 했다. ‘궁복(弓福)’ ‘궁파(弓巴)’로 불린 장보고도 그런 백성들 중 하나였다. 젊은 시절 장보고는 중국으로 건너가 서주(徐州) 무령군(武寧軍)에서 장교로 근무했다. 활과 창 쓰기에 능하고 지략까지 갖춘 그는 30살 때 군사 10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이 될 수 있었다. 폐쇄적인 골품제도가 뿌리 깊은 신라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장보고는 824년 무렵 안정된 삶과 출세를 포기하고 귀국했다. 신라인을 붙잡아 노예로 팔아넘기는 중국인 노예무역선을 소탕하기 위해서였다. 완도지역에서 자신의 세력기반을 구축한 그는 828년 흥덕왕(興德王)을 만났다. “중국 도처에는 신라인이 잡혀와 노비가 되고 있습니다. 청해(淸海)에 진(鎭)을 설치한다면 해적들이 우리 백성을 더 이상 잡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왕은 장보고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그를 청해진 대사로 임명했다. 병사와 토착주민 1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장보고는 출몰하는 해적선을 직접 소탕하고 노예무역과 연결된 해상세력들을 엄격히 단속했다. 그의 활약이 두드러질수록 서남해안 일대의 도적들이 설 곳이 없었고 노예무역도 점차 근절됐다. 장보고는 당과의 교역을 위해 수시로 교역사절단을 파견했다. 또 등주 적산포를 거점으로 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라인들을 규합해 조직화했다. 그는 당의 물품을 구입해 일본에 판매하는 중개무역을

본격화했다. 이를 위해 장보고는 직접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다. 교역은 대성공이었다. 중국과 일본의 최고 실권자들까지 장보고와 줄을 놓으려 백방으로 노력했다. 장보고가 정치에 개입한 것은 836년 12월, 흥덕왕이 세상을 떠난 뒤 벌어진 왕위쟁탈전 때였다. 민애왕의 찬탈 소식을 들은 흥덕왕의 손자 우징(祐徵)이 장보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우징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면 그의 딸을 왕비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장보고는 “의로운 일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용기가 없는 것”이라며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 들었다. 전쟁에 능숙했던 장보고는 우징에게 친군만마였고, 839년 1월 우징이 왕위(신무왕)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장보고 덕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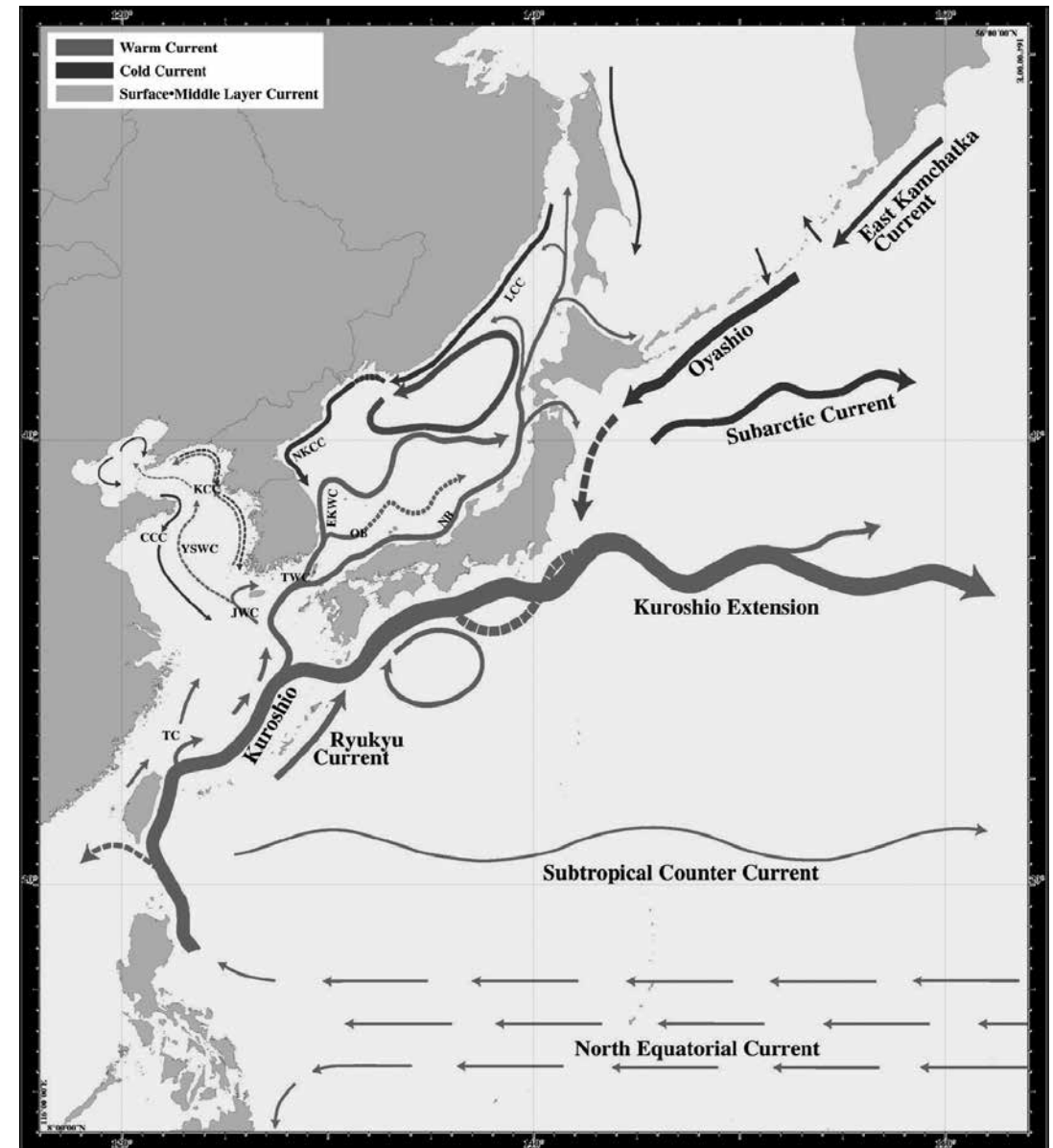
840년 2월17일, 엔닌이 장보고에게 편지를 쓸 무렵은 장보고의 최전성기였다. 신라 최고의 실력자였을 뿐 아니라 당에서 일본에 이르는 바다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엔닌은 편지에서 오래전부터 대사를 존경했으며 대사가 세운 적산원에서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지쿠젠 태수가 대사에게 전하라던 편지를 폭풍우 속에서 잃어버렸음도 전했다. 엔닌은 굳이 여행허가서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법화원의 신라인들에게 벌써 전해 들었을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엔닌이 장보고에게 편지를 보내고 얼마 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일어났다. 3월9일 당 관청이 그에게 여행허가서를 발급한 것이다. 그 배경에 장보고의 배려가 있었음이 분명했다. 엔닌에게 장보고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다. 그는 애초 천태산을 가려던 계획을 접고 좀 더 가까운 오대산으로 향했다. 그렇더라도 800km가 넘는 험난한 길이었다. 엔닌은 그 여정에서도 신라인 사찰인 신라원(新羅院)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오대산에 도착한 그는 3개월 간 그곳을 순례했다. 오대산은 문수신앙의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수많은 천태의 현자들이 머물던 성지였다. 엔닌은 그곳에서 지원(志遠) 등 여러 선지식을 만나 일본 천태종이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들에 대한 답을 얻었고, 중대를 비롯한 오대산 다섯 봉우리에 모두 올라 참배도 했다. 840년 7월1일 엔닌은 다시 장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가장 큰 관심은 밀교였다. 8월20일 장안에 도착한 엔닌은 자성사(資聖寺)에 상주하며 유명한 밀교 승려들을 찾아가 배움을 청하고 중요한 경전을 필사했다. 특히 당시 최고의 밀교 고승이었던 원정(元政)에게서 ‘금강계대법(金剛界大法)’을, 의진(義眞)에게서는 태장(胎藏)·소실지대법(蘇悉地大法)을 익힐 수 있었다. 이는 진언종의 구카이도 배울 수 없었던 새로운 밀교 수법(受法)으로 스승 사이초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렇게 장안에서 1년을 보낸 엔닌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는 관청에 귀국을 허가해달라는 문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좀처럼 허가가 나지 않았다. 엔닌은 초조해졌다. 불교를 대하는 황실의 태도가 악화된 것도 그를 불안하게 했다. 결국 842년 중국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불교탄압 중 하나인 무종(武宗)의 회창폐불(會昌廢佛)이 시작됐다. 갈수록 탄압은 거세졌고, 수많은 사찰들이 사라졌다. 845년에는 50세 이하의 승려들을 모두 환속시켰고, 이를 따르지 않는 자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빼앗았다. 사찰은 이제 요주의 대상이었고, 남아있는 비구·비구니들도 함부로 절 밖을 나가면 그 자리에서 죽이도록 했다. 얼마 후 그 법은 외국인 승려였던 엔닌에게도 적용됐다. 그는 속복을 입고 머리를 기를 수밖에 없었다. 그와 친분 있는 고위 관료들도 더 이상 그를 도울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신라인들을 떠올렸다. 귀국 조치가 떨어지자 엔닌은 장안을 떠나 초주(楚州)로 향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난 설전(薛銓)과 유신언(劉慎言) 등 신라인들이 엔닌의 귀국을 도우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엔닌이 해주를 거쳐 문등현에 도착했을 때는 거지꼴이나 다름없었다. 옷은 해지고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은 극도로 야위었다. 다행히 엔닌은 그곳에서 자신을 적극 도와줬던 장영을 만났다. 그는 엔닌에게 머물 곳을 마련해주고 일본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직접 배를 건조했다. 그러나 장영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참소를 하는 바람에 엔닌은 결국 그 배를 탈 수 없었다. 그 무렵 엔닌은 장보고가 신라의 중앙귀족들이 보낸 자객에 의해 암살당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암살 명분은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이다. 엔닌은 통탄했다. 장보고는 타고난 신분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모순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진정한 영웅호걸이었다. 엔닌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정략에 휘말려 목숨을 잃어야 하는 현실세계가 안타깝고 혐오스러웠다. 엔닌이 입당한지 10년 째 되던 847년 9월2일, 그는 마침내 적산포(赤山浦)에서 신라인 해상업자인 김진(金珍), 김자백(金子白), 흠양휘(欽良暉) 등의 도움을 얻어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엔닌은 귀국에 앞서 다시 삭발을 하고 승복을 입었다. 장영 등 신라인들은 엔닌이 무사히 일본에 도착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귀한 선물까지 주었다. 신라인이 모는 배는 한반도 서남해를 거쳐 9월18일 무사히 하타카항에 도착했다. 10여년에 걸친 험난한 여정, 오직 불법을 익히겠다는 열정으로 나섰던 파란만장한 순례가 막을 내린 것이다. 54살의 나이에 일본 땅을 다시 밟은 엔닌은 최고의 고승으로 받아들여졌다. 854년 4월, 엔라쿠지 3대 좌주가 된 그는 천태사상과 밀교를 선양하는데 주력했다. 또 틈틈이 집필에 매진해 ‘입당구법순례행기’ 외에도 ‘금강정경소(金剛頂經疏)’ ‘현양대계론(顯揚大戒論)’ ‘도법관정비록(都法灌頂秘錄)’ 등 여러 저술을 남겼다. 엔닌은 제자들에게 장보고와 적산원에 대한 얘기를 자주했다. 이들 기념하는 선원(禪院)을 세웠으면 하는 속내도 털어놓았다. 864년 1월14일 72살로 엔닌이 입적하자 제자들은 스승의 바람대로 히에이잔 서쪽 기슭에 적산선원을 건립했으며, 신라신사를 짓고 신라명신상(新羅明神像)을 모셨다. 일본 조정은 엔닌이 입적하고 한 달여 지난 2월16일 법인대화상(法印大和尚)의 위를 수여했고, 866년 7월14일에는 ‘자각대사(慈覺大師)’라는 시호를 내렸다. 엔닌이 장보고에게 보낸 편지는 ‘입당구법순례행기’에 수록돼 있다.

주제	9세기 해상왕, 장보고	출처	문화콘텐츠닷컴 해양과학조사연구소
2차시	장보고 선단 대양 항해 어떻게 가능할까?	내용	우리나라 주변 해류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모식도〉

〈장보고 해양항로〉



제1항로 : 완도(청해진) → 남해안연안 → 신라서해안 → 황해 횡단 → 산둥의 문동현 적산포

제2항로 : 완도(청해진) → 남해안연안 → 신라서해안 → 초주, 연수

제3항로 : 완도(청해진) → 남해안연안 → 신라서해안 → 명주

〈우리나라 주변 해역 주요 해류 특징〉

해류	특징
대만난류(TWC)	동중국해와 황해로부터 제주도 북쪽과 남동쪽으로 유입된 해류가 제주도 동쪽해역에서 만나 대만난류를 형성 이는 다시 대마도에 의해 서수도와 동수도로 나뉘어져 흐름
동한난류(EKWC)	대한해협의 서수도를 통과한 대만난류가 한국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흐르는 난류 북위 약 37~38도 부근에서 북동방향으로 이안한 후 동해 동안을 사행하며 스가루해협 쪽으로 흐름 동한난류의 사행진로는 해마다 바뀜
일본분지(NB)	대한해협을 통과한 대만난류의 일부가 일본 서쪽 연안을 따라 북동진하는 흐름
외해분지(OB)	대한해협을 통과한 대만난류의 일부 중 한국 남동해안에서 분기되어 동쪽으로 사행하는 흐름으로 수년의 변동성을 지님
제주난류(JWC)	제주도 남쪽의 동중국해상에서 대만난류와 규슈 서쪽 쿠로시오 분지류의 영향을 받아 생성되며 제주를 시계방향으로 돌아 제주해협으로 유입됨 겨울철 세력이 서쪽으로 확장됨
한국연안류(KCC)	한국의 서쪽 연안을 따라 흐르는 해류로 여름에는 북상하고 겨울에는 남하함
중국연안류(CCC)	산둥반도를 지나 중국 동쪽연안을 따라 흐르는 해류
쿠로시오(Kuroshio current)	북태평양 중위도 아열대 순환의 서안경계류로서, 북적도 해류의 일부가 필리핀 동쪽해역을 따라 북상하다 대만과 요나구니지마 섬 사이를 통해 동중국해로 유입됨 동중국해 유입 이후 외나와 협곡을 따라 북상하다. 토카하 해협을 통해 북서태평양으로 유출됨 고온, 고염분의 해수로 구성

주제	9세기 해상왕, 장보고	출처	중앙일보, 오피니언뉴스
3차시	장보고 선단 대양 항해 어떻게 가능할까?	내용	조선술 및 항해술

“장보고는 해류 이용한 천재”

고선박연구가인 마광남씨는 “거친 파도를 이겨내려면 바닥이 평평하기보다는 뾰족한 형태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먼 바다를 다니려면 현대의 원양어선처럼 뾰족한 형태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울산과학기술대 이창익(해양조선학과) 교수는 “장보고의 무역 항로는 북방항로뿐 아니라 서해 남부 항로도 다녔다”며 “이런 곳을 다니기 위해서는 밑바닥이 평평한 배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라 배도 한국 고유의 배 형식과 같은 밑바닥이 평평한 모양”이라고 주장한 고 김재근 서울대 명예교수 등을 반박하는 논리다. 일본의 구법승인 엔닌은 ‘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 ‘신라 배는 작지만 날렵하고 강하다’고 표현했다. 또 신라 배는 동남풍과 서남풍을 이용해 남쪽으로 항해하는 ‘역풍항해’까지 했다고 기록했다.

마광남씨는 “역풍 항해를 하려면 지그재그 방식으로 이동을 해야 하고, 능숙한 돛 조절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의 항해 각도는 목표지점을 향해 50도에서 60도 정도로 움직여 줘야 한다는 얘기도.

장보고 선단은 항법도 앞서 있었다. 정필수 한국종합물류연구원장은 “장보고 선단 항해사는 지문항법·천문항법·수문항법 등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문항법은 육상이나 섬의 모양과 목표물을 보고 항해하는 것이고 천문항법은 해와 별자리 등 천체를 활용하는 것이다. 수문항법은 물의 깊이나 색깔을 파악해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다. 장보고는 이들 항해술로 해류와 바람이 다른 한반도 남해와 서해, 남중국해 등을 자유자재로 다녔다. 1992년 완도 일대를 답사한 동서교역사 권위자인 휴 클라크(미국 얼시뉴스 대학) 교수는 장보고의 동북아 해상 장악을 아라비아인들의 남해무역 지배와 비교하면서 “지형과 해류를 잘 이용한 장보고는 천재”라고 평가했다.

파손돼도 침몰은 안 돼

고선 전문가들은 신라 배는 한 쪽이 바위 등에 부딪쳐 파손돼도 가라앉지 않도록 앞부터 뒤까지 칸막이를 여러 개 한 것(수밀격벽구조)으로 보고 있다. 엔닌의 기록에 선체의 밑바닥이 모두 부서지고 찢어진 가운데 밑물이 밀려왔지만 계속 항해를 했다는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선체에 물이 차도 한 번에 침몰하지 않고 긴급 항해가 가능했다. 이원식 소장은 “2006년 중국 산둥성 평라 이시에서 발견된 고려 선박이 이런 구조인 것으로 보아 원양항해를 했던 신라 배 역시 비슷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신라 배는 튼튼했다. 강상택 전 한국해양대 교수는 “신라 배는 배 측면을 만들 때 판끼리 겹치는 방식으로 한 뒤 참나무 썰기를 박아 고정시켰을 것”이라며 “일본 배는 판자들을 수평으로 이은 뒤 못으로 고정시켜 약했다”고 설명했다.

신라인들은 중국과 해상교류를 시작했던 3세기 무렵부터 항해기술을 배워 신라의 해상형편에 맞도록 개발시켰다. 당나라 시대에는 신라의 항해기술이 당나라보다 훨씬 발전해 전성기를 이룬다. 백제는 한성, 웅진성, 사비성 등 역대 수도를 중심으로 도로와 다리를 건설해나갔다. 백제의 활발한 도로 건설은 영토의 확장과 관련이 있다. 도로교통과 더불어 고대 통신법인 봉화제도도 일찌감치 발달했다.

신라가 해상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항해기술이 일찍부터 발달했던 것도 한몫 했다. 신라인들은 중국과 해상교류를 시작했던 3세기 무렵부터 중국의 항해기술을 배워 신라의 해상형편에 맞도록 더욱 개발시켰던 듯하다.

이런 신라의 항해술은 당나라 시대에 이르면 당나라의 항해기술보다 훨씬 발달하여 항해술의 전성기를 이룬다. 신라의 항해술을 이해하기 전에 당나라의 항해술은 어떻게 발달했는지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된다.

신라와 당나라는 당나라 건국 때부터 멸망 때까지(618년~907년) 무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교류, 문화교류, 나당 연합군의 군사교류, 사신교류 등으로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따라서 항해술·조선기술·선단 운영술을 발전시키는 데 당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장보고는 소년 시절에 당으로 들어가 청년이 된 뒤 당나라 장군이 되기까지 당에서 오래 살았는데, 이때 발달된 항해술을 배웠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고사기(古史記)인 <해도지>(770년), <해조부>(850), <해조론>(900) 등에 따르면 당은 정확한 해류의 파악과 이를 이용한 항해술이 매우 발달했다. 해마다 4월에서 7월까지 중국 동해안에는 서남 계절풍이 불었는데, 바로 그 계절풍을 타고 일본에서 당으로 갔다.

신라의 배는 이미 6세기 초부터 강이나 연안 해로에서 돛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신라와 당이 돛 달린 해선으로 본격적인 항해를 한 것을 8세기 초로 보고 있다.

중국 고사기인 <태평어람>에는 조병이라는 무역거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돛을 펴고 배 중앙에 앉아 큰 고함으로 바람을 불러 유유히 바다를 건넜다고 전한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바람과 돛만 있다고 해서 넓은 바다를 항해할 수는 없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뱃길을 잘 아는 것이다. 당나라는 실용적인 항해도를 일찍부터 만들어 썼다. 군부 내에 직방랑중(織方郎中)이라는 항해도 전문 작성 부서까지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다.

당대의 명재상인 매담(賈耽)이 만든 항해도인 ‘등주해행입고려발해도(登州海行入高麗渤海道)’에 당에서 한반도 서해로 가는 ‘해내화이(海內華夷)’라는 뱃길이 그려져 있어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구름 낀 날이나 별 없는 어두운 밤에도 항해할 수 있도록 나침반도 만들어 이용했다. 나침반은 고대 중국의 발명품인데, 당의 나침반은 지남철 침을 이용한 것으로 기원전 2세기 한(漢)나라 때부터 쓰던 관측성술, 즉 별을 관측하는 기술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이렇게 중국과 오래 교류하면서 신라에는 항해도, 즉 뱃길을 잘 알고 나침반을 능숙하게 다루는 항해사인 ‘암해자(暗海者)’가 많았다. 그 증거로 당에 들어갔던 일본 사람 엔닌(園仁)이 일본으로 돌아갈 때 귀국선단(船團)의 배 아홉 척에 신라인 암해자 60명을 분승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신라는 항해 기술의 기본을 당에서 배워 발달시킨 것으로 보인다.

신라인들은 3세기부터 바다를 거쳐 중국으로 내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해선이었다.

초기에는 육지 연안을 따라 내왕하는 연안 해로였기 때문에 주로 노를 젓는 배를 썼지만 다양한 통로로 바다를 건너는 해로교통이 발달하던 4세기에 들어서면서 신라의 배 만드는 기술도 점차 발달했다. 그래서 통일신라시대에 접어들면 당나라의 조선기술보다 크게 앞섰다.

또한 신라는 개국 초기부터 일본의 침략을 자주 받아 이를 막느라 수군(水軍)과 배가 꼭 필요했다. 그래서 특히 군선, 즉 바다에서 싸울 수 있는 전투용 배를 만드는 기술도 함께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런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대 유례왕 6년(289)과 22대 자비왕 10년에 군선을 수리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일본에 배 만드는 기술자를 파견한 기록도 있다.

4세기 무렵 일본의 배는 기둥과 대들보를 줄로 엮어 만든 원시적인 떼배여서 신라왕이 조선기술자를 파견했다고 한다.

이때 신라에서는 목판을 붙일 때에 나무못이나 쇠못을 쓰지 않고 요철로 파내어 결합시키는 기술이 이미 발달했다.

신라의 조선기술이 발달한 동기 가운데 하나는 서해와 동지나해 연안으로 이주했던 신라 유민들의 힘도 컸다. 일본 승려 엔닌의 기행문인 <입당구법승려행기>(794~864)와 <속일본기>를 보면 그런 기록을 살필 수 있다.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중국에는 신라 해상민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양자강과 경향 대운하 등 산동 반도의 항구들 주변에 자리 잡고 살던 신라 해상민들은 당나라 시대에 이르러 신라인 집단촌을 열 군데나 꾸렸다.

그들이 운송·조선·무역업·상업·제조업에 종사하여 중국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자 당나라 조정에서는 치외법권의 특혜를 누리도록 허락했다. 특히 양자강 어귀 유산포 항구에는 서해를 건너다니는 신라인들의 대형 해양선들이 모여들어 배의 수리업과 함께 조선업도 크게 번창했다.

당나라 거주 신라 해상민들의 조선기술은 뛰어났다. 목판 한쪽을 가늘게 깎은 '장부'를 다른 목판에 뚫은 구멍에 끼워 맞추는 기술, 쇠못을 깎아 만드는 기술, 방수기술이 남달랐다. 그리고, 물에서 잘 썩지 않는 녹나무 같은 특수목재로 배를 만드는 조선기술까지 선보였다.

신라인들은 이런 조선기술로 원양 항해선뿐만 아니라, 하천이나 강에서 운행하는 수운선, 전투함, 경주용 용선(龍船) 등 다양한 배를 만들었다.

중국의 고서인 <구당서>에 이런 기록이 잘 나온다. 기록을 보면 신라인이 건조한 배들이 양자강의 나루터들을 장악하고, 수만 척의 배들이 주야로 왕래하여 교역을 했다. 특히 원양 항해용 해선은 선체가 웅장하고 안정성이 뛰어나 아라비아와 일본인들이 타기 좋아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렇게 훌륭한 신라인들의 조선기술은 당나라에도 큰 영향을 끼쳐 중국 배는 당나라시대에 비로소 크게 발전한 듯하다. 당나라의 동래·강주·양주·상주·항주·복건 등 주요 항구에는 신라와 당나라 사람이 만든 수많은 조선소가 있었다. 이곳에서 많은 배를 만들어 군사·운수·교역에 쓰였음이 중국 고서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 신라의 배 모양과 종류**

1960년 양자강변에서 당나라시대의 배와 선창이 발견되었다. 길이 24m, 높이 1.4m, 너비 4.3m의 이 대형 당나라 선박은 녹나무로 만들었는데 장부 맞춤과 못박이 기술로 짜 맞춘 완벽한 방수선이었다. 또 1973년에 양자강변의 마항에서 출토된 길이 17m, 너비 2.6m의 삼나무로 만든 목선은 선실이 9개에다 돛이 하나 있는 범선이었다.

이 두 배는 신라의 조선기법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배들이 출토된 양자강변은 신라의 유민들이 살던 곳으로, 당나라·일본·신라인들의 출입이 잦던 항구들이 집중해 있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양자강변 화남도에 있는 양주와 초주 항구 근방 치외법권 지역에 모여 살던 신라인들은 해상운수업과 무역이 주된 산업이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선박제조와 수리업이 번성했던 것은 당연했다.

그러면 신라방의 신라인들이 만든 배의 모양은 어떠했을까? 엔닌의 일기나 당나라 고서인 <구당서> 기록에 잘 설명되어 있다. 범선은 갑판이 없으며 중앙에 돛과 노와 키가 있는 배다. 관선(官船)은 갑판이 있으며 문과 창이 달린 방 하나에 주위에는 난간이 설치되었고 갑판과 선창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사다리가 있었다.

방인 누각 말고는 갑판에 천막을 쳤으며, 배의 조립은 나무판재를 구부려 못으로 결합했다. 또 무거운 돛을 끌어올리고 내리는 승하강장치가 달려 있고 스무 폭쯤 되는 천으로 만든 큰 돛을 쓰는 대형 해선이었다.

이러한 신라방의 선박들은 일본 배보다 안전해서 일본 사신들이나 무역상들이 즐겨 탔다. 그 증거가 <입당구법승려행기>에 담겨 있다. 이 여행기의 저자인 일본승려 엔닌이 당에서 일본으로 귀국할 때 신라 선박 9척을 신라방에서 빌려 신라 선원 60명을 태운 이야기는 앞서서도 했다.

바다를 건너다니는 해양선은 밑바닥이 칼날처럼 생긴 '첨저선(尖底船)'이고, 연안을 주로 다니는 해안선은 서해안의 얕은 수심에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밑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을 이용했을 것으로 본다.



<그림13> 삼국시대의 선박 전쟁박물관

항해술이 뛰어난 장보고는 속력이 빠른 배가 필요했을 것인데, 배의 속도를 좌우하는 것은 돛의 숫자다. 따라서 두 개가 넘는 독립적 기능을 가진 대형 돛을 설치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나 역사학자들의 결론이다.

1984년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배가 한 척 발굴되었다. 완도선이라고 부르는 이 배는 선미와 선수부가 없고 상부도 삭아 없어져 배의 남은 길이는 9m, 너비가 3.5m, 높이가 1.7m로 그다지 큰 배는 아니었다. 하지만 학계는 이 배를 해안을 향해하던 장보고의 청해진 배로 보고 있다.

명나라 사기 <동서양고> 중 범례조를 보면, 나침반은 원래 중국에서 발명되었으나 이를 선박항해용으로 사용한 것은 백제의 해민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차시 장보고는 왜 해상왕이 되었을까?

활동1 장보고는 왜 해상왕이 되었을까?

- 1) 장보고와 엔닌의 일기에 대한 NIE 자료를 활용하여 3가지 주제에 대해 토의한 후 장보고가 중국에 간 이유와 그 후의 장보고 일대기를 작성한다.
- 2) 모둠별 발표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 활동지1

장보고는 왜 해상왕이 되었을까?

(학년(^{3,4,5})반 () 모둠 모둠원 (김민준, 김민우, 이원성, 이현수))

1. 장보고는 궁복이라는 이름에서 활을 잘 쓰는 자였다고 한다. 그리고 신분사회 신라에서 태어났다. 장보고는 여러분과 같은 10대 때 어떤 고민을 하였을까?

활을 잘 쓰았기 때문에 자신이 미래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을 것 같다.

2. 엔닌의 일기에서 신라방에 사는 신라인들의 생활상과 장보고가 역량을 예측해보자. 당의 해적들이 신라인들을 노예로 매매하는 상황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의 해적들을 물리쳤을 것이다

3. 장보고가 죽임을 당한 이유는 정치적 반역 때문일까요? 경쟁자들의 야심에 의한 암살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장보고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위기감을 느낀 장보고의 경쟁자들에 의해 암살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당시 장보고는 흥덕왕의 손자인 우성을 도와 우정이 왕위에 올라 장보고의 딸이 신유왕의 정비가 되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세졌기 때문에 암살당했다고 생각한다.

4. 장보고는 왜 해상왕이 되었을까요

(예시 : 중국 무령군 소장 → 신라인의 생활고 등, 문제 상황 →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 청해진 대사 → 국제무역주도)

상인 이면서 무력권을 가지고 있어 잦은 해적의 출몰로 많은 상인들이 상품을 약탈당하고 목숨을 잃어가는 등 갈수록 국제 무역이 힘들어졌지만 장보고는 힘을 바탕으로 무역을 했다

5. 모둠활동 및 다른 모둠의 발표를 듣고, 배운 점을 적어보자.

(Blank space for student notes)

2차시 장보고 선단 대양 항해 어떻게 가능했나?

활동1 장보고 선단 대양 항해 어떻게 가능했나?

1) 우리나라 주변 해류 관련자료와 장보고 시대의 항해술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3가지 주제에 대해 토의한 후 장보고 선단 대양 항해 어떻게 가능했는지 토의내용을 작성한다.

2) 모둠별 발표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 활동지1

장보고 선단 대양 항해 어떻게 가능했나?

2학년 (1) 반 (2) 모둠 모둠원 (2013 김민지, 2014 송민지, 2002 권수빈)

1. 장보고 시대의 항해항로는 3가지가 있다.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모식도를 보고 장보고 항해항로와 관련되는 해류의 이름과 특징을 알아보자.

- 대만 난류, 대만 난류는 동중국해와 황해로부터 제주도 북쪽과 남동쪽으로 유입된 해류가 제주도 동쪽해역에서 만나 형성된다. 대만 난류가 형성된 때 대마도에 의해 서북도와 동북도로 나뉘어져 흐르게 된다.
- 제주 난류는 제주도 남쪽의 동중국해에서 대만 난류와 규슈 서쪽 근해에서 분지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제주는 시계방향으로 동과 제주해협으로 유입된다. 제주 난류는 겨울철 세력이 서쪽으로 확장된다.
- 한국 편 난류는 한국과 서쪽 편향을 따뒀다 흐르는 해류이며, 여름에는 북상하고 겨울에는 남하한다.

2. 선단이 항해를 할 때 왕복을 한다. 항해항로의 방향이 해류의 방향과 반대 일 경우 이것을 보완하는 항해술과 조선술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아보자.

- 1) 역풍 항해를 하려면 지그재그 방식으로 이동해야 하고, 능숙한 돛 조종 능력이 필요. 배의 항해 각도는 목표지점을 향해 5도 정도에서 60도 정도를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 2) 배의 밑부분이 다른 배와 다르게 거칠게 만들어지고, 낮은 항해를 띄어 준다.

3. 장보고 선단 대양 항해 어떻게 가능했는지 토의해보자

4. 모듈활동 및 다른 모듈의 발표를 듣고, 배운 점을 적어보자.

3차시 3차시 21세기 장보고는 무엇을 했을까?

활동1 21세기 나의 진로 찾기

- 1) 장보고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무슨 일을 계획하며 어떻게 살아갔을까? 이 시대에 장보고가 살았다면 해상왕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졌을 지도 모른다. 다만 우리가 배울 것은 장보고의 개척정신, 도전정신 등을 본받자는 의미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나의 일을 찾아보자
- 2) 모듈별 발표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 활동지1

21세기 나의 진로 찾기

CEO
 학년 () 반 () 모듈 모듈원 ()
 김나래, 김민성, 조약현.

1. 자신이 알고 있는 해양 관련 직업 말하기

해양 경찰, 해양 연구원, 어부, 해군, 수산재 조사, 수산질병 진단사,
 아쿠아리스트, 해양조사기술자, 항해사

2. 해양 직업세계(<https://www.ilovesea.or.kr/seaJob/list.do>)에서 해양관련 직업의 종류와 하는 일 조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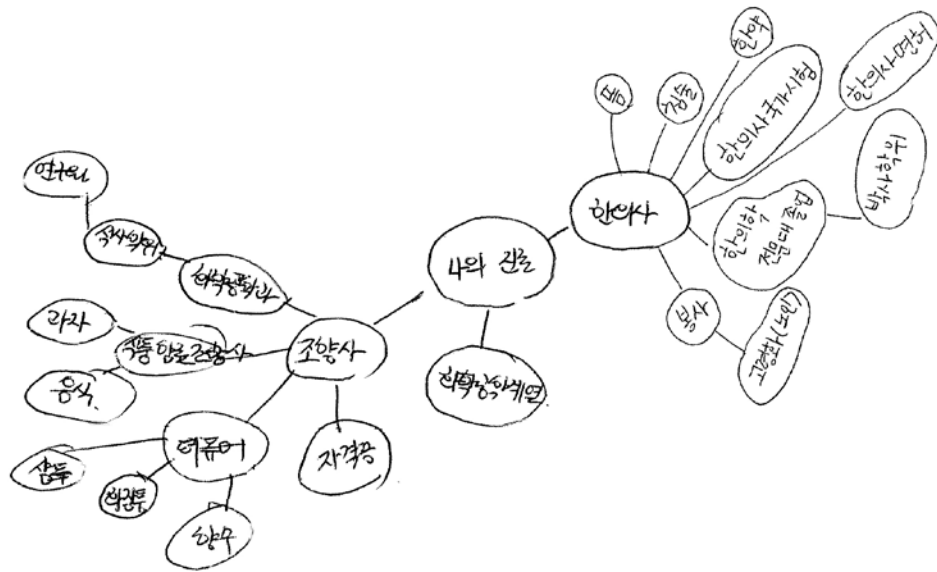
해양 경찰: 불법 조업 단속, 해양쓰레기 방제, 해수욕장 안전 관리, 해양범죄 수사.
 해양조사기술자: 해양개발에 필요한 기초조사 및 연구, 해양학적 자원 개발.
 해양플랜트기술자: 해양환경영향 검토, 플랫폼 기술 설계 및 해설.
 해양연구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 정책에 관한 연구수행, 해양자원 개발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
 아쿠아리스트: 해양생물들의 건강 책임, 자연상태와 가까운 물속의 환경 조성, 수질관리·여과장치 조작 및 관리,
 해양생물 먹이준비, 질병치료
 수산질병진단사: 수산물 치료,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 담당, 어패류 치료 전문가
 생

3. 나의 적성에 맞는 진로는 무엇인가? 결정을 못했다면 나의 진로는 어떻게 찾아갈까?

생활에서 생활권이 쉽게 살 수 있는 상투, 허장품, 심지어 음식의 향까지도 만들어나가는
조형사이다. 꽃으로 대신해서 많은 체험을 하는 다양한 생각을 하며 생각하는 능력이 커질 수
있었고 그래서 내적성이 맞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고령화시대대로 계속 성장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위해, ~~불안~~
몸이 아픈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한의사가 내 진로와 적성에 맞다고 생각한다.

4. 친구들의 진로에 대해 듣고 자신의 진로 로드맵을 작성해보자



III 장려

장보고 답사 수업 적용 지도안 - 왜 장보고를 바다의 왕자라고 부를까? 세종 온빛초등학교 김규정 선생님	091
장보고 수업적용사례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박지혜 선생님	113
해신 「BCG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꿈 공감력 함양 용인 이동초등학교 오영숙 선생님	127
국어과 교수 · 학습 계획 부산 재송중학교 유영미 선생님	139
한국사과 본시 교수 - 학습 과정 안 전남 화순고등학교 이대석 선생님	161
장보고 답사 전 수업 활용 계획 지도안 전주 양현고등학교 이영기 선생님	213
장보고 유적지 답사 수업 적용 계획 대구 제일중학교 전미옥 선생	233
장보고 답사 수업 적용 지도안 -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요 옥천 죽향초등학교 최옥영 선생님	245

장보고 답사 수업 적용 지도안
- 왜 장보고를 바다의 왕자라고 부를까?
세종 온빛초등학교 김규정 선생님

왜 장보고를 바다의 왕자라고 부를까?

세종 온빛초등학교 김규정 선생님

prologue

나는 지리산 아래 산청이라는 시골에서 나고 자라 항상 바다가 그리운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 가족들과 처음으로 남해 바다를 보았을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그 감흥이 내 잔상 속에 남아 있다. 답사 시작 즈음 인천에서 출발한 거대한 배 위에서 바라본 서해바다는 과거 시절 장보고가 오갔던 과거로의 시간여행 속으로 나를 이끌기에 충분했다.
중국속의 한민족사, 특히 신라시대 재당신라인들의 삶을 돌아보는 이번 답사를 통해 신분의 한계를 벗어나 세계를 품었던 장보고에 대해 깊이 있는 인물 탐사를 하게 되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온빛초 4학년 달반 친구들과 '전기문에 빠지다(해양 실�크로드 - 장보고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다.

프로젝트 수업 계획

프로젝트 주제					전기문에 빠지다(해양 실�크로드 - 장보고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수업 목적					실제 인물의 일생이나 일화를 다룬 전기문을 읽고 인물의 성품과 업적을 파악하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과					국어, 재량(아침 독서), 미술				
핵심질문					무엇이 위인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 걸까요?				
성취기준					[4국02-03] 글에서 낱말의 의미나 생략된 내용을 짐작한다. [4국02-03] 내용을 요약하며 듣는다. [4미02-05] 조형요소(점, 선, 면, 형·형태, 색, 질감, 양감 등)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 의도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다.				
교과	수업주제	활동내용	차시	결과물/교재					
국어	6.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봐요.	본받고 싶은 인물 찾아보기 임금님을 공부시킨 책벌레 유희춘 유희춘의 업적에 대한 자신의 생각 정리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WrZp-rOAYeg	1	국어활동 48~50쪽					
국어	6.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봐요.	시인 허난설헌 허난설헌의 업적에 대한 자신의 생각 정리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i16c_zqdUU	1	국어활동 51~56쪽					
국어	6.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봐요.	김만덕 https://www.youtube.com/watch?v=z4nE5JFZ1L0 (김만덕의 생애) 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인물의 가치관 생각해 보기	1	국어 190~195					
국어	6.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봐요.	정약용 https://www.youtube.com/watch?v=cVWtWU97LMo 전기문의 특성(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 인물이 한 일, 짐작할 수 있는 인물의 가치관)을 살려 요약해 보기	1	국어 196~201					

프로젝트 주제		전기문에 빠지다(해양 실�크로드 - 장보고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수업 목적		실제 인물의 일생이나 일화를 다룬 전기문을 읽고 인물의 성품과 업적을 파악하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과		국어, 재량(아침 독서), 미술		
핵심질문		무엇이 위인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 걸까요?		
성취기준		[4국02-03] 글에서 낱말의 의미나 생략된 내용을 짐작한다. [4국02-03] 내용을 요약하며 듣는다. [4미02-05] 조형요소(점, 선, 면, 형·형태, 색, 질감, 양감 등)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 의도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다.		
교과	수업주제	활동내용	차시	결과물/교재
국어	6.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봐요.	본받고 싶은 인물 찾아보기 임금님을 공부시킨 책벌레 유희춘 유희춘의 업적에 대한 자신의 생각 정리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WrZp-rOAYeg	1	국어활동 48~50쪽
국어	6.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봐요.	시인 허난설헌 허난설헌의 업적에 대한 자신의 생각 정리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i16c_zqdUU	1	국어활동 51~56쪽
국어	6.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봐요.	김만덕 https://www.youtube.com/watch?v=z4nE5JFZ1L0 (김만덕의 생애) 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인물의 가치관 생각해 보기	1	국어 190~195
국어	6.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봐요.	정약용 https://www.youtube.com/watch?v=cVWtWU97LMo 전기문의 특성(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 인물이 한 일, 짐작할 수 있는 인물의 가치관)을 살려 요약해 보기	1	국어 196~201
국어	6.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봐요.	헬렌 켈러 자신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헬렌 켈러에게서 본받을 점 찾아보기	1	국어 202~209
국어	6.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봐요.	윤관(고려 여진족 정벌, 별무반 창설) https://www.youtube.com/watch?v=J15Pvwmkn3I	1	
국어	6.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봐요.	고선지(파미르공원을 정복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QmiZ95npSnA (탈라스 전투)		

온작품 읽기(아침 독서) 왜	해양 실크로드	- 장보고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기(모둠별) https://www.youtube.com/watch?v=X5Q-D9YOB0 바다에서 길을 찾다. 해상왕 장보고 https://www.youtube.com/watch?v=mTWITAzFGz4 장보고, 동아시아 해상을 장악하다. - 장보고에 한 생각과 느낌 나누기	1	
장보고를 바다의 왕자라고 부를까?	재판 첫째 날	장보고는 왜 암살당했을까? 1. 문성왕은 왜 청해진으로 도망쳤을까?	1	28~36
		2. 장보고의 딸은 왜 왕비가 될 수 없었을까?	1	37~48
		3. 장보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1	49~63
	재판 둘째 날	장보고는 혁명을 꿈꿨을까? 1. 당시 신라 사회는 어땠을까?	1	66~77
		2. 바다에서 약탈하던 해적	1	78~91
	재판 셋째 날	청해진은 어떤 곳이었을까? 1. 청해진은 군사 기지였을까?	1	96~104
		2. 국제 무역의 중심지, 청해진	1	105~123
	최후 진술	비록 실패했지만 나는 백성을 위한 신라를 꿈꿨습니다. vs 청해진이 실제로 신라 발전에 기여한 점이 있습니까?	1	124~128
	판결문	역사공화국 한국사법정 번호 12 장보고 vs 문성왕	1	130~131
		에필로그(인물이 되어 역할극 하기)	1	132~136
	한걸음더! 역사 논술 문제 해결하기	1	140~143	
미술	장보고 당시 배 만들어 보기	- 점토를 이용하여 장보고 선 만들어 보기(옛날 배 만들기)	2	
총시수			15	

수업 지도안

일시	2018. 9. 17. 월요일 중간놀이교시(10:20~11:00)	장소	4학년 달반 교실
단원(차시)	6.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봐요.	수업자	김규정
학습주제	본받고 싶은 인물 소개하기	교과서	국어 184~189
단원 차시 재구성	[1-2차시] 전기문의 특성을 안다. (국190-195p) [3-4차시] 전기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읽을 수 있다. (국196-201p) [5-6차시] 인물의 본받을 점을 생각하며 전기문을 읽을 수 있다. (국202-209p) [7-10차시] 본받고 싶은 인물을 소개하고 자신의 미래의 모습 발표할 수 있다. (국184-189p)(210-215쪽)		
수업의 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 (활동1) 역사 속 인물 속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 이야기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교과서 : 김만덕, 정약용, 유관순, 안창호, 헬렌켈러 등 - 온책 읽기 : 장보고 • 인물의 이름, 한일, 가치관 정리해 보기 ◎ <발전과제> (활동2) 내 마음속 인물 속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읽은 전기문에서 찾은 인물이 한 일과 가치관 이야기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 생각하기 - 책으로 만들거나 ppt로 만들기(사전 과제) - 개별적으로 발표하기 ◎ <점프과제> (활동3) 나의 미래 속으로(20년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 속 인물들이 말하는 자신의 인생 멘토 이야기 살펴보기 - 나의 미래의 모습이 되는 과정 정리하기 ◎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 발표하기 		
수업자 의도	<p>학급 프로젝트'전기문에 빠지다(해양 실크로드 - 장보고를 중심으로)'과정 중 국어 교과서 인물을 중심으로 실제 인물의 일생이나 일화를 다룬 전기문을 읽고 인물의 성품과 업적을 파악하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이다. 아울러 위인들의 고난 극복의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본인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활동을 해 보려고 한다. 또한 수업과정에 과정중심평가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p>		

※ 4학년 달반 자리 배치표

모둠 자리 배치	【 모둠학습 】											
	칠 판											
	호지민		김정윤		최래이		주혜인					
	김준현		장윤재		임재민		정준영					
	이소영선생님				이보람선생님							
	홍가연		성시연		한예담 (9월 전학생)		김지운					
	송선재		이재원		이기호		김동하					
	채병성선생님				김은미선생님							
	김유신		전은서		박현욱		윤예슬		백지훈		손윤아	
	손지영선생님				박지현선생님							

학급 전체가 함께 읽는 장보고 온작품 읽기(아침 독서)

해설 : 김규정 선생님, 정준영

8월 22일 전은서(문성왕1) 손윤아(판사) 김동하(김단지 변호사) 김유신(이대로 변호사)

8월 23일 김정윤(문성왕2) 박현욱(김우징) 윤예슬(판사) 성시연(김단지 변호사)

임재민(이대로 변호사) 정준영(해설)

8월 27일 최래이(판사) 김지운(김단지 변호사) 호지민(이대로 변호사) 백지훈(장보고)

8월 28일 최래이(판사) 김지운(김단지 변호사) 호지민(이대로 변호사) 백지훈(장보고)

8월 29일 / 8월 30일 휴정 인터뷰 선생님

이재원(판사) 성시연(김단지 변호사) 홍가연(최치원) 송선재(이대로 변호사) 장윤재(나재당)

8월 30일 이재원(판사) 성시연(김단지 변호사) 홍가연(최치원) 송선재(이대로 변호사)

장윤재(나재당)

8월 31일 손윤아(판사) 한예담(김단지 변호사) 김유신(이대로 변호사) 김준현(막돌)

9월 3일 최훈(이기호) 전은서(문성왕1) 장보고(백지훈) 임재민(이대로 변호사)

성시연(김단지 변호사)

9월 6일 윤예슬(판사) 임재민(이대로 변호사), 성시연(김단지 변호사), 나재당(장윤재), 엔닌(주혜인)

9월 7일 휴정 인터뷰 선생님

호지민(이대로 변호사) 김동하(김단지 변호사) 나재당(장윤재) 엔닌(주혜인)

등장인물

판사1,2,3,4 손윤아, 윤예슬, 최래이, 이재원

김단지 변호사 1,2,3,4 김동하, 성시연, 김지운, 한예담

이대로 변호사 1,2,3,4 김유신, 임재민, 송선재, 호지민

막돌(김준현), 최훈(이기호), 엔닌(주혜인), 김우징(박현욱), 장보고(백지훈), 최치원(홍가연),

나재당(장윤재), 문성왕(전은서, 김정윤)

아침활동시간에 만난 장보고

세종 혁신학교인 온빛초에서는 개교 첫해부터 온작품읽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매일 아침 8시 40분부터 9시까지 20분간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의논하여 정한 책을 읽고 제작한 공책인 '함께 느끼고 가르치며 배우는 온작품읽기'에 기억에 남는 문장과 생각이나 느낀점, 궁금한 점을 적어보는 활동을 한다.

여름 장보고 유적답사를 마치고 아이들과 학급회의를 통해 '왜 장보고를 바다의 왕자라고 부를까?' 책을 함께 읽고 토의를 해 보기로 했다. 참고할 책으로는

<p>아침시간에 함께 읽은 책</p> <p>교과서속 역사이야기, 법정에 서다 왜 장보고를 바다의 왕자라고 부를까? 윤명철글 박상철그림 자음과모음</p>	<p>참고할 책</p> <p>장보고, 이옥수글 원혜진그림 비룡소 세계를 누빈 으뜸 무역상 바다의 신 장보고 윤영수를 편형규그림 한솔쉬빅 섬소년 장보고 해랑글 김태현그림 한국톨스토이 용감한 바다의 왕 장보고 구민애글 이은천그림 기탄동화</p>

국어시간에 만난 장보고

'전기문에 빠지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일 오랫동안 인물탐구를 진행한 인물이 장보고였다. 실제 역할 놀이를 통해 직접 시대 속 인물이 되어보기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모둠별 발표 시간에 진지하게 극을 진행하는 모습이 훌륭했다. 문성왕과 장보고의 재판을 진행하는 이대로 변호사와 김판지 변호사의 상황 연출을 통해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실제 사용해 봄으로 판결문이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몹시 궁금해 하는 것 같았다. 장보고가 판결에서 승리하는 장면에서는 우리 반 아이들 모두 기립해서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역할극 담당 학생들 외에 청중은 모두 배심원 및 방청객으로 함께 법정에 있다는 가설을 설정했기 때문에 반 전체가 몰입해서 역할극에 참여한 듯 하다.

<p>등장인물 그리기 활동</p>	<p>역할극 대본 준비하기</p>	
<p>역할극 발표하기</p>	<p>모둠별 역할극 연출하기</p>	<p>모둠별 역할극 연출하기</p>

장보고 역사논술 학습지

4학년 ()반 이름: ()

활동 : 역사공화국 한국사법정12 왜 장보고를 바다의 왕자라고 부를까? 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 봅시다.

(가) 장보고와 정년은 모두 신라 사람이나 그들의 고향과 선조는 알 수 없다. 두 사람이 모두 싸움을 잘하였는데..... 두 사람이 모두 당에 가서 무령군 소장이 되어 말을 타고 창을 쓰는데 대적할 자가 없었다.(.....) “ 중국의 어디를 가나 우리 사람들을 노비로 삼고 있습니다. 청해에 진영을 설치하여 해적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서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바라나이다.”하였다.(.....) 왕은 장보고를 불러 재상으로 삼고, 정년으로 하여금 장보고를 대신하여 청해를 지키게 하였다.

(나)



1993년 제작된 한국 최초의 잠수함의 이름은 장보고함입니다. 독일에서 제작된 것으로 9세기 무렵 해상왕이라 불렸던 신라 장군의 이름을 땄습니다.

1. (가)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권44 <<열전>> 제4 '장보고'내용 중 일부이고 (나)는 장보고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사람들이 장보고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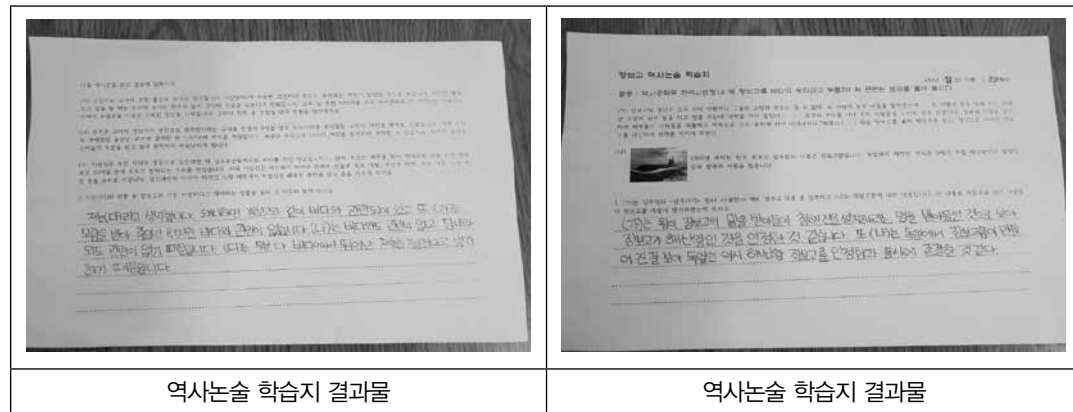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선지는 고구려 유민 출신의 당나라 장수입니다. <신당서>에 따르면 고선지의 외모는 무장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활을 쏘고 말을 탈 때는 유약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강인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스무 살 무렵 아버지를 따라 안서군으로 간 고선지는 안녹산의 난에서 토벌군을 이끌고 수도인 장안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전투 중 모함을 받아 참형을 당하였지요.

(나) 윤관은 고려의 명신이자 명장으로 별무반이라는 군대를 만들어 9성을 쌓고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던 여진을 평정한 인물입니다. 개국 공신의 후예였던 윤관은 과거에 급제한 뒤 1107년에 여진을 정벌합니다. 육군과 수군으로 나누어 여진을 공격하여 격파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윤관은 신하들의 모함을 받고 결국 관직까지 박탈당하게 됩니다.

(다) 이순신은 조선 시대의 명장으로 임진왜란 때 삼도수군통제사로 바다를 지킨 장군입니다. 당시 조선은 왜군을 맞아 제대로된 싸움 한번 못해보고 20여일 만에 수도가 함락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때 이순신은 바다에서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옥포 대첩, 부산포 해전, 명량 대첩, 노량 해전 등을 승리로 이끕니다. 임진왜란의 마지막 해전인 노량 해전에서 이순신은 왜군의 총탄을 맞고 숨을 거두게 되지요.

2. (가)~(다)의 인물 중 장보고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골라 그 이유와 함께 쓰시오.



수업 자료

함께 했던 역할극 활동 대본(최후 진술)

최후 진술

비록 실패했지만 나는 백성을 위한 신라를 꿈꿨습니다. vs 청해진이 실제로 신라 발전에 기여한 점이 있습니까?

판사 지난 세 번의 재판을 통해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 보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지금 이 자리를 빌려 못다 한 이야기나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재판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발언이며, 최종 판결과 배심원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니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그럼 원고부터 시작하세요.

장보고 우선 한국사법정에서 이렇게 속 시원히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습니다. 김판지 변호사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청해진으로 도망 온 김우징이 내게 군사를 빌려 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는 게 좋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적어도 피고측 변호인에게 신라 왕실을 위협했다는 소리는 듣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김우징과 뜻을 함께하면서 친구인 정년에게 수도인 금성으로 진격하라고 명했을 때 나는 신라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신라는 나라를 세운 지 이미 900년이 되었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실과 귀족들은 부패해 있었지요. 누군가 나서서 낯선 도끼질 몇 번만 하면 금방이라도 넘어질 고목과 같았습니다. 왕족과 진골 귀족뿐만 아니라 지식인입네 하는 6두품 세력이나 승려들까지 모두 썩을 대로 썩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백성은 오직 착취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나는 당나라에서 지내면서 재당 신라인들이 차별받으면서도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해적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온 불쌍한 신라인들도 보았지요. 나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 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 청해진을 세운 것입니다. 해적을 퇴치하고 노예 무역을 근절시키는 것이 나의 꿈이었지요.

염장에게 암살당한 후 이곳 역사공화국에서 살면서 나는 늘 재당 신라인들을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요. 그들의 존재는 역사책에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라를 떠난 사람들 이지만 그래도 신라 백성 아닙니까? 나는 다 함께 잘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래서 나선 것입니다. 불행히도 내가 죽은 후 청해진이 몰락하여 나의 꿈은 실패로 끝났지만
말입니다.

처음 소장을 제기할 때는 나의 꿈을 짓밟은 문성황에게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을 하면 할수록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재당 신라인들, 제일
신라인들을 역사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이지요. 청해진 사람들이나 해외에 살던 신라인들은 역
사에서 완벽히 지워진 존재들입니다. 그들 하나한의 가슴에 역사의 훈장을 달아 주었으면 정
말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재판에서 내가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피고가 최종 진술 하세요.

문성왕 이번에 피로고 한국사법정에 서면서 나의 지난날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어린 시
절 왕족들의 왕위 다툼을 피해 아버지를 따라 청해진으로 도망을 갔던 것이나 장보고의 도움
으로 다시 금성으로 돌아왔던 일, 그리고 왕이 되어 신라를 다스리던 때까지 모두 떠올려 보
았지요. 우리 아버지와 내가 장보고에게 큰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생
각은 없어요. 하지만 나와 아버지는 장보고에게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 장
보고가 받았던 감의군사, 진해장국이라는 관직은 호족 출신인 장보고로서는 꿈도 못 꿀 만
큼 높은 직책입니다. 게다가 장보고만을 위해 특별히 만든 직책이기도 했고요. 또 장보고가 받
은 2000호의 식읍 역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장보고는 늘 만족하는 기
색이 없이 점점 세력을 키웠지요.

내가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들이지 않아서 장보고가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 장보고의 미천한 신분을 문제 삼는 귀족들을 모두 무시하고 장보고의 딸을 맞
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장보고가 나의 장인이 되면 그에게 더 큰 권력을 주는 것인데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었지요. 마지막으로 청해진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청해진이
해적 소탕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합니다. 당시 해적들이 워낙 기승을 부려 걱정이 많
았는데 장보고 덕에 해적들을 소탕할 수 있었지요. 국제 무역에서도 청해진이 큰 역할을 했
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보고가 청해진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꿨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번
재판에서 장보고와 김판지 변호사는 화려한 말솜씨를 자랑하며 장보고가 새로운 신라를 꿈꿨
다고 주장했지요. 하지만 그에 비해 장보고가 이뤄 놓은 것은 매우 빈약합니다. 또 장보고에
게 직접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청해진 체제가 실제로 신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측면이
과연 무엇입니까? 청해진은 과연 성공한 모델인가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해 판사님과 배심원
여러분도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최종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판사 이로써 세 번에 걸친 재판이 모두 끝났군요. 재판에 성실하게 힘써 준 원고 측, 피고 측, 그리고
배심원과 방청객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과 원고, 피고의 최종
진술을 모두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4주 후에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이만 재판을 마칩니다.

땅, 땅, 땅!

함께 했던 역할극 활동 대본(판결문)

판결문

역사공화국 한국사법정 재판번호 12 장보고 vs 문성왕

주문

역사공화국 한국사법정은 원고 장보고가 피고 문성왕을 상대로 벌인 원고의 암살과 청해진 몰락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다.

판결이유

본 법정은 이번 재판을 통해 장보고가 국제적으로 역동적인 활동을 펼쳤으며, 노예로 끌려갔던 신라인들에게 자유를 되찾아 주었고, 또한 소외당했던 농민이나 해양민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음을 확인하였다. 바로 이러한 행동이 당시 신라 왕실이나 귀족들에게는 반란이며 불온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신라 왕실의 수호자라는 위치에서 피고의 행위는 부분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암살이라는 부도덕한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장보고는 물론이고 그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갔던 모든 사람들을 좌절시켰고, 이는 신라 900년 역사에 오점이 되었다. 그리고 장보고를 암살함으로써 힘겹게나마 싹트기 시작했던 새로운 세상의 싹을 뿌리째 뽑아 버린 행위는 역사라는 큰 물줄기에서 볼 때 비판받을 만하다.

피고의 행동 때문에 이후 해양 문화는 쇠퇴했고 신라인들의 해외활동 범위가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백성의 삶이 더욱 고단해졌다.

본 법정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헌신적으로 활동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려 했던 장보고를 부도덕한 반역자로 몰아간 피고 문성왕과 신라 정권을 엄중하게 단죄할 것이다. 또한 다시는 역사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장보고에 대한 복권 작업과 함께 그를 이 시대에 본받을 점이 많은 인물로 부활시킬 것을 역사학자들에게 주문하고자 한다. 한편 원고인 장보고는 다른 사람들의 의혹을 품을 여지를 남긴 것에 대해 공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서툰 행동과 실패로 인하여 새로운 세상을 염원했던 많은 이들에게 좌절감을 안겨 준 것에 대해서는 통력하게 반성할 것을 주문한다.

역사공화국 한국사법정 담당 판사 정역사

함께 했던 역할극 활동 대본(에필로그)

에필로그

함께 모여 청해진을 보니 참 좋군요!

해설 재판을 마친 후 기진맥진해진 김판지 변호사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세 번의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워낙 열정적으로 변론해서인지 지금 김판지 변호사는 손가락 하나 움 일힘도 없었다. 그대로 소파에 쓰러져 겨우 휴식을 취하려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김판지 변호사 대체 누가 전화를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전화 받으려 갈 힘도 없다고

해설 소파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고 싶지 않은 김판지 변호사의 마음과는 달리 전화벨은 끝없이 울려 댔다. 귀를 막고 잠을 청하던 김판지 변호사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듯 몸을 일으켜 전화 기 쪽으로 걸어갔다.

김판지 변호사 여보세요?

장보고 아, 김 변호사요? 나 장보고요. 쉬고 계셨소?

김판지 변호사 재판도 끝났는데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이제 막 쉬기 시작했거든요.

장보고 하하, 미안하게 댔소. 내가 김 변호사한테 긴히 할 말이 있어서 말ियो.

김판지 변호사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장보고 전화로 하긴 좀 그렇고,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지금 바닷가 마을로 오시죠.

김판지 변호사 네? 바닷가 마을로요? 아니,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제 사무실로 오시거나 근처에서 만나면 되지, 왜 그 먼 바닷가 마을까지 가서 만나나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 법정에 함께 있었는데 또 무슨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몸도 너무 피곤하고, 바닷가 마을까지는 차로 다섯 시간이나 걸리는데...

장보고 그럼 바로 출발하는 걸로 알고 이만 끊겠소.

김판지 변호사 여, 여보세요. 여보세요.

해설 김판지 변호사가 미처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장보고는 전화를 끊어 버렸다.

김판지 변호사 아니, 재판도 끝났는데 대체 왜 그 먼 곳에서 만나자는 거야? 할말은 대체 뭐고? 정말 피곤해 죽겠네.

김판지 변호사는 투덜대며 겨우 몸을 움직였다. 한참을 이동해 바닷가 마을에 도착해 보니 장보고와 나재당, 엔닌, 그리고 최훈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장보고 오, 김변호사,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군요. 우리도 방금 왔어요.

김판지 변호사 오라고 하셔서 오긴 했는데, 왜 절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장보고 바로 여기가 그 옛날 청해진이 있었던 곳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거든요. 저 아래를 내려다봐요. 저기 보이는 섬이 바로 청해진이 있던 자리라요.

김판지 변호사 네? 겨우 청해진이 있던 자리를 보여 주려고 저를 여기까지 부른거라고요? 저는 긴히 하실 말씀이라도 있는 줄 알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달려왔는데...

장보고 김변호사, 방금 ‘겨우’라고 했소? 내가 청해진을 세워서 지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소?

해설 장보고가 무섭게 노려보자 흠칫 놀란 김판지 변호사가 나재당 뒤로 슬금슬금 몸을 숨겼다.

김판지 변호사 아니, 저,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하,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니 경치가 참 좋네요. 재판에서 청해진 위치가 좋다고 자랑하시더니 정말 좋은 곳에 있었군요.

해설 장보고가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장보고 하하하, 겁먹지 말아요, 김 변호사. 오늘 여기로 오라고 한 건 다 김 변호사를 위해서니까.

김판지 변호사 저를 위해서라고요?

장보고 그렇소. 김 변호사가 나 때문에 휴가도 못 가고 계속 고생하지 않았소?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김 변호사에게 바다 구경을 시켜 주려고 이리로 불렀어요. 여기 이 친구들도 재판에서 증언하느라 고생이 많았으니 다 같이 늦게나마 휴가를 즐기자고 말ियो. 부족한 나를 변호하느라 고생 많았소. 정말 고마워요.

해설 장보고의 말이 끝나자 나재당이 김판지 변호사에게 악수를 청했다.

나재당 김 변호사님, 이번 재판에 우리 재당 신라인들을 불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당나라에서 살긴 했지만 늘 신라를 그리워했거든요. 이번 재판 덕분에 당나라에도 신라인들이 살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해설 옆에서 빙그레 웃고 있던 엔닌도 한마디 거들었다.

엔닌 다음 휴가 때는 제가 교토에 있는 적산선원을 보여 드리지요. 적산선원이 가장 잘 보이는 장소를 이미 찾아 났습니다.

해설 모두의 말을 듣고 있던 김판지 변호사가 감동한 얼굴로 말했다.

김판지 변호사 감사는 제가 드려야죠. 덕분에 잘 몰랐던 청해진과 재당 신라인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오늘은 바다로 초대도 해 주셨는데요. 여름부터 바다에 꼭 한번 오고 싶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또 억울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세요. 저, 김판지가 확실하 판죽을 걸어서 억울한 마음을 풀어 드릴게요! 저만 믿으시라니까요!

미술시간에 만난 장보고

장보고가 활동했던 신라시대에 제작된 배에 대한 영상물과 이미지 수업 자료를 통해 배 모양을 구상해 보고 어떻게 만들지 모둠별로 얘기를 나눈 뒤 개별 예술 작품 배 제작활동을 진행해 보았다. 당시에는 바람을 이용하여 배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졌기 때문에 돛을 달기로 했다. 돛에 그려질 형상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실제 당시의 역사 속으로 빨려 들어가 장보고와 함께 호흡하며 진지하게 배를 만드는 모습이 꼭 진지하게 보였다.

활동 후 느낀 점을 적고 발표 해 보는 활동을 통해 장보고가 한일, 어려움을 극복했던 방법, 가치관에 대해 국어과목과 연계하여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다.



다양한 활동으로 한달 간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마무리 하면서 부족했지만 내게 맡겨진 아이들과 눈높이 맞추어 멋진 수업을 진행한 것 같아 뿌듯하고 의미있는 시간이었음을 자부한다. 마지막으로 좋은 기회를 갖게 해준 관련 기관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장보고 수업적용사례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박지혜 선생님

장보고 수업적용사례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박지혜 선생님

1. 장보고 교육의 필요성

해양은 지구의 표면 70%를 차지하고 있고, 생물의 기원이 물에서 시작한 만큼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세계 해양사가 시사해주듯 바다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세계경제 중심이 300년 전 동양에서 서양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바다는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데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바다가 우리 삶의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중심이자 해양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바다를 이해해야 함이 우선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해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이순신, 이사부, 안용복, 정약전, 독도의용수비대 홍순철 등 많은 해양위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중·일 3국의 정사에 기록된 해양위인은 장보고뿐이다. 장보고는 라이샤워의 저서『Ennin's Travels in Tang china』에 '해상상업제국의 무역왕'이라고 칭송하였으며, 장보고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천태종의 제3대 좌주인 엔닌은『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 "장보고에게 은혜 입은 것은 마치 태산과 같으며, 그 은덕의 깊이는 형용할 바를 모른다."고 하였다. 나아가 그는 일본에 귀국한 뒤 제자들에게 "교토에 적산선원을 세우고 적산대명신을 모시라."고 유언하였는데, 부귀영화를 관장하는 재신으로 알려진 이 신은 장보고일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당나라의 시인 두목은 "사심을 버리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인물로 진에는 기해가 있고, 당에는 괄분양과 장보고가 있었다. 누가 동시에 사람이 없다고 할 것인가."라고 하여 장보고의 위대함을 특별히 기록하였다.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은 김유신의 열전에 "비록 을지문덕의 지략과 장보고의 의용이 있어도 중국의 서적이 아니었다면 기록이 없어져 그 위대함이 알려지지 않을 뻔하였다."라고 하여 장보고를 고구려의 영웅 을지문덕과 견주어 비교했다. 이처럼 장보고는 한·중·일 3국의 역사서에서 '세계적인 영웅'으로 칭송했다.

이렇게 중요한 해양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는 장보고에 대한 교육이 초등교육과정 속에선 나오지 않고 중학교에서는 1줄 정도의 분량으로 서해안의 해적을 물리친 해적왕 수준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좀 더 자세한 장보고의 업적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해양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2. 장보고 교육의 실제

가. 수산해운산업기초 융합수업

1) 과목 개요

교과명	교과소개
수산해운산업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 성격 수산·해운 산업 기초는 수산·해운 계열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이 인간 생활과 배, 자원의 보고 바다와 수산업, 지구를 하나로 묶는 해운업, 변화하는 해양 산업 등을 폭넓게 학습하여 바다와 친숙하고, 관련 산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세계로의 진출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필수 과목이다. 교과 목표 수산업, 해운업, 해양 산업 등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정체감을 형성하고, 과제 활동 및 탐구, 토론 활동을 통하여 바다 및 그 관련 산업에 관심을 높이고, 세계를 향한 진취적인 사고를 함양한다.

교과명	교과소개							
수산해운산업기초	교과 내용 <table border="1"> <tr> <th>대영역</th> <th>중영역</th> </tr> <tr> <td>인간 생활과 배</td> <td>· 인류와 배의 역사(수업한 단원) · 배의 종류 · 배의 추진 동력</td> </tr> <tr> <td>이하생략</td> <td>이하생략</td> </tr> </table>		대영역	중영역	인간 생활과 배	· 인류와 배의 역사(수업한 단원) · 배의 종류 · 배의 추진 동력	이하생략	이하생략
	대영역	중영역						
	인간 생활과 배	· 인류와 배의 역사(수업한 단원) · 배의 종류 · 배의 추진 동력						
이하생략	이하생략							
한국사	교과 성격 우리 역사가 형성·발전되어 온 과정을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역사적 사고력과 현대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세계사와의 연관 속에서 한국사를 이해하도록 하면서도 한국 근·현대사의 비중을 높여 구성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 문화에 토대를 둔 세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함양하게 한다.							
	교과 목표 우리 역사가 형성, 발전되어 온 과정을 다룬다. 이를 통해 한국사가 세계사의 발전 과정 속에서 형성된 역사의 산물임을 파악하고, 현재 한국인의 삶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한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적 탐구력과 역사적 상상력, 그리고 역사적 판단력을 함양함으로써 현재를 통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한다.							
	교과 내용 <table border="1"> <tr> <th>영역</th> <th>요소</th> </tr> <tr> <td>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국가의 발전</td> <td>· 우리 민족의 형성과 선사 문화 · 고조선의 성립과 여러 나라의 성장 · 삼국과 가야의 발전과 대외 관계 ·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과 사회 모습(수업한 단원) · 고대 국가의 국제 교류와 문화발전</td> </tr> <tr> <td>이하생략</td> <td>이하생략</td> </tr> </table>		영역	요소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국가의 발전	· 우리 민족의 형성과 선사 문화 · 고조선의 성립과 여러 나라의 성장 · 삼국과 가야의 발전과 대외 관계 ·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과 사회 모습(수업한 단원) · 고대 국가의 국제 교류와 문화발전	이하생략	이하생략
영역	요소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국가의 발전	· 우리 민족의 형성과 선사 문화 · 고조선의 성립과 여러 나라의 성장 · 삼국과 가야의 발전과 대외 관계 ·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과 사회 모습(수업한 단원) · 고대 국가의 국제 교류와 문화발전							
이하생략	이하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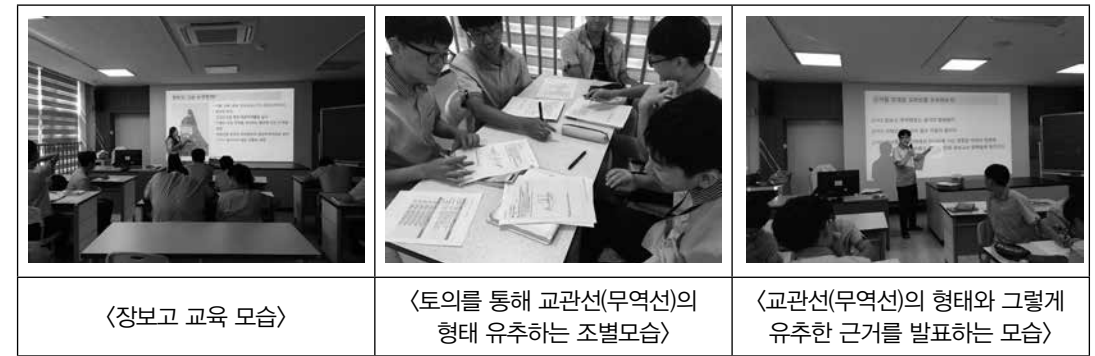
전개 35분	▶전체학습 ▶개별학습	· 통일신라의 해상무역과 장보고에 대해 설명한다.	· 설명을 듣고, 교수 · 학습 활동지를 작성한다.	▶교과서, PPT자료, 활동지1
	▶협동학습 ▶토의학습	· 조별로 토의하여 주어진 근거를 바탕으로 교관선의 구조를 유추하도록 지도한다. · 토의 후 활동지2를 작성하게 시킨다.	· 주어진 근거와 배운 내용을 토대로 교관선의 구조를 유추해본다. · 토의 결과를 활동지 2에 작성한다.	▶PPT자료, 활동지1,2
정리 10분	▶학습내용 정리 ▶형성평가 ▶차시예고 ▶인사	· 토의 결과 발표 및 학습내용 정리, 질문여부 확인 · 교수·학습 활동지1,2 평가 · 다음 차시 부분의 교과서 읽기를 과제로 제시 · 차시예고 · 인사	· 토의 결과 발표 및 학습내용 정리, 질문 · 활동지1,2 정답 확인 · 과제인지 · 차시확인 · 인사	▶PPT자료, 활동지2

3) 활동지



4) 수업 결과물

가) 수업장면 사진



〈장보고 교육 모습〉

〈토의를 통해 교관선(무역선)의 형태 유추하는 조별모습〉

〈교관선(무역선)의 형태와 그렇게 유추한 근거를 발표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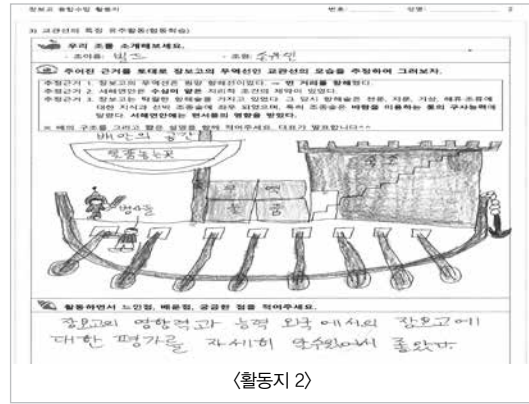
2) 수산해운산업기초 교수·학습 과정안

수기 단원	1. 인간생활과 배 11. 인류와 배의 역사	장 소	해수양식실습실	학년반	1학년 자영수산	지도교사	박지혜
한국사 단원	통일신라의 상업과 무역	일 시	2018. 8. 29(수) 1, 2교시				
학습 목표	1.장보고의 해상무역활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장보고가 이용한 교관선(무역선)의 구조를 유추할 수 있다.						
단계	학습 형태	학습활동				유의점 및 자료	
도입 5분	▶ 인사 및 출석 ▶ 전시학습 상기 ▶ 학습동기 유발 ▶ 학습목표 제시	교사	학생			▶ 칠판, 활동지1, 교과서, PPT자료	
		· 인사, 출석확인 · 질문을 통한 전시학습 확인 · 동영상상을 통한 흥미유발 · 학습 목표 제시 및 설명	· 인사 및 대답하기 · 지명된 학생 대답하기 · 자료를 통해 수업에 흥미 갖기 · 학습 목표 읽기 및 인지				

나) 활동결과지



<활동지 1>



<활동지 2>

다) 수업자료(PPT)

<p>장보고 융합수업</p> <p>2018. 8. 29(수) 1~2교시</p> <p>1학년 지명수상과</p>	<p>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p>	<p>학습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보고의 해상무역활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장보고가 이용한 교관선의 구조를 유추할 수 있다.
<p>장보고, 그는 누구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름: 공복, 공복, 장보고(張保皋), 장보고(張保高) 중요한 업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크로트를 통한 해상무역활동 실시 - 천종의 조공 무역을 대신하는 발원된 민간 무역을 경영 - 최초의 신문 동북아 허브항이자 해상무역선로로 발전시키고 동아시아 해상 교통로 개척 	<p>통일신라의 해상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 - 중계무역: 다른 나라로부터 사들인 물건을 그대로 또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 - 항해선: 장보고가 중국, 일본과 무역하던 운 	<p>통일신라의 해상무역</p>
<p>통일신라의 해상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라, 신라, 신라, 신라 (역사기록) - 일단의 일일구술승에게 - 학산대교신 	<p>근거를 토대로 교관선을 유추해보자.</p> <p>근거1 장보고 무역항로는 원거리 항해였다. 근거2 서해안은 수심이 얕고 저질이 쉼이다. 근거3 편서풍으로 신라에서 당나라를 가는 방향은 바람의 방향에 역방향으로 가야했고, 그걸 달만큼 장보고는 항해술에 뛰어났다.</p>	<p>우리가 다음시간에 배울 내용은?</p> <p>다양한 배의 종류</p>

5) 과정평가

가) 평가지 양식

① 자기성찰평가지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내용	평가척도(상,중,하)			
			상	중	하	
수업 전	인지적 영역	통일신라의 해상무역	통일신라의 해상무역의 주요인물에 대해 아는가?			
	핵심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가?			
수업 후	인지적영역	통일신라의 해상무역	장보고가 통일신라의 해상무역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정의적영역	상호작용(참여)	서해연안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핵심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주어진 근거를 토대로 교관선을 유추할 수 있는가?			

② 동료평가지

- 조별 내 동료 평가

조원이름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내용	평가척도(상,중,하)		
				상	중	하
	정의적 영역	책임감	맡은 역할을 책임 있게 완수했다.			
		상호작용(협력)	조별 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상호작용(경청)	친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였다.			

- 조별 간 평가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내용	평가척도(상,중,하)		
			상	중	하
인지적 영역	경과의 적절성	논리적으로 교관선을 유추하였는가?			
정의적 영역	발표	이해하기 쉽고 자신감있게 발표하였는가?			

③ 교사관찰기록지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가 항목		
인지적 영역	A	통일신라의 상업과 무역을 주도한 장보고와 청해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주어진 근거를 토대로 교관선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B	통일신라의 상업과 무역을 주도한 인물이 장보고임을 알고, 청해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주어진 근거를 토대로 교관선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C	장보고와 청해진에 대해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주어진 근거를 토대로 교관선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D	장보고와 청해진에 대해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주어진 근거를 토대로 부분적으로 교관선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E	장보고와 청해진에 대해 알고, 교관선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정의적 영역	의사소통 능력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한다.	상	
		자신의 생각을 부분적으로 전달한다.	중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다.	하	
능동적 참여능력	능동적 참여능력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토론을 주도한다.	상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중	
		참여하지 못한다.	하	

단원명	활동일자	정의적 영역		특기사항
학생명	인지적 영역	의사소통 능력	능동적 참여능력	
		A / B / C / D / E	상 / 중 / 하	상 / 중 / 하
		A / B / C / D / E	상 / 중 / 하	상 / 중 / 하
		A / B / C / D / E	상 / 중 / 하	상 / 중 / 하

나)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내용	평가척도(상/중/하)
수업 전	인식적 영역	통일신라의 해상무역의 중요성에 대해 아는가?	상
	형성적 영역	자신정보처리 능력에 대해 다양한 정보의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가?	중
수업 중	인식적 영역	통일신라의 해상무역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상
	형성적 영역	세계연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중
수업 후	인식적 영역	상호작용(협력) 조율 과정 수행에 특국적으로 참여하는가?	상
	형성적 영역	협력적 주어진 근거를 토대로 교관선을 유추할 수 있는가?	중

〈자기성찰평가지〉 〈동료평가지〉 〈교사평가지〉

6) 생활기록부 기록 예시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상	통일신라의 상업과 무역을 주도한 인물이 장보고임을 알고, 청해진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음. 서해연안의 특징과 당시 항해술, 선박구조를 바탕으로 협동학습을 통해 장보고의 교관선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음.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조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줌.
중	통일신라의 상업과 무역을 주도한 인물이 장보고임을 알고, 청해진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음. 협동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장보고의 교관선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음.
하	통일신라의 상업과 무역을 주도한 인물이 장보고임을 알고, 청해진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 협동학습에 참여하여 장보고의 교관선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음.

나. 항해 NCS 적용 수업

1) 교과 개요

교과명	교과소개																					
항해 (실무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모듈 목표 출발항(해역)부터 목적항(해역)까지 예정된 항로를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항행하기 위하여 항해계획요소를 평가, 계획, 실행 및 감시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학습모듈의 내용체계 (수업한 단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능력 단위명</th> <th rowspan="2">학습</th> <th rowspan="2">학습내용</th> <th colspan="3">NCS능력단위요소</th> </tr> <tr> <th>코드번호</th> <th>요소명칭</th> <th>수준</th> </tr> </thead> <tbody> <tr> <td>항해계획 수립</td> <td>1. 항해계획요소 확인하기</td> <td>1-1. 항해계획 준비 1-2. 항해계획 수립</td> <td>0903010101_1 4v1.1</td> <td>항해계획 요소 확인하기</td> <td>3</td> </tr> <tr> <td></td> <td>이하생략</td> <td>이하생략</td> <td>이하생략</td> <td>이하생략</td> <td></td> </tr> </tbody> </table>	능력 단위명	학습	학습내용	NCS능력단위요소			코드번호	요소명칭	수준	항해계획 수립	1. 항해계획요소 확인하기	1-1. 항해계획 준비 1-2. 항해계획 수립	0903010101_1 4v1.1	항해계획 요소 확인하기	3		이하생략	이하생략	이하생략	이하생략	
	능력 단위명				학습	학습내용	NCS능력단위요소															
코드번호		요소명칭	수준																			
항해계획 수립	1. 항해계획요소 확인하기	1-1. 항해계획 준비 1-2. 항해계획 수립	0903010101_1 4v1.1	항해계획 요소 확인하기	3																	
	이하생략	이하생략	이하생략	이하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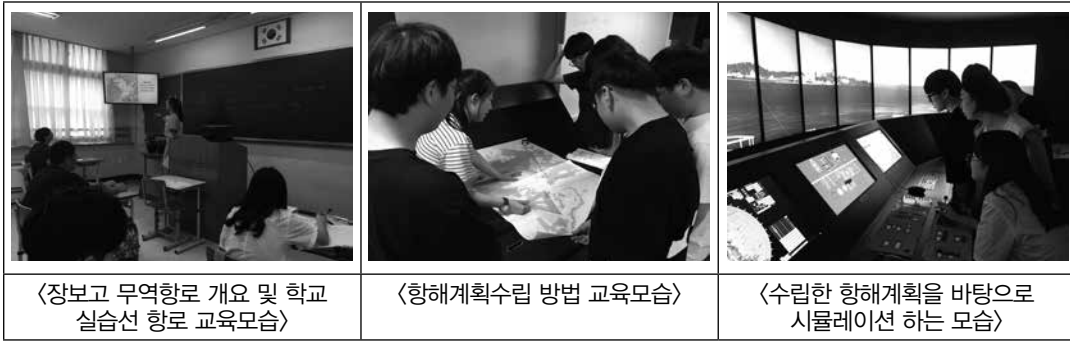
2) 수업지도안

단원	1-2. 항해계획 수립	장소	항해시뮬레이터실	학년반	3학년 자영수산	지도교사	박지혜
		일시	2018. 8. 30(목) 6, 7교시				
학습 목표	1. 장보고의 무역항로와 한내호의 항로를 비교하여 항법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2. 장보고의 무역항로를 해도로 나타내고, 각 변침점 사이의 침로 및 거리를 구할 수 있다.						
단계	학습형태	학습 활동				유의점 및 자료	
		교사		학생			
도입 5분	▶ 인사 및 출석 ▶ 전시학습 상기 ▶ 학습동기 유발 ▶ 학습목표 제시	• 인사, 출석확인 • 질문을 통한 전시학습 확인 • 동영상상을 통한 흥미유발 • 학습 목표 제시 및 설명	• 인사 및 대답하기 • 지명된 학생 대답하기 • 자료를 통해 수업에 흥미 갖기 • 학습 목표 읽기 및 인지	▶ 칠판, 활동지1, 교과서, PPT자료			
	▶ 전체학습 ▶ 개별학습	• 통일신라의 해상무역항로와 학교 실습선인 한내호의 항로를 비교하여 항법의 종류를 설명한다. • 과거와 항법이 다른 이유를 질문한다.	• 설명을 듣고, 교수·학습 활동지를 작성한다. • 이유를 유추하여 질문에 답한다.	▶ 교과서, PPT자료, 활동지1			
전개 35분	▶ 협동학습 ▶ 토의학습	• 조별로 토의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 하도록 지도한다. • 토의 후 활동지 3을 작성하게 시킨다.	• 주어진 문제를 조별활동을 통해 해결한다. • 토의 결과를 활동지 3에 작성한다.	▶ PPT자료, 활동지2,3			
	▶ 학습내용 정리 ▶ 형성평가 ▶ 차시예고 ▶ 인사	• 토의 결과 발표 및 학습내용 정리, 질문여부 확인 • 교수·학습 활동지1,2 평가 • 다음 차시 부분의 교과서 읽기를 과제로 제시 • 차시예고 • 인사	• 토의 결과 발표 및 학습내용 정리, 질문 • 활동지1,2,3 정답 확인 • 과제인지	▶ PPT자료, 활동지1,2,3			

3) 활동지

4) 수업 결과물

가) 수업장면 사진



<장보고 무역항로 개요 및 학교 실습선 항로 교육모습>

<항해계획수립 방법 교육모습>

<수립한 항해계획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모습>

나) 활동결과지



<활동지 1>

<활동지 2>

<활동지 3>

다) 수업자료(PPT)



5) 과정평가

가) 평가지 양식

① 자기성찰평가지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내용	평가척도(상,중,하)		
			상	중	하
수업 전	인지적 영역	항해계획	항해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알고 있는가?		
	핵심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가?		
수업 후	인지적영역	항해계획	장보고가 통일신라의 해상무역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원시항해술과 항로발달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		
	정의적영역	상호작용(참여)	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핵심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② 동료평가지

조원 이름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내용	평가척도(상,중,하)		
				상	중	하
	정의적 영역	책임감	맡은 역할을 책임 있게 완수했다.			
		상호작용(협력)	조별 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상호작용(경청)	친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였다.			

③ 교서관찰기록지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가 항목	
인지적 영역	A	원시항해술의 종류에 대해 분류하고 각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장보고의 무역항로와 한내호의 항로를 비교하여 차이를 알고, 변침점의 항해거리와 항해속력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B	원시항해술의 종류에 대해 분류하고 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장보고의 무역항로와 한내호의 항로를 비교하고, 변침점의 항해거리와 항해속력을 구할 수 있다.	
	C	원시항해술의 종류에 대해 분류할 수 있고, 장보고의 무역항로를 한내호의 항로의 비교하고, 변침점의 항해거리와 항해속력을 부분적으로 구할 수 있다.	
	D	원시항해술의 종류를 알고, 장보고의 무역항로와 한내호의 항로의 차이를 알고, 변침점의 항해거리와 항해속력을 구할 수 있다.	
	E	원시항해술의 종류를 알고, 해도에서 장보고의 무역항로와 한내호 항로를 구분할 수 있다.	
정의적 영역	능동적 참여능력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상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중
		참여하지 못한다.	하

단원명	활동일자	정의적 영역		특기사항
학생명	인지적 영역	의사소통 능력	능동적 참여능력	
		A / B / C / D / E	상 / 중 / 하	상 / 중 / 하
		A / B / C / D / E	상 / 중 / 하	상 / 중 / 하
		A / B / C / D / E	상 / 중 / 하	상 / 중 / 하

나) 평가결과

① 자기성찰평가지		② 동료평가지		③ 교사평가지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내용	평가내용	평가내용	평가내용
인지적 영역	통일신라의 핵심지역의 주요인물에 대해 아는가?	통일신라의 핵심지역의 주요인물에 대해	통일신라의 핵심지역의 주요인물에 대해	통일신라의 핵심지역의 주요인물에 대해	통일신라의 핵심지역의 주요인물에 대해
실행적 영역	지식정보의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보의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가?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보의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가?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보의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가?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보의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가?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보의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가?
인지적 영역	통일신라의 핵심지역의 핵심지역에 따른 설명의 내역 설명할 수 있는가?	통일신라의 핵심지역의 핵심지역에 따른 설명의 내역 설명할 수 있는가?	통일신라의 핵심지역의 핵심지역에 따른 설명의 내역 설명할 수 있는가?	통일신라의 핵심지역의 핵심지역에 따른 설명의 내역 설명할 수 있는가?	통일신라의 핵심지역의 핵심지역에 따른 설명의 내역 설명할 수 있는가?
실행적 영역	상호작용(협동) 조별 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조별 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조별 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조별 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조별 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실행적 영역	동작적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를 유추할 수 있는가?	동작적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를 유추할 수 있는가?	동작적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를 유추할 수 있는가?	동작적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를 유추할 수 있는가?	동작적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를 유추할 수 있는가?

6) 생활기록부 기록 예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상	원시항해술의 종류에 대해 분류하고 각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 장보고의 무역항로와 실습선 한내호의 항로를 해도를 이용하여 비교하고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으며, 해도상의 변침점의 항해거리와 항해속력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음.
중	원시항해술의 종류에 대해 분류하고 각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 장보고의 무역항로와 실습선 한내호의 항로를 비교할 수 있으며, 해도상의 변침점의 항해거리와 항해속력을 구할 수 있음.
하	원시항해술의 종류를 알고 있으며, 장보고의 무역항로와 실습선 한내호의 항로의 차이를 알고 해도상의 변침점의 항해거리와 항해속력을 부분적으로 구할 수 있음.

3. 장보고 교육을 수업에 적용하며 느낀점

장보고 유적지 답사를 통해 배운점을 총 2개의 교과목의 교수·학습에 적용해보았다. 가르침과 배움이 일체화되기를 바라는 현 사회의 요구에 따라 2가지 수업 모두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를 바탕으로 수업을 계획하였다.

첫 번째 융합수업은 장보고 및 그와 관련된 예년, 라이샤워 등에 대한 내용, 통일신라와 발해의 사회모습, 남북극시대의 통치체계에 대한 한국사 영역에 국한되기보다는 장보고의 중요성을 알리면서도 장보고의 무역선인 교관선의 모습을 유추하는 활동을 통해 미래 해양개척선두주자인 수산·해양으로서 선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고자 한국사와 수산해운산업기초 융합수업을 계획하였다.

두 번째 수업은 2018학년도부터 2015개정 교육과정 완전 적용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가장 큰 변화인 NCS기반 교육과정에 발맞추고자 NCS 실무과목인 항해에 장보고교육을 적용하였다. 특히 항해계획수립의 단원으로 선택한 이유는 현재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의 GPS처럼 전자해도가 있어 종이해도는 사용의 빈도가 줄었지만 항해사의 기본이 해도를 읽을 수 있고 해도에 항해계획을 수립(침로, 항해거리, 변침점, 도착예정시간, 항해시간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장보고선단의 항해계획은 어떠했는지 알려주어 장보고의 위대함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장보고의 무역항로와 학교 실습선인 한내호의 중국실습항로와 비교하며 항해계획을 수립하고 시뮬레이션해보는 실습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가. 수산해운산업기초 융합수업

융합적 사고의 함양을 위해 수산해운산업기초와 한국사 교과목의 융합수업에 장보고 교육을 적용하였으며, 실용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수업의 필요성에 따라 창의적사고가 필요한 장보고 교관선(무역선)형태를 유추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협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동학습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계획하면서의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던 부분은 장보고시대의 선박에 관한 자료를 얻는 점이었는데 이 부분은 한국해양재단의 해양교육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어 예상외로 수업계획에 어려움은 없었다. 수업진행부분에서는 학생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난이도가 높지 않았나 걱정하였으나 학생들이 잘 따라와 주었고, 미처 내가 생각지 못한 의견도 제시했다. 그 의견에는 '장보고는 해적을 물리치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군선을 가지고 있었고 군선을 개조하여 교관선을 만들었을 것이다.'였다. 이 외에도 '과거에는 서로의 배 위치를 알리기 위해 북을 설치하였을 것이다.'라는 등의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며 교관선의 모습을 유추하여 내가 의도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 장보고 수업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느꼈다.

나. 항해 NCS 적용 수업

장보고 선단의 무역항로와 본교의 실습선인 한내호의 중국승선실습항로를 비교해보며, 원시시대의 항해술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해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항해계획수립의 어려움을 없애고자 이번 수업을 계획하였다.

이번 수업 역시 해양교육포털사이트의 자료가 수업준비에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학교실습선에서 실제 사용했던 해도를 얻을 수 있어서 수업을 좀 더 현장중심의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수업진행부분에서는 해도를 처음 봐서 그런지 학생들이 수업에 따라오는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또래끼리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항해계획을 수립하고 그 항로대로 선박을 시뮬레이션 하는 모습을 보며 또 다시 동아시아를 주무르는 장보고같은 인물이 탄생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들었다.

다. 마무리

한국해양재단에서는 해상왕 장보고 중국유적지 답사를 통해 17년동안 많은 선생님들께 장보고의 정신과 잊혀진 우리나라의 해양사에 대해 알리고 있었으나 아직 이순신, 안용복에 비하면 장보고에 대한 중요성과 그가 동북아시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인식이 턱없이 부족하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선생님들이 교육현장에서 장보고의 해양정신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우리나라를 해양강국으로 키울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장보고 중국유적지 답사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답사를 통해 '해적왕, 해상왕'이라는 단편적인 단어로만 알고 있었던 장보고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얼마나 중요한 해양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무역항로를 최초로 개척하였고, 그 항로가 아직도 사용됨을 직접 본 사실과 장보고가 재물의 신인 적산대명신으로 추정되고 있음에 충격적이었다. 또, 체계적인 답사일정과 교수님들의 재미있고 이해가 쏙쏙되는 강의를 통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장보고에 대한 지식의 질과 양이 향상되었다. 전공이 사회과가 아니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같이 답사를 온 선생님들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으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 덕분에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번 장보고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같이 답사활동을 한 선생님과 이번 답사를 진행한 한국해양재단측과 감동적인 설명을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장보고유적지 관련내용 외에도 중국의 종교문화, 현지음식 등 중국에서 내가 직접 체험하고 느낀 부분을 사진과 함께 보여주며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와는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기회를 준 것 같아 장보고유적지 답사 덕분에 이번 여름방학을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연구하며, 알차게 보낸 것 같다. 추후 개인적으로라도 우리나라의 완도 청해진, 일본 다자이후 등을 견학하여 장보고와 관련한 또 다른 수업을 진행해보고 싶어졌다. 정말 알차고 유익하여 다른 선생님들이 추천하신 이유를 알 수 있는 답사였고, 나 또한 주변 선생님들께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은 답사였다.

**해신 「BCG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꿈 공감력 함양
용인 이동초등학교 오영숙 선생님**

해신 「BCG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꿈 공감력 함양

1. 수업적용의 필요성

♪ ~ 바다의 왕자 장보고 ~ ♪

초등학교 1학년 우리 반 아이들이 좋아하는 ‘한국을 빛낸 100 명의 위인들’ 노래 가사의 일부이다.

위인의 이야기는 우리 삶의 거울이다. 한 시대를 빛낸 인물이 걸어온 길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나아가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확대로 인해 위인전을 읽지 않는 학생이 많고, 10대의 멘토가 방송인이나 연예인이 되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이 조상의 얼과 지혜를 본받아 오늘에 되살리고자 하는 의지를 갖도록 학교, 교사,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이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견주어 보고, 그 과정에서 본받고 배우면서 성장한다. 다른 시대, 다른 공간을 살았던 사람의 삶을 통하여 자신과 견주어 볼 수 있는 삶의 모델이 다양할수록 스스로의 삶을 입체적으로 설계하게 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용기, 도전, 세계화”을 주제로 해신 BCG (Brave - Challenge - Globalization) 프로젝트 수업 활동으로 ‘꿈 공감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2. 수업의 목적

꿈 공감력을 함양한 미래 지향적 인재 육성



BCG (Brave - Challenge - Globalization) 프로젝트 운영

- 장보고 일생을 알아보고 자신감을 갖는 ‘용기’를 함양한다.
- 장보고의 활약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연계활동으로 ‘도전’ 정신을 함양한다.
- 장보고 살았던 시대를 알아보고 ‘세계’를 향한 꿈을 키운다.

3. '해신 장보고' 일대기 탐색

장보고 일대기	핵심가치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장보고는 신라사회의 혼란 속에서 당(唐)나라로 가서 병사를 거느리는 직위까지 오름. ▶ 신라로 돌아와 양민들을 납치하고 약탈하는 해적들을 소탕하고 바닷길을 개척함. 	<p>자신감을 갖는 용기 공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신념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항로를 개척함. 	<p>장보고 활약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연계활동으로 도전 공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보고 선단과 청해진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한·중·일 을 잇는 대외 해상무역활동의 본거지로 발전시킴. ▶ 중국 남부까지 진출하여 아라비아 상인들과도 교역 하여 이슬람 도자기, 유리제품 등을 신라와 일본에 공급 하기도 함. 	<p>세계 를 향한 꿈 공감</p>



용기 공감	도전 공감	세계 를 향한 꿈 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보고 일대기 책 만들기 → 본받고 싶은 점 쪽지 쓰기 → 나의 다짐서 작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산물 비교전시회 관람 → 점토 도자기 만들기 → '장보고 캐릭터'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 지도> 색칠하기 → 나눔 장터 활동하기 → <장보고 신문> 만들기

4. 실태분석

실태 분석	구분	실태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대한 열정과 수업 연구 동아리를 통한 함께 연구하는 학교 문화 조성 • 답사를 통하여 해신 장보고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수업 적용 필요성에 공감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인의 활동과 업적에 대한 호기심이 높음 • 학습에 대한 동기 및 활용 능력 미흡 및 활동 중심수업 방법 선호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 중간 지역으로 중.저소득층 가정이 많으며 교육적 측면의 학교 의지도 높음 •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녀의 역량 함양 추구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학년별 성취기준 및 역량 강화 • 독서환경 조성 및 프로젝트 운영 활성화

5. 핵심가치 추출 내용

1) 용기

아동들이 좋아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의 애니메이션 '장보고'를 보고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 신라시대와 시대적 환경 속에서 꾸밈하고 씩씩하게 장보고의 기상을 본받아 자신감을 갖는 '용기'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2) 도전

장보고 일대기를 이해하여 그의 주요 활동과 해상무역 활약상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 이를 위해서 무역이라는 개념을 저학년 수준에서 생활적으로 연관해 보고, 만들기, 그리기 활동을 통하여 장보고의 '도전' 정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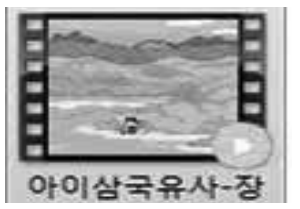


3) 세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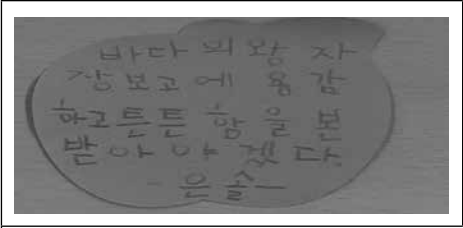

장보고의 한·중·일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상인들과의 해상 무역활동 및 문화교류 활동을 통하여 '세계화'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꿈과 연관 지어 펼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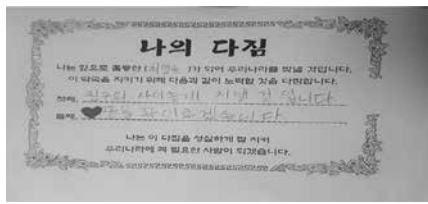

6. 해신 「BCG (Brave - Challenge - Globalization)」 프로젝트 수업

핵심가치	BCG 프로젝트 활동내용	사진	시기	교과
Brave ▶ 용기 공감	I. 장보고 활동 책 만들기		9월 3일	국어
	II. 본받고 싶은 점 쪽지 쓰기		9월 5일	국어
	III. 나의 다짐서 작성하기		9월 6일	국어
Challenge ▶ 도전 공감	IV. 농축산물 비교전시회 관람하기		9월 4일	통합
	V. 점토 도자기 만들기		9월 10일	통합
	VI. '장보고 캐릭터' 그리기		9월 11일	통합
Globalization ▶ 세계를 향한 꿈 공감	VII. <역사 지도> 색칠하기		9월 12일	통합
	VIII. 나눔 장터 활동하기		9월 13일	통합
	IX. <장보고 신문> 만들기		9월 14일	국어



7. 프로젝트 수업의 실제



I	교과	국어	수업실시	2018. 9. 3(월)
학습주제	장보고 활동 책 만들기			
수업의도	저학년 수준에서 장보고가 왜 해신이 되었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장보고를 시청하고, 책 만들기 활동을 실시 하였다.			
학습내용 및 과정	→ '한국을 빛낸 100 명의 위인들'에서 장보고를 나타내는 말 찾기 → '장보고' 애니메이션 시청하기 → 장보고의 중심 활동을 피라미드 책으로 만들기			
활동모습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장보고 애니메이션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장보고 활동 피라미드 책 만들기 및 전시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II	교과	국어	수업실시	2018. 9. 5(수)
학습주제	본받고 싶은 점 쪽지 쓰기			
수업의도	위인의 특징과 장보고가 한 일을 알아보고, 자신의 생활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다. 장보고의 일대기 중 자신이 본받고 싶은 점을 쪽지에 쓰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학습내용 및 과정	→ 장보고 일대기 알아보기 → 본받고 싶은 점 의견 나누기 → 닦고 싶거나 본받고 싶은 점 쪽지에 쓰기			
활동모습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본받고 싶은 점 쪽지 쓰기 활동 결과물</p>			


III	교과	국어	수업실시	2018. 9. 6(목)
학습주제	나의 다짐서 작성하기			
수업의도	장보고의 일대기 중 본받고 싶은 점을 적어보는 활동 후 학교 및 가정에서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고치고 싶거나 지켜야 할 점을 나의 다짐서에 작성하여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습내용 및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일상 되돌아보기 → 고치고 싶거나 지켜야 할 나의 다짐서 작성하기 → 나의 다짐서 낭독하기 			
활동모습	 <p>나의 다짐서 결과물</p>		 <p>나의 다짐서 낭독하기</p>	

IV	교과	통합(술생)	수업실시	2018. 9. 4(화)
학습주제	농축산물 비교전시회 관람하기			
수업의도	장보고의 활약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연계활동으로 우리 농산물 비교전시회를 관람하여 우리 농축산물의 중요성과 우수성 뿐만 아니라 수입, 수출 등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무역활동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학습내용 및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농축산물의 중요성과 우수성 알아보기 → 농축산물 비교전시회 관람하기 → 관람 후 느낀점 공유하기 			
활동모습			 <p>농축산물 비교전시회 관람</p>	

V	교과	통합(술생)	수업실시	2018. 9. 10(월)
학습주제	점토 도자기 만들기			
수업의도	장보고의 활약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연계활동으로 점토 도자기 만들기를 실시하였다. 우리 도자기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도자기 기술을 발전시킨 장보고의 업적을 알아본 후 점토 도자기 만들기를 실시하였다			
학습내용 및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도자기의 우수성 알아보기 → 도자기 기술을 발전시킨 장보고의 이야기 듣기 → 점토 도자기 만들기 → 만들고 난 후 느낀점 공유하기 			
활동모습			 <p>점토 도자기 만들기</p>	

VI	교과	통합(술생)	수업실시	2018. 9. 11(화)
학습주제	'장보고 캐릭터' 그리기			
수업의도	장보고의 일대기를 통하여 장보고의 훌륭함을 캐릭터 그리기를 실시하여 흥미롭고 접근하기 쉽게 하고자 하였다.			
학습내용 및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보고의 일대기 중 주요 업적 알아보기 → 캐릭터의 특징 및 예시자료 알아보기 → 캐릭터 그리기 → 캐릭터 전시하고 느낀점 공유하기 			
활동모습	 <p>장보고 캐릭터 그리기</p>		 <p>장보고 캐릭터 그리기 결과물</p>	

Ⅶ	교과	통합(바생)	수업실시	2018. 9. 12(수)
학습주제	〈역사 지도〉 색칠하기			
수업의도	장보고의 활약상을 지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역사와 신라시대의 문화를 인식하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아라비아 까지 활동한 그의 업적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자 하였다.			
학습내용 및 과정	→ 지도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위치 확인하기 → 지도의 선을 따라 그리고, 바다를 구분하여 색칠하기 → 지도에서 청해진의 위치 확인하고 표시하기 → 장보고가 활동한 지역을 화살표로 나타내기			
활동모습	 장보고대사의 해상활동		 활동 결과물	
	역사 지도 참고 사이트(장보고 기념관)			

Ⅷ	교과	통합(줄생)	수업실시	2018. 9. 13(목)
학습주제	나눔 장터 활동하기			
수업의도	장보고 무역활동의 세계적인 활약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통합교과의 〈나눔 장터〉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물건을 사고 파는 활동을 통하여 경제 활동과 나눔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자 하였으며, 학년 전체가 참여하여 학급 단위보다 큰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여 흥미를 돋우고자 하였다.			
학습내용 및과정	→ 무역의 의미 알아보기 → 나눔의 의미 알아보기 → 나눔 장터를 위한 준비물 확인하기 → 나눔 장터 활동하기			
활동모습	 나눔 장터 활동모습			

해신 「BCG 프로젝트 수업」역사신문 교수-학습 지도안

교과	국어	대상학년	1학년
학습목표	☑ 장보고에 대한 역사신문을 만들 수 있다.		
학습자료	장보고 위인전, PPT, 활동지, 신문만들기 자료, 풀, 가위, 모형마이크		
수업의도	장보고의 한일을 정리하고, 신라시대 당시 세계를 향한 활동들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현재 시점에서 그의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하였다.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유의점(☆)
준비하기	⚡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 부르기 ● 장보고의 주요 활동으로 다섯 고개 퀴즈 풀기 1. 신라시대의 사람입니다. 2. 당나라에 적산법화원을 만들었습니다. 3. 해적들을 소탕시켰습니다. 4. 해상무역기지인 '청해진'을 설치했습니다. 5. 중국, 일본, 아라비아 상인들과도 무역을 했습니다.	5'	* 노래와 퀴즈를 통하여 그동안 장보고에 대하여 배운 것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 학습문제 확인 장보고의 역사신문을 만들어 봅시다.	5'	
전개	⚡ 역사 신문 만드는 방법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 신문 만들기 형식의 활동지를 이용하여 신문의 구조 알아보기 	15'	* 역사신문 활동지
	⚡ 장보고 역사 신문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보고의 활동 그림 자료 등을 활용하여 오려 붙이기 ● 「해신 BCG프로젝트」중 재미있었던 활동을 이용하여 신문 기사 작성하기 	10'	* 신문 만들기 자료 * 풀, 가위
정리	⚡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된 역사 신문을 칠판에 붙이고 다른 사람의 역사 신문을 읽어 보기 ● 역사신문 만들기 과정에서 느낀 소감 발표하기 	5'	* 발표용 모형 마이크

8. 마무리

장보고의 정신을 이어받아
용기와 도전 정신을 공감하고
세계를 향해 꿈을 키우는 이가 되기를 바라며..

2018년 8월, 111년 만에 찾은 무더위를 뒤로 하고 5박 6일의 '장보고 답사'를 다녀왔다.
답사를 통하여,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었던 해상무역의 선구자인 장보고는 엄청난 무더위도 잇을 만큼 생각 이상의 큰 위인(偉人)으로 다가왔다.
답사에서 얻은 감동을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심어줄까 고민하면서 장보고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안하고 실시하여 보았다.

먼저, 장보고를 통하여 '용기, 도전, 세계화' 3가지 핵심가치를 실현하고자 중점을 두고, 이와 연관 지어 교육과정을 재구성 하였다.

처음에는 신라시대라는 천년을 거스르는 낯선 시대적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어색해 했으나, 다양하게 재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보고의 인물과 시대적 여건에 점차 익숙해 가며 즐겁게 활동하였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교사의 입장에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흐뭇한 시간이었다.

해신 「BCG 프로젝트 수업」을 통하여 '용기 공감' 활동을 하면서 키워진 자신감이 '도전 공감' 활동으로 자신의 재능을 키우고, 세계를 향한 '꿈 공감'으로 잠재되어 키워지고 펼쳐지리라 본다.

국어과 교수 · 학습 계획
부산 재송중학교 유영미 선생님

국어과 교수 · 학습 계획



장보고 프로젝트

일시	9월~10월
장소	재송중학교
대상	1학년
지도교사	유영미

재 송 중 학 교

I. 수업 주제

장보고 프로젝트를 활용한 국어 사용 능력 신장

II. 수업 목표

2015 개정교육과정의 교과 핵심 역량인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을 기른다.

국어과 교과 역량	개별 역량의 의미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다양한 상황이나 자료, 담화, 글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만드는 능력
자료·정보 활용 역량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의사소통 역량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기호와 매체 등을 활용하여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표현하거나 이해하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자아와 타인, 세계의 관계를 점검, 조정하는 능력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여 관계를 맺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문화 향유 역량	국어로 형성, 계승되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내면화하여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 생산하는 능력
자기 성찰·계발 역량	삶의 가치와 의미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탐색하여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재능과 자질을 계발하고 관리하는 능력

III. 수업 설계


1학년 2학기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수업(8회, 총 16차시)

학습단계	활동 내용	성취기준
1회	1차시 장보고 관련 독서(비문학, 영상)	[9국02-02] 독자의 배경지식, 읽기 맥락 등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한다. [9국02-03] 읽기 목적이나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 내용을 요약한다.
	2차시 장보고 관련 독서(비문학, 영상)	
2회	3차시 1) 모둠 정하기 - 4인 1모둠 총 5개 모둠으로 편성 - 모둠 내 독서활동 나누기	[9국01-01] 듣기·말하기는 의미 공유의 과정임을 이해하고 듣기·말하기 활동을 한다. [9국01-02]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대화를 나눈다. [9국01-04]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4차시 2) 모둠별 장보고 프로젝트 주제 정하기 ① 장보고의 성장 과정과 성격비주얼싱킹으로 표현하기 ② 장보고의 업적과 일생 랩 가사 쓰기 ③ 장보고 유적지 여행 계획 세우기 ④ 우리도 장보고!(바다의 중요성, 해양 자원 활용 방안, 해양 강국의 가치, 현재의 장보고 기업 등을 담은 신문 만들기) ⑤ 장보고의 삶과 연결하여 해양자원 보호, 해양 산업 육성공익 광고 만들기(ucc, 지면광고)	

학습단계		활동 내용	성취기준
3회	5차시	모둠별 프로젝트 활동하기 (계획 및 자료 수집) -컴퓨터실	<p>[9국01-04]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p> <p>9국02-02] 독자의 배경지식, 읽기 맥락 등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한다.</p> <p>[9국02-03] 읽기 목적이나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 내용을 요약한다.</p> <p>[9국02-07] 매체에 드러난 다양한 표현 방법과 의도를 평가하며 읽는다.</p>
	6차시		
4회	7차시	모둠별 프로젝트 활동하기 (역할 분담 및 공동 작업) -1회	<p>[9국03-01] 쓰기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한 문제 해결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p> <p>[9국03-06]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쓴다.</p> <p>[9국03-07]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드러내는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p> <p>[9국03-09]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를 고려하여 글을 고쳐 쓴다.</p> <p>[9국03-10]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p>
	8차시		
5회	9차시	모둠별 프로젝트 활동하기 (역할 분담 및 공동 작업) -2회	<p>[9국03-04] 주장하는 내용에 맞게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을 쓴다.</p>
	10차시		
6회	11차시	모둠별 프로젝트 활동하기(역할 분담 및 공동 작업)-3회	<p>[9국01-01] 듣기·말하기는 의미 공유의 과정임을 이해하고 듣기·말하기 활동을 한다.</p> <p>[9국01-12]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p>
	12차시		

학습단계		활동 내용	성취기준
7회	13차시	모둠별 프로젝트 발표하기(5분 이내) 및 피드백	<p>[9국01-01] 듣기·말하기는 의미 공유의 과정임을 이해하고 듣기·말하기 활동을 한다.</p> <p>[9국01-06]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말한다.</p> <p>[9국01-08]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p> <p>[9국01-10]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는다.</p> <p>[9국01-11]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하며 듣는다.</p>
	14차시		
8회	15차시	프로젝트 활동 평가하기 (상호평가, 자기 평가, 칭찬 나무 열매 달기)	[9국03-04] 주장하는 내용에 맞게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을 쓴다.
	16차시	수업 활동 소감 나누기 (3분 말하기, 교사 피드백)	[9국01-01] 듣기·말하기는 의미 공유의 과정임을 이해하고 듣기·말하기 활동을 한다. <p>[9국01-12]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p>

IV. 수업 활동 계획

1회(1~2차시)	수업 활동	장보고 관련 독서
성취기준	[9국02-02] 독자의 배경지식, 읽기 맥락 등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한다. [9국02-03] 읽기 목적이나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 내용을 요약한다.	
1차시	1. 장보고 프로젝트 소개 - 국어 수업에서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글로벌 경영인 장보고란 인물을 통해 교과 핵심 역량인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을 기른다. 2. 장보고에 대한 흥미 유발(동영상 시청)-----45분 - [특집 다큐] 장보고 루트(https://youtu.be/ZmxtUy9jQc) 	
2차시	1. 동영상 시청 마무리 2. 장보고 읽기 자료 독서 - 활동지에 내용 정리	

[장보고 읽기 자료]-출처 : 해양재단 자료집



장보고 국가표준영정(이종상 작, 1979)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표준영정 제21호로 지정
 서울대학교 동양학과 명예교수 일랑 이종상 화백 작
 크기 116.5×91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시대를 앞서간 해상경영의 선구자, 장보고
 1,200여 년 전에 활동하였던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적들을 소탕하고 한·중·일 3국을 잇는 동북아 해상무역을 주도하면서 동남아와 인도·이슬람 사회까지 무역활동을 확대하였다. 특히 그는 당시 국가 간의 공무역 형식의 조공무역을 민간무역으로 바꾸고 이를 활발히 펼쳐 나가 해양부국을 이루었다. 동아시아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무역을 선도하였던 그를 '해상왕 장보고'라 부른다.

장보고의 생애와 활동

장보고는 790년경에 완도의 한 섬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활을 잘 쏘아서 '활보', 또는 '궁복(弓福)', '궁파(弓巴)'라고 불렸다. 당시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어서 귀족이 아니면 변변한 벼슬길에 나설 수가 없었다. 때문에 많은 신라 사람들은 신분 차별이 비교적 적은 당나라로 건너가고는 하였다. 장보고도 20대 초반인 810년경에 당나라로 건너가 무령군(武寧軍)에 들어갔다. 그는 당시 산둥을 다스리고 있던 평로치청절도사 이정기(李正己)의 변진을 진압하는 데에 공을 세워서 30세에 소장(小將)이라는 벼슬에 올랐다. 그러나 신라 백성이 해적에 의해 납치되어 노예로 매매되는 참상을 보고는 울분을 느껴, 828년에 귀국한 뒤 흥덕왕에게 해적 소탕의 의지를 전하여 청해진(淸海鎭)을 설치하고 1만 명의 군사를 받았다. 이때 그는 국왕으로부터 '청해진대사(淸海鎭大使)'로 임명되었다. 장보고는 청해진을 중심으로 신라 서남해안 일대의 해적을 소탕하면서, 한편으로는 신라와 당나라·일본을 잇는 해상무역항로를 개척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당나라 수도 장안과 남중국·북중국을 잇는 물류망과 해상교통권을 장악하였다. 이를 통해 페르시아와 아랍 상인이 왕래하는 동남아·인도 항로를 동아시아 항로와 연결시켜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동서 무역망을 갖추어 나갔다. 이 때문에 장보고의

청해진은 재당·재일 신라인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무역 체제와 함께 군사를 갖춘 군상복합체로서 '세계 최초의 종합무역상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상경영의 선각자

장보고는 우리 민족의 미래가 바다에 달려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움직인 선각자였다. 특히 그는 당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가 새롭게 변화하는 데 남다른 혜안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당은 중앙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어 경제적으로 조공무역(朝貢貿易)에서 사무역(私貿易)으로 경제적인 전환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해상 장악력을 상실하여 동북아 일대의 해상에서 해적이 활개를 치는 상황을 군사적으로 제압할 수 없었다. 장보고는 이러한 혼란을 바라보면서, 바다로 눈을 돌려 해상을 장악하고 신라 상인은 물론 중국과 일본 상인들이 안전하게 무역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동북아 해상을 장악한 신흥 해상무역세력으로 등장하였으며, 나아가 동북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면서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주체적으로 형성해 나갔다.

21세기는 세계화 시대이며 해양의 시대라고도 한다.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이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면서 동북아는 세계 역사와 문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시대 상황을 인식하면서 동북아의 경제협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1,200년 전에 동북아를 아울렀던 장보고의 혜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인물, 장보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장보고만큼 세계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은 드물 것이다. 그는 한·중·일 3국의 정사(正史)에 기록된 유일한 인물이다.

미국의 동양학자로 주일대사를 지낸 라이샤워(Reischauer)는 자신의 저서인 『Ennin's Travels in Tang China』에서 장보고를 '해상상업제국의 무역왕'이라고 칭송하였다. 또한 장보고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일본 천태종의 제3대 좌주인 엔닌(圓仁)은 일기 형식으로 쓴 자신의 여행기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서 "장보고의 도움으로 당에서 무사히 구법활동을 마칠 수 있었다"고 기록하며 "장보고에게 은혜 입은 것은 마치 태산과 같으며, 그 은혜의 깊이는 형용할 바를 모른다"고 하였다. 나아가 그는 일본에 귀국한 뒤 제자들에게 "교토에 적산선원(赤山禪院)을 세우고 적산대명신(赤山大明神)을 모시라"고 유언을 하였는데, 부귀영화를 관장하는 재신(財神)으로 알려진 이신은 장보고일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일본의 정사(正史)인 육국사(六國史) 가운데 하나인 『속일본후기(續日本後紀)』에는 일본 정부가 장보고 선단과 독자적인 무역 관계를 맺고, 신라·당의 선진 문화와 물품의 공급을 장보고 선단에 의존하였다는 기록도 담겨 있다. 그리고 당나라의 문장가이자 시인인 두목(杜牧)의 문집인 『번천문집(樊川文集)』과 중국 정사의 하나인 『당서(唐書)』, 제도와 문물사에 대한 책인

『문헌통고(文獻通考)』 등에서는 무령군 소장으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장보고와 청해진을 상세히 언급하면서, "사심을 버리고 국기를 위기에서 구한 인물로 진(晉)에는 기해(祁奚)가 있고, 당에는 곽분양(郭汾陽)과 장보고가 있었다. 누가 동이(東夷)에 사람이 없다고 할 것인가"라고 하여 장보고의 위대함을 특별히 기록하였다.

장보고의 위상을 강조하는 경향은 우리나라 기록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곧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저자로 신라정통론을 강조하였던 김부식은 김유신의 열전을 적으면서 "비록 을지문덕의 지략과 장보고의 의용이 있어도 중국의 서적이 아니었다면 기록이 없어져 그 위대함이 알려지지 않을 뻔하였다"라고 하여, 장보고를

고구려의 영웅 을지문덕과 견주어 비교하였다. 또한 조선 전기에 편찬된 역사서인 『동국통감(東國通鑑)』에서도 "모반했다는 말만 있고 모반 사실이 없으니, 그 공을 시기하고 이익을 탐내는 무리가 없는 사실을 꾸며 임금과 신하 사이를 이간하였기에, 왕이 이를 살피지 못하고 소인 말만 듣고서 도적의 꾀를 행하게 하고 간사한 계획을 이루게 했는지"라고 탄식하였다. 장보고는 한국·중국·일본의 역사서에서 '세계적인 영웅'으로 칭송되고 있다.

장보고 선단의 해상무역로



장보고연보(?~841)

출생 연도

신라 원성왕(785~798) 시기로 추정

출생지

전남 완도의 해안지방으로 추정

성명

- 한국 측 기록 : 궁복(弓福)과 궁파(弓巴). 활을 잘 쏜다는 뜻
- 중국 측 기록 : 장보고(張保臯). 궁복과 궁파의 중국식 발음에서 온 것으로 추정
- 일본 측 기록 : 장보고(張寶高).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추정
- 장보고의 성명은 그의 신분 변화에 따라 연계를 띠고 호칭됨

관직

- 중국의 관직 : 무령군(武寧軍) 소장(小將)
- 흥덕왕 시기 : 청해진대사(淸海鎭大使)
- 신무왕 시기 : 감의군사(感義軍使)
- 문성왕 시기 : 진해장군(鎭海將軍)

중요한 업적

- 동아시아 해상권을 장악하고 신라, 일본, 당의 무역을 주도하여 우리 역사상 가장 활발한 대외진출과 해상활동을 전개
- 전통의 조공무역을 대신하는 발전된 민간무

역을 경영, 우리나라 최초의 군·산·상 복합의 종합상사 설립

- 청해진을 동북아 허브항이자 해상무역센터로 발전시키고 동아시아 해상 교통로 개척

개인적 능력

- 의롭고 포용력이 강하면서 뛰어난 통솔력과 용병술의 소유자로 무역·외교에 탁월

암살 동기

- 장보고 청해진 세력의 확대에 불안을 느낀 신라 귀족들이 암살
- 819년 이전 : 신라 헌덕왕(809~826) 때 입당(入唐)한 것으로 추정. 당나라 서주(徐州) 무령군(武寧軍)에 입대하여 평로치청절도사 이사도(李師道) 번진(藩鎭)의 토벌에 공헌하여 무령군(武寧軍) 소장 진급(30세 쯤)
- 820년대 초 : 무령군에서 나온 뒤 적산포(赤山浦)를 거점으로 재당 신라인들을 결집
- 824년 : 무역 활동을 하면서 일본 왕래
- 825년 전후 : 적산(赤山)에 법화원(法華院) 창건(매년 쌀 500석을 생산하는 장전(莊田) 보유)
- 828년(흥덕왕 3년) : 당나라에서 귀국, 청해진(淸海鎭) 설치, 청해진대사로 임명
- 828년 : 이후 해적 소탕 및 노예무역 근절 서남해안 해상세력 규합
- 828~841년 : 나·당·일 3국 무역 및 이슬람 사회와의 무역 주도(동아시아 무역의 패권 장악)

- 837년(희강왕 2년) : 김우징(金祐徵, 뒤에 신무왕)이 청해진으로 피신
- 838년(민애왕 1년) : 김양(金陽)이 청해진으로 피신
- 838년 : 장보고가 정년에게 군사 5천을 주어 김우징과 김양이 서라벌(왕경)로 진격
- 839년 : 서라벌에 진입하여 민애왕을 살해하고 김우징을 신무왕으로 즉위시킴
- 839년 : 신무왕이 장보고에게 감의군사(感義軍使)를 제수하고 식읍(食邑) 2천 호를 하사
- 839년 : 문성왕이 즉위하여 장보고에게 진해장군(鎭海將軍) 제수
- 841년(문성왕 3년) : 염장(閻長)에게 암살
- 851년(문성왕 13년) : 청해진 폐쇄. 주민은 벽골군(김제)으로 강제 이주



한국 최초의 잠수함 '장보고함'
길이 56m, 너비 6.2m, 높이 5.5m, 1,200급, 최대 항적거리 7,500마일,
1993년 6월 건조

장보고 읽기 자료 독서 활동지			
학번	이름		
장보고의 일생 곡선 그리기	_____		
기억에 남는 업적			
장보고란 인물의 성격 분석			
궁금한 점 2개			

2회(3~4차시)	수업 활동	모둠 정하기/프로젝트 주제 정하기
성취기준	[9국01-01] 듣기·말하기는 의미 공유의 과정임을 이해하고 듣기·말하기 활동을 한다. [9국01-02]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대화를 나눈다. [9국01-04]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1차시	1. 모둠 정하기 - 클래스123의 모둠 정하기 프로그램으로 4인 1모둠으로 총 5모둠 편성 (이질 집단) 2. 모둠 활동 - 지난 시간에 활동한 독서 활동지 나누기 - 모둠 내 돌아가며 말하기 - 우수 활동 선정, 발표	
2차시	1. 모둠별 장보고 프로젝트 주제 정하기 - 모둠 내 협의를 통해 5개 영역 중 1개 선정하기 (다른 활동 아이디어 생산도 가능) ① 장보고의 성장 과정과 성격 비주얼싱킹으로 표현하기 ② 장보고의 업적과 일생 램 가사 쓰기(또는 개사곡 만들기) ③ 장보고 유적지 여행 계획 세우기 ④ 우리도 장보고(바다의 중요성, 해양 자원 활용 방안, 해양 강국의 가치, 현재의 장보고 기업 등을 담은 신문 만들기) ⑤ 장보고의 삶과 연결하여 해양 자원 보호, 해양 산업 육성 공익 광고 만들기 (ucc, 지면 광고) 2. 모둠 프로젝트 주제 계획서 제출 - 주제, 모둠명, 역할 분담	

모둠 프로젝트 주제 계획서			
모둠이름		모둠원	
모둠 프로젝트 주제			
역할분담			
내용 선정			
결과물 형태			

3회(5~6차시)	수업 활동	모둠별 프로젝트 활동하기(계획 및 자료 수집)
성취기준	[9국01-04]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9국02-02] 독자의 배경지식, 읽기 맥락 등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한다. [9국02-03] 읽기 목적이거나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 내용을 요약한다. [9국02-07] 매체에 드러난 다양한 표현 방법과 의도를 평가하며 읽는다.	
1차시	1. 모둠 프로젝트 주제 계획서 수정(컴퓨터실) - 지난 시간에 작성한 내용 확인 및 수정	
2차시	1. 모둠 활동 - 역할 분담 조정 및 자료 수집 2. 모둠 프로젝트 활동 평가서 제출	

모둠 프로젝트 활동 평가서(개인)			
모듬이름			학번/이름
모듬 프로젝트 주제			
나의 역할			
활동 일자 및 활동 내용	3회()		
	4회()		
	5회()		
	6회()		
	7회()		
	활동 우수점 및 아쉬운 점	3회()	
4회()			
5회()			
6회()			
7회()			

4회(7~8차시)~ 6회(11~12차시)	수업 활동	모듬별 프로젝트 활동하기 (역할 분담 및 공동 작업)
성취기준	[9국03-01] 쓰기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한 문제 해결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9국03-06]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쓴다. [9국03-07]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드러내는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 [9국03-09]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를 고려하여 글을 고쳐 쓴다. [9국03-10]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	
1차시	1. 모듬 프로젝트 활동 (컴퓨터실) - 지난 시간에 활동한 내용 확인 및 수정	
2차시	1. 모듬 프로젝트 활동 (컴퓨터실) - 토의, 토론, 제작 활동 2. 모듬 프로젝트 활동 평가서 제출 3. 완성 작 제출(12차시 마감)	

7회(13~14차시)	수업 활동	모듬별 프로젝트 발표하기(5분 이내) 및 피드백
성취기준	[9국01-01] 듣기·말하기는 의미 공유의 과정임을 이해하고 듣기·말하기 활동을 한다. [9국01-06]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말한다. [9국01-08]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9국01-10]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는다. [9국01-11]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하며 듣는다.	
1차시	1. 모듬 프로젝트 활동 결과물 발표 준비 - 결과물 수정, 보완, 마무리 - 발표 역할 분담 - 발표 연습	
2차시	1. 모듬 프로젝트 활동 결과물 발표 - 각 모듬 당 5분 이내로 조정, 피드백 2. 모듬 프로젝트 평가서 제출 - 다른 모듬의 발표를 경청하며 평가서 기록 및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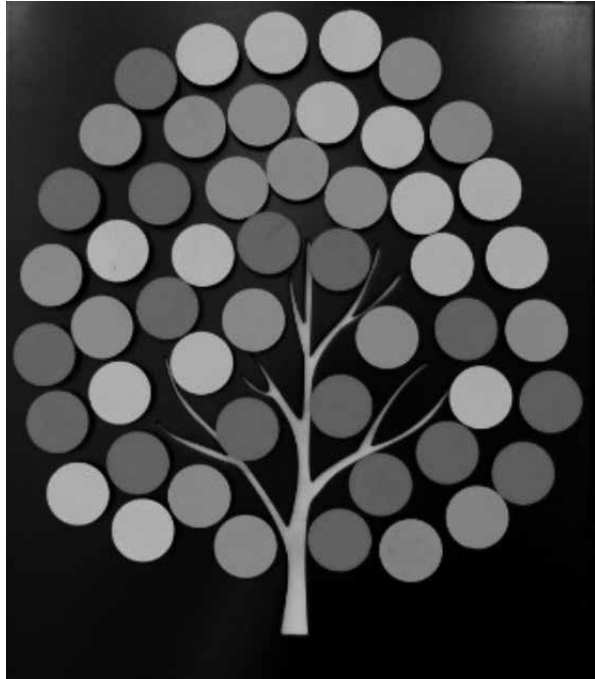
모둠 프로젝트 평가서(개인)											
모듬이름						학번/이름					
모듬이름	프로젝트 주제	평가 기준									
		주제에 맞는 내용인가?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표현했는가?			모듬 역할 분담과 협력이 잘 드러났는가?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모듬 프로젝트 평가서(개인)											
모듬이름						학번/이름					
모듬이름	프로젝트 주제	평가 기준									
		주제에 맞는 내용인가?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표현했는가?			모듬 역할 분담과 협력이 잘 드러났는가?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8회(15~16차시)	수업 활동	프로젝트 활동 평가하기(상호평가, 자기 평가) 수업 활동 소감 나누기
성취기준	[9국03-04] 주장하는 내용에 맞게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을 쓴다. [9국01-01] 듣기·말하기는 의미 공유의 과정임을 이해하고 듣기·말하기 활동을 한다. [9국01-12]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1차시		1. 프로젝트 활동 자기 평가하기/모듬 내 상호 평가하기 - 프로젝트 활동에서 잘한 점, 아쉬웠던 점, 모듬 내 우수 활동자와 그 이유 생각하기(모듬 내 돌아가며 말하기) 2. 모듬간 상호 평가하기(칭찬 나무 열매 달기) - 포스트잇 1인당 2개 배부 에 다른 모듬에서 2명을 선정하여 칭찬 열매 달아주기
2차시		1. 수업 활동 소감 나누기(전체) - 장보고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 느낀 것, 깨달은 것, 다짐한 것 - 1인당 3분 이내 2. 장보고 프로젝트 마무리/피드백

모듬 프로젝트 자기 평가/상호 평가서(모듬)			
모듬이름			모듬원
프로젝트 주제			
평가자	담당 역할	자기평가 (잘한 점, 아쉬운 점)	상호평가 (우수 모듬원 추천 및 이유)

[칭찬 나무 열매 달기]



가) 1인당 2장의 스티커를 배부

나) 다른 모둠에서 2명을 선택하여 프로젝트 활동의 내용이나 태도에 대한 칭찬 한 마디 쓰기

다) 국어 교실이나 학급 게시판에 전시하기

한국사과 본시 교수 - 학습 과정 안
전남 화순고등학교 이대석 선생님

[한국사]과 본시 교수 - 학습 과정 안

담당교사	학년-반	장소	월/일(요일)
이 대 석	1-1	1-1 교실	5/18(목)

단 원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4. 경제활동과 사회모습 ② 남북국의 경제			차시	1/3	
학습목표	1. 장보고가 살았던 시대의 사회 모습을 조사하여 말할 수 있다. 2. 장보고에 대한 동아시아 각 나라의 기록을 조사하여 장보고의 모습을 추적해 본다.					
단계	과정	교수 - 학습 활동				
		교사	학생	학습자료 및 지도상의 유의점	시간	
도입	전시 학습 확인	• 전시학습 확인			5분	
	학습 목표 제시	학습목표 제시 • 장보고가 살았던 시대의 사회 모습을 조사하여 말할 수 있다. • 장보고에 대한 동아시아 각 나라의 기록을 조사하여 장보고의 모습을 추적해 본다. • 각 모듬을 중심으로 사전에 조사하여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고 다른 모듬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				
전개	본시 수업 전개	* 해당 모듬의 학생 발표 - 각 모듬은 조사 내용을 ppt, ucc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5분 정도 발표 • 장보고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당시 신라의 정치, 사회 모습 정리하여 발표한다. - 진골귀족들의 권력 다툼 - 수탈과 기근으로 인해 힘든 백성들의 삶의 모습 - 백성들이 살기 위해 선택한 삶의 방법 - 신라 골품제가 갖는 모순			ppt * 질문 및 발표 모듬 대답, 교사 보충 설명 * 조별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 활용	40분

단계	과정	교수 - 학습 활동			
		교사	학생	학습자료 및 지도상의 유의점	
전개	본시 수업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보고의 고향과 청해진 대사로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도와 청해진의 관계 - 당나라로 떠난 이유 - 당나라에서 성공하게 되는 과정 - 청해진 설치 이유와 주요 활동 장보고에 대한 한국과 중국, 일본의 기록을 조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국사기 등 한국의 기록 - '번천문집' 등 중국 측 기록 - '입당구법순례행기' 등 일본 측의 기록 -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장보고의 인물됨. 장보고의 활동을 통해 알 수 있는 리더의 모습을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릴 때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려는 모습 - 당나라에 건너간 뒤의 군중 소장으로 활동하는 모습 - 청해진 설치와 중앙권력예의 도전 - 동아시아 3국의 교역과 관련된 모습 〈생각 키우기〉: 신라에서 장보고는 어떤 존재였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 발표 및 궁금한점 상호 질문 	pp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및 발표 모듬 대답, 교사 보충 설명 * 조별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 활용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를 나눠주고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게 한다. 	- 형성평가를 풀고 답을 확인한다.	질문 및 대답	5분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시 수업에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알려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한다. - 차시 학습 내용을 확인한다. 			

[한국사]과 본시 교수 - 학습 과정 안

담당교사	학년-반	장소	월/일(요일)
이대석	1-1	1-1 교실	5/18(목)

단 원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4. 경제활동과 사회모습 ② 남북국의 경제(해상왕 장보고)	차시	1/3
학습목표	1. 장보고가 살았던 시대의 동아시아 교역의 모습을 종합하여 말할 수 있다. 2. 바다를 품은 해상왕 장보고의 다양한 흔적을 통해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찾아본다.		
단계	과정	교수 - 학습 활동	
		교사	학생
도입	전시 학습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학습 확인 	
	학습 목표 제시	학습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보고가 살았던 시대의 동아시아 교역의 모습을 종합하여 말할 수 있다. • 바다를 품은 해상왕 장보고의 다양한 흔적을 통해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찾아본다. • 각 모듬을 중심으로 사전에 조사하여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고 다른 모듬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 	
전개	본시 수업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모듬의 학생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모듬은 조사 내용을 ppt, ucc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5분 정도 발표 • 장보고 활동했던 시기의 신라선의 특징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라선의 특징(역사스페셜 영상 편집) - 당시 동아시아의 해로 파악 - 해로와 신라선의 관계 파악 	pp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및 발표 모듬 대답, 교사 보충 설명 * 조별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 활용

단계	과정	교수 - 학습 활동			
		교사	학생	학습자료 및 지도상의 유의점	시간
전개	본시 수업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보고의 고향과 청해진 대사로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도와 청해진의 관계 - 당나라로 떠난 이유 - 당나라에서 성공하게 되는 과정 - 청해진 설치 이유와 주요 활동 장보고에 대한 한국과 중국, 일본의 기록을 조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국사기 등 한국의 기록 - '번천문집' 등 중국 측 기록 - '입당구법순례행기' 등 일본 측의 기록 -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장보고의 인물됨. 장보고의 활동을 통해 알 수 있는 리더의 모습을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릴 때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려는 모습 - 당나라에 건너간 뒤의 군중 소장으로 활동하는 모습 - 청해진 설치와 중앙권력예의 도전 - 동아시아 3국의 교역과 관련된 모습 〈생각 키우기〉: 신라에서 장보고는 어떤 존재였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 발표 및 궁금한점 상호 질문 	pp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및 발표 모듬 대답, 교사 보충 설명 * 조별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 활용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를 나눠주고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게 한다. 	- 형성평가를 풀고 답을 확인한다.	질문 및 대답	5분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시 수업에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알려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한다. - 차시 학습 내용을 확인한다. 			

[한국사]과 본시 교수 - 학습 과정 안					
담당교사	학년-반	장소	월/일(요일)		
이대석	1-1	1-1 교실	5/18(목)		
단원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4. 경제활동과 사회모습 ② 남북국의 경제(동아시아에서 장보고 찾기)			차시	1/3
학습목표	1. 동아시아 삼국에 남겨진 장보고 관련 유적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2. 각 나라에 남겨진 기록과 유적을 통해 장보고의 활동 모습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				
단계	과정	교수 - 학습 활동			
		교사	학생	학습자료 및 지도상의 유의점	시간
도입	전시 학습 확인	• 전시학습 확인			5분
	학습 목표 제시	학습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 삼국에 남겨진 장보고 관련 유적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 각 나라에 남겨진 기록과 유적을 통해 장보고의 활동 모습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 • 각 모듬을 중심으로 사전에 조사하여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고 다른 모듬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 		교과서	
전개	본시 수업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모듬의 학생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모듬은 조사 내용을 ppt, ucc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5분 정도 발표 • 청해진의 공간, 완도에 남겨진 장보고의 흔적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도 청해진 - 장좌리 일대의 지명과 관련 유적 - 장보고기념관을 통해 활동 모습 정리하기 		pp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및 발표 모듬 대답, 교사 보충 설명 * 조별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 활용 	40분

단계	과정	교수 - 학습 활동			
		교사	학생	학습자료 및 지도상의 유의점	시간
전개	본시 수업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보고의 교역과 관련된 우리나라에 남겨지거나 연관된 공간을 찾아 발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진청자와 장보고(도자기문화) - 차문화와 장보고 - 불교문화와 장보고 - 제주도 등지의 장보고 흔적 적산법화원의 땅. 중국에 남아있는 장보고 관련 공간을 조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산법화원과 신라촌 - 중국 동해안을 따라 있는 신라인들의 흔적 - 신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하는 곳과 유학승 - 각 지역의 공통적 특징(교역과 관련해서)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의 모습과 일본에 남겨진 장보고 관련 공간을 찾아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라명신과 일본의 절 - 일본의 기록에 보이는 장보고 선단과의 관계처(태재부) - 신라명신과 적산명신의 관계 〈생각 키우기〉: 자신만의 2박 3일의 장보고 찾아가는 힐링 여행길을 소개하기? (이 주제는 사전 수행평가 등으로 제시하여 이 시간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학생들의 자유로운 코스 발표 및 추천하는 장소 더해주기 	<p>ppt</p> <p>* 질문 및 발표 모듬 대답, 교사 보충 설명</p> <p>* 조별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 활용</p>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를 나눠주고 학습 내용을 확인해보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평가를 풀고 답을 확인한다. 	질문 및 대답	5분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시 수업에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알려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한다. - 차시 학습 내용을 확인한다. 			

[한국사]과 본시 교수 - 학습 과정 안

담당교사	학년-반	장소	월/일(요일)
	1-1	1-1 교실	5/18(목)

단 원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4. 경제활동과 사회모습 ② 남북국의 경제(장보고와 대화하기)				차시	1/3
학습목표	1. 장보고의 삶을 통해서 오늘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해줄 수 있는 조언을 만들어 말할 수 있다. 2. 현재의 다양한 생각과 고민을 역사적 인물의 삶을 통해 비추어 보고 긍정적 답을 찾아보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단계	과정	교수 - 학습 활동				
		교사	학생	학습자료 및 지도상의 유의점	시간	
도입	전시 학습 확인	• 전시학습 확인			5분	
	학습 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목표 제시 장보고의 삶을 통해서 오늘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해줄 수 있는 조언을 만들어 말할 수 있다. 현재의 다양한 생각과 고민을 역사적 인물의 삶을 통해 비추어 보고 긍정적 답을 찾아보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각 모듬을 중심으로 사전에 조사하여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고 다른 모듬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 	교과서			
전개	본시 수업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모듬의 학생 발표 - 각 모듬은 조사 내용을 ppt, ucc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5분 정도 발표 역경 극복인의 모습을 통해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 성장기의 어려움 - 당나라에서의 어려움 - 청해진대사로서의 어려움 - 신분의 한계에서 오는 어려움 	<p>ppt</p> <p>* 질문 및 발표 모듬 대답, 교사 보충 설명</p> <p>* 조별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 활용</p>	40분		

광주전남의 역사. 무등역사연구회. 태학사. 2001

제3절 통일신라의 사회와 문화

단계	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교사	학생	학습자료 및 지도상의 유의점	
전개	본시 수업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왕(무역인)의 모습을 통해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령군 소장에서 적산법화원을 중심으로 신라인 사회의 중심으로 - 삼국의 교역망을 장악하다. - 장보고 선단의 교역규모와 경제력 •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통해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산법화원과 신라촌 통합 - 해적 소탕 - 신라인들과 신라방 등 사람들의 안정 • 청해진대사로서의 모습을 통해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해'의 의미 - 청해진대사의 의미와 역할 - 신라 중앙정부와의 관계 • <생각 키우기>: 내가 만든 장보고 카드 뉴스 (이 주제는 사전 수행평가 등으로 제시하여 이 시간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 발표 및 궁금한 점 상호 질문 	<p>ppt</p> <p>* 질문 및 발표 모든 대답, 교사 보충 설명</p> <p>* 조별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 활용</p>	40분	
정착	형성 평가	- 평가지를 나눠주고 학습 내용을 확인해보게 한다.	- 형성평가를 풀고 답을 확인한다.	질문 및 대답	5분
	차시 예고	- 차시 수업에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알려준다.	-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한다. - 차시 학습 내용을 확인한다.		

1. 장보고와 해상왕국

장보고의 성명은 「삼국사기」신라본기에는 공복으로 기록되어 있고, 「삼국유사」에는 공파로 기록되어 있다. 공복이나 공파에는 성이 없는데, 이는 그의 신분이 귀족에 속하지 않고 일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그가 성을 갖게 된 것은 당에서 활동할 때 여는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성을 칭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장보고의 가문은 잘 알 수 없다. 그가 그의 딸을 문성왕의 왕비로 삼으려 할 때 조정의 신하들이 반대한 이유로 그가 본디 미천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이는 그가 평민·백성 이하의 하층 계급 출신이었다고는 것을 말하여 준다.

장보고의 출신지는 섬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가 정확히 어느 섬 출신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그가 청해진을 설치할 때 서남해안의 많은 섬 중에서 어느 곳을 선택하더라도 좋았을 터인데, 그가 특별히 완도를 선택한 것을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완도가 그의 출신지이거나 연고지였기 때문에 그 많은 섬 중에서 완도를 선택했을 것이다.

장보고는 젊어서 중국에 건너가 해안지대에 가까운 서주의 무녕군에서 장교로 근무하였다. 그는 무녕군에서 30세 때에 '군중소장'이 되었다. 군중소장은 당시의 사료에 나오지 않은 관직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지위를 알 수 없다. 다만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소장은 자장을 뜻한다고 한다. 당시 당나라 모든 군진에 군사가 5천 명이면 총관 1인을 두고, 군사 1천명이면 자장 1인을 3두었다고 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장보고는 군사 1천 명을 거느리는 높은 지위의 지휘관이었다고 이해된다.

그가 당으로 건너간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당시에 신라는 민중들에 대한 조세의 징수와 부역의 징발을 한층 강화하였고, 이에 따라 민중의 부담은 가중되었다. 또한 당시에는 기근이 자주 발생하여 민중의 삶이 피폐하여졌고, 도적이 자주 횡행하였다. 그리하여 민중들 가운데는 스스로 삶의 길을 개척하기 위하여 해외로 떠나는 자들이 많았다. 장보고도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사실 하층계급 출신인 장보고로서는 골품제도라는 속박 속에서 고국에서는 전혀 정치적인 출세를 바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미지의 세계인 당으로 건너가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당에서 무녕군의 고위 지휘관으로 복무하던 장보고는 그러한 직위를 버리고 귀국하였다. 그는 무녕군의 장교로 복무하면서 동포들이 중국 해적선에 의해 강제로 끌려와 중국의 해안지대에

서 매매되는 현실을 목격하고 이에 분노하였다. 그는 신라의 해안에 출몰하여 신라인을 약탈하여 노예로 팔아 넘기는 중국인 노예무역선을 소탕하기 위하여 귀국하였다. 이러한 해적선의 횡행으로 신라인의 해상무역 활동도 지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828년(흥덕왕 3)4월에 흥덕왕을 알현하고 “중국 도처에는 신라인이 잡혀와서 노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청해에 진을 설치하다면 해적들이 사람을 잡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흥덕왕은 그에게 사졸1만 명을 주어 청해진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런데 당시 신라 조정의 형성으로 1만 명 정도의 군사력을 제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였다. 그러므로 이 1만 명은 완도를 중심으로 한 연해안 및 도서의 토착주민 중에서 동원할 수 있는 군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청해진에서 장보고가 사용한 직명을 대사였는데, 이는 본래 신라의 관직제도에는 없는 직명이다. 그것을 골품제나 관등제도의 규정에 구애받지 않은 일종의 예외적인 관직으로서, 어쩌면 중앙정부의 행정적 통제의 대상에서 벗어난 특수한 자격을 가진 장보고 개인에 의해서 사용되고, 또 조정에서는 이를 인정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대사는 당시 당의 변방의 독립적인 군진의 우두머리인 절도대사 즉 절도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변방 해안지대에 독자적인 세력기반을 갖춘 장보고에게 어울리는 직명으로 보인다.

청해진이 설치된 이후에 그 동안 한반도 서남해안에 출몰하던 해적선의 노예무역은 완전히 퇴치되었다. 이는 장보고가 서남해안 일대의 해상권을 장악하여, 해적선을 직접 소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적선의 노예무역에 연결된 소규모의 여러 해상 세력가들을 철저히 단속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리하여 서남해안 지방에 안정과 평온이 찾아들었다.

장보고의 해상권 장악은 해적선의 소탕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신라, 당, 일본 3국간의 교통과 무역을 독점하여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국제 무역의 왕자가 되었다.

장보고는 당과 교역하기 위하여 수시로 대당매물사라는 교역사절단을 파견하였는데, 그 무역선을 교관선이라 하였다. 당시 장보고가 중국에서 교역활동의 거점으로 삼은 곳은 산둥반도의 끝에 위치한 등주 적산포였다. 그는 이곳을 거점으로 하여 그 남쪽의 초주 「연수」 양주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신라의 무역상들을 하나의 교역망 속에 편제하여, 그들을 실질적으로 그의 영향하에 두었다.

이처럼 장보고가 중국과 교역활동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당에 거주하고 있던 수많은 신라인들이었다. 당시 신라인들은 당의 수도 장안을 비롯하여 중국 전역에 걸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특히 중국의 연안지대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독자적인 서류지와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거의 치외법권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집단거류지를 신라방이라 하였다. 그곳에는 구당신라소라는 특수한 행정기관이 있었고, 그 책임자에는 신라인이 임명되었다.

장보고는 당에 여러 해 동안 체류했던 경험이 있었으므로 누구보다도 현지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집단거류지를 신라방이라 하였다. 그곳에는 구당신라소라는 특수한 행정기관이 있었고, 그 책임자에는 신라인이 임명되었다.

장보고는 당에 여러 해 동안 체류했던 경험이 있었으므로 누구보다도 현지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한편 신라 국왕의 권위에 의해서 청해진에 대한 지배권을 보증 받고 있었다. 이런 위치에 있었던 그는 이들 당의 신라인 사회를 하나의 체계 속에 조직화하여 그의 교역활동에 활용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그가 교역활동의 거점이었던 적산포에 적산법화원이라는 사찰을 창건한 데서 알 수 있다. 이 법화원에는 1년에 쌀 5백석을 생산해내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곳에서 「법화경」과 「금광명경」을 강의하는 법회가 열렸는데, 매일 40명 내외의 신라인 신도들이 모였고 어떤 날에 200명 이상의 신도들이 모이기도 하였다.

장보고는 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일본에 판매하는 중개무역을 본격화하였으며, 일본에 보낸 무역사절단을 회역사라 하였다. 당시 일본은 중국 물품에 대하여 대단한 욕구를 가졌었는데, 이러한 욕구를 장보고의 중개무역을 통하여 충족하였다. 그는 사무역을 행하는 한편으로 공무역의 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 그는 840년에 태재부: 일본의 대륙과의 외교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규슈에 있었다)에 사절을 보냈다. 이 사절은 태재부에 의해서 거부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사절이 “신하되는 자가 외교를 할 수 없다”는 종래의 국제관계의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장보고의 사절이 가져온 무역품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교역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장보고의 무역활동은 장보고 개인의 세력 확장에 그치지 않고 신라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켰고 동아시아 3국의 경제 문화 교류에도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장보고의 이러한 성공은 그가 중앙정치에 개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836년 12월에 흥덕왕이 죽은 후 균정과 그의 조카 제룡이 왕위 계승 쟁탈전을 벌였다. 여기서 제룡은 김명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여 희강왕으로 즉위하였고, 균정은 죽었다. 균정의 아들 우장은 왕위계승전에서 패배한 후 청해진으로 와서 장보고에게 의지하면서 그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다. 한편 희강왕을 옹립한 김명은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838년 1월에 군사를 일으켜 희강왕을 꺾어버려 자살하게 한 다음에 민애왕으로 즉위하였다.

이러한 민애왕의 찬탈 소식을 들은 우정은 ‘임금과 아버지의 원수’인 민애왕에게 복수하는 일을 도와 줄 것을 장보고에게 요청하였다. 이때 우정은 장보고에게 왕위에 오르게 될 경우에 그의 딸을 왕비로 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한다. 본디 의협심이 남달리 강했던 장보고는 왕위 찬탈자를 응징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에 끌려 “의로운 일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우정을 도와주었다.

장보고는 5천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민애왕을 축출하고 우징을 신무왕으로 옹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에 신무왕은 장보고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를 감의군사로 삼고 식읍2천호를 주었다. 이는 완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의 주민에 대한 장보고의 실제적인 지배력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장보고는 신라 중앙정치에서도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신무왕은 즉위 후 6개월 만에 죽고 태자인 경응이 문성왕으로 즉위하였다. 문성왕은 장보고의 딸을 그의 왕비로 맞으려고 하였다. 이에 조정의 신하들은 장보고의 신분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였고, 마침내 문성왕은 장보고의 딸을 그의 왕비로 맞아들이지 않았다. 장보고가 그의 딸을 왕비로 삼으려고 시도한 것은, 골품제도에 기초한 진골 중심의 신라 지배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해상무역으로 인한 경제력과 청해진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장보고의 세력이 경주에까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신라 조정은 장보고의 그러한 시도를 꺾었는데, 이로써 신무왕과 장보고와의 약속은 깨어지고 말았다. 이에 대한 장보고는 원망을 품고 있었고, 이러한 장보고의 존재는 신라 조정에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되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신라 조정에서는 841년(문성왕3)에 염장을 보내어 장보고를 암살하였다. 장보고를 암살한 명분은 그가 반란을 도모하였다는 것이었다. 「삼국사기」신라본기에는 그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단정되어 있으나, 「삼국유사」에는 그가 반란을 일으킬 뜻이 있었을 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유사」의 시록이 얼마간 진상을 전하여 주는 것으로서 신라정부에서 그를 암살하면서 ‘반란을 일으킬 뜻이 있었다’라는 따위의 애매한 죄명을 붙였던 것이다. 어쨌든 장보고는 안정복이 적절히 평가한 바와 같이 신라 조정의 음모에 의하여 도살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염장은 어떠한 인물일까. 그는 무주지방의 토호 혹은 지방세력가였는데, 무주의 중심지인 현광주 인근지역 출신으로 생각된다. 그러니까 그는 해상세력이 아니라 내륙 토호세력이었다.

염장은 무슨 이유로 장보고를 암살하였을까. 그는, 당시 장보고가 중앙 정계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중앙귀족의 사주를 받은 것 같다. 그는 당시 중앙정계의 실력자로서 장보고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던 김양의 부하로서 그와 긴밀한 연결 관계를 맺고 있었다.

장보고는 중앙귀족의 사주를 받은 무주지방의 내륙 토호세력에 의해서 제거되었다. 무주지방의 내륙 토호세력은 그들의 기득권이 크게 위협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그들은 중앙정부의 권위에 의존하여 해상세력을 장악함과 동시에 해상 무역의 이익을 차지하고자 하겠다고 짐작된다. 결국 무주지방의 내륙 토호세력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중앙정치세력과 결탁하여 그들의 사주를 받아 장보고를 암살하였던 것이다. 장보고의 죽음은 곧바로 청해진과 해상왕국의 붕괴를 가져왔다.

그 후 염장은 장보를 살해한 공으로 제6관등인 아찬에 오르고, 이리 무주의 차관직인 별가에 임명되었다. 이와 같이 그는 신라정부의 공위 지방관이 되어 청해진을 중심으로 한 해상세력을 통제하였다. 이에 장보고의 부장이었던 이창진 등이 염장의 통제에 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했으나 염장에 의하여 진압되었다. 그 후 정채진의 장보고 잔여세력은 염장의 통제를 피하여 일본에까지 망명하는 자가 많았는데, 염장은 이전에 장보고의 부하였던 이소정 등을 일본에 파견하여 청해진 주민의 일본 망명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렇지만 장보고계의 해상세력인 청해진 주민은 염장의 압제에 끊임없이 저항하였고, 이는 당국의 가중된 탄압을 초래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851년(문성왕13)12월에 신라정부는 청해진을 폐지하고 그곳의 주민들을 내륙의 벽골군(현 김제)으로 집단 이주시켰다. 그리하여 장보고가 암살된 이후에도 10년 동안이아 존속했던 장보고의 잔여세력은 완전히 소멸되었다.(정청주)

장보고 해양제국의 비밀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10 - 책자에서 내용 발췌
(내가 읽고 정리한 것)

- * 장보고가 동원한 군사 중 하나인 동평군의 장수가 염장. 신무왕 즉위를 도운 공로로 무주의 별가(도독에 이은 2인자)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 중앙 귀족 김양의 수하가 됨.
- * 장보고 떠났던 염장은 거짓(문성왕에게 미움을 받아 몸을 피했다는 말)으로 투항, → 장보고 가진 포용력에서 발생한 문제→ 염장을 받아들이면서 연희까지 베풀어
- * 김부식은 '장보고, 정년 열전'에서 자신의 의견을 일체 쓰지 않고 대신 그의 포용력과 인의를 격찬한 당나라 시인 두목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
- * 반역자 장보고에 대한 의문제기: 동국통감-장보고가 모반하였다는 말만 있고 모반한 실상이 없으니, 그의 공을 시기하고 이익을 탐내는 무리가 없는 사실을 꾸며 만들어서 임금과 신하 사이를 이간하지 않았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 * 장보고는 시신도 수습되지 못했다. '원래 장좌리 동신에서도 장보고를 모시지 않고 그의 밑에서 이했던 정년을 제사지냈을 정도
- * '고려말 이곳 장도에서 1년간 머무르면서 몽고에 항전했던 삼별초 장수 송징과 완도에서 불교를 키운 해일 스님을 위한 제사는 있었지만 장보고는 모시지 않아'
- * 그의 사망에 대해서는 841년설과 846년설이 있어, 중국측 기록에서 그의 기록이 줄어든 시점, 일본에서 841년을 전후한 때에 그의 기록이 증가한 점으로 841년설이 더 지지 받아
- * 극소수 의견이지만 장보고가 중국인이 아니냐는 말도 조심스럽게 꺼내, 즉 산둥성에 살던 중국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
- * 신라에서 평민으로 성이 없었던 그가 중국에서 성이 필요하자 활 궁(弓)자를 부수로 한 張을 성으로 택했을 것, 자신의 이름에서 '복' 또는 '파'를 중국 발음으로 풀면서 '보고'로 짓되 군인으로 활동했으니 보호할 보(保)를 택하지 않았을까?
- * 일본식 표기 '張寶高'는 당시 일본인들에게 장보고가 거상이요, 거부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방증
- * 흥덕왕릉의 비석 파푼: 貿易之人間-무역하는 사람
- * 9세기 통일신라는 많은 재앙과 빈곤에 시달려=외환위기나 금융위기보다 더 큰 위기감
- * 1만명의 군사는 당나라에서 노예로 있던 신라인들이 주를 이뤘을 것이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
- * 장보고를 통해서 대외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국내에서는 도자기 등의 생산이 늘었다. 신라 내부적으로도 유통이 활성화되고 소비가 진작되어

- * 흥덕왕은 헌덕왕의 동생으로 애장왕 5년에 시중에 임명, 형인 김언승이 애장왕을 몰아내고 41대 왕이 되어, 819년에 상대등에 임명, 822년에 부군이 되면서 왕위 계승자로서의 입지를 다져, 부군은 신라에서 없던 직책으로 태자에 준하는 특별한 자리로 짐작. 이후 헌덕왕이 죽자 왕위를 계승
- * 흥덕왕 즉위 2년에 '김현창의 난' 발생. 김현창은 태종무열왕의 둘째 아들인 김인문의 직계 후손. 아버지 김주원이 넓혀 놓은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국호(장안 長安)와 연호(경운 慶雲)까지 따로 정하며 왕권을 위협. 웅진(지금의 충청도)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 이후 김현창의 아들 김범문도 난을 일으킴.
- * 헌덕왕 당시 당나라는 안사의 난을 겪은 뒤로 각 지방 토호들의 세력 확장을 막지 못했다. 중국 해적들이 서해상에서 창궐해 신라의 서남해안까지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중국 해적들은 신라 영토에서 민간인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 넘겼다.
- * 이에 당에 신라인을 대상으로 한 노예 매매 행위를 단속해 줄 것을 요청, 신라인에 대한 노비화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당나라의 중앙 권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 시기에 북쪽에서는 발해가 남하정책을 추진하기 시작. 발해는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신라를 압박
- * 이런 복합적 난관을 숨통 트이게 한 사람이 장보고.
- * 흥덕왕의 개혁정책은 근본적 한계를 지녀, 자영 소농민을 보호함으로써 근본적인 지지 기반을 넓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 * 장보고와 청해진의 몰락 역시 흥덕왕의 퇴장과 함께 나타나. 근친 왕족간의 싸움이 재현되고, 범진골 귀족의 화합정책도 무너져.
- * 장보고 시대를 전후해 나타나는 왕릉 주변의 무인상은 교역이 활발했던 신라의 위상을 보여 주는 것, 이슬람과의 교류는 '처용설화'에도 나타나. 흥덕왕릉(1977년 조사 때 주위에서 '興德'이란 한자가 쓰인 비석 파편을 발견)을 지키는 무인석과 처용, 이들 모두 이국적인 모습을 지니고 신라 왕족과 융합한 공통점을 지녀
- * 현재까지 그려지는 처용은 아주 못난 모습, 울산 지역의 호족이었다고 하지만 바다에서 배를 타고 나타난 이슬람 사람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음.
- * 장보고선단은 첩저형에 가까운 원저형으로 결론. 즉 U자와 V자 중간 정도의 날렵한 모양.-
엔닌의 기록에 규모가 작지만 날렵하고 파도에 강하다고 표현=현대의 군함이나 원양어선들이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 * 일본 견당선은 200-300명이 탈 수 있었지만 난파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신라선은 아주 견고해서 조난선이 없었다고 기록.

- * 신라배는 배의 측면인 삼판을 붙일 때 판끼리 겹치는 방식으로 한 뒤 참나무 썰기를 박아 고정시켜, 충격에 훨씬 강했다.
- * 복원된 장보고 선박에는 없지만 신라 배에는 ‘누아’라는 파수판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기도, 파수판이란 범선이 항해하는 중에 옆에서 바람이 불 때 반대편에 이 판을 내려서 선체가 바람 반대쪽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

장보고와 도자기 논쟁

- * 강진 대구면 일대에는 9세기부터 14세기까지 청자를 생산했던 곳으로 가마터만 180곳이 넘고, 현재 전국 가마터 400곳의 절반 가량이 이곳에 존재
- * 기본적으로 흙과 물이 좋아야하고, 지필 나무가 풍족하고 운송도 용이해야, 여기서 만들어 여수와, 부산, 제주, 일본까지 배로 유통됐을 것
- * 완도에서 발견된 자기 파편이 월주요의 생산품과 일치하고 유약의 색이나 굽는 방법 등이 같다. 월주요가 생산되던 시기는 장보고가 상단을 준비하던 시기와 일치. 장보고에 의한 해외 기술 반출로 보고 있어
- * 강진 청자는 다만 착색 재료만 월주요 청자와 달랐을 뿐, 태토 자체의 철분 함량이 높고 유액에 재와 같은 산화망간을 쓰고 있었다는 것. 흙 성분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일 뿐 다른 기술들은 두 지역이 비슷
- * 일본 후쿠오카 일대에서 출토된 해무리굽 청자 파편들에 사용된 흙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일대에서 생산된 것. 양조우의 나성 터에서 출토된 한반도산 청자가 고려청자가 아니라 전남 강진에서 생산된 신라 청자일 가능성이 많다고

신라청자인가 고려청자인가?

- * 현존하는 고려청자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순화4년명호’로 이화여대에 소장. 제작연대(993년), 만든 사람, 사용처 등이 명확히 보여
- * 윤용이는 이를 근거로 고려청자가 10세기 이후에 탄생했다고 주장-정양모 등의 주장하는 해무리굽이 만들어진 시기에 중국 월주요에서는 청자가 아닌 백자가 만들어졌다는 점. 9세기 전후반 나타난 청자주전자, 목이 긴병 등이 강진의 청자가마터에서는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는 점.
- * 정양모, 최건 등은 9세기를 고려청자의 탄생시기로 판단, 이 주장의 근거는 서남해안의 초기청자가마터에서 많이 출토되는 해무리굽 청자의 형태가 8-9세기 중국 월주요에서 발생한 청자와 거의 같다는 점
- * 요시오카는 9세기초 장보고의 활발한 해상활동 덕에 당의 도자기 기술이 유입되었고, 그가 직접

강진에 자기 생산기지를 만들어 일본에 청자를 수출했다는 것-일본 후쿠오카 일대에서 출토된 해무리굽 청자 파편들에 사용된 흙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일대에서 생산된 것-9세기 전반 헌덕왕 시대에 발생한 천재지변에 의해 생활의 수단을 잃은 신라인들이 유민이 되거나 노비가 돼 월주요가 생산되던 중국 지방으로 건너가 일부가 이 시대 하층 계급의 직업이었던 도자기 제작에 종사했다고 주장

- * 일부 학자들은 장보고가 암살당한 후 탄압을 받아 번성하지 못했다고 설명. 이후 소규모 가마터에서 삶을 영위하던 후손들이 시간이 흘러 고려시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고려청자를 만들어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
- * 도자기의 재료가 되는 흙이 좋고, 물이 풍부하며, 불을 땔 때 필요한 나무가 많아야. 중국이 청자를 생산한 것은 8세기 중반부터며 그 중심지는 웨이저우요(월주요).
- * 가마의 기온기 15°는 연기가 가장 잘 빠져나가는 기온기
- * 청해진에서 발견된 도자기는 월주요에서 생산된 것으로, 당시 교류의 증거이며, 그 교류를 이끈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어-장보고는 단순히 도자기만 수입해서 판매한 것이 아니라 기술도 함께 도입한 듯-청해진 인근의 도자기 생산 요지를 통해서 볼 때
- * 삼국사기에 흥덕왕3년(828년)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김대림이 차 씨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었다고 기록.
- * 우리나라에서 발굴되는 상당수 도자기가 차잔이라는 것은 차문화가 그만큼 발달했다는 방증. 당에 유학한 신라의 구법승들에 의해 선종이 들어오면서 차 문화가 발달했다. 선종 불교는 참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승려들은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차를 많이 마셨다.
- * 장보고가 무역을 위해 드나들던 당나라 항구 주변을 보면 대부분 고급 차 생산 지역과 일치하거나 근접해 있어. 그에 의해 차문화와 재배기술, 도자기생산기술 등이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에 보급되었을 것.
- * 우리나라 최초의 차 시배지, 지리산 자락의 하동과 구례가 서로 주장. 화엄사의 장죽전에, 하동은 삼국사기 기록을 바탕으로 쌍계사에 김대림이 차를 심었다고 하고, 삼국유사를 바탕으로 김해가 차 시배지라고 주장하기도.
- * 청해진은 지역명에서 온 것이 아니라 청해는 ‘바다를 맑게 한다’는 뜻
- * ‘대사’는 신라에는 없던 관직명으로 장보고가 당나라 군인 출신이었음을 고려할 때 당과의 관계를 고려해 내린 상당한 자치권을 가진 독특한 관직명으로 봐야
- * 중국의 적산법화원은 사찰이지만 동시에 중국무역의 전진기지였다. 현지인의 결집소.
- * 장보고는 한반도(청해진)-중국(적산법화원)-일본(하카다)를 잇는 동아시아 물류 네트워크를 이뤘다.

- * 엔닌은 법화원에서 연간 500석의 곡식(米)을 수확했다고 기록. 미(米)란 쌀이 아니라 껍질을 벗긴 알곡식이란 뜻. 이를 근거로 적산법화원의 장원을 추정해보면 현재 여의도의 1/6정도로 80만평 정도.
- * 흥덕왕의 사치품 금지령=장보고 전성기와 일치-무너져 가는 통일신라의 신분제를 바로 세우려는 목적도 있어: 비취털은 동남아산 비취새의 털, 매우 귀하고 사치스러워. 빛은 신라시대 귀족 여인들이 뒷머리에 꼽는 장식. 슬슬전은 타슈켄트산 에메랄드로 장식한 것으로 추측. 대모의 생산지는 보르네오, 필리핀 군도, 자바 등지이며 해안에서 잡히는 구갑의 일종으로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 '삼국사기'에는 이외에도 복장과 사용. 자단은 자바·수마트라 등지에서 산출되는 나무로 향기롭고 견고하며 색이 아름다워 건축 및 가구재로 사용.
- * 청해진 설치는 공식적으로는 해적 소탕이지만 속내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신라 왕실에 상당한 지원을 약속한 결과 일 수도
- * 장보고의 신분: 별볼일 없다. 해도인 출신, 정확하지는 않지만 천민 혹은 평민 출신으로 짐작. 골품제에서는 자신의 뜻을 펴기가 어려워. 당나라로 건너가 군인이 되고, 고구려 유민 이정기가 세운 반당 세력 토벌 작전에 참가. 궁파, 혹은 궁복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활을 잘쓰는 아이'는 30세 즈음에 무령군의 군중소장(현재의 연대장급으로 1,000정도의 병력을 거느림)이 되고, 당이 신라에 원군을 요청했을 때 신라와의 통역,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양국 사이의 관리들과 관계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어.
- * 토벌이 끝난 후 군대를 나와 장사를 시작. 당시 재당신라인들은 선박 제조 및 수리, 해운업, 목탄 제조 및 유통, 소금 생산 등에 주로 종사.
- * 장보고의 돈벌이 비법: 신용 거래 방식 사용. 신라 상인과 일본 상인에게 대금을 먼저 지불하고 후에 상품을 받는 방식. 당시 귀족들이 선호하는 남해박래품과 당나라 물건을 적기에 공급. 당시 중앙집권 권력이 약해지면서 공무역인 조공무역이 쇠퇴하고 민간무역이 확대.
- * 선박 대여, 통역 제공, 사절단 안내 등의 역할도 해 돈을 많이 벌
- * 당시 장보고 선단의 대 일본 1회 교역액은 곡식 2만 6,000석 정도로 현재 쌀로 치면 약 1만 3,000석 정도, 이를 현재의 시중 쌀값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52억 수준.
- * 푸튀산 신라초의 비밀: 저장성 닝보 앞바다 저우산군도의 작은 섬이 푸튀산이다. 이름은 산이지만 실제로는 조그만 섬.
 - 이곳에는 중국 4대 불교 성지의 하나로 꼽히는 불공거관음원이 있어 연중 관광객이 끊이지 않아, 섬의 정상에는 바다를 바라보는 거대한 청동관음상이 세워져 있어
 - 이 섬 앞바다에 신라초라는 이름의 바위가 있어, 길이 100여미터쯤 되는 바위, 신라 배들이 많이

- 가라앉아 '신라초'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는 신라 선박의 왕래가 빈번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 신라초는 수면 아래로 곧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길게 퍼진 바위다. 수면 아래의 폭이 넓은 곳은 300여미터에 달한다. - 이곳을 지나는 이유는 닝보로 가길 귀해서다. 닝보는 중국의 대표적인 무역항이었고 도자기 수출지였다. 남쪽 항로의 시발점이자 장보고와 신라 상단의 중국내 중요한 거점.-이곳에서 순풍을 맞으면 5일만에 흑산도에 이르고, 7일째 개경에 도착한다고 '선화도경'에 기록
- '조음동'이란 글씨: 이 바위는 작은 동굴 모양으로 아래에서 철썹철썹 파도소리가 끊임없이 들려 '파도소리가 나는 곳'이라는 뜻의 조음동이란 이름을 가져. 청해진이 있던 완도는 예전에 '조음도'라고 불러 혹 연관이 있을까?
- 불공거관음원의 유래에도 신라가 등장. 옛날 신라 상인이 산시성 우타이산에 가서 관음상을 모시고 신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푸튀산 앞바다에서 좌초해 배가 더 나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관음상을 푸튀산에 모셨다고 기록.
- * 산둥선 평라이(蓬萊)시 천화수릉(前花市弄)23번지. 신라인을 위한 일종의 호텔인 '신라관'이 있었던 곳.
- * 산둥반도의 평라이와 엔타이는 신라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곳으로 장보고의 주요 활동 무대. 엔타이는 웨이하이와 함께 신라인들이 신라방을 세우고 집단으로 거주했던 곳.
- * 평라이라는 지명은 그 옛날 신선들이 살았다는 전설의 산 봉래산에서 유래. 평라이는 등주로도 불려. 한반도와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 * 등주수성과 봉래각이 관광지로 유명하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소동파의 글이 남아 있으며 인근에서 고려 선박이 발견된 곳.
- * 봉래각은 단야산 정상에 있는 누각으로, 8명의 신선이 이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바다를 건너는 놀이를 즐겼다는 '팔선취주八仙醉酒'라는 조각상이 있어. 도교의 성지. 그 안에는 소동파가 쓴 '신기루는 환상에 지나지 않고 충신과 효자가 바로 신선이다'라는 글이 있어
- *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며 제사를 지내는 용왕궁, 바다를 다스리는 여신을 모신 천후궁.
- * 평라이는 중국 각지로 향하는 도로가 발달하고 발해관, 신라관이 있었던 곳. 등주수성이 이곳의 관문.
- * 수성은 두분으로 나누어져 하나는 갑문, 부두, 방파제와 같은 바다의 항만 시설이고 다른 하나는 성벽, 성문, 병영과 같은 육지의 군사시설.
- * 고구려 영양왕때 수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할 때 등주를 거쳐 평양으로 발해의 장군 장문휴는 수군을 이끌고 등주를 공격하기도.
- * 입구에 '등주고선박물관'이 있어

- * 배 중 평저형은 안정성이 뛰어나고 연안 무역에 유리. 무역활동이 활발했음을 보여 주는 것.
- * ‘정화’가 탄 배의 모형인 정화보선. 정화는 중국 명나라때 환관 겸 전략가로 거대한 선단을 이끌고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케냐에 이르는 30여개국에 원정한 인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기 60-70년 전에 아프리카까지 항해. 콜럼버스의 배가 250톤 정도의 규모였는데 정화의 배는 2,000-3,000톤 정도의 규모.
- * 취안저우(泉州)시의 남안현의 진장(晉江)유역에는 구일산이 있고, 산에 오르면 유유히 흐르는 진장의 모습이 보이고, 이 산은 항해를 앞둔 상인들이 바람을 비는 의식(기풍제)을 행하던 곳.
- * 시박사는 무역을 관장하는 부서.
- * ‘대조부주이귀(待潮浮舟而歸 조류를 기다려 배를 띄워 돌아간다)와 같이 바람과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글들이 많아.
- * 푸젠성의 배가 최상, 광둥성의 배가 그 다음, 그리고 저장성이나 장시성의 배가 그 다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취안저우의 배는 좋았다.
- * 린하이(臨海)에 있는 국청사라는 절 인근에는 신라방이 형성되어 있어
- * 천수 천안의 장보고. 거대한 관음상 주변에 길이 38미터, 높이 10.8미터의 중국 최대의 불교 벽화가 장식. 1980년대 절을 중건하면서 만든 곳.
- * 장보고는 신라 선종의 유학과 귀국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구산선문의 발전에 기여, 구산선문은 9-10세기 주관적 사유를 강조한 선종을 퍼뜨리면서 사상계를 주도한 아홉 갈래의 승려 집단.
- * 적산법화원은 단순한 절이 아니라 산동성 일대 재당 신라인의 결집소. 정보가 모이는 곳. 해마다 추석이 되면 일대 신라인들은 법화원에 모여 춤추고 노래하며 놀.
- * 장보고가 붉은 도포를 입은 이유-2007년 개관한 기념관은 영성시와 산동척사수상그룹이 건립을 지원.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에서 전시물 지원. 월전 장우성 화백이 장보고 대사 여정을 기초로 제작한 청동 대형 동상이 서 있어
- * 중국에서 인물에 붉은 도포를 두르는 것은 존귀하고 성공한 인물임을 나타낸다고 함.
- * 외국인을 위한 기념관으로는 중국 내에서 3번째.
- * 두목은 자신의 책에서 장보고를 인(仁)의 인물이라고 높게 평가하고 ‘사심을 버리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인물로 진의 기해, 당의 광분양과 장보고가 있다. 누가 동이에 사람이 없다고 할 것인가?’
- * 손문 선생이 중국에서 개방해 발전시킬 3곳으로 상하이, 광저우와 석도를 꼽았다.
- * 기념과 아래 마을은 예전에 신라촌이 형성돼 있던 포구. 기념탑은 세계민족연합 최민자 회장의 주도로 1994년 만들어져, ‘장보고기념탑’이라는 글자는 김영삼 전대통령의 친필 휘호.
- * 당시 탑을 만들 때 중국보다 오히려 국내에서 반대가 많았다. 대사가 별거나, 해적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 * 현재 복원된 사찰은 일본의 지원으로 이뤄진 것.----보완 추가 필요
- * 일본의 ‘적산선원’ - 단풍의 명소, 재물의 신이 살고 있어, ‘적산대명신’
- * 교토에는 ‘미야코 7대 복신’을 모신 절과 신사가 있어-미야코는 수도, 도읍이란 의미로 교토를 의미-일본의 중세 시절 생긴 7복신 신앙에 따르면 7개의 절과 신사를 모두 돌면 복을 받을 수 있다. 본래 정월에 돌아야 하지만 요즘은 구애를 받지 않음.
- * 계약에 따라 돈을 주고 받기로 약정할 때 결재일을 5,10,15일 등 5의 배수로 정하는 관습이 ‘고토바라이’
- * ‘매달 5일 적산대명신의 제일에 절을 참배하면 사업이 번창하고 외상값 수금이 잘된다는 속설이 있어.
- * 5일의 배수로 정한 것은 이날이 바로 적산대명신의 기념일이기 때문. 제일은 일본어에서 색일, 또는 연일이라 불러.
- * 적산대명신=신라명신=장보고
- * 적산선원의 본존불이자 재물신, 적산대명신이 바로 장보고의 화신. 일본판 위키피디아 등 여러 자료에 적산선원에서 모시는 본존불 적산대명신은 태산부군을 뜻하는 것으로 표기돼 있다는 점.
- * 중국 불교는 도교와 밀접하게 연결. 태산부군은 도교에서 온 신(도는 부처님). 일본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지옥에서 생전의 죄업에 따라 재판을 하는 열분의 부처님이 있는데, 태산부군도 그 중 하나.
- * 엔라쿠지라는 이름을 부르는 대신 그냥 히에이산이라 불러-천태종을 세운 사이초가 만들었고, 3대 좌주(교단의 수장) 엔닌이 교세를 크게 확장 시킨 곳. 전국시대에는 오다노부가나에 의해 불타는 수모를 겪는 등 일본 역사와 관련이 밀접한 곳.=전국의 사원에서는 자각대사를 천태 법의를 일본에 전한 대사로 숭앙하는 동시에 적산대명신을 천태 불법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어.
- * 엔닌은 죽기 전 제자들에게 적산궁과 별도로 신라명신을 모실 절을 건립하라는 유언을 남겨, 그가 죽은지 24년 만인 888년에 신라명신을 위한 절을 교토에 세움. 그게 적산선원.
- * 도시 이름은 후쿠오카지만 이 도시의 항구와 신칸센이 서는 일본철도역 등 도시 곳곳에 하카타라는 지명이 많이 남아, 후쿠오카는 일본 전국시대 이후 이 지역 영주였던 구로다 가문이 다스리던 번의 이름이고, 훨씬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이곳을 지칭하는 이름은 하카타.
- * 하카타는 일본 전체의 대외 무역 창구이자 세상으로 열린 일본의 창.
- * ‘삼국사기’ 등 역사서를 보면 ‘일본’이라는 국호가 등장하는 것은 670-690년대로 추정. 그 이전에는 ‘왜국’으로 호칭. 오오키미 등으로 불리던 최고 권력자를 ‘텐노(天皇)’으로 부르기 시작.
- * 도다이지(東大寺) 대불의 점안식에는 신라 경덕왕의 왕자를 칭한 귀족 김태림이 배 7척과 700명의 일행을 이끌고 참석.
- * 일본과 1회 교역 규모를 싹로 환산하면 1만 3,000섬 정도. 52억 수준.
- * 그래서 ‘부유하고 귀하다’는 뜻의 張寶高 가 됨.

- * 덴만구는 학문의 신 스기와라노 미치자네를 모신 신사로 입시철이면 일본 전국에서 순례객이 모여 드는 유명한 곳. 이 신사는 10세기에 세워진 것으로 장보고 시대와는 관련이 없다.
- * 다자이후는 장보고 시대에는 규슈의 최고 정부 기관. 일본이 위급한 상황에 놓일 때는 군사 기지 역할을 하기도 했던 중요한 시설. 교토에 있던 중앙 정부의 분소쯤 되는 곳..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일본에 침략할 것을 염려해 만들어졌기 때문.(내륙에 있는 이유)
- * 다자이후 주변의 높은 산마다 산성을 쌓는다. 다자이후 북쪽의 오노쵸(大野城)가 대표적. 이때 만들어진 산성들은 그 뒤 일본 역사서에 다시 나타나지 않는 형식으로 학자들의 공식 분류 명칭 자체가 '고대산성=조선식 산성.
- * 산성만으로 충분한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바다와 접한 후쿠오카에 신라가 쳐 들어올 경우 미카사가와를 따라 다자이후로 진격해 올 것이 틀림없어, 미카사가와 근처에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수성(미즈키)를 건설.
- * 이 축성은 백제 유민과 기술자들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돼.
- * 위급한 시기에 제2 정부이자 군사 기지 역할을 했던 다자이후는 평화로운 시기가 되자 대외교역과 일본내 교역의 중심지인 후쿠오카의 정치적 배후 도시로 자리를 잡았다. 장보고 선단의 교역 장소는 하카타항과 고로칸이었지만 이에 대한 허가, 규제 등은 모두 다자이후를 통해 이루어져.
- * 다자이후 옆에 7-8세기 비슷한 때에 만들어진 간제온지가 있는데, 절에는 7세기 말에 지어진 범종이 있는데 화려한 연화문, 당초무늬가 특징. 일본이나 한국 학자 모두 신라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제작 기술자가 신라인이었을 것으로 추정.

장보고선단의 배, 신라선은?

도쿄 오츠시의 연력사는 천태종 불교의 총본산이다. 이 곳에는 자각대사 엔닌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다. 자각대사 엔닌은 <입당구법순례행기>로 유명한 승려이다. 그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장보고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 책에 따르면, 그는 신라선을 이용하여 당에 건너갔다. 그리고 그가 이용한 신라선은 매우 우수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시 신라선은 어떤 형태를 띠었는가? 기록에 따라 고증해보면, 신라선은 첨저선이었다. 첨저선은 대양항해에 우수하고, 풍파를 견디기에 좋았다. 그리고 갑판아래의 구조가 수밀격벽구조이다. 이는 갑판아래가 여러 겹으로 나뉘어져, 바닥 일부가 부서져도 항해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한다. 또한 신라선은 사각형의 돛을 최소 2개 이상 달았으며, 노를 사용하지 않는 범선이었다. 신라선의 규모는 동시대의 중국 천주만 출토선을 근거로 추정해보았을 때, 150명 이상이 탑승 가능한 300톤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보고 선단의 항해술

서해의 뱃길은 하절기와 동절기 각기 다른 계절풍이 분다. 동력도 없던 당시 오직 선단이 의지할 것은 바람뿐이었다. 순풍때는 쉽사리 전진하겠지만, 만약 역풍이 불때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실험 결과, 지그재그 전진법이 이용되었다. 돛을 이용하여 그들은 바람을 이용하였다. 또한 길(keel)을 이용하여 배가 바람에 무한정 밀리는 것을 막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엔닌의 기록에 나와있는 '누야'가 피수판 즉 길로 추정된다.

장보고 선단의 항해법

나침반이 발달되기 이전 망망대해의 바다에서는 지물항법을 대체로 이용하였다. 말그대로 육지의 지형물을 보면서 연안항로를 이용하여 항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보고는 서해를 가로 지르는 사단항로를 이용하였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하늘의 움직임에 이용하는 천문항법을 이용했기에 가능하다. 천문항법은 낮에는 태양, 밤에는 별을 이용하여 항해를 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장수왕대부터 천문항법을 이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고인돌에 새겨진 별자리,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서 천문학이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날이 좋은 날에 해당한다. 엔닌은 악천후에도 항해했다고 기록한다. 아마 추정해 보건데 나침반 등 방위계측기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나침반은 익히 알다시피 11세기 송대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낙랑유물 중 식점천비반과 고조선의 유물 방위관측기를 통해 고대부터 방위를 관측하는 기계가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장보고 선단은 재지 중국인, 재지 일본인과 연결되어 있었다.

산동성 적산포에는 법화원이라는 장보고가 지은 사찰이 있다. 강소성 연수현과 속성촌에는 신라인의 주거 유적지가 있다. 이처럼 중국내에는 신라인들이 대거 거주하였다. 그들은 주로 선박업, 운송업, 소금, 숯 등을 판매 담당하는 무역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였다. 그들의 무역대상은 본국신라와 일본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장보고 선단과 연결되어 있었다. 뿐 아니라 그들의 영향력은 중국내에서 매우 컸다.

또한 그들은 일본에서 역시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하카다항은 국제 무역항이다. 그 곳 유적에는 대량의 신라 유물이 발견된다. 특히, 향춘신사라는 절은 당시 엔닌이 당으로 가기전 신라인에게 정보를 얻었던 곳으로 재지일본인이 세운 절이다.

장보고는 무역왕이 아닌 해상왕이다.

교토 적산서원은 엔닌의 유언으로 '적산명신'을 모시고 있다. 그는 엔닌의 생명의 은인이다. 그런데 적산명신의 다른 이름은 신라명신으로서 장보고를 가리킨다. 장보고는 이처럼 일본에서 숭앙 받고 있는 존재이다. 장보고는 육지가 아닌 바다로서 청해진(장도)을 거점으로 재당, 재일 신라인을 내포하는 동아시아 삼국의 무역을 장악했으며, 나아가 아랍까지 연결된 해상 실크로드(남해도)를 연결하였다. 이는 이집트 국립도서관에 비치된 이브쿠르드지바의 <제 도로와 제 왕국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신라'라는 나라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신라로부터 들어온 물품이 기록되어 있다. (명주, 비단, 녹향, 노회(알로에), 말안장, 호랑이껍질, 도기, 고라이브(인삼)) 또 다른 기행물에는 신라의 지도도 표기되어 있다. 뿐 아니라 신라 원성왕릉(괘릉)의 서역인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장보고는 동아시아를 넘어 멀리 아랍까지 해상으로서 연결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보고 해양제국의 비밀』/장인수 - 2015.5.27

「장보고는 중국과 일본 정사에 기록된 거의 유일한 한국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반역자로만 알고 있었다. 장보고의 개척 정신을 재조명 하는 것이 역사 바로 세우기다.(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통일신라시대 청해진대사(淸海鎭大使)였던 장보고는 청해진을 동북아의 허브항이자 국제무역센터로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일본과 중국의 주요 항구를 연결함으로써 세계로 통하는 종합적인 무역과 물류망을 구축하였다. 그는 나.당.일 3국은 물론 이슬람 세계와도 교역한 우리 역사상 유례 없는 글로벌 리더였다.

중앙일보가 창간 44주년 특집으로 기획한 <G20 시대 장보고의 리더십에서 배우다>를 기획하면서 취재탐사팀이 국내는 물론 중국과 중동의 유적지를 직접 답사하고, 전문가의 의견 등을 통해 장보고의 실제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고자 했다.

Story 1 장보고와 흥덕왕

청해진은 전남 완도에 있는 장도(將島, 장군섬)에 위치해 있었으며 장보고가 해상왕으로 청사진을 펼친 곳이기도 하지만 총애하고 믿었던 부하 장수 염장에게 최후를 맞이한 곳이기도 하다.

장보고는 838년, 당시 신라 최고의 벼슬인 상대등 김균정의 아들 김우징이 민애왕을 축출하고 신무왕으로 즉위할 때 군사를 지원한 일등공신으로, 이 군사 중 하나인 동평군의 장수가 바로 염장이다. 이 염장은 장보고를 등지고 반대편에 있던 중앙 귀족 김양의 수하가 되었다가, 신무왕이 즉위한 지 1년도 안 돼 죽고 문성왕이 즉위하자 거짓으로 장보고에게 투항하고 다시 수하로 들어갔다. 아무 의심 없이 그를 받아준 장보고는 그를 환영하는 연회에서 무방비 상태로 염장의 칼을 맞고 숨을 거두었다.

이후 장보고는 역사의 기록에서 왕위 찬탈 때 군사를 지원한 반역자로 기술되었다.

「청해진 대사 장보고는 왕이 자신의 딸을 왕비로 맞지 않은 것을 원망해 청해진에서 모반을 꾀했다.(삼국사기, 신라본기 11)」

「왕의 약속 위반을 원망하며 난을 꾀하고자 하였다.(삼국유사, 권2 신라기)」

이는 당시 기득권층의 귀족들의 음모설이 있었을 걸로 추정되는데, 지방출신인 장보고가 중앙 정부의 실세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 귀족들의 조직적인 음모로 보는 견해가 많다. 당시 장보고의 정치적 영향력과 무력은 실제로 대단해서 청해진을 세울 때 1만 명의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흥덕왕에게서 부여받고 그 당시 해상 무역을 방해하는 해적 세력을 단기간에 제압해버렸다. 중국, 일본과 신뢰 관계에 기초한 장보고의 청해진 운영은 그의 사후로 예전의 활발한 활동성을 잃고 851년 2월에 완전히 해체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더구나 장보고는 시신도 수습되지 못했고, 반역자로 몰려 1,000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이 일군 청해진 땅에서 조차도 외면 당하고 잊혀진 인물로 남아 있다.

당시의 신라에는 왕족, 성골, 진골을 빼고는 성씨가 없어 평민 출신의 장보고를 일부 학계에서는 중국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 당시 중국의 당나라에는 호적이 있어서 왕씨, 이씨, 장씨의 3대 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 중국, 일본에서 서로 다르게 장보고의 이름을 표기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張保臯'로 표기하고, 우리 삼국사기에서는 '張保臯' 이외에도 '궁복(弓福)', '궁파(弓巴)'로도 표기 되어 있는데, 이는 어렸을 때부터 장보고가 활을 잘 쏘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일부 학자는 성이 없던 장보고가 중국에서 성이 필요하자 활 궁(弓)자를 부수로 한 張을 성으로 택했을 거로 보기도 한다. 그런데 일본 사서인『속일본후기』에서는 '張寶高'로 표기돼 있는데, 이는 그 당시 일본인들에게 장보고는 거상이요, 거부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통일신라의 흥덕왕 재위 기간은 선대왕인 헌덕왕 때부터 계속된 재앙과 왕권 다툼으로 쓰러져 가던 시기였고 이 같은 어려운 국가 경제 현실을 타파할 묘책을 찾아 고심하던 흥덕왕은 한때 중국에서 군인으로 이름을 날리고 군대를 나온 후 무역상을 하던 장보고를 만났다. 흥덕왕은 장보고를 불러 청해진을 만들고 해상로를 개척할 권한을 줘 무역을 통한 해상 강국을 만들었다. 이로써 신라 내부적으로도 유통이 활성화되고 소비가 진작돼 흥덕왕은 자신과 친한 강력한 세력을 새로 만들면서 지방 귀족들의 견제까지 하게 됐다.

Story 2 해상 장악의 일등 공신 신라 배

9세기 장보고가 해양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라 배'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신라 배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배 바닥의 형태로, 정면에서 보면 'V'자 형태는 아니고 'U'자와 'Y'자 중간 정도의 날렵한 모양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일본의 기록들에서 먼저 찾을 수 있는데, 일본의 엔닌(헤이안 시대의 승려)이 쓴『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는 신라의 배를 두고「신라 배는 규모는 작지만 날렵하고 파도에 강한데 비해 일본의 견당선은 200~300명이 탈 수 있지만 난파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신라의 배는 아주 견고해 조난선이 없었다」고 기록했다. 파도를 잘 헤쳐 나가고 날렵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배 바닥이 뾰족해야 하는데, 신라의 배는 첨저형(尖底型)에 가까운 원저형(圓底型)이었다.

옆구리 역시 강하여 신라의 배는 배의 옆구리 측면인 삼판을 붙일 때 판끼리 겹치는 방식으로 한 뒤 참나무 썰기를 박아 고정시켜 충격에 강하게 만들었다. 이런 구조는 신라 조운선에서도 비슷한데, 삼판 한 쪽의 두께는 보통 10~15cm이며 너비는 40~45cm에 달하고 이들 삼판은 다시 횡으로 하나씩 장식을 걸어 맞은편 삼판들과 연결하여 바닷물의 압력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게 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이 일본 전함을 격파한 방법 중 하나가 튼튼한 외형을 이용한 충돌 작전이었던 점도 신라 배의 건조 방식의 영향을 받았을 걸로 여겨진다.

일본의 여러 기록들을 고려해보건데 장보고 배의 길이는 31.5미터 정도며 폭은 7.8미터, 무게는 200여 톤으로 추정된다. 장보고 배의 바닥은 대한해협이 물살이 빠르고 험해 평저형은 아니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원양어선의 역할 뿐 아니라 근해까지 드나들었다는 기록을 볼 때 첨저형과 평저형의 중간인 원저형의 형태를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배에는 13개의 칸막이가 있어 배의 한 부분이 파손돼 바닷물이 들어와도 바로 침몰하지 않도록 했고, 돛은 배의 선수 쪽에 하나, 선미 쪽 2층의 선미루에 하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선내 거주 공간의 역할을 하는 선루는 컷을 것이며 그 외에는 선창을 주저 공간으로 이용했을 것이고, 배 위의 루에는 선승들과 귀족 등이 거주하고 일반인들은 선창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대 선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신라 배'는 단순히 신라시대에 사용된 배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 독특한 특성을 지닌 다른 배와 구분하는 고유명사로 불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진평왕 5년(583년)에는 항해 업무의 개혁을 시도했다는 기록이 있고, 문무왕 18년(678년)에 이르러서는 병부에 예속되어 있던 선박 제조 부서를 독립 운영했고, 이런 움직임들이 장보고 시대에 이르러 당나라의 선박 제조 기술과 융합돼 '신라 배'의 독특한 양식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무역 전초 기지로 삼고 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그가 거느린 항해사들의 뛰어난 항해술 때문이었다.

일본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의 기록을 보면 신라 배는 정남풍이 부는 경우를 제외하면 동남풍과 서남풍을 이용, 남쪽으로 항해하는 「역풍 항해」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역풍 항해는 지그재그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이때 배의 기울기와 키의 조절, 돛의 느슨한 정도를 능숙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배는 곧 전복해 버리기 때문에 뛰어난 항해술이 필요했다. 장보고의 항해사들은 지문 항법, 천문 항법, 수문 항법 등을 종합적으로 사용했는데, 지문 항법은 육상이나 섬의 모양과 목표물을 보고 항해하는 방법이고, 천문 항법은 해와 별자리 등 천체를 활용한다. 수문 항법은 물의 깊이나 색깔 등을 파악해 위치를 알아내는 항해술이다.

장보고 선단은 또한 돛을 적절히 이용하는 방법도 터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 항해술로 해류와 바람이 다른 한반도 남해와 서해, 남중국해 등을 하나의 항로로 엮었다.

1992년 완도 일대를 답사한 동서 교역사의 권위자인 휴 클라크 교수(미 얼시누스 대학)는 「지형과 해류 등을 잘 이용한 장보고는 항해술의 천재」라고 평가했다.

Story 3 장보고와 도자기 논쟁

장보고가 설치했던 청해진에서 배로 1시간 거리 안에는 현재의 강진군 대구면이 있는데, 이곳은 9세기부터 14세기까지 고려청자를 생산했던 곳으로 청자 가마터만 180곳 넘게 확인됐고, 현재 전국에서 발견된 청자 가마터의 400여 곳 중 절반 가까이가 이곳에 있는 셈이다.

이곳은 자기에 쓰일 물과 흙이 좋았으며 바닷물이 바로 앞까지 들어와 운송도 용이했다. 이런 생산지와 뱃길을 장보고가 개발, 운영했다.

자기 바닥에 둥그랗게 앞쪽으로 튀어 나온 부분을 '해무리굽'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장보고가 중국과 교역하면서 그 당시 중국의 자기술인 '웨이우요'기법을 도입해 만든 청자 기술법으로, 장보고는

단순히 유통만 하는 무역에 그치지 않고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자기를 생산해 수출한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과 일본의 일부 학자는 강진에서 만들어진 신라 도자기가 신라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전남 강진의 청자 도요지(가마 굽는 터)에서 수년 동안 현지 조사를 한 일본의 고고학자 요시오카 칸스케는 고려청자를 발생시킨 인물이 장보고라고 주장한다. 9세기 초 장보고의 활발한 해상 교역 활동 덕에 당의 도자기 기술이 유입됐고, 그가 직접 강진 지역에 자기 생산기지를 만들어 일본에 청자를 수출했다는 것이다.

현존하는 고려청자로는 이화여대에서 소장하고 있는 '순화4년명호'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이 항아리는 유래가 드물게, 항아리 굽안에 "순화사년계사태묘제일실향기장최길회조"라는 글이 음각되어 있어, 제작연대[순화4년인 성종 12년(993)]와 만든 사람(최길회), 사용처(왕실의 재실인 태조 왕건을 모시는 제1실에 쓰이는 제사 그릇을 장인 최길회가 만들었다)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미 9세기 통일신라 말기에 청자가 만들어졌고 이 청자가 고려청자의 기원일 것으로 보는 게 학계의 통설이다.

중국 푸톈산(普陀山, 보타산) 앞바다에 있는 신라초, 바다 사람들에게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이 바위를 피해 신라 상인들이 도착한 곳은 저장성(浙江省) Ningbo(寧波)항이었다. Ningbo는 한반도와 일본, 동남아, 그리고 이슬람 상인이 모여 번성했던 중국의 대표적인 무역항으로, 인근에는 당대 대표적인 도자기 생산지인 웨저우요가 있다. Ningbo는 9세기 해상 도자기 교역로의 중심이었고 지금도 중국의 대표적인 무역항으로, 도자기 무역항로 이른바 '세라믹 로드'의 개척자로서의 장보고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곳이다. 1,200년 전 장보고는 청해진과 이곳 Ningbo를 오가며 장사를 했고, Ningbo에서 동남아와 이슬람 상인들을 만나 거래를 했다. 장보고 선단은 중국의 저우산군도 앞바다에 '신라초'라는 이름을 남기고 Ningbo박물관에 '신라길'이라는 이름을 남길 만큼 동아시아 바다를 누비고 다녔다.

장보고 선단은 이곳에서 단순히 도자기를 수입해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에 초기 청자의 기술을 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홍덕왕 3년(828년)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김대립이 차씨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었다」고 기록했다. 이 해는 장보고가 청해진대사로 임명된 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상당수의 도자기가 찻잔인데, 이는 장보고의 교역 물품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장보고의 교역항과 차 재배지가 거의 일치하고, 장보고에 의해 차 문화와 재배 기술이 장보고의 활동 무대인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에 보급되었고 남해안 일대 역시 차를 재배하기 좋은 기후를 갖춘 곳이다.

장보고의 청해진은 오늘날의「글로벌 종합상사」의 본부였고 군(軍), 산(産), 상(商) 복합체였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남해안 일대의 해적을 소탕하고 해상 질서를 확립한 것은 군(軍)이고,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무역 활동을 한 것은 상(商)이며, 청해진 인근 지역에서 도자기를 비롯한 다양한 물품을 생산한 것은 산(産)이다.

오늘날의 현대나 삼성 등의 종합상사들이 갖추지 못한 군사력까지 가졌으니 장보고 선단은 오늘날의 종합상사보다 더 크고 강한 조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장보고는 '대사(大使)'라는 독특한 타이틀을 지녔는데, 이는 신라 시대에는 없는 관직으로 장보고 한 명만 사용했던 특수한 직명이다. 이런 '청해진대사' 장보고가 중국 땅에 자리 잡은 신라방과 신라촌의 대표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무역활동을 했다. 중국 적산의 법화원은 사찰이지만 동시에 중국 무역의 전진기지였으며 현지인들의 결집소였다. 장보고는 한반도(청해진) - 중국(적산 법화원) - 일본(하카다)을 잇는 동아시아 물류 네트워크를 이루어냈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며 동아시아 해상 무역을 주도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고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Story 4 중국에 있는 장보고

1,200년 전 한반도 남쪽에서 고달프게 살아야 했던 신라인들에게는 '당(唐) 드림'이 있었는데 마치 근, 현대의 아메리칸 드림과도 같은 것이다.

장보고는 가난한 어촌 집안에서 태어나 당드림을 실현한 인물이다. 사실 장보고는 우리나라보다는 중국과 일본에서 더 많이 알려진 인물로 당시 중국 현지에서 엄청난 갑부로 이름을 날렸다. 장보고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그가 세운 산둥반도에서 제일 큰 절인 법화원의 규모로 어느 정도 추정할 수는 있다. 이 법화원은 2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법당과 승려 30여 명을 수용하는 승방, 수십 명이 기거할 수 있는 객방 등이 있었고, 연간 500석의 곡식(米)을 수확했다고 한다. 또한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신라 왕실에 상당한 지원을 약속하는 흥덕왕과의 면담을 했을 정도로 막강한 재력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신라는 골품제의 엄격한 신분 사회로 천민 내지는 평민 출신인 장보고가 신라에서 뜻을 제대로 펼치기 어려워 당나라로 건너가 군인이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활을 잘 쏘다 해서 '궁복(弓福)', 궁파(弓巴)로 불린 장보고는 승승장구하여 30세 즈음에 오늘날의 연대장급에 해당되는 무녕군(武寧軍)의 '군중소장(軍中小將)'이 되어 1,0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렸다. 장보고는 싸움이 없을 때는 군의 살림살이를 맡으며 장사에 눈을 떴고, 군을 떠난 후에 당시 당나라에서 선박 제조 및 수리, 해운업, 목탄 제조 및 유통, 소금 생산 등에 종사했던 신라인들을 조직화하여 큰 상인으로 성장했다. 장보고는 모국인 신라와의 교역에서 다른 어떤 상인보다 유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무녕군 시절 지원군으로 온 신라인과 당나라군 사이에서 연락 장교를 하며 쌓은 인맥이 있었기 때문이다.

장보고는 상거래에 있어서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후에 상품을 받는 '신용거래방식'을 사용하여 신용을 쌓고 백제와 신라 귀족들이 선호하는 남해 박래품(해외의 진귀한 물품)과 당나라 물건을 적기에 공급해 큰 인기를 끌었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뒤에는 중국과 일본에 교역사절단을 파견하여 무역을 했는데, 당나라에는 '대당매물사', 일본에는 '회역사'라는 이름으로 사절단을 파견하여 단순히 상품 교역만 한 것이 아니라 선박 대여, 통역 제공, 사절단 안내 등의 역할도 해서 큰 돈을 벌었다.

장보고는 당시 일본과의 1회 교역액이 곡식 2만 6,000석 정도였는데, 현 시세로 따진다면 52억 정도의 금액에 해당되는 액수이다.

중국의 저장성 Ningbo 앞바다 저우산군도의 작은 섬 푸튀산 앞바다에는 길이 100여 미터쯤 되는 '신라초'라는 바위가 있다. 이는 장보고 선단이 얼마나 활발하게 당과 교역을 했는지를 알게 해주는데, 이 신라초는 바다 한 가운데에 놓여있어 그 바위를 피하지 못하고 수많은 신라 배들이 가라앉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푸튀산 앞바닷길은 해운의 요충지로 당시 대표적 무역항인 Ningbo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곳이었다.

신라인을 비롯한 한반도인의 왕래가 많았던 Ningbo시에는 '고려사관(高麗使館)'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곳에는 고려시대의 유물뿐 아니라 장보고 대사의 표준 영정과 신라 무역선 모형 등도 전시하고 있다.

Story 5 일본에 있는 장보고

일본 교토 사쿄우에 있는 작은 절 '적산선원'에는 '재물의 신'인「적산대명신(赤山大明神)」을 모시고 있는데, 이 적산대명신이 바로 장보고라는 게 학계의 의견이다. 이 절 뒤로는 작은 사당이 줄지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신라명신'이고 이 신라명신이 나중에 적산대명신으로 높여 불려졌다.

일본의 승려인 엔닌이 당나라에서 보낸 10년의 세월은 신라인 네트워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 했는데, 그 신라인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인물이 장보고였다. 그런 엔닌이 죽기 전 제자들에게 신라 명신을 모실 절을 건립하라는 유언을 남겼고, 제자들은 그가 죽은 지 24년 뒤인 888년에 신라명신을 위한 절을 세웠으니 그게 바로 '적산선원'이다.

일본 큐슈 북쪽 끝에 있는 후쿠오카라는 지명은 그 지명 이전에 훨씬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하카타로 불리우고 있다. 이 하카타는 지형상 한반도와의 무역이 성했던 곳으로 실제로 오랫동안 일본의 중심지였던 오사카와 교토 역시 대외 무역은 이곳 하카타를 통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카타는 일본 전체의 대외 무역 창구이자 세상으로 열린 일본의 창이기도 했다. 이 하카타에서 대외무역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옛 상인들의 영빈관인 고로칸(鴻臚館) 유적이 발굴 중이다. 이 지역은 현 프루야구단인 소프트뱅크의 홈구장을 건설하는 공사 과정에서 무려 3,000여 점의 유물이 발견 되었고, 이 때 신라와 고려산 도자기도 출품되었다. 아울러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인 기와, 중국산 청자와 백자 등이 발굴 되었고, 1,200년 전 한국, 일본, 중국은 물론 멀리 이슬람권까지 이어졌던 동아시아판 '대항해 시대'의 흔적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고로칸 유적 발굴은 장보고의 당시 활약상을 뒷받침해 주는 물적 증거이기도 한데, 장보고의 활약상을 꼼꼼하고 입체적으로 서술한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가 발견되면서 무역왕으로서의 장보고가 부각되었다.

장보고의 시대는 동아시아에서 사무역이 가장 성했던 시절이다. 청자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조업이 등장했고, 항해술도 크게 발전했다. 신라인들은 당과 일본에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고, 필요한 모든 것을 손에 쥔 장보고는 탁월한 전략으로 시장을 제패했다. 장보고 시대 일본 고로칸을 중심으로 한 신라와 일본의 교역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당한 규모로 금액도 엄청났다. 「속일본후기」와 같은 기록을 보면 장보고 선단의 물건이 인기가 높아 비싼 값에 사거나 예약금을 미리 내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거듭되는 교역을 통해 장보고는 큰 부를 쌓았고, 일본 귀족들은 큰 이권이 보장된 장보고와의 거래에 앞 다투어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장보고의 이름이 '부유하고 고귀하다'는 뜻의「張寶高」로 자리 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Story 6 아라비아에 비친 장보고

장보고가 활동하던 1,200여 년 전에 이집트는 당시 항해술로는 배를 타고 해안선을 따라 꼬박 1년 이상 넘게 걸리는 거리였다. 이런 이집트의 옛 고서에도 '쉴라(신라)'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9세기의 아랍 학자인 이븐 쿠르다드바(820~912)가 저술한 역사서인「도로와 왕국의 책」을 보면 "간수(중국의 항구 도시로 추정)의 맞은 편 중국 맨 끝에 산이 많고 왕들이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신라국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이슬람 역사에서 위대한 지리학자로 꼽히는 알 이드리시(1099~1166)의「천애황단 갈망자의 산책」에는 신라 지도와 신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신라를 섬으로 구성된 나라로 표시했고 매우 풍족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서술했다. 이런 기록들은 신라가 이슬람 상인과 오래 전부터 활발히 교역해 왔음을 증명해준다.

아랍의 여러 고서에는 신라가 금이 풍부한 나라라고 기록했는데, 이 금이 풍부하다는 표현은 단순히 금을 대량 생산했다는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지만 금속 공예나 연금술이 뛰어났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알 이드리시의「천애황단 갈망자의 산책」에는 신라를 섬으로 표현한 지도와 함께 '개도 금목걸이를 하는 나라'로 소개하며 그만큼 금이 풍부했다고 기술했다.

이렇게 아랍 서적들에서 아랍인들이 신라와 교역을 했거나 접촉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시대가 지날수록 신라에 대한 이슬람 문헌의 내용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어 초기에는 신라를 막연히 중국의 동쪽이나 바닷가로 표현하다가 나중에는 신라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삼국사기에는 색복(色服), 거기(車騎), 기용(器用), 옥사(屋舍)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외국에서 신라로 유입된 상품명들이다. 이들의 원산지와 용도, 수입 경로는 신라와 아랍 상인의 해상 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이외에도 아랍 지역으로부터 유황과 유리도 수입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고가의 고급 사치품들로 그동안 발견된 신라의 유물에서 종종 유리병이 출토되기도 하여 경주 황룡사탑지, 분황사석탑, 불국사 석가탑, 황복사 3층탑, 익산 5층 석탑 등에서 유리병이 출토 되었다.

이렇게 아랍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제품이 신라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장보고 선단의 해양 네트워크 덕분이었다. 신라 무역선단이 아랍 지역까지 갔다는 문헌의 기록은 없다. 다만 신라 무역선단은 당나라에서 이슬람 상인을 만나 거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의 무역선단은 다른 나라에서 산 물품을 아랍 지역 등에 되파는 중계무역도 활발히 했고, 청해진은 신라, 당, 일본 항로의 중심일 뿐 아니라 페르시아, 인도, 태국 등과 중국 동남부를 연결하는 남양 항로와 동북 항로의 연결 고리였다. 당시 장보고 선단은 바다의 실크로드를 통해 아랍 상인과 거래를 했는데, '바다의 실크로드'는 중국 광둥 지역에서 베트남의 하노이를 거쳐 수마트라의 팔렘방을 경유해 말라카해협을 돌파한 뒤 인도로 가는 길이었다. 인도에서는 다시 아라비아해를 건너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해 유프라테스강을 타고 바그다드까지 갔다. 장보고는 이런 중국 광둥 지역에서 끝났을 바다의 실크로드를 신라까지 연결시켰던 것이다.

Story 7 장보고 흔적 왜 지웠나

“조각배도 바다에 띄울 수 없다“

중국 명나라(1368~1644)를 세운 주원장은 왕조 수립 4년 뒤인 1371년에 해상 활동을 막는 '해금(海禁) 정책'을 발표했다. 이로써 송, 원나라 때 바다의 실크로드를 장악했던 중국의 해상시대는 막을 내렸다.

아직 확고한 국가 기반을 확립하지 못한 명나라 입장에서 바닷가 주민이 해상 군사 세력과 연결될 경우 정권이 위태로워질 것에 대비한 조치였다.

해금 정책이 강화되던 15세기 초 명나라 3대 황제였던 영락제가 환관 출신의 원정대장 '정화'에게 대규모 해상 원정을 감행토록 했는데, 정화는 총 7회에 걸쳐 대선단을 이끌고 동남아와 인도를 거쳐 아프리카 케냐까지 갔다. 그 규모는 항공모함격인 길이 122미터, 폭 52미터 크기의 보선 62척 등 총 317척을 동원한 대규모 원정대였다. 이는 당시 중국의 조선술과 항해술 등 기술력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이뿐이었다. 정화의 대항해는 영락제와 홍희제에 이어 선덕제가 즉위하면서 막을 내렸다.

1644년 청나라(1636~1912)가 들어서면서 또 다시 바다를 막았다. 청나라는 중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반청 활동에 부딪쳤는데, 특히 푸젠성의 샤먼에 거점을 둔 해상 반청 세력은 청나라에

커다란 위협이 됐고 이로 인한 조치로 해금령을 반포한 것이다. 이러한 해금 정책은 1912년 청나라가 무너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조선 초기 태종은 "사사로이 바다로 나가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명을 내렸다. 세종도 1426년 '사사로이 국경 근처에서 무역을 하거나 바다로 나간 자는 곤장 100대에 처한다'고 했다. 태종 때는 바다에 나아가 무역하는 것을 금했지만 세종 때는 아예 바다에 나가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사신과 상인의 교류를 육로로만 고집해 조선 600년 동안 한반도에 '바다'는 없었다. 이는 조선이 고려말 삼별초 세력에 호되게 당한 탓도 있지만 명의 '해금 정책' 영향이 컸다. 이러한 조선의 해금 정책은 해양력의 축소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섬과 바다, 연해지역을 왜구에게 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청해진(淸海鎭)의 '청해'는 바다를 맑게 한다는 뜻으로 당시 해양의 쓰레기인 해적 무리를 소탕해 해양을 국제적 평화 교류의 공간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남한은 국토 면적 1,000평방킬로미터당 해안선 길이가 116.5킬로미터이고 섬나라인 일본은 92킬로미터, 영국은 36킬로미터이다. 한국은 해양국가인 것이다.

Story 8 에필로그

국내외적으로 장보고에 대한 최초의 평가는『번천문집(樊川文集)』에 나와 있다. 장보고와 같은 시기에 살았던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 803~852)이 지은 책으로 장보고가 활약했던 시기에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기록서로는 가장 장보고를 잘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장보고를 "지혜가 뛰어나고 동방의 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의 수도승으로 당나라에 건너가 공부한 엔닌(圓仁)의 일기 형식의『입당구법 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는 당시 신라인의 활약상이 많이 들어 있는데, 엔닌이 당나라를 여행하면서 도움을 받은 14명의 무역상을 언급하고 그중 12명이 장보고가 포함된 신라인이었다. 엔닌의 이 일기는 근대에 들어 장보고의 이름을 서구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는데,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에드윈 라이

샤워 전 하버드 교수가 이를 번역해 1955년에 『엔닌의 당 여행기(Ennin's Travels in Tang China)』라는 책을 내면서부터다. 이 책에서 라이샤워는 장보고를 일컬어 '9세기 신라인들의 해상 활동의 중심축'이라고 평가했고 '당, 일본, 신라에 걸친 해상 상업 제국의 무역왕'이라고 추켜세웠다.

국내에서는 육당 최남선이 1929년 잡지『괴기(怪奇)』에서 "일천년 전 해상왕 신라 장보고"라는 제목으로 처음으로 장보고에 대해 재조명했다. 여기에서 "신라 해운의 영광을 표상하는 천고(千古)의 위인"으로 평가했고, 그는 장보고에 대해 '전 신라인의 해적(海賊) 노력을 집대성하여, 거기 일층(一層)의 광휘를 더해 놓은 자가 해(海)의 위인 우리의 장보고였다'라고 기술했다.

바다를 활용하면 한국은 '동북아 물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1,200년 전의 장보고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개혁 정신과 도전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참고 도서: [장보고 해양제국의 비밀]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10

해상왕 장보고 그는 누구인가?

1. 장보고의 등장 배경

* 8-9세기 동아시아 세계의 시대상황

- 8-9세기는 동아시아 역사상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살펴 볼때도 흥미롭고 특기할 만한 시기.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무너지고, 지방의 토호들이 각지에서 자신들의 실력을 쌓아가며 독자적 세력을 형성해 나가던 지방분권적 체제로 변화해 가던 시기.
- 당도 율령에 의한 기존의 통치체제가 무너지고 사회는 각 지방의 절도사 세력에 의해 주도되는 이른바 번진(藩鎮)체제가 성립
- 중앙정부에 반항하는 반당적(反唐的) 번진으로 바뀌어 당왕조와 대립하는 양상
- 농민들에게는 당왕조와 번진세력에게 이중으로 수탈당하는 생활고를 가져왔고, 9세기말에 이르면 황소의 난(黃巢의 亂, 875-884)이 일어났다.
- 신라는 8세기 말에 이르러 왕권은 진골귀족들의 도전을 받아 약화되고 진골귀족들이 연합하여 정국을 주도, 진골귀족들 간에 왕위쟁탈전이 일어나 중앙정부는 대혼란에 휩싸임.
- 지방에서는 각지의 호족들이 그들의 세력을 키워 나가고, 결국 889년(진성여왕 3년)전국에서 농민반란을 야기하였고, 지방 호족들의 반란으로 이어져
- 일본도 9세기에 와서는 국가권력의 상징인 천황의 권위는 추락하였으며, 이를 대신하여 귀족세력인 후지와라씨(藤原氏)에 의해 섭정정치가 이루어져
- 승평, 천경의 난을 통하여 각지의 토호들은 이른바 '무사'로 성장하면서 이후 일본에서 전개되는 봉건적 정치질서를 주도해 나가

* 당나라의 경제체제와 조공무역

- 농촌경제의 활력으로 특산물과 잉여생산물에 기반을 둔 상업농업이 발달은 도시의 발달을 가져왔으며, 실크로드를 통한 서역물자의 수송에 의존했던 수급기반의 한계를 타개하기 위하여 결국 해상실크로드를 통한 물자수송이라는 혁명적 대전환을 마련하기에 이르러
- 농업생산력의 발달은 농기구의 발달, 축력과 견인력의 등장 등으로 심경이 가능, 관개농기구 발달, 윤작체계가 고도화되어 이년 삼모작과 이모작이 보급, 시비법과 파종기술의 향상, 경작품종의 다양화와 신품종의 도입과 보급을 통해 특히 미곡 생산이 점차 확대

- 공식적으로 중국과 주변국간의 대외교역은 '조공(朝貢, 종속국이 종주국에 때를 맞추어 예물을 바치던 일. 또는 그 예물.)'을 통한 것이었으므로 해상을 통한 견사공헌(遣使貢獻)은 일종의 해상무역이며 사행선단(使行船團)은 무역선의 성격을 지닌 것
- 조공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게되자 중국의 주변국들은 중국에 조공사신을 더 많이 파견하려는 경향을 보여
- 조공을 통해 주변 국가는 중국의 선진문물을 수입하고 왕공, 귀족의 정치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경제적 이권의 독점을 유지하였고, 물화의 교환을 전제로 경제적 욕구 또한 만족되었으므로 조공무역은 발달.
- 농업경제의 발달과 상공업의 발전은 점차 조공무역 체제를 변화시켰으며, 상업의 발달은 점차 농촌으로 미치어 경제력의 향상과 연결, 경제력의 향상은 많은 소비재의 수요를 필요, 이런 상황에서 번진이 발호하자 당왕조를 지탱해왔던 조공무역은 쇠퇴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사무역이 발달하는 결과

* 8세기 공무역체제의 성립과 운영

- 발해의 건국을 계기로 당과 신라는 발해를 견제하면서 공조 체제를 강화해갔으며 730년대에는 급기야 국교를 완전히 정상화하였다. 발해는 고립과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본에 접근하여 양국간에 돈독한 우호관계를 성립.
- 이 상황 속에서도 일본과 신라는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불편한 관계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하면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미묘한 관계를 연출. 일본은 신라를 통해 적대관계에 있던 당과 신라의 선진물품을 공급받고자 했으며, 신라는 당의 물품을 일본에 중계하여 보급하거나 자국의 물품을 직접 공급하는 시장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
- '매신라물해(買新羅物解)'는 752년에 일본의 귀족들이 당시 신라사절들이 가지고 온 물품을 매입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매입할 물품과 수량, 그리고 물품들의 총가격을 기록하여 일본정부에 제출한 '신라물품의 매입허가를 신청한 문서'
- 이러한 대일 교역에는 왕실만이 아니라 진골귀족도 참여, 733년 이후 신라와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신라의 대일교역은 정지될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신라의 지배층에게는 상업적 손실이 가중. 일본은 신라와 공식적인 사절교환을 포기하고 다자이후를 창구로 한 양국의 교역관계만을 인정하는 형태로 신라물품을 받아들이게 함.
- 나·당간의 공무역은 견당사라 불리는 사절단에 의해 주도. 이를 통해 수입된 외래 물품들은 신라 귀족들에게 인기리에 팔려, 그 일부는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 일본에까지 재수출.

* 9세기 공무역의 쇠퇴와 사무역의 발달

- 동북아 삼국은 공통적으로 국가의 사적인 무역거래를 금지하고 국가가 통제하고 주도하는 공무역체제를 유지해 가려 함. 8세기 후반부터 율령체제의 붕괴조짐은 공무역을 후퇴시키고 그 대신 사무역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 옴.
- 당은 8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민간차원에서 사무역이 급속도로 번져 갔으며, 당 왕조가 더 이상 이를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무역에 대한 관리를 절도사에게 위임하는 조치를 취함.
- 이정기를 당조정이 '평로치청절도사 겸 해운압발해양번사'로 임명. 이정기는 고구려 유민으로서 평로치청절도사 후희일(이정기와 내외중간)을 몰아내고 스스로 번수의 지위에 오른 다음에 당 조정으로부터 이를 추인. 그는 해운과 신라·발해와의 외교를 관장하는 일을 위임받아. 이후 반당(反唐)의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해운의 요지들을 점령해 가면서 가장 강력한 번진으로 성장. 3대에 걸쳐 819년까지 55년 동안 산둥반도의 '소왕국'으로 군림하게 됨. 이는 산둥반도 연안에서 해운을 통해 급속히 성장해 가고 있던 사무역 종사자들의 경제적 후원위에서 가능했을 것.
- 당시는 육상 실크로드가 경색되면서 '남해로'를 통해서 사상(私商)들의 국제해상무역활동이 크게 고양되면서, 아라비아, 페르시아, 인도 상인들의 왕래가 빈번하였고, 이 해로의 연장으로 동북아시아 항로에서는 재당신라인들이 당과 신라와 일본을 연결하면서 국제 해상무역의 한 축을 담당.
- 공무역체제의 제약 속에서 진귀한 수입품(일본에서는 박래품(舶來品))에 대한 욕구에 목말라 있던 일본인들에게, 진귀한 박래품을 가득 싣고 수시로 방문해 오는 신라 상선들은 그야말로 흠모의 대상.
- 9세기에 들어 외래 사치품이 범람하여 신라와 일본에서는 법제에 규정된 엄격한 신분질서의 틀마저 붕괴되는 지경에 이름. 이런 사회 변동의 파장을 몰고 온 사무역의 주요 담당자가 바로 당과 신라와 일본에 흠어져 살고 있던 신라 상인들이었고, 이들을 조직·관리하고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 시킨 이물이 바로 해상왕 장보고.

* 중앙정치의 혼란과 유이민의 만연

- 장보고 등장 of 국내 배경: ①중앙정치의 혼란. 8세기 말경에 오면 진골귀족들의 도전을 받아 현저히 약화되고, 진골귀족들은 왕경을 중심으로 권력 다툼. 이 왕위쟁탈전은 점차 지방과 연계되면서 실패한 세력은 지방에 새로운 근거지를 형성하여 전국적으로 분권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 중앙에서의 분열과 대립은 지방에 대한 통제력의 약화를 낳아 지방에서는 장보고와

같은 독자적인 세력의 대두와 성장을 가능케하였고 아울러 하층민의 유망(流亡)과 민란을 야기.

②유이민의 만연. 중앙통제력이 약화된 반면 일반백성들에 대한 부역과 조세의 징수는 한층 과중되어 국가 권력과 일반백성들에 대한 부역과 조세에 대한 징수는 한층 과중되어 국가 권력과 일반 백성과의 마찰이 차츰 커져 가던 시기. 이 무렵 큰 기근이 자주 발생하여 지방 사회는 몹시 피폐. 자연재해와 그에 따른 기근현상, 정치적 혼란, 하층민에 대한 과중한 조세부담과 그에 대한 저항이 유이민 발생의 원인.

- 유이민이 이주해 간 지역은 심각한 무제를 초래. 걸인이나 약탈자의 모습, 해외로 진출하여 외국에 귀화, 몇 명 또는 수십명씩 무리를 이루고 무장을 하여 배를 타고 다니면서 약탈행위. 해적이나 침략자로 인식. 이 무렵 당나라에서는 신라 노비의 매매가 성행하였고, 해적들이 신라의 양민을 납포하여 노비로 파는 일이 빈번

*** 장보고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

- 장보고의 이름은 네가지

우리측 기록: 궁복(弓福) 또는 궁파(弓巴), 장보고(張保臯)

중국측 기록: 모두 장보고(張保臯).

일본측 기록: 장보고(張寶高)

- 신라에서는 관습상 평민은 성을 갖지 못했던 모습이고, 보고가 중국에 있을 때 궁복의 '궁'자와 비슷한 장씨라는 성을 갖게 된 것이고, 보고라는 이름은 '복'의 음을 그대로 따라 지은 것으로 추측. 일본측의 기록은 무역을 통해 거액의 이윤을 얻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여져.

*** 장보고의 출신지**

- '해도(海島)' 혹은 해안지방 출신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음. 문성왕의 차비(次妃)로 장보고의 딸을 맞이하려 할 때 조정의 신하들이 그가 해도인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
- 청해진을 완도에 두었다는 것은 그의 고향이었거나 연고지였을 가능성. 고향 후배인 정년이 뒷날 당나라에서 실직되어 굶주림과 추위에 허덕이고 있다가 고향에 돌아갈 결심을 하면서 '기한으로 죽는 것보다 싸워 죽는 편이 나운데 하물며 그것도 고향에서 죽으니 바랄 것이 없노라'면서 청해진으로 돌아오고 있는 점.

*** 당에서의 활동**

- 완도 혹은 그 인근에서 출생하여 유년기를 보내고 10세가량 어린 정년과 함께 풍운의 꿈을 안고 당으로 건너가 30세쯤 서주(徐州) 무령군(武寧軍) 소장(小將)에 올랐음. 무령군이라는 군단

명이 805년에 처음 생겼다고 하니 805년 전후 중국으로 건너간 후 828년에 다시 신라로 귀국. 9세기초 20여년간 활동.

- 무령군의 주요 임무는 당 조정에 반기를 든 평로치청의 번수 이사도(李師道)가 이끄는 평로군을 소탕하는데 선봉에 서는 일. 이 진압전에 참전하여 그 전공을 인정받아 소장직까지 승진한 것으로 보임.
- 이정기 일가의 번진 세력은 산동반도 일원의 15개주(州)를 영유하고 10만의 대군을 거느리는 최대의 번진으로 성장하여 당 왕조의 지배와 간섭을 배제하는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 당 왕조로부터 발해와 신라와의 해상 교역을 관장하는 '해운압신라발해양번사'의 업무를 위임받아 막대한 부를 축적.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재당 신라인들의 적극적인 후원도 이정기 일가의 권력 기반을 뒷받침.
- 이사도 세력의 진압전에 참전했던 장보고는, 재당 신라인의 저력을 발견하고 이를 확신하게 되면서, 이정기 일가가 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그 대안으로 그들의 경제적 권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갔을 것으로 추측.
- 무령군 소장의 경험에서 나온 군사전략가적 그의 송양은 해적 퇴치에 뛰어난 수완을 발휘, 두목(杜牧)이 칭찬했듯이 인의지심(仁義之心)과 명견(明見)의 통찰력을 겸비하여 재당신라인사회에서 대중적 인기와 신임을 받게 됨.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하고 당대 최고의 국제 해상무역가로 입신하게 됨.

*** 귀국과 청해진 설치**

- 귀국 동기는 노예무역. 청해진을 설치한 동기는 신라 근해에 출몰하여 신라인을 약매(掠賣)하는 노예무역선을 소탕하는데 있음. 무령군 근무 때 이미 신라 동포들이 해적선에 강제로 끌려와 도처에서 매매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의분을 느낌.
- 노예무역은 당 조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성행. '신라노(新羅奴)'는 중국 연안 지대 곳곳에서 매매되고 있어 신라에서는 당에 단속해 줄 것을 요청. 816년에 신라인을 노예로 삼는 행위에 대하여 금령을 내리기도. 하지만 근절되지는 않아
- 해적은 중국인들이 주축을 이루었겠지만 한반도 서남해 연안 지대나 혹은 도서지방에 기반을 둔 해상세력을 유념해야. 만성적인 식량기근으로 중국에 가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이들 이주희망자를 수송하던 변경의 군소해상세력들 중에 노비를 매매하는 경우도
- 장보고는 이들 군소해상세력을 자신의 통제아래 두는 한편 재당 신라인 사회와 유기적인 연계를 꾀함으로써, 나·당·일 삼국간의 무역을 장악해 보겠다는 원대한 포부가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

- 조정에 반항적인 변진군벌을 토멸한 뒤 당은 821년부터 변진병사의 수효를 점차적으로 삭감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 이 과정에서 장보고가 무령군을 떠났을 가능성.
- ‘삼국사기’에 의하면 828년 4월에 장보고가 중국에서 돌아와 흥덕왕을 알현하고 사졸(士卒) 1만 인으로써 완도에 설진(設鎭)했다. 여기서 어떻게 청해진에 1만이라는 적지 않은 병력과 청해진 설치를 쉽게 허락 받았느냐 하는 것.
- 1만명의 성격은 장보고가 신라 국왕으로부터 현지 완도의 주민 1만명을 규합할 수 있는 양해를 받아 내어 일종의 민군조직(民軍組織)으로써 청해진을 구성한 것은 아닐까?. 828년 4월 이전에 완도지방에 자신의 세력 기반을 구축한 뒤 인가 받은 것은 아닐까? 청해진이 국가의 공식 기구라기보다는 장보고의 사병집단적 성격을 농후하게 띠게 된 근본 이유도 이것.
- ‘청해진대사’는 신라의 골품제도 및 관등제도의 규정에 구애 받지 않는 일종의 예외적인 관직으로서, 어쩌면 중앙정부의 행정적 통제의 대상에서 벗어난 특수한 자격. 장보고는 중국에 있을 때 절도사를 가리키는 별칭으로 흔히 사용된 ‘대사’라는 명칭에 유념했을 가능성.

* 동북아시아 해상권 장악

-

남아의 기백은 동아시아를 아우르고 장보고

유채꽃 향기가 우리의 코를 자극하는 날 곰곰이 생각해 본다. 그 바람의 시작은 어딜까? 나는 감히 저 남쪽 끝 완도의 청산도라고 말하고 싶다. 그곳을 찾는 길에 우리는 뜻하지 않는 역사적 인물의 흔적을 만나게 된다. 지금의 눈으로 그 공간들을 바라보면 조그만 어촌의 끝에 붙어 있는 작은 섬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곳에는 예전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바로 장보고와 관련된 것이다. (송징과 관련한 부분이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장보고를 중심으로 이야기 한다).

10여년전 장보고의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 ‘해신’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드라마 세트장이 완도에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갔고 장보고란 인물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그의 위대함과 기록되지 않아 알 수 없는 그의 삶에 대해서 궁금증도 커졌다. 세상의 이치이긴 하지만 요사이 완도라는 이름과는 웰빙 먹거리인 전복이나 해산물, 슬로시티 청산도가 더 금방 연결되는 이미지가 되어 버린 듯 하다.

햇빛을 받은 물결이 은빛으로 간들거리며 부서지는 푸른 바다에 3개의 돛을 단 배 여러척이 바람을 타고 당당하게 미끄러지듯이 지난다. 그 배에는 보(寶)라는 글자가 쓰인 깃발이 힘차게 펄럭이고 있다. 뱃전에는 한 스님이 햇빛을 받으며 긴 명상에 빠진 듯 지긋이 눈을 감고 바람을 맞고 있다. 욕심을 끊어야 하는데 이미 그 경지를 넘은 것일까? 아님 아직도 그 한 자락을 다 떨치지 못한 것일까? 적산포를 출항한 배는 3일만에 신라의 산을 보았고, 4일에 웅주 앞바다를 지나, 그날밤 고의도에 정박, 적산포를 출발한지 5일만에 대마도에 도착했다.

이 배는 중국의 산둥성의 적산포를 출발해서 완도의 청해진을 거쳐 일본의 하카다를 향해 가는 배다. 천년 도 전의 바다에 한국,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이런 거대한 배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은 한중일 삼국의 무역 네트워크를 완전 장악한 최고의 무역가들이었으며 배를 다루는 기술자였다.

이 배를 움직이는 집단의 우두머리는 장보고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아 자세히 알기가 어렵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을 중심으로 장보고와 그가 살았던 당, 신라 등의 국제 관계와 교역 등을 살펴보자.

신라의 바닷가에 궁복이라 불리는 한 소년이 살았다. 이 소년은 언제 낳는지 어떻게 컸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고향이 어디인지도 잘 모른다. 성을 갖지 못한 이름으로 보아 그의 신분이 별로였음은 짐작이 간다. 그런 그 소년은 어느날 당나라로 건너간다. 어릴적부터 늘 함께 했던 정년이라는 친구와 같다.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짐작컨대 9세기 신라 사회가 많은 재앙과 빈곤에 시달려 보통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고 무거운 세금에 흥년이 들고, 도적들마저 활보해 사는 것에 대한 희망이 없던 차에 동아시아 최대 국가인 당나라에 소문을 듣고, 능력에 따라서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것에 중국으로 건너간 듯하다. 그 결정에는 바다를 보고 자란 진취성이 판단의 중요한 바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그가 당나라로 건너가 당의 군대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당나라는 안산의 난을 겪은 뒤로 각 지방의 토호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중앙의 권력이 흔들리자 중국의 해적들이 황해에 자주 나타나서 신라의 서남해안의 민간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 넘기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였다. 당에 신라인을 대상으로 노예 매매 행위를 금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노비화 금지령이란 법도 만들었지만 혼란한 당의 정세 속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 장보고는 어릴때부터 이런 소문을 들었고 당에 건너가서는 직접 그런 광경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의 이름 ‘궁복’ 혹은 ‘궁파’라는 의미는 ‘활보’, 즉 활을 잘 쏘는 사람이란 뜻이다. 힘이 세고 수영도 잘하고 기본적 무예에 능력을 가진 것과 관계가 깊어 보인다. 무령군(지금 중국 강소성 서주)의 절도사 휘하부대의 군중 소장(오늘날로 치면 연대장이나 대대장급)에 오르는데 이 또한 대단한 빠른 진급으로 능력의 출중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이때 정년도 함께 무령군에서 활동한다. 정년에 대한 어린 시절 기록도 역시 없다. 이런 빠른 승진과 산동성 일대의 고구려 유민이었던 이정기(고구려 유민 출신의 장군으로 안사(安史)의 난(亂) 이후 산동지역 일대를 장악한 변진의 평로치청의 절도사로 당나라 산둥반도 일대 15개 주를 다스렸으며 사후 이사도에 이르기까지 이정기 가문은 4대 60여 년 동안 이 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세력을 세습·유지하였다.) 세력을 물리치는데 공을 세우면서 산동성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들이 많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정기 세력을 물리치면서 그의 존재와 사람됨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재당 신라인들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의존이 커지게 된다.

이렇게 군인으로서 승승장구하던 그는 재당 신라인들의 생활 모습과 산동성의 지리적 특성, 그리고 당이 가진 문물 교류의 중요한 위치 등이 그의 새로운 인생 결단을 갖게 한다. 과감하게 군대를 떠나 신라로 돌아온다. 그리고 왕에게 청하여 1만의 군사를 얻어 청해진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의 직함은 ‘대사’다 그런데 신라에는 없는 관직이라는 점으로 통해 보면 그가 왕에게 청할 때 자신의 군사적 활동을 기본으로 청해진 설치를 설득한데서 중국의 ‘절도대사’에서 따온 특별 직책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서 그의 앞으로의 활동 모습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신라는 잦은 정쟁으로 통치가 불안하고 백성들의 삶은 어려웠다. 후에 장보고는 신라 왕실의 왕권계승 문제에 관여하게 된다. 당시 왕위 계승 문제를 살펴보면 흥덕왕은 헌덕왕의 동생으로 애장왕 5년에 시중에 임명되었다. 형인 김언승이 애장왕을 몰아내고 41대 헌덕왕이 되자 819년에 상대등에 임명되었다가 822년에 ‘부군(신라에 없던 직책으로 태자에 준하는 특별 자리로 짐작)’이 되면서 왕위 계승자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이후 헌덕왕이 죽자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후 흥덕왕이 죽자 왕위 계승전에 밀린 김우징이 청해진으로 몸을 피해 와서 의지했다. 김우징과 적대적이었던 김

명이 왕위를 찬탈하여 민애왕에 즉위하자 김우징은 장보고에 군대를 요청했다.

장보고는 정년에게 5천의 군사를 주어 경주로 가 민애왕 일파를 제거하고 김우징을 신무왕으로 즉위하게 하였다. 그런데 신무왕은 6개월 만에 죽고 문성왕이 즉위하는데 문성왕은 장보고의 딸을 차비(次妃)로 삼기로 약속했으나 장보고의 신분이 미천하다는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흥덕왕의 개혁정책들은 농민들을 보호해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근친 왕족들의 권력 투쟁이 심화되어 나라가 몹시 어지렀다. 이 과정에서 신라 귀족과 장보고 간의 갈등이 커지고 부하인 염장에게 암살당하고 만다.

염장은 장보고가 동원한 군사중 하나인 동평군의 장수였으며 신무왕의 즉위를 도와 별가(도독에 이은 2인자)로 임명된 후에 김양의 부하가 되었다. 장보고를 떠났던 염장은 문성왕에게 미움을 받아 몸을 피했다고 거짓을 꾸며내 다시 장보고에게 투항했는데 이는 암살을 위해 꾸민 계략이었다. 이렇게 것이 장보고 마지막이 되었다.

그가 중국으로 떠날때나 무령군의 소장으로 있을 때나 그의 활동 지역에는 삼국전쟁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도 있었고, 굶주림을 피하여 온 사람, 해적에 팔려온 사람, 무역상인, 유학생, 유학승, 군인, 선원, 농민 등 다수 분포하였다.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해적에게 끌려온 사람들을 억울함을 달래 주고, 정착해 사는 사람들을 모아 구심점을 만들어 자신의 활동 계획과 연결하였다. 중국의 동남해안을 따라 포구 곳곳에 신라 사람들의 마을이 만들어지고(신라촌), 그들의 신앙의 장소가 건설되고(법화원), 그들을 관리하는 관청이 생기고(신라소) 등등의 자치적 성격을 갖는 거점이 만들어지고 이를 활용한 무역이 이루어졌다.

지금이야 뽕 뚫린 아스팔트 도로가 지역간의 교류를 쉽게 하고 있지만 불과 100여년전만 해도 큰 길이라는 느낌이 많지 않아 겨우 소, 말이 끄는 달구지 지나가는 울퉁불퉁한 길로 많은 것을 이동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기에 바다는 고속도로였다. 이런 바다를 우리나라에 한정하지 않고 한, 중, 일 삼국을 아우르며 장악한 사람이 있었으니, 우리가 잘 아는 장보고다. 그가 완도의 장도라는 섬에 청해진이라는 군사 거점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무역과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키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의 흔적이 남아 있는 그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완도의 조그만 섬 장도로 떠나보자. 적어도 장보고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그의 고향이어서 이곳에 청해진을 건설했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바다를 잘 아는 섬 출신인 그가 당시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해양교류의 거점인 이곳의 지정학적 잇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한 곳이었다고 강하게 믿는다. 바닷길의 중요한 핵심처로 교류와 군사적 목적에서 부합했기 때문인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것이 그가 알고 있던 서남해의 한 곳에서 결정되었다고 판단해 주어야 그의 진면목을 알게 된다. 고향이어서 커다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굳이 선택해서 무엇하랴. 고향이어서 선택했다면 그의 엄청난 안목이 묻혀 버리고

만다. 여기에 자신의 고향이라는 의미가 함께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한다.

또 하나 장도에 이어지는 다리에 관한 논쟁이다. 아직까지 발굴한 결과 직접 연결한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바닷물이 빠질 때면 장좌리 마을에서 장도로 길이 열린다. 이 길은 섬과 마을을 이어주는 중요한 그리고 편리한 지점이긴 하지만 방어를 목적으로 하면 달라진다. 장도가 가진 의미가 청해진이라는 군사적 성격에 주목한다면, 오히려 이 길이 적에게도 청해진을 쉽게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다른 곳은 직접 공략하기 어려운 지형이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마을과 연결된 길의 편리성보다는 방어의 중요성을 먼저 생각해 추가로 더 방어 시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쪽에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이미 장보고 세력은 배를 잘 다루는데 물때와 상관없이 물자와 사람을 나르는 방법이 지척에 쉽게 있는데 꼭 그 방법을 사용했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다.

청해는 지역이름이 아니다. '바다를 맑게 한다'는 뜻이다. 그의 경험이 반영된 이름이다. 바다를 평안하게 해서 그가 이루고 싶은 세상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싶었던 것이다. 청해진의 설치는 공식적인 부분은 해적을 소탕하는 일이 포함되었지만 장보고에 대한 배려와 직함 수여가 관대한 것으로 보아 정치적 혼란과 재정적으로 어려운 왕실이 장보고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얻고자 한 의도가 있었을 개연성도 높다.

산동성의 적산법화원은 단순한 사찰의 성격을 넘어 장보고 세력의 중국무역의 핵심 기지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당 신라인의 결집소와 같은 곳이었다. 엔닌은 법화원에서 연간 500석의 곡식(米)을 수확했다고 했는데 이는 껍질을 벗긴 알곡의 양을 말한 것이어서 80만평 정도의 농장을 가졌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해마다 추석이 되면 일대 신라인들은 법화원에 모여 춤추고 노래하며 흥겹게 돌며 단합을 다졌다고 한다.

지금도 중국의 동쪽 해안을 따라 신라인들이 살았거나 장보고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 완도의 장좌리와 죽청리, 그리고 제주도에도 장보고와 연관시킬만한 유적과 유물이 남아 있다. 일본에도 단풍 명소로 재물신이 살고 있는 적산선원을 중심으로 장보고와 연결시킬만한 절과 신사가 있다. 특히 적산선원의 본존불이자 재물신인 '적산대명신'이 바로 장보고의 화신으로 매달 5일 적산대명신의 제일에 참배하면 사업이 잘된다고 믿는 일본인들이 많다고 한다.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당나라 시인 두목은 장보고를 '동쪽 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동서양의 문물이 교류되는 당의 사람이 신라의 사람을 이렇게 높게 평가했다는 사실에서 중국의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신라 사람들의 삶과 그를 조직하고 물자와 문화를 교류했던 모든 것을 아울렀던 인물이 바로 장보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의 배가 출토되지 않아 그 형태를 정확하게 밝힐 수 없지만 경북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목선과 완도 약산면 어두리에서 출토된 11세기 고려배, 그리고 일본과 중국

의 배와 문헌을 통해 신라시대 배를 추정하고 있다. 장보고무역선도 학자들의 고증을 거쳐 복원한 것이다. 복원된 장보고무역선은 침원저형(밑이 뾰족한형태)의 배로 큰바다로 나아가 파도를 헤치고 빠른 속도로 항해가 가능한 배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장보고만큼 세계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은 드물 것이다. 그는 한·중·일 3국의 정사(正史)에 기록된 유일한 인물이다. 미국의 동양학자로 주일대사를 지낸 라이샤워(Reischauer)는 자신의 저서인 『Ennin's Travels in Tang China』에서 장보고를 '해상상업제국의 무역왕'이라고 칭송하였다. 또한 장보고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일본 천태종의 제3대 좌주인 엔닌(圓仁)은 일기 형식으로 쓴 자신의 여행기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서 "장보고의 도움으로 당에서 무사히 구법활동을 마칠 수 있었다"고 기록하며 "장보고에게 은혜 입은 것은 마치 태산과 같으며, 그 은혜의 깊이는 형용할 바를 모른다"고 하였다. 나아가 그는 일본에 귀국한 뒤 제자들에게 "교토에 적산선원(赤山禪院)을 세우고 적산대명신(赤山大明神)을 모시라"고 유언을 하였는데, 부귀영화를 관장하는 재신(財神)으로 알려진 이 신은 장보고일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역사에서 패자는 말이 없다고 했던가?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넘어 신라 왕실의 주도권 다툼에 자신의 군사와 힘을 보여주었던 그는 부하 염장의 배신에 허무하게 장대한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쓰러져 갔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청해진의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벽골군(전라북도 김제)으로 옮겨 살아야 했다. 섬은 비워지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먼먼날 에 다시 섬에 들어온 사람들마저도 장보고는 금기어였다.

다시 황해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차이나로드가 만들어지고 있다. 장도의 청해진에 올라, 석도의 적산법화원에 올라 천년전 장보고의 기상을 새겨 보고 진정한 교류와 소통, 협력의 동아시아의 미래를 고민해 보자.

* 적산법화원

장보고가 문등현, 청녕향, 적산촌에 세운 사찰로, 일본 천태종 제3대 좌주인 엔닌(圓仁)이 지은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 그 실체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법화원은 당시 산동에서 규모가 제일 큰 불교사원이었다. 곧 적산법화원은 재당 신라인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곳이자 장보고 선단과 나당 간 왕래 사절단의 번영과 안전을 기원하는 신앙기도도량이었다. 엔닌에 의하면, 당나라에 구법하고서 귀국하려는 신라 승려는 물론 일본 승려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귀국한 뒤에도 적산법화원을 잊지 못해 일본 교토의 소야산에 적산의 이름으로 '적산선원(赤山禪院)'을 세웠다. 1972년에 터가 발견된 뒤 1989년에 다시 지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장보고가 세운 절임이 확인되었다.

* 장보고전기관

중국 석도진의 적산포(지금의 석도항)는 통일신라 시대에 신라와 당을 연결하는 중요한 항구 중 하나였다. 820년대 초반 장보고 대사가 이곳에 적산법화원을 건립하여 재당 신라인을 묶어주는 구심점으로 삼았다.

2007년 4월 27일에 개관한 장보고전기관은 해양진출과 무역으로 동아시아 번영을 이끈 장보고 대사의 이상과 위업을 기리기 위해 중국 영성사와 산동척산수산그룹이 적산풍경명승구 내에 건립한 시설이다. (재)한국해양재단에서는 전시물 등을 지원했다.

총 5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장보고의 소개, 당나라에 가서 무령군의 군중소장으로 활동하던 모습, 적산법화원을 세우고 재당 신라인을 결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엔니의 기록을 통한 장보고에 대한 평가, 청해진의 흥망성쇠, 한국과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장보고 관련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전기관 마당에는 장보고 동상이 서있는데 월전 장우성 화백이 장보고 대사 영정을 그렸는데 이를 기초로 제작한 청동 대형 동상을 약 8m에 6톤의 크기다.

* 장보고기념관과 장도

장보고 기념관은 청해진의 옛 터인 장보고의 고향 청해진 완도에 장보고대사의 업적을 기리고 해양개척 정신을 고취시키며 역사 문화의식을 함양 하는 전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8년 2월29일 개관하였다.

특히 전시실은 장보고대사의 흔적을 보고, 듣고, 만지는 체험형 입체 관람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흥미로운 관람이 가능하며, 장보고대사와 서남해안의중심지 청해진 완도를 이해하는

제1전시실은 장보고의 유적, 법화사지, 장도 청해진 유적, 문헌 속 장보고, 장보고대사의 인적, 지역적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제2전시실은 장보고와 해상실크로드, 장보고선단의 무역활동 등을 주제로 중국과 일본에서의 활동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중앙홀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의 배가 출토되지 않아 그 형태를 정확하게 밝힐 수 없지만 학자들의 고증을 거쳐 복원한 장보고무역선이 전시되어 있다. 또 1200년 전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동북아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장보고 대사의 무역활동을 실감나게 형상화한 목공예품도 전시되어 있다.

바로 인근에 청해진으로 알려져 있는 장도라는 섬이 있고 발굴하여 정비 복원되어 있어 가볍게 산책하면서 천년 전 청해진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 수업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드리는 글

- 장보고 관련 수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 수업지도안이 공유되는 것은 단기간에는 쉽게 보이지만 이 효과의 지속성과 일상 속에서 확장을 꾀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고민과 노력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 고 생각된다.
- 따라서 저의 이번 수업지도안의 구성은 이런 관점에서 주제를 통한 기본적인 수업안을 만들고, 실제로 교사와 학생이 읽고 지식과 이해의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몇 권의 책을 요약하거나 해당되는 내용을 워드 작업하여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에 대한 이해가 되면 보다 선생님들 생활하시는 학교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 장보고에 대한 내용의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공유된 수업 이외의 다른 수업을 고민하기가 혹시나 갖는 지식과 자료의 활용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 때문에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 제가 간략하게 제시한 수업안의 활동 내용도 선생님들의 이해와 편리의 정도에 따라 자유롭게 수정하고 보완하여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점이고, 그렇지 않으면 왜 이 주제에 이 말을 적었는지가 이해되지 않아 그냥 밀려버리는 자료가 된다.
- 같이 답사에 참여했던 여러 선생님들과 연락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이라도 보완되고 새롭게 시도한 수업 내용이 있으면 서로 협조하는 경험을 나누어야 한다.

장보고 답사 전 수업 활용 계획 지도안
전주 양현고등학교 이영기 선생님

참고자료

1. 장보고 선단과 동아시아 불교 문화 교류, 양은경 외
2. 장보고와 해상 실크로드, 김문경 외
3. 9세기 후반 신라인의 해상활동.
4. 장보고 자료집, 김문경 편저
5. 전라도지역 선종산문과 장보고 집단, 김수태 외.
6. 해상왕 장보고 유적 유물 도록, 김문경
7. 한국 해상세력의 형성과 변천, 강봉룡
8. 장보고 관련 유물 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최성락 외
9. 청해진에 대한 종합적 고찰, 윤근일 외.
10. 천년을 여는 미래인 해상왕 장보고, 최광식.(11을 보완한 책)
11. 해상왕 장보고 그는 누구인가?, 최광식 외.
12. 장보고, 강봉룡
13. 장보고 해양제국의 비밀, 중앙일보
14. 역사스페셜 중 장보고 관련 편
15. 장보고유적지 답사 안내자료집

장보고 답사 전 수업 활용 계획 지도안 (답사 전 제출용 지도안)

단원명	1) 1. 나를 이해하다 2) 1. 역사적 인물을 통한 자신의 꿈 찾기 3) 01 장보고의 꿈 실현 과정 알아보기	수업 시간	1	교과서 쪽수	교과 내용 재편집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적 인물 장보고를 찾아 정리하고 장보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장보고의 꿈 실현 과정을 단계 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수업 형태	강의, 모듈별 발표 수업	준비물	수업 지도안, ppt 자료(CD), 사료 자료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들어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업적을 이룬 역사적 인물들을 찾아 발표해 보도록 한다. ▶ 학습 내용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보고 관련 자료 모듈별 토의 자료 점검 및 모듈 원 간 자료 정리 시간 안내 및 발표 시 주의사항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적인 인물 중심으로 가지 않고 장보고의 행적과 이루어 낸 업적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자신의 꿈과 비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전개	본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 모듈 : 장보고의 태어난 배경과 중국의 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찾기 ▶ 제 2 모듈 : 중국에 들어간 배경과 군인이 된 배경 알아보기 ▶ 제 3 모듈 : 왜 절을 거점으로 무역을 시작했고 결과는 어떠했는지 알아보기 ▶ 제 4 모듈 : 신라로 돌아 온 이유와 장보고의 역할 알아보기 ▶ 제 5 모듈 : 장보고가 꿈 실현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생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진 역사적 상황에 맞게 생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한다. - 정리한 내용을 모듈 원들 간에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든다. - 모듈 조장은 정리된 내용을 발표하고 다른 조원들의 질문에 응답하며 부족한 내용은 조원들이 보충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다른 모듈에서 발표 주제에 대한 다른 견해 이야기하기 활동 안내 ▶ 각자 이 활동에서 장보고를 통해 배우고 느낀 내용 정리하기 ▶ 자신의 꿈과 관련지어 배우고 느낀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 보기 ▶ 정리한 내용을 발표해 공유하고 친구들의 꿈에 대한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기 활동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조건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 실현을 위해 자신의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특성을 간단하게 정리하게 한다. ▶ 장보고의 흥미 성격 가치관 적성을 상상해 말해보고 정리해 본다. ▶ 장보고의 고난 극복 과정과 자신의 생활 비교해 보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보고의 도전과 열정 어려움 극복 과정을 통해 오늘의 자신을 있게 한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행복한 삶과 꿈을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자신의 꿈에 비전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게 한다. 역사적인 인물이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자신의 생활을 비교하며 더 원대한 꿈을 간직할 수 있도록 생각을 확장시키도록 지도한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보고의 인물 성품과 도전 개척 정신 꿈을 향한 열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정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보고는 어떤 사람인가? - 장보고의 역할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 정리 ▶ 차시 수업 내용을 예고 과제(이순신 장군과 꿈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장보고 답사 후 수업 활용 사례 지도안(1)

단원명	1. 나를 이해하다 1. 역사적 인물을 통한 자신의 꿈 찾기 1) 장보고의 꿈 실현 과정 알아보기	수업 시간	2/1	교과서 쪽수	교과서 외 역사적 인물 장보고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적 인물 장보고 영상물 역사스페셜/ 역사 강사 최태성 온드림 스쿨 영상물을 시청한다.. 장보고의 꿈 실현 과정을 영상물을 시청하고 소감문을 작성한다. 				
수업 형태	영상물 시청(역사 스페셜 해상왕 장보고/최태성 강사의 온드림 스쿨 영상)	준비물	역사 스페셜 해상왕 장보고 최태성 역사 강사의 온드림 스쿨 영상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들어가기 ▶ 큰 업적을 이룬 역사적 인물 장보고에 대해 알아보자. ▶ 학습 내용 제시 - 장보고 관련 영상물 시청하기 활동		■ 역사적인 인물 중심으로 가지 않고 장보고의 행적과 이루어 낸 업적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자신의 꿈과 비교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전개	본시 학습 ▶ 시청하며 중시해서 보아야 할 점 ☞ 장보고의 태어난 배경과 중국의 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찾기에 중점을 두어 시청한다. ☞ 중국에 들어간 배경과 군인이 된 배경에 관심을 갖는다. ☞ 왜 적산법화원을 거점으로 무역을 시작했고 결과는 어떠 했는지에 중점을 두어 시청한다. ☞ 신라로 돌아 온 이유와 장보고의 역할에 관심을 갖고 시청 ☞ 장보고가 꿈 실현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생각하며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 ▶ 각자 역사 스페셜 장보고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소감문으로 작성한다. ▶ 자신의 꿈과 관련지어 배우고 느낀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 비전을 만들기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 소감문을 발표해 배운 바를 공유하고 친구들의 꿈에 대한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기 활동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조건 알아보기 ▶ 꿈 실현을 위해 자신의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특성을 간단하게 정리하게 한다. ▶ 장보고의 흥미 성격 가치관 적성을 상상해 말해보고 정리해 본다. ▶ 장보고의 고난 극복 과정과 자신의 생활 비교해 보기 활동		■ 장보고의 도전과 열정 어려움 극복 과정을 통해 오늘의 자신을 있게 한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 행복한 삶과 꿈을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자신의 꿈에 비전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게 한다. ■ 역사적인 인물이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자신의 생활을 비교하며 더 원대한 꿈을 간직할 수 있도록 생각을 확장시키도록 지도한다.		
정리	▶ 장보고의 인물 성품과 도전 개척 정신 꿈을 향한 열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정리한다. - 장보고는 어떤 사람인가? - 장보고의 역할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 정리 ▶ 차시 수업 내용을 예고 과제(장보고 활동 내용 분석)		■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장보고 답사 후 수업 활용 사례 지도안(2)

단원명	1. 나를 이해하다 1. 역사적 인물을 통한 자신의 꿈 찾기 1) 장보고의 꿈 실현 과정과 비전문 만들기	수업 시간	2/2	교과서 쪽수	역사적 인물 장보고 행적 찾기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적 인물 장보고를 찾아 정리하고 장보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장보고의 꿈 실현 과정을 단계 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장보고의 꿈 실현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 비전문을 만들 수 있다. 				
수업 형태	모둠별 탐구 및 개별 발표 수업	준비물	영상자료 및 전시 자료 인터넷 자료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들어가기 ▶ 어제 본 영상물에서 모둠별 알아보아야 할 주제 정하기 ▶ 어제 본 영상물과 자신의 진로 비전과 관련시켜 비전 선언문 구상하기		■ 역사적인 관점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꿈 실현 과정에 중점을 두어 주제를 정할 것 ■ 자신의 진로에 대한 비전을 생각하며 이 내용을 통해 도움 받을 내용 생각하기		
전개	본시 학습(모둠별 탐구 주제) ▶ 제 1 모둠 : 장보고의 종합적인 인물 특성 분석 ▶ 제 2 모둠 : 장보고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 및 꿈을 향한 도전에 대한 탐색 ▶ 제 3 모둠 : 장보고가 이룬 경제적 가치와 분배 ▶ 제 4 모둠 : 장보고가 활동한 이동 경로 탐색 ▶ 제 5 모둠 : 장보고의 역할과 동아시아의 무역 - 최소한 역사적 상황에 맞게 자료를 정리한다. 정리한 내용을 모둠 원들 간에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결과를 만든다. - 모둠 조장은 정리된 내용을 발표하고 다른 조원들의 질문에 응답하며 부족한 내용은 조원들이 보충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다른 모둠에서 발표 주제에 대한 다른 견해 이야기하기 활 안내 ▶ 각자 이 활동에서 장보고를 통해 배우고 느낀 내용 자신의 진로와 연관시켜 생각하기 ▶ 자신의 꿈과 관련지어 배우고 느낀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 비전을 만들기 ▶ 정리한 내용을 발표해 공유하고 친구들의 꿈에 대한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기 활동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조건 알아보기 ▶ 꿈 실현을 위해 자신의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특성을 간단하게 정리하게 한다. ▶ 장보고의 흥미 성격 가치관 적성을 상상해 말해보고 정리해 본다. ▶ 장보고의 고난 극복 과정과 자신의 생활 비교해 보기 활동		■ 장보고의 도전과 열정 어려움 극복 과정을 통해 오늘의 자신을 있게 한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 행복한 삶과 꿈을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자신의 꿈에 비전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게 한다. ■ 역사적인 인물이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자신의 생활을 비교하며 더 원대한 꿈을 간직할 수 있도록 생각을 확장시키도록 지도한다.		
정리	▶ 장보고의 인물 성품과 도전 개척 정신 꿈을 향한 열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정리한다. - 장보고는 어떤 사람인가? - 장보고의 역할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 정리		■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1. 장보고 답사 후 수업 활용을 위한 준비 자료

- 1) 영상 자료 : 역사 스페셜 영상물, 역사 강사 최태성 온드림 스쿨 꿈을 이룬 역사적 인물편
- 2) 사진 자료 : 답사 중 촬영한 사진
- 3) 강의 자료 : 답사 중 교수님 강의 자료(정리 내용)
- 4) 완도 청해진 역사 기념관 자료 :
- 4) 모둠 편성 : 5개 모둠으로 구성
- 5) 모둠 별 영상물을 보고 소감문 쓰기 및 논의해야 할 중심 내용 선정하기 활동
- 6) 자료 찾기 및 정리하기 활동
- 7) 각자 비전 선언문을 만들 수 있는 비전 선언문 양식 준비
- 7) 자료 발표 및 역할극을 통해 상상하며 활동 모둠별 상황극으로 재연해 보기

2. 수업 활동 기획

- 1) 주제 : 역사적 인물의 꿈 실현과정을 통해 나의 미래 비전 만들기
- 2) 제 1차시 : 역사 스페셜 영상물 감상(40분), 최태성 국사 강사 온드림 스쿨 장보고편(10분)
- 3) 제 2차시 소감문 쓰기 및 장보고 탐구활동 소재목 만들기 자표 찾기 활동
- 4) 제 3차시 발표 및 자신의 미래 비전문 만들기 활동

3. 모둠별 장보고 영상물 시청 시 중점을 두어 생각해 볼 점 안내

- 1) 장보고가 태어난 시대적 배경 및 신라와 당의 관계
- 2) 우리 역사를 잘 지키고 가꾸어야 하는 이유
- 3) 당에서 군인으로서 역할
- 4) 장보고가 왜 신라로 돌아 왔는가?
- 5) 꿈을 실현할 수 있었던 장보고의(종합적인 인물 특성 이해)
- 6) 장보고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 및 꿈을 향한 도전
- 7) 장보고가 이룬 업적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기 활동(경제적 가치 및 분배)
- 8) 장보고가 활동한 이동 경로 관심 갖기
- 9) 장보고의 역할과 동아시아의 무역에 대해 관심 갖기
- 10) 우리 역사 인식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 11) 글로벌화 된 세계 속의 한국을 가꾸어 가려면 다른 나라와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4. 장보고 수업을 통해 자신의 꿈(진로)과 관련시켜 각자 진로 비전 선언문 만들기

- 1) 각자 진로 비전 선언문 만들어 발표하기

주 제	역사 스페셜 해상 왕 장보고(소감문) 발표 자료	
제출일자	학년반번호	성 명
2018.09.10	2008	김이다

예전에 보았던 해신 드라마와 이번 이 역사 스페셜 장보고를 보고 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막연하게 장보고라는 분인 있었는데 드라마로 만들어져 재미있게 보면서도 재미 삼아 보는 드라마에 그쳤다면 이번 이 영상을 통해 꿈을 이룬 한 역사적인 인물로 다시 재조명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장보고는 청해진(현 완도) 출생으로 780년대 후반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그는 기골이 장대하였으며 활과 창을 잘 다루는 무인 기 질을 타고 났으며 그의 이름 장보고도 활을 잘 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것도 알게 되었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공복(弓福), 공파(弓巴)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인 '활바' 또는 '활보'라는 이름을 한자어로 표기하면서 유래된 이름이라는 사실을 영상물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장보고는 고향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신의 신분과 주어진 여건으로는 도저히 자신을 더 이상 꿈을 실현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나라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당나라로 가기로 마음 먹고 신라를 뜨게 되었다. 젊은 날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되며 무엇이든 성실하게 열심히 행동 하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장보고는 신라사회의 혼란과 모순을 보았으며, 골품제도 하에서는 신분상승의 한계를 느껴 당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어 꿈을 키우는 기회 땅 당(唐)으로 가게 되었다. 이때가 장보고 나이 20대 초 · 중반이었으며, 10세 아래인 정년과 함께 바다를 건넜 다. 당으로 건너간 장보고는 서주(徐州)의 무령군(武寧軍)이라는 군대에 들어가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워 30세(819년)에 병사 약 천여 명을 거느리는 군중소장(軍中小將)의 직위까지 올랐다는 내용을 읽으며 그 시대에 다른 나라에 진출해 꿈을 이룬 분이란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고 저 자신도 세계화된 이 시대에 유학을 통해 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하는 꿈을 가진 한 청년으로서 저 자신을 다신 생각하는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저의 진로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군 생활을 그만 두고 장보고는 산동반도 적산포에 적산 법화원을 세워 여러 활동을 하면서 재당 신라인사회에 영향을 주었다. 구법(求法)과 무역 등을 위해 신라에서 건너온 사람들은 이곳에서 숙식을 하며 일을 보았고, 재당 신라인과 함께 예불도 보고 정보도 교환하였다. 그야말로 법화원은 교민의 사랑방 기능을 하였다. 또한 항해 전 안전을 기원하는 기도의 장소이기도 하였다. 적산 법화원은 장보고의 젊은 날 피와 땀이 서린 곳이며, 당나라에 사는 신라사람들의 꿈과 희망의 중심지였다.

특히 일본 승려 엔닌은 이곳 법화원에 머물면서 장보고대사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귀국을 보살펴 달라고 탄원하기도 했다. 이 사실은 장보고의 국제적인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저도 미래 핵 융합 과학자로서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마음을 쏟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해적들은 당시 정국 불안으로 변방과 국경의 방비가 허술한 틈을 타서 신라 연안을 자주 약탈했다. 당나라에서 무령군소 장으로 근무하던 장보고는 이러한 신라노의 참상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후 신라로 돌아가 이들을 소탕하고 바닷길을 개척하리 라 결심하게 된다. 장보고는 당나라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그는 흥덕왕을 알현하고 군사 1만을 거느릴 수 있는 청해진을 설치하도록 허락 받았으며 대사(大使)로 임명되었다. 대사는 일종의 총독으로 청해진 지역의 자치권을 행사하는 우두머리였다. 청해진 설치의 표면적 이유는 신라 해안에 출몰해 재물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납치하여 당에 노비로 팔아넘기던 해적을 소탕하는 것이다. 실제로 장보고는 신라와 당 해상 교통로에 있는 해적을 말끔히 소탕하였다. 이와 함께 군소 해상세력 통합, 신라방에 있는 재당 신라인 연결, 해상 무역권 확보 등 짧은 시일 내에 조직적인 세력을 키워나갔다.

장보고는 군사 1만을 얻어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들을 소탕하였다. 이후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 한다는 신념으로 청해진본영을 중심으로 한민족의 기상을 떨치며 해양을 개척하였다. 장보고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장대한 해상항로를 개척 하였으며, 청해진을 본거지로 중국과 일본을 잇는 중계무역을 실시하고, 이슬람세계와도 교역한 아시아 최초의 민간기업인이자 세계적 무역 왕이 되었다. 중국과 일본에도 거점을 확보한 장보고선단과 청해진은 우리 역사상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한·중·일을 잇는 대외 해상무역활동의 본거지였다. 장보고선단은 중국 남부지역에 까지 진출하여 아라비아 상인들과도 교역해 이슬람 도자기, 유리제품 등을 신라와 일본에 공급하기도 하였다.

청해진 설치 후 동아시아 해상세계를 석권한 장보고는 신라 왕실의 왕위계승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839년 장보고는 경주로 군사 5천을 보내 김우징의 정적들을 격파하고 김우징이 왕위(신무왕)에 오르는데 일등공신이 되었다. 신무왕은 장보고를 '감의군사(感義軍使)로 삼고 식읍 2천호를 내렸다. 그의 아들 문성왕은 장보고를 진해장군(鎭海將軍)으로 삼고, 장복(진골 귀족의 관복)을 하사하고 그의 딸을 왕비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김양을 비롯한 경주 귀족들의 불안은 노골적인 적대 의식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섬 출신 지방인의 딸을 왕비로 삼을 수 없다는 명분아래 장보고를 제거하려는 모의를 시작했다. 마침내 김양은 한때 장보고의 부하였던 염장을 장보고에게 보냈다. 장보고는 돌아온 옛 부하 염장을 반갑게 맞으며 연회를 베풀었다. 그러나 연회가 무르익을 때 염장은 칼을 빼어 장보고를 살해하였다. 이때가 841년이였다.

저는 이번 역사 스페셜을 보기 전에 장보고에 대한 기록을 소상히 읽어 보며 세상을 바르게 보

고 바르게 생각하며 바르게 행동해야 큰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인물 장보고라는 분을 통해 저 자신을 다시 한 번 점검 했으며 미래 핵 융합 과학자로 인류에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즉 인공 태양을 연구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더욱 정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류 공동체를 위하여 제 한 몸 바칠 각오가 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미래 꿈을 향한 발 한 발 가렵니다.

-위 내용은 완도 청해진 장보고 기념관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제1 모듬 주 제	꿈을 실현시킨 장보고 인물 특성 종합적 이해(흥미 성격 가치관 가정환경)
모듬 발표자	김이다
구성원 성명	강0우 A, 김0혜 B, 강0진, 김이다 C, 김0원 D, 김0린 E 총 6명

▣ 장보고의 흥미 탐색 ▣

영상도 보셨고 소감록도 작성해 보았으니 장보고의 흥미 유형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유형(현실형 R, 탐구형 I, 예술형 A, 사회형 S, 리더십형 E, 관습형 C)중 어디에 해당할까? 각자의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A제 생각에는 활을 잘 다루고 군인으로서 역할을 잘 한 것으로 보아 현실형의 흥미 유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C 저도 A의견과 같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손재주가 많고 기구를 다루거나 만들거나 하는 것을 잘 하는 특징이 현실형 아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D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E 저는 리더십형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남을 잘 돕고 잘 이끌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아낼 수 있는 장보고의 군인생활에서 그런 점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인을 지휘해 해적도 소탕하고 리더십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B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무역을 하고 돈을 다룰 줄 안다는 것은 경제적 이지에 밝았다는 이야기인데 탐구적인 요소가 없이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내려 볼까요? 장보고의 흥미 유형은 세 가지 특성을 지닌 R E I형의 특성을 가졌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이의 없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 우리 모듬이 추정한 장보고의 흥미 유형은 세 유형의 특징을 보임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손재주가 좋고 기구를 잘 다루고 만들며 남을 잘 돕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매사에 치밀하고 객관적이며 계산도 잘하는 능력을 겸비한 성격이라 판단 됨.

☞ 장보고의 성격 유형은(MBTI) 검사 소견은 ISFJ 다수의 구성원이 추정함

책임감이 강하고 온정적이며 헌신적이다, 세부적이고 치밀성과 반복을 요하는 일을 끝까지 해 나가는 인내력이 높다. 이들이 가진 침착성과 인내력은 가정이나 집단에 안정성을 가져다 준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고려하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의 흐름에 민감하다. 일처리에 있어 현실감각을 가지고 실제적이고 조직적으로 이행한다.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기까지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꾸준히 밀고 나가는 형이다.

☞ 장보고의 가치관 추정

인정 많고 우정을 중시여기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자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임(우정, 봉사, 사랑, 정의, 책임, 성실, 애국, 공동체 중시)의 가치에 큰 의미를 둔 것으로 생각됨

☞ 장보고의 가정환경

신분이 낮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포부가 크고 정의감이 있으며 책임의식과 성실성을 겸비한 인품을 가졌기 때문에 꿈을 실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음

제2 모듬 주 제	세계화된 이 시대에 해상을 통해 우리 민족의 위상을 높이려면
모듬 발표자	김0연
구성원 성명	김0세, 김0예, 김0연, 김0늘, 김0숙 박0희 총 6명

▣ 기록물로 본 해상 무역 왕 장보고의 역할 ▣

1) 일본의 문헌기록

보배로운 높은 존재라고 기록되어 있고 일본사람들은 장보고(신라명신, 적산명신)를 사찰에 모시고 신격화하였는데 그를 부(재물)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후기(日本後記)] [속일본기(讀日本記)] 승려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등에 기록되어있다.

2) 중국의 문헌 기록

장보고가 살았던 당시 당나라의 유명한 문장가인 두목(杜牧:803~852)의[번천문집(繁川文集)] 권6 장보고 정년전(鄭年傳) 에 자세히 실려 있고, 중국 정사(正史)인 [신당서(新唐書)]에 두목의 기록을 인용해 장보고의 내용을 실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기록은 모두 장보고의 훌륭한 인품과 업적 등 좋은 평판을 남기고 있다.

▣ 훌륭한 역할을 통해 우리들이 가져할 해상에서의 역할 ▣

1) 미래 에너지를 바다에서

우리나라 먹거리와 에너지 문제를 바다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를 통해 과거에 해상을 통해 동아시아를 호령했기상을 본 받아 우리들의 해양의 중요성과 영토로서 바다를 지키고 보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하겠다.

2) 미래 해양 생물학자 꿈을 가진 영진이의 포부

저는 미래 해양 생물학자로서 생물 의사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해양생물들을 연구하는 일에 매진하기 위해 “해양 생태계 말해 줄까”라는 책을 읽으며 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화학 공부와 생물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미래 해양 생태학자로서 우리나라 해양 생물자원을 지키는 일에 몸을 담으렵니다.

3) 미래 바다 길을 달리는 항해사가 꿈인 민준이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에 입학해 바다 길을 달리는 항해사로서 우리나라 해상 물류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라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4)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바다 지킴이 활동 찾아 정리하기

- ☞ 아름다운 해변을 지키기 위한 환경보호 운동 참여
- ☞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 참가
- ☞ 독도 바로 알기 국사 국어 윤리 미술 음악 함께하는 프로젝트 융합 수업 참여하기
- ☞ 우리 바다의 중요성 바로 알기
- ☞ 해양 바다와 관련된 유적 유물 탐방하기
- ☞ 국토 대장정에 참여하기
- ☞ 강이나 바다에 놀러갈 땐 쓰레기나 깡통,유리병은 재활용을 위해 집으로 되가져온다
- ☞ 바닷가에서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1회용 접시나 컵은 가급적 쓰지 않는다.
- ☞ 바닷가에서 비닐봉지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 ☞ 낚시하러 갔을 땐 낚시 줄을 아무 곳이나 버리지 않는다.
- ☞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바다오염에 관심을 갖도록 정보를 알려준다.

제3 모듬 주 제	군인으로서 장보고의 역할과 신라로 돌아 온 이유
모듬 발표자	윤0민
구성원 성명	박0영, 박0세, 오0빈, 우0예, 유0승, 윤0민 총 6명

▣ 군인으로서 장보고 ▣

다른 나라에서 이방인이 무령군 소장 자리까지 가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되어 지는데 장보고가 이 지위까지 오를 수 있는 역할 들이 있었다면 어떤 역할 이 있었기에 당나라에서 서주(徐州)의 무령군(武寧軍)이라는 군대에 들어가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울 수 있었을까 생각하기

- 1) 강한 책임의식이 있었을 것이다.
- 2) 동료들 사랑하고 함께하고자 하며 용맹한 장수라 생각되어진다.
- 3) 공동체에서 남을 배려하고 수용하며 인정할 줄 아는 인품을 가졌을 것이다.
- 4) 남다른 신체적 조건과 자기관리가 잘 되었기 때문에 무술실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 5)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했을 것이다.
- 6)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고 인내하며 자신의 역할을 잘 했을 것 같다.
- 7) 남에게 미루지 않고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 8)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는 훌륭한 인품을 가졌을 것이다.
- 9) 경제적 관념이 좋고 돈을 한부로 쓰지 않으며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이었을 것이다.
- 10) 객관적이고 지혜로운 생각을 소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 11) 이러한 조건을 갖춘다면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 해적들의 양민 납치 ▣

- 1) 9세기 초 바다는 해적들의 많이 활동함
- 2) 신라인을 잡아 노예로 팔아넘김
- 3) 신라 연안을 자주 약탈함
- 4) 당시 해적에게 잡혀 노비로 팔리는 신라인을 가리키는 말이 신라노 었음
- 5) 당나라 무령군 소장으로 근무하던 장보고는 신라노의 참상을 목격 큰 충격을 받음
- 6) 이후 신라로 돌아가 이들을 소탕하고 바닷길을 개척하리라 결심하게 됨

▣ 흥덕왕 알현 해적 소탕 ▣

- 1) 장보고 당나라에서의 귀국
- 2) 흥덕왕 알현 군사 1만을 거느리고 청해진 설치 대사로 임명됨
- 3) 청해진 자치권을 행사하는 우두머리가 됨
- 4) 신라인을 약탈하고 노예로 잡아가는 해적을 소탕함
- 5) 신라와 당 해상 교통로에 있는 해적을 말끔히 소탕함
- 6) 신라방에 있는 재당 신라인 연결, 해상 무역권 확보

▣ 동아시아 해상무역 기지 청해진 ▣

- 1)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신념을 간직함
- 2) 한국과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장대한 해상항로를 개척함
- 3) 중국 일본 중계무역 이슬람세계와 교역한 아시아 최초 민간 기업이 세계적 무역 왕이 됨

제4 모듬 주 제	장보고가 활동한 동아시아의 무역 경로 찾아 지도에 표시하기
모듬 발표자	장0윤
구성원 성명	이0서, 임0미, 임0세, 장0희, 전0소 전0호 총 6명

▣ 장보고와 해상무역 ▣

통일 신라시대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외래 문물에 대한 욕구가 점차 강해지던 시기다. 관무역으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자 민간인들의 소규모 사무역이 시작되고 있던 이 때, 장보고는 세계를 무대로 초국적 민간자유무역을 발전 시켰다. 중국물건이 수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라나 일본의 무역품들도 활발하게 중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일본과의 무역도 활발했다. 일본 귀족들에게 공급된 여러가지 생활용품 중에는 신라에서 생산된 것을 거래하는 직접무역과 함께, 이슬람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에 들어온 것을 일본에 연결하는 중계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 적산법화원

820년대 초 장보고대사가 세운 사찰로 당시의 국제무역항이었던 중국 산둥성 영성시 석도진 적산에 위치하고 있다. 장보고 선단의 활동 중심지로 산둥성 일대에 살던 재당신라인들의 정신적 구심적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나라로 유학 온 신라와 일본 승려들의 안식처로, 또한 동북아 문화교류의 장이 되었다.

2) 양주

양자강 하류 양주는 대운하를 연결하는 요충지로 고대부터 국제무역의 중심지였다. 신라인을 비롯, 페르시아·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해상 실크로드'를 따라 항해하던 이슬람 상인들의 최종 기착지이기도 했다. 장보고 선단의 교역활동으로 해상 실크로드는 이곳에서 한반도와 일본으로 까지 연결되었다.

3) 영파

영파는 고대부터 중국의 중요한 국제중계 무역항으로 주변 산물이 대형 무역선에 실려 역과 한국·일본으로 수출되었는데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신안선도 바로 이곳에서 출발하여 일본으로 가던 배였다. 이 가운데 장보고 선단의 주요 교류 품목인 월주요청자(越州窯, 해무리굽자기)가 이곳에서 생산되어 수출되었는데 장보고대사에 의해 그 기술이 우리나라에 전수되어 훗날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높이는 밑거름이 돼 세계 최고 수준의 '비색청자(翡色淸姿)'로 발전하게 된다.

장보고한상(張保臯韓商)

○ 장보고한상(張保臯韓商)이란?
장보고 청해진 대사(-891)의 도전 및 개혁정신을 통해 개방화와 세계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재외신라인 디아스포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성공모형을 계승한 재외동포경제인(한상) 가운데 모국의 경제 및 문화 영토를 확장하는데 이바지한 경영인을 뜻한다.

○ 장보고한상(張保臯韓商) 어워드
장보고대사의 도전 및 개혁정신으로 계승한 한상(韓商)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주는 상으로 모국의 경제 및 문화영토 확장에 이바지 하는 등 재외동포들 가운데 공로가 가장 큰 한상을 '오늘의 장보고'로 여우해주는 최고의 명예로운 상이다.

시대적 배경 "당나라로 강제이주" "일본열도 기술전파" **자발적이주, 타의적이주

신라인 디아스포라 형성과정(7세기~9세기)

4) 하카타

하카타(후쿠오카)에는 장보고 선단이 무역을 하였던 유적지가 남아있다.다자이후는 고대 한국·중국과의 교섭을 관장하던 국가 기관으로 신라 사신이나 무역상들이 일본에 오면 가장 먼저 일을 보던 곳이다.홍려관은 다자이후에 속한 기관으로 상인들을 접대하거나 숙박을 하던 영빈관이다.

제5 모듬 주 제	장보고가 이룬 업적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기(경제적 가치 및 분배)
모듬 발표자	최0승
구성원 성명	조0아, 최0현, 최0승, 최0진, 최0란, 현0수 총 6명

▣ 장보고 선단의 문화교류 활동 ▣

중국과 일본에도 거점을 확보한 장보고선단과 청해진은 우리 역사상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한·중·일을 잇는 대외 해상무역활동의 본거지였다. 장보고선단은 중국 남부지역에 까지 진출하여 아라비아 상인들과도 교역해 이슬람 도자기, 유리제품 등을 신라와 일본에 공급하기도 하였다. 장보고와 해상실크로드, 장보고선단의 무역 활동 등을 중국과 일본에서의 활동이 우리의 미래비전을 제공해 주고 장보고의 해양개척 정신을 이어받아“21세기 신 해양시대를 여는 우리의 역할과 노력이 요구되는 때이다.

▣ 장보고 선단의 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현재 우리 외교적 역량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

◆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외교적인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찾아 정리해 보자?

1) 정치 외교적인 측면

- 지리적 위치로 교량적인 역할로 해양세력은 육지로 대륙세력은 해양으로 중요한 거점임
- 남북한이 모처럼 진지한 대화가 오가는 마당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외교적인 역량을 크게 발휘해 남북한의 평화 정착은 물론 통일의 초석을 마련해야 할 때임
-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세계 평화를 이끌어 낼 절호의 찬스를 잡고 있음
- 이럴 때 일수록 국내 정치의 안정과 국민의 안정적이고 건실한 삶의 자세가 요구됨
-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잘 대처해 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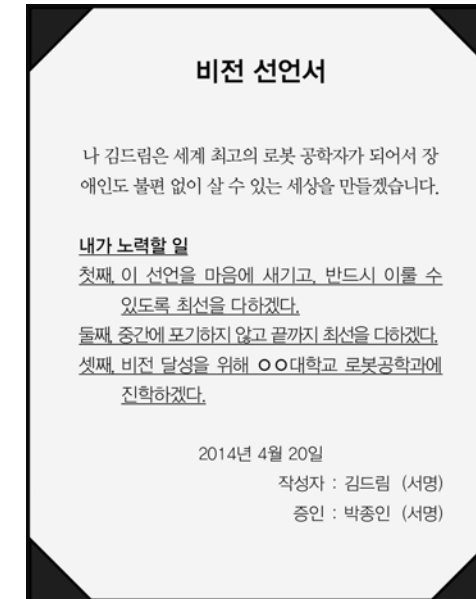
2) 경제적 측면

- 보호 무역주의를 표방하며 노골적으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있는 우리로서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때라 생각됨
- 세계 15위에서 13위를 오가는 경제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쳐 대기업 중심의 경제적 활동으로 위태로운 길을 가고 있다는 분석을 볼 수 있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적 역량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함

3) 우리 학생들이 가져야할 자세

- 각자 자신이 원하는 일에 목표를 갖고 스스로 찾아서 무엇인가 할 줄 아는 학생 된다.
-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생활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 더불어 함께 함의 소중함을 알고 나눔을 실천하고 협력하며 생활한다.
- 다양한 독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기르자
- 기초 질서 지키기를 생활화 한다.
- 이러한 활동이 생활된 공간에는 미래 발전과 희망 행복이 있는 사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앞에서 정리한 장보고의 꿈 실현 과정을 통해 나의 종합적인 특성과 20~30년 후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비전 선언서를 작성해 보자



비전 선언서

나 김0다는 나의 진로 목표인 핵융합 과학자가 되어 인공 태양을 완성해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여 화석 에너지 사용에 따른 기후 변화가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내가 노력할 일

첫째, 2020학년도에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 입학해 물리와 화학을 중심으로 핵융합 기초 과학에 대해 공부한다.

둘째, 2028년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초과학 석사와 핵융합 박사 과정을 마친다.

셋째, 학위를 마친 후 30년간 핵융합에 매진해 2058년 핵융합 발전 기술을 완성해 인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한다.

넷째, 마지막 묘비명에 “인류의 에너지 문제 해결사”라 적겠다.

2018 년 9 월 17 일

작성자 : 김 0 다 김0다(서명)

증 인 : 이 영 기 이영기(서명)

장보고 유적지 답사 수업 적용 계획 대구 제일중학교 전미옥 선생님

장보고 유적지 답사 수업 적용 계획

대구 제일중학교 전미옥 선생님

1. 들어가는 말

무더운 여름, 오래 기다렸던 장보고 중국유적지 답사를 다녀왔다. 유난스레 더운 여름날이었기에 통상 한국보다 더운 중국의 날씨가 오히려 견딜 만 하였다. 하물며, 몇 년을 기다려 얻게 된 유적 답사의 기회이기에 더운 날씨쯤은 답사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20여 년 전 중국과의 수교가 맺어진 지 2년 만에 다녀온 동북3성의 고구려 유적지 답사 이후 실로 오랜만의 중국 여행이었기에 모든 게 새로웠다. 그동안 G2 국가로의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룬 중국의 모습에 실로 이곳이 중국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한자로 적힌 간판만 아니면 고층 건물이 즐비한 서구의 어느 도시라 해도 믿을 정도였다.



역사 교사로서 한국사를 가르칠 때 직접 답사를 해 본 곳과 책으로만 봐 온 곳을 설명할 때의 전달의 강도가 다름을 늘 느껴왔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역사 유적지를 답사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실제 답사를 하고 거기에 담긴 우리 민족의 숨결을 느끼면서 체득한 역사적 사실과 지식을 학생들에게 더욱 의미있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는 내게 뜻하지 않은 소득을 안겨 주기도 했다. 바로 청·일 전쟁의 전적지 유공도 답사였다. 당연히 장보고와 관련된 유적지가 주된 답사지일 거라 생각했던 내게 동아시아에서 한·중·일의 정치적 판도를 바꾼 청·일 전쟁의 전적지 답사는 뜻밖의 가슴 벅찬 감동을 주는 곳이었다. 광대한 대륙의 규모만큼이나 큰 규모로 건립되어있는 '중국 갑오전쟁 박물관'은 자국 중심의 시각에서 전시가 되어있었지만 큼직한 조형물과 글자로 보는 눈이 시원하였고 전달하는 메시지가 분명하여 감동적이었다.



2. 수업 적용을 위하여

장보고 중국유적지 답사의 경험을 역사 수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이 되었다. 30년 동안 중학교 역사 교사로 재직하면서 올바른 역사의식과 민족적 자긍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구나 주변국들에 의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 민족으로서는 우리 민족이 세계로 뻗어간 일과 국제 관계 속에서 그 역할을 수행한 이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장보고와 같은 인물 학습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통일신라의 대외관계, 장보고와 청해진, 대당무역 등은 2학년 1학기 전반부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이미 여름방학 이전에 학습을 완료한 내용이었다. 2학기 개학이후 다시 장보고와 대당무역을 다루기에는 교육과정상 새삼스러운 부분이 있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단순히 통일신라의 장보고가 아니라 해상무역왕으로서의 장보고의 가치를 인식시키면서 나아가 해상교역의 중요성과 함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갈등을 다룸으로써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화해와 상생의 방법을 모색해 보기 위한 수업으로 구상해 보았다. 적산법화원 등 장보고 관련 유적지와 함께 고선박물관,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등 해양관련 참관지들의 사진으로 PPT를 구성하여 적극 활용하는 수업이 될 것이다.

가. 수업의 개요

- 수업 대상 : 중학교 3학년
- 시기 : 11월 말 (고입 내신성적 산출을 위한 기말고사 실시 이후)
- 단원 : 중학교 역사② Ⅲ.3. 화해와 통일의 길

주제	21세기 장보고 정신의 구현
단원	Ⅲ.3. 화해와 통일의 길

1차시	주제	장보고와 해상 무역
	성취기준	역9133. 통일 이후 신라의 대내외적 발전 양상과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해상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보고를 중심으로 한 해상 교역 활동의 내용을 파악한다.
	학습자료	활동지, PPT
2차시	주제	동아시아 속의 한국 - 협력과 상생
	성취기준	역9234.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주변 국가와의 역사 갈등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
	학습목표	동아시아 국가의 역사와 영토상의 갈등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과 협력, 상생의 방향을 모색한다.
	학습자료	활동지, PPT

주제	장보고와 해상 무역	차시
		1/2

생각 열기	해양 진출이 나라의 발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자.
	1. 세계에서 해양 국가로서 성장한 나라를 찾아 그 내용을 적어보자. 2. 많은 자원은 있으나 해양으로의 진출이 부진하여 발전의 정도가 낙후된 나라는 ?

읽기 자료	21세기 장보고 정신의 구현 ①
	<p>동과 서의 역사를 살펴보면, 바닷길이 열려 해상활동이 활발하였던 나라는 번성하였고, 반면에 그 길이 막혀 해상활동이 부진하였던 나라는 오래지 않아 멸망하였다. 3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장보고 이후 바다를 잇고 살아온 우리나라의 역사를 거슬러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아예 해양 경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고 하겠다. 그 결과 구한말 프랑스·미국·일본 등의 군함들이 수교와 통상을 강요하면서 강화도·평양·부산·목포 등지로 쳐들어오도록 허용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제일의 조선국(造船國)으로서 손꼽히는 해운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 겨레의 마음속 깊이 뿌리 박고 있는 '해양무역제국'의 혼이 꿈틀거린다. 지금이야말로 황해·동중국해·동해 등에서 눈부신 활약을 전개하던 장보고와 선인들의 빛나는 혼을 본받아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가 될 새로운 전기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8 해상왕 장보고 중국유적지 답사 자료집 중 발췌-</p>

현장 속으로	중국의 장보고 유적지		
			
중국 박물관에 있는 ()	중국 박물관에 있는 ()	당에 있었던 신라인의 마을 ()	
			
신라인을 위한 사무소 ()	장보고가 세운 신라원, ()	중국에 있는 () 동상	

통일 신라는 당, 일본 등 이웃 나라와 활발히 교류하였다. 그 중 당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여 외교 사절, 유학생, 승려, 상인 등이 빈번히 왕래하였다. 유학생 중에는 ①당의 빈공과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었다. ②당에 건너간 승려들은 수준 높은 불교를 배우고 돌아와 신라의 불교를 더욱 발전시켰다. 혜초는 당을 거쳐 인도까지 다녀와 ③“왕오천축국전”을 썼다.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④산둥 반도 일대에는 ⑤신라인의 집단 거주지인 (), 신라촌이 생겨났다. 또 감독관청인 신라소와 ⑥신라인을 위한 사찰인 신라원이 세워졌다.

일본과의 교류도 활발하여 신라의 불교와 유교 문화는 일본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⑦당항성과 울산항은 외국 상인이 자주 찾는 국제 무역항이었다. 이슬람 상인을 통해 신라는 동남아시아와 서역의 보석, 향료 등을 수입하였으며, 아라비아 세계에까지 신라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9세기 이후 당과 신라의 정치가 혼란해지자 무역로에는 해적이 들끓었다. 당에 건너가 군인으로 활약하던 ⑧장보고는 신라로 돌아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적을 소탕하였다. 그 뒤 장보고는 당과 신라, 일본을 잇는 해상 무역을 장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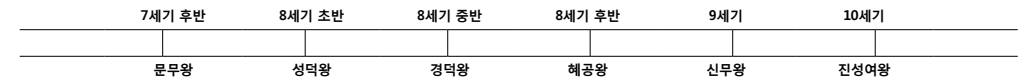
1. 밑줄 친 ①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2. 밑줄 친 ②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3. 밑줄 친 ③이 가지는 가치를 알아보자.
4. 다음 지도에 밑줄 친 ④의 위치를 표시 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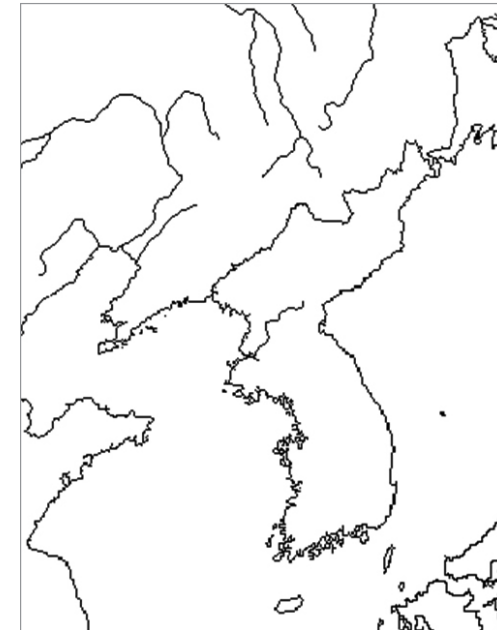
5. 밑줄 친 ⑤의 ()에 들어갈 용어는?
6. 밑줄 친 ⑥의 대표적인 곳을 써라.
7. 옆의 지도에 밑줄 친 ⑦의 위치를 표시해 보자.
8. 옆의 지도에 밑줄 친 ⑧의 장보고가 설치한 청해진의 위치를 표시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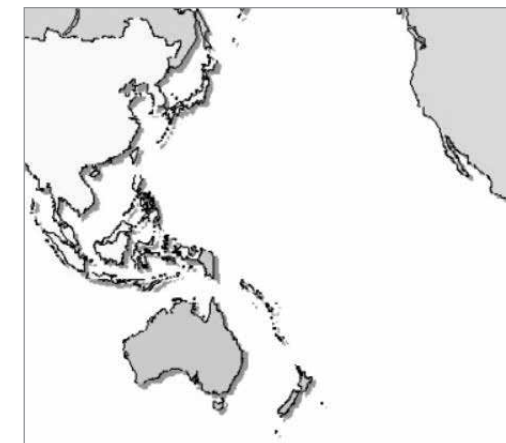
1. 장보고가 활약했던 시기를 연표에 표시해보자.



2. 장보고가 활약했던 당시의 신라와 당의 무역로를 표시해 보자.



3. 거꾸로 놓은 지도에서 청해진을 표시하고 그 곳을 거점으로 장보고가 진출한 지역을 표시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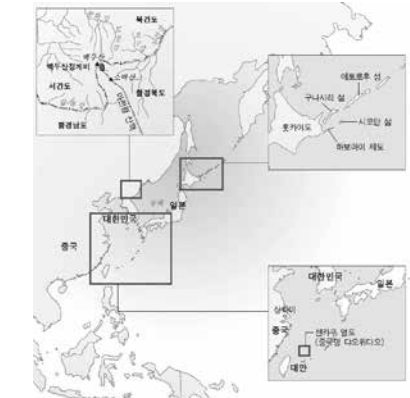
주제	동아시아 속의 한국 - 협력과 상생	차시
		2/2

생각 열기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
1.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적 갈등은 무엇인가?	
2.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적 갈등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읽기 자료	21세기 장보고 정신의 구현 ①
<p>최근 우리나라는 이데올로기적 데탕트 시대를 맞이하여 서해안 개발과 동북아 물류기지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궁극은 상해 포동 지구를 비롯한 발해만에서 광동에 이르는 황해권 및 동중국해의 개발계획을 착각 진행하여 21세기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이라는 큰 꿈의 실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장보고가 당시 청해진 완도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이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중심지가 될 날이 머지 않을 것 같다. 이로써 황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남해안을 사이에 두고 한·중·일 세 나라가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우리나라가 바야흐로 1,200년 전 장보고가 이미 구상하고 실천하였던 동양 평화 및 세계화 정신에 걸맞은 위대한 해상국가로 발돋움할 새로운 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될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8 해상왕 장보고 중국유적지 답사 자료집 중 발췌-</p> <p><small>*이데올로기 : 개인이나 사회 집단의 사상, 행동 따위를 이끄는 관념이나 신념의 체계 *데탕트 : 주로 국제간의 긴장이 완화되어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태</small></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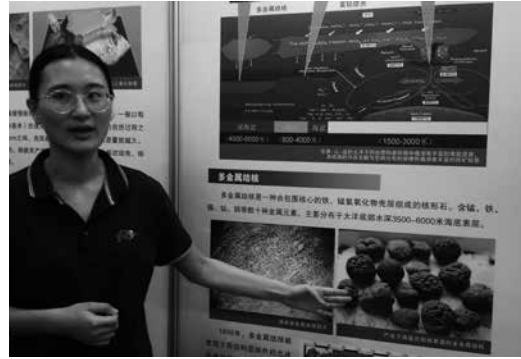
현장 속으로	청·일 전쟁에 대한 중국의 인식	
		
청·일 전쟁 박물관 전경	청·일 전쟁 당시에 사용한 무기	청·일 전쟁 당시에 사용한 어뢰
		
청·일 전쟁 당시 조선의 상황	청·일 전쟁에서 패배한 청군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장면

교과서 파헤치기	동북공정, 무엇이 문제인가? (중학교 역사 2, 동아출판, P98~99)
<p>중국은 2001년부터 동북공정이란 사업을 진행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옛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가 현재 자신들의 영토 안에 있다는 이유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에 포함하려 하고 있다.</p> <p>중국의 동북공정은 '중국 동북 지방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정책 연구 사업'이라는 뜻으로, 동북 지방의 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사업이다. 이는 중국이 한족(漢族)과 55개의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며, 현재의 중국 국경 안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라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이 논리에 의하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아닌 중국 소수 민족의 역사가 된다. 대표적인 역사 왜곡 내용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구려는 중국 중앙 정부에 예속된 지방 정권이다. •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권간의 내전이다. • 발해는 말갈족 출신인 대조영이 세운 국가이므로 고구려와 관계없고, 당에 예속된 지방 정권이다. <p>1. 위 자료에서 제시된 역사 왜곡 내용을 우리 입장에서 바르게 고쳐 써 보자.</p> <p>2. "현재 중국 영토 내의 역사는 모두 중국사이다."라는 주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해 보자.</p>	

한 걸음 더	동아시아의 영토 갈등
 <p>1. 위 지도의 영토 분쟁이 발생한 지역의 이름을 써 보자.</p> <p>2. 한국이 주변국과 겪고 있는 영토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발표해 보자.</p>	

3. 맺는 말

일본과 함께 가까우면서도 견제할 수 밖에 없는 이웃, 중국의 장보고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그들과의 갈등을 잘 해결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만이 상생하는 길이란 걸 느끼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를 직시함과 동시에 꾸준히 전개되고 있는 양국 협력의 모습도 학생들에게 알리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답사 일정 중에 참관하게 된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에서의 활동은 그런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과 중국이 같이 접하고 있는 황해에 대한 다각적인 공동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해양 산업에서의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양국의 협력이 실질적인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많은 해양 자원의 표본을 직접 관찰 할 수 있었던 “중국 해양 표본 저장소”의 관람은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 해양 관련 꿈을 키우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진로의 방향을 알려줄 수 도 있을 것이다.

장보고 답사 수업 적용 지도안
-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요
옥천 죽향초등학교 최옥영 선생님



교 과 명	국 어
단 원 명	4.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요 (7/10차시)
일 시	2018. 9. 20 (목)
장 소	2 - 3
대 상	2학년 17명
수 업 자	최옥영

I.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1. 들어가며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역사를 처음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역사학습에 대한 흥미 형성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더구나 **저학년 때는 개별적인 탐구이외 정규교과시간에는 역사교육을 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시도에 걱정이 앞섰다.**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장보고 중국 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어떤 수업을 구상할지 많은 생각을 했다. 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 2학년을 5년간 맡으면서 고학년에 대한 갈증이 있어 작년 새로 옮긴 학교에서는 6학년을 맡았다. 작년에 6학년 학생들과 여러 활동을 하던 중 많은 학생들이 역사에 관심이 많음을 느꼈다.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던 본인이 역사와 관련된 사회 수업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아직도 역사수업에 대한 갈증이 있던 차 올해 2학년을 맡으면서 저학년에 실행할 수 있는 역사수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학습의 흥미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인물학습**이다. 역사에 대한 관심은 평소에 호기심을 가졌던 인물이나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적 인물은 역사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온 주체이기 때문에 역사 교육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학습 대상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생들이 역사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 역사교육에서 인물학습에 관한 다양한 방법들이 알아보았다. 본 수업은 장보고라는 인물을 가지고 효과적인 인물학습 지도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내가 느낀 장보고를 아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교과, 수업을 구상하던 중 먼저 설문지를 이용하여 학급실태를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학생들은 수학이나 국어교과보다 통합이나 안전한 생활과목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읽기나 쓰기보다 듣기·말하기의 활동위주 수업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역사관련 수업을 어떻게 재미있고 **즐거운 수업이 되도록 할 것이며 어떻게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장보고'라는 역사적 인물에 초점을 두는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다.

II. 학습자 중심의 학생 실태 분석 및 수업전략

1. 일반적 실태 분석 및 지도 방향 설정

구분	내용
학급구성	남학생 8명, 여학생 9명 (총 17명)
구성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개성이 강하고 활발한 성격이며, 여학생들은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향을 보임. ▶ 학생 중 3명은 일기쓰기 등 글쓰기 활동을 선호하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시사점 및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므로 활동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여 수업 참여도를 더욱 높이도록 함. ▶ 관련 동영상 시청에 많은 관심을 보이므로 역사인식을 향상시키는 수업자료를 통하여 학생들의 역사인식 향상을 유도함. ▶ 쓰기 활동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호기심을 유발하는 학습으로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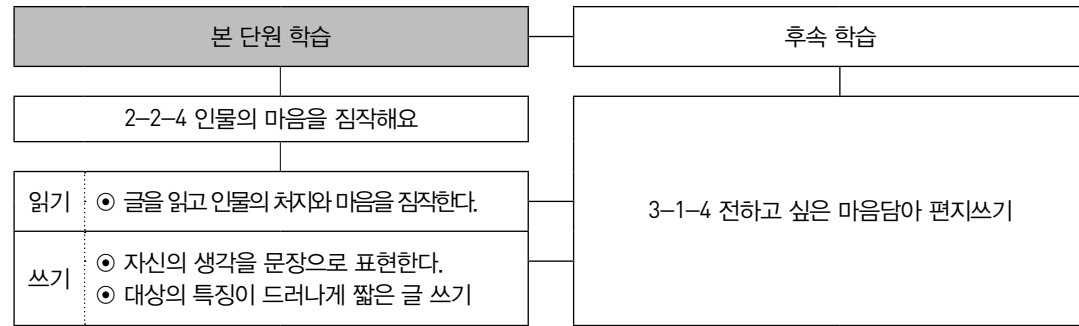
III. 단원 지도 계획

1. 단원 : 4.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요

2.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글을 읽고,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을 알고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고 공감해 인물에게 하고 싶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을 학습한다. **인물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물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해 공감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인물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인물의 마음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단원의 계열



4. 단원의 지도 계획

차시	학습 주제 및 활동	교과서
1~2	• 글에 나오는 인물의 마음 알기	국 어 (88~93쪽)
3~4	• 글에 나오는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 알기	국 어 (94~99쪽)
5~6	• 글을 읽고 인물의 마음 짐작하기	국 어 (100~105쪽)
7~8(본시)	• 글을 읽고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쓰기	국 어 (106~111쪽)
9~10	•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글쓰기	국 어 (112~117쪽)

5. 단원의 평가 계획

그림책을 읽고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때 그림과 글을 함께 고려해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지 평가한다. 글에 나오는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신의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표현하는지 평가한다.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글을 쓸 때 두세 개의 문장을 사용해 짧은 글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의해 평가한다.

6. 지도상 유의점

이 단원에서는 글을 읽고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때 그림도 고려해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것을 학습한다. 따라서 글만 있을 때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경우와 글과 그림이 함께 제공되는 그림책을 읽을 때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에 주의하며 지도한다. 그림으로 표현된 인물의 표정, 사건의 배경, 인물의 행동과 글로 나타난 인물의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을 연결해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과서에 제시된 작품 외에 다양한 작품을 찾아 읽고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7. 본시 주안점

이 차시의 목표는 ‘글을 읽고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고 공감해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것’이다.

IV. 본시 수업 계획

1. 본시 수업 전략

학습과정	활동내용	활동소개	활용 효과
반응 생성	【활동1】 인물찾기 퀴즈	• ‘궁금이 상자’ 속에 손을 넣어 종이를 집은 뒤 단어를 조합하여 인물을 알아 맞추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창의성을 자극시킴.	◆ 커다란 ‘궁금이 상자’로 시각효과를 주며 여러 가지 사고를 유도함. ◆ 학습주제가 놀이와 유사하며 매우 흥미롭게 느낄 것임.
반응 명료화	【활동2】 장보고의 생애 알아보기	• 실제 장보고의 생애를 동영상과 책으로 제시하여 실제 느낄 수 있는 학습이 가능하게 함.	◆ 장보고의 생애와 업적에서 배울 점 찾아보고 느끼는 활동으로 나라사랑 방법 배워봄.
반응 심화	【활동3】 장보고 만나보기	• 장보고에 대한 새로운 일화를 역할극으로 표현하게 함. • 다양한 활동지를 통하여 활동의 진정한 재미를 느끼게 함.	◆ 장보고의 생애와 업적과 관련된 역할극으로 성격이나 나라사랑의 마음을 느낄 것임. ◆ 개인 성향에 맞는 활동지 선택으로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함.

2.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

단원명	4.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요	일시	2018. 9. 20 (목)	교실	2학년 3반 교실
학습주제	• 글을 읽고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 쓰기				
학습목표	• 글을 읽고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쓸 수 있다.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반응 준비하기	전시 학습 상기	◎ 전시 학습 상기 • 전 시간에 배웠던 것을 기억해봅시다. 글을 읽고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전시 학습 확인 • 인물이 처한 상황을 확인하고 인물의 마음이 드러나는 표현을 살펴봐야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4'	<input type="checkbox"/>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 차시의 수업내용을 확인해본다. <input type="checkbox"/>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 동영상
	동기 유발	◎ 학습 동기 유발 ○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 부르기 • 어떤 이름이 기억에 남나요?	◆ 학습 동기 유발 ◇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 부르기 • ‘단군할아버지’입니다.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학습 문제 확인	◎ 학습 문제 알아보기 • 오늘 공부할 내용 알아보기	◆ 학습 문제 확인하기 • 오늘 공부할 내용 알아보기	1'	<input type="checkbox"/> 학습문제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학습활동 안내판
	학습 활동 안내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글을 써 봅시다. ◎ 학습 활동 안내 【활동1】인물찾기 퀴즈! 【활동2】장보고 알아보기 【활동3】장보고 만나보기			
반응 형성하기		◎ 학습 활동 하기 【활동1】인물찾기 퀴즈! • 궁금이 상자안의 종이를 집은 뒤 친구들에게 읽어준다. ex) 임진왜란, 거북선	◆ 학습 활동 하기 【활동1】인물찾기 퀴즈! • 골든벨판과 보드마카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특징을 듣고 문제 맞추기 정답 : 이순신	9'	<input type="checkbox"/> 궁금이상자, 골든벨판
반응 명료화하기	인물 알아보기	【활동2】장보고 알아보기 • 장보고의 동영상을 보고 장보고의 생애와 업적을 알아보십시오.	【활동2】장보고 알아보기 • 자신의 오감을 활용하여 동영상을 시청하기	10'	<input type="checkbox"/> 조용한 분위기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input type="checkbox"/> 다양한 활동지
	활동 방법 선택하기	• 자신이 선호하는 활동지를 선택하여 학습을 해 봅시다.	• 동영상을 시청한 뒤 자신이 선택한 활동지에 그림과 글로 적어보기		<input type="checkbox"/> 다양한 활동지
반응 심화하기	다양한 상황 알아보기	【활동3】장보고 만나보기 • 장보고를 더 잘 알고 싶다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 대본을 모둠별로 만들어 연습해볼까요? • 장보고 역할극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활동3】장보고 만나보기 • 다양한 학습활동 이야기하기 • 상황에 적합한 대본 만들어 보기 • 장보고, 정연, 신라 사람들, 당나라 상인 등 역할 정한 뒤 연습하기	10'	<input type="checkbox"/> 대본 활동지

단계	학습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정리 및 적용	정리 및 자기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운 내용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늘 배운 것을 생각하며 느낀 점에 대해 말해 봅시다.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확인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운 내용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라 사람들을 위해 편하게 살 수 있는 당나라를 떠나 다시 신라로 돌아온 것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인물의 마음을 공감하고 짐작하여 글을 써야 합니다. 확인문제 풀기 	5'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자</div> 확인 문제 동영상 자료
	차시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책을 통해 글 속의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3. 본시 평가 계획

평가 내용	구분	평가 기준	평가 방법
글을 읽고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쓰고 발표할 수 있는가?	잘함	글을 읽고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쓸 수 있으며 친구들 앞에서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다.	지필평가
	보통	글을 읽고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쓸 수 있다.	
	노력요함	글을 읽고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4. 본시 관련 활동지

만화로 나타내기	편지 쓰기	그림으로 나타내기

5. 본시 지도상의 유의점

- 가. 학생들에게 역사수업은 어려운 활동이다. 학생들이 경험의 폭이 넓지 않고, 배경지식의 양도 적어 내용 생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익숙한 자료나 인물 선정으로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나. 장보고의 생애와 업적을 동영상으로 시청할 때 다양한 감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시대적인 상황이나 배경 설명을 간단히 하여 이해가 용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다. 장보고에 대한 느낌을 기술할 때 정확성 보다는 전체적인 느낌과 나라를 위한 마음에 더욱 초점을 두어 느낌을 만드는 수업이 되도록 지도한다.

5. 본시 지도상의 유의점

- 가. 학생들에게 역사수업은 어려운 활동이다. 학생들이 경험의 폭이 넓지 않고, 배경지식의 양도 적어 내용 생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익숙한 자료나 인물 선정으로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나. 장보고의 생애와 업적을 동영상으로 시청할 때 다양한 감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시대적인 상황이나 배경 설명을 간단히 하여 이해가 용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다. 장보고에 대한 느낌을 기술할 때 정확성 보다는 전체적인 느낌과 나라를 위한 마음에 더욱 초점을 두어 느낌을 만드는 수업이 되도록 지도한다.

6. 수업사진 자료

동영상 시청	책 읽어주기	그림으로 나타내기
		

V. 기대효과

- 가. 하나의 인물을 충분한 시간 속에서 탐구해 나감으로써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 나. 학생들은 역할극을 실시하고, 인물의 행동에 대한 말하기 활동을 실시하면서 지식을 스스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 다. 한 인물을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역사적 사실을 찾아보고 탐구해보는 능력이 길러질 것이다.
- 라. 학생들 스스로 탐구활동을 통해 길러진 인물에 대한 존경심은 학생의 행동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2018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수업적용 사례집

인쇄일 2018년 12월 6일

발행일 2018년 12월 7일

발행인 이재완

발행처 한국해양재단 (02-741-5278)

디자인 및 인쇄 아름원 (02-2264-3334)

ISBN 978-89-93511-84-0

© 저자의 승인 없이 무단복제를 금합니다.